

용인시사총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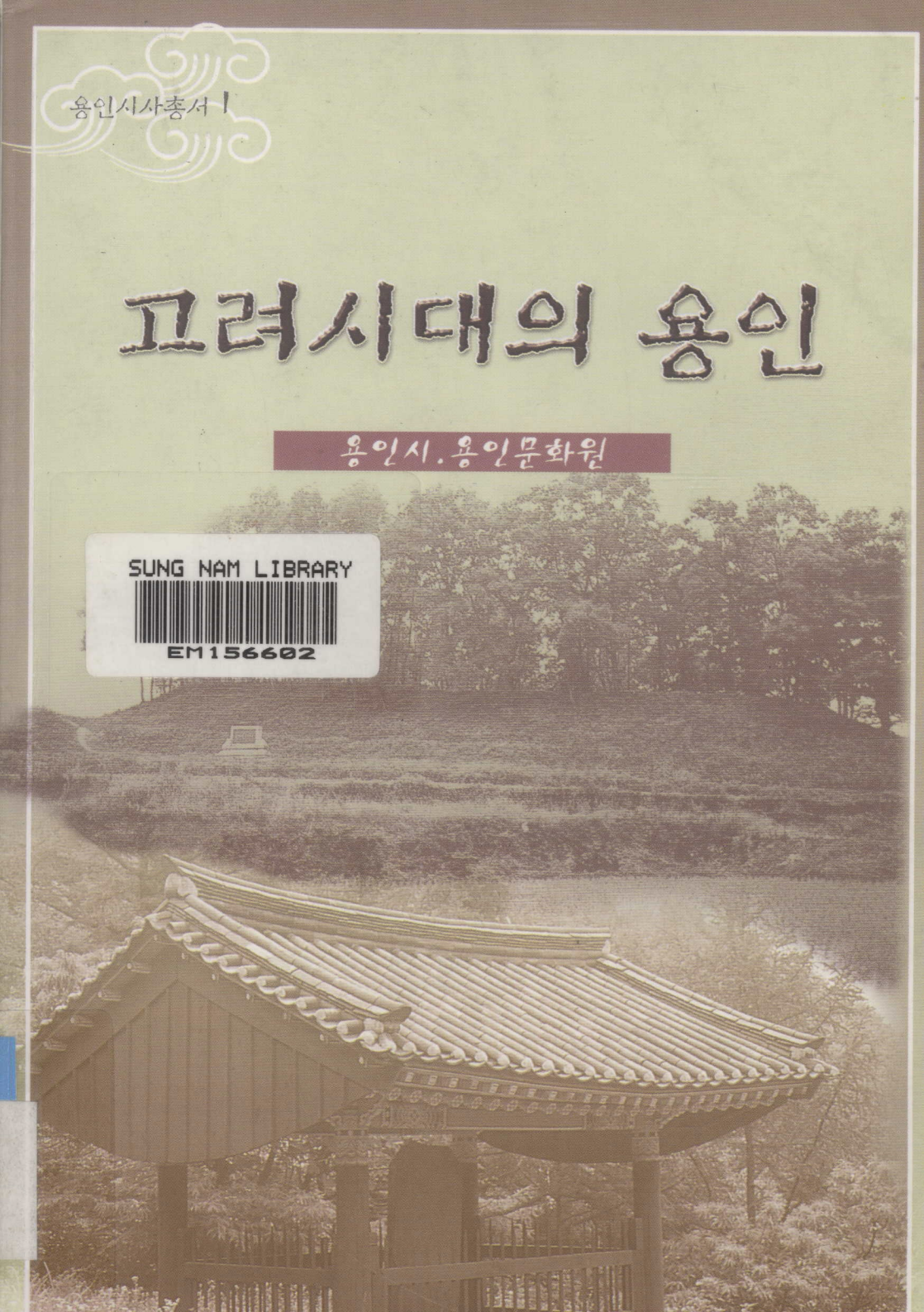
고려시대의 용인

용인시.용인문화원

SUNG NAM LIBRARY



EM156602



이도서는 ^{임대} ~~임대~~ ~~공인~~ ~~화인~~ 증
 하역 () () () ()
 고마음 () () () ()

고려시대의 용인

911.59	경기도립
용697	삼삼서
	관공서
	주공립고
156602	

책 머리에

최근 지방사 연구가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더불어 일종의 붐을 이루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는 아직 미흡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 원인으로서는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겠지만, 강단의 역사학자와 지방사회의 향토사학자들과의 교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일 것이다. 이에 용인시사편찬위원회에서는 이들의 학술적인 교류가 지방사 연구에 있어 선결되어야 할 과제로 여기고, 우선 용인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유적 중 대외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몇몇 유적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를 행하기로 하였다. 이 과정에서 부각된 것이 바로 ‘고려시대’이다.

「고려시대의 용인」이란 공통주제하에 학술토론회를 준비하게 된 것은 지난 97년 12월이었다. 처음 학술대회는 용인문화원에서 ‘처인성승첩’에 대한 행사의 일환으로 계획되었다. 그러나, 준비과정에서 ‘처인성승첩’은 한국사에서 중요한 역사적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연구성과가 그다지 많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처인성지’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연구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뿐만아니라 용인시에 소재한 많은 문화유적에 대한 기초적 연구 역시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사실 또한 알게 되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용인시 소재의 고려시대 유적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하기로 하고, 학술토론회의 연구대상을 확대하여 ‘처인성지’를 비롯해 ‘서리 고려백자요지’, ‘좌향리 고려고분군’, ‘서봉사 현오국사탑비’ 등 용인시에 소재한 고려시대 유적지 4곳에 대해 학술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그후 각 분야의 전문가로 사회자, 발표자, 토론자를 섭외하여, 98년 6월 26일과 27일 양일간 용인문예회관 다목적실에서 「고려시대의 용인」이란 공통주제하에 학술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첫째날은 ‘처인성 승첩’을 중심으로

소주제별 발표와 토론이 있었고 또 이를 총괄하는 의미에서 종합토론이 진행되었다. 둘째날은 ‘서리 고려백자요지’, ‘좌향리 고려고분군’, ‘서봉사 현오 국사탑비’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원래 계획으로는 둘째날 역시 첫째날과 마찬가지로 각 주제별 발표 및 토론 이후 종합토론이 준비되었으나, 참석자의 바쁜 일정으로 종합토론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면서 불가피하게 진행되지 못하였다.

학술토론회 이후 이를 정리하고 토론회에서 거둔 값진 연구성과를 학계에 알려 학문연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논문집을 간행하게 되었다. 이에 토론회에 참석하신 분들로부터 정리된 논문을 제출받는 한편 토론회에는 참석하지 않았으나 용인시 역사문화 유적에 대해 많은 연구성과를 내신 이인영 선생님께서도 논문을 부탁드려 함께 간행하게 되었다. 논문집을 간행함에 있어서는 관련 유적의 사진을 첨부하여 이해에 도움을 주도록 하였고, 논문집 뒷부분에는 지난 6월 26일 학술토론회 개최당시의 개최사와 축사에 이어 토론회에서 토론된 내용을 녹음한 후 이를 정리하여 함께 간행하였다.

논문집 간행에 즈음하여 편집자의 잘못으로 부실한 점이 있거나 않은지 우려되기도 하지만, 이를 계기로 부족하나마 용인시 역사연구에 기여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1998년 11월

용인시사편찬위원회

차 례

책 머리에

화 보

[1부]

처인성터의 구조와 성격 / 차 용 결 · 23

「처인성터의 구조와 성격」에 대한 토론요지 / 심 정 보 · 67

撒禮塔(Sartai)와 몽골-고려전쟁 / 주 채 혁 · 71

「撒禮塔(Sartai)와 몽골-고려전쟁」에 대한 토론요지 / 박 원 길 · 103

13세기 몽골軍服에 관한 研究 / 이 상 학 · 109

1232년 용인 처인성에서의 대몽승첩 / 윤 용 혁 · 161

「1232년 용인 처인성에서의 대몽승첩」에 대한 토론요지 / 이 익 주 · 183

보론 : 蒙古侵入과 處仁城 勝捷小考 / 이 인 영 · 189

【2부】

- 龍仁 西里 고려백자요지 발굴조사 내용 및 의의 / 김 재 열 · 209
 「龍仁 西里 고려백자요지 발굴조사 내용 및 의의」에 대한 토론요지 / 강 경 숙 · 237
 「용인 서리 고려백자요지 발굴조사 내용 및 의의」에 대한 토론요지 / 김 영 원 · 241
- 高麗時代 古墳에 대한 一考察 / 엄 의 성 · 245
 「고려시대 고분에 대한 일고찰」에 대한 토론요지 / 길 경 택 · 287
- 龍仁 瑞峰寺址 玄悟國師塔碑에 대한 考察 / 양 정 석 · 291
 「용인 서봉사지 현오국사탑비에 대한 고찰」에 대한 토론요지 / 이 병 욱 · 315

【3부】

- 개 회 사 · 323
 축 사 · 325
 종합토론 · 327



전경



처인성승첩기념비

서리 고려백자요지



가마유구 전경(앞에서)



가마유구 전경(뒤에서)



퇴적층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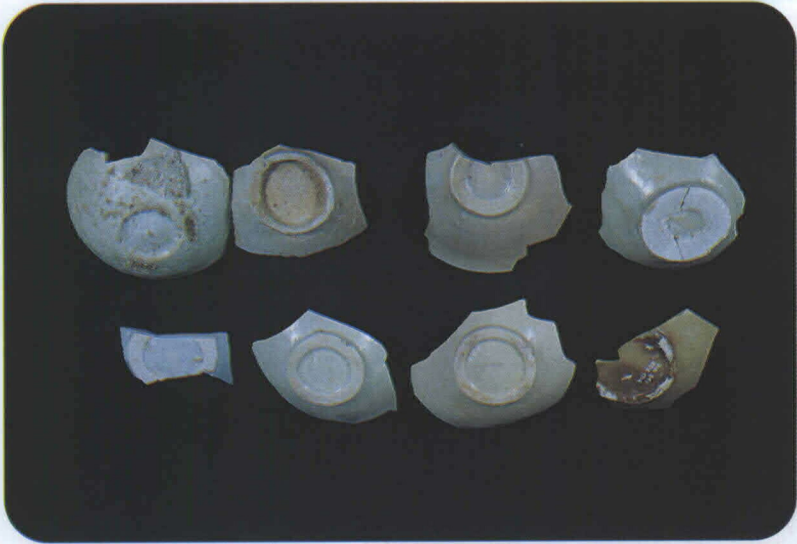
갑발로 쌓은 가마벽 모습



진흙가마 아래에서 나온 벽돌가마 모습



자기를 굽는데 사용된 갑발들



퇴적의 I~IV층에서 출토된 각종 자기의 굽모습



III층 출토 백자화형접시류



백자 해무리굽완



백자 철화문 편들

작항리 고분군



전경



전경



제1호 석곽묘



제2호 석곽묘



제2·3·4호 석곽묘



제8호 석곽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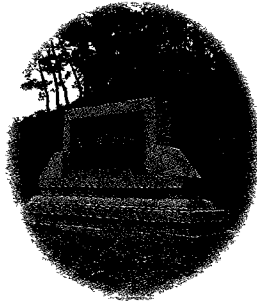


제8호 석곽묘 출토유물

.....현오국시탐비



전경



1부

처인성터의 구조와 성격 / 차 용 결

「처인성터의 구조와 성격」에 대한 토론요지 / 심 정 보

撒爾臺塔(Sartai)와 몽골-고려전쟁 / 주 채 혁

「撒爾臺塔(Sartai)와 몽골-고려전쟁」에 대한 토론요지 / 박 원 길

13세기 몽골軍服에 관한 研究 / 이 상 학

1232년 용인 처인성에서의 대몽승첩 / 윤 용 혁

「1232년 용인 처인성에서의 대몽승첩」에 대한 토론요지 / 이 익 주

보론 : 蒙古侵入과 處仁城 勝捷小考 / 이 인 영

처인성터의 구조와 성격

車 勇 杰 (충북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目 次

I. 처인성터에 대한 기록	1. 토기류
II. 처인성터의 위치와 주변환경	2. 기와류
III. 처인성터의 현상	V. 처인성터의 성격
1. 조사의 연혁	1. 기능상의 성격
2. 처인성터의 현존 상황	2. 출토 유물의 성격
IV. 처인성터 수습유물	3. 처인성의 특징 문제

오늘날 경기도 용인시 남사면 아곡 2리 산 43번지 일대에 소재한 처인성(處仁城)터에 대하여는 그간 면밀한 조사와 고찰이 진행되지 못한채, 고려(高麗) 고종(高宗)때에 몽고족의 침입과 관련한 승첩(勝捷)이 있었던 곳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우리는 고려때의 이 성이 무슨 이유로 축조되었으며, 또한 어떠한 형태와 구조로 되어 있었는가에 대하여 자세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한 상태이며, 더욱이 대부분의 경우 이민족(異民族)이 침입하여 오면 그에 대항하여 항쟁(抗爭)하였던 성터들이 거의 산성(山城)이 위주가 되었던 것이 보통이었음을 잘 알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서, 오직 이 처인성에서 승리를 거둔 이유와 그때 활약한 인물들에 대하여 자세한 정보를 알지 못하고, 그저 평면적 역사기술에 의존하여 이해하는 피상적 역사인식에 머물러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 대하여 이 방면의 공부를 하는 사람

의 하나로서 매우 부끄러움을 느낀다. 이번에 용인시에서 이러한 역사적 유적에 대하여 다시 조명하는 기회를 마련한 것은 우리 역사의 심층적 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해주는 것이라 여겨지므로 여간 반가운 바가 아니다.

I. 처인성터에 대한 기록

처인성에 대한 기록은 고려시대의 역사를 정리한 『고려사(高麗史)』와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① 『고려사』 권23 세가 23 고종 2 고종19년 12월

撒禮塔攻處仁城 有一僧避兵在城中 射殺之 答東眞書曰…至今年十二月十六日 水州屬邑處仁部曲之小城 方與對戰 射中魁帥撒禮塔殺之 俘虜亦多 餘衆潰散…

② 『고려사절요』 권16 고종19년 9월

三軍平忠州而還…○撒禮塔攻處仁城 有一僧避兵在城中 射殺撒禮塔 國家嘉其功 授上將軍 僧讓功于人曰 當戰時 吾無弓箭 豈敢虛受重賞 固辭不受 乃拜攝郎將 僧卽金允侯也

③ 『고려사』 권103 열전 16 김윤후

金允侯 高宗時人 嘗爲僧 住白峴院 蒙古兵至 允侯避亂于處仁城 蒙古元帥撒禮塔來攻城 允侯射殺之 王嘉其功 授上將軍 允侯讓功于人曰 當戰時 吾無弓箭 豈敢虛受重賞 固辭不受 乃改攝郎將 後爲忠州山城防護別監 蒙古兵來圍州城凡七十餘日 糧儲幾盡 允侯諭厲士卒曰 若能效力 無貴賤悉除官爵 爾無不信 遂取官奴簿籍焚之 又分與所獲牛馬 人皆效死赴敵 蒙古兵稍挫 遂不復南 以功拜監門衛上將軍 其餘有軍功者至官奴白丁亦賜爵有差 出爲東北面兵馬使 時

東北面已沒於蒙古 故不赴 官至守司空右僕射致仕

우리측의 사료가 이와 같은데 대하여 『원사(元史)』와 『신원사(新元史)』 및 『원고려기사(元高麗紀事)』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

- ① 『원사』 권2 본기 태종 4년 8월
撒禮塔 復征高麗 中矢卒
- ② 『원사』 권208 열전 95 외이 1 고려
(太宗)四年 八月 復遣撒禮塔領兵討之 至王京南 攻其處仁城 中流矢卒 別將鐵哥以軍還
- ③ 『신원사』 권4 본기4 태종 4년 12월
撒里塔攻高麗處仁城 中流矢卒 別將鐵哥引兵還
- ④ 『신원사』 권249 열전146 외국1 고려
(太宗四年) 是年 札刺赤兒台 攻處仁城 有一僧避兵城內 射殺之
- ⑤ 『원고려기사』
(太宗皇帝)四年壬辰 八月 降旨 復遣撒里塔火里赤 領兵討之 至王京南 處仁城攻擊 撒里塔火里赤 中流矢卒 別將鐵哥火里赤領兵回

이러한 기록으로 보아 처인성에서의 싸움은 서기 1232년 8월에 몽고 태종의 명령으로 침략이 단행되어, 그해 12월 16일에 전투가 있었음과 처인성은 수주(水州: 지금의 水原과 그 부근) 소속의 처인부곡(處仁部曲)에 있었던 소규모의 성임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비록 외교문서로서 과장된 표현이 있을 수 있었겠지만, 이 싸움에서 고려는 상당수의 몽고군을 포로로 획득하였다고 여겨진다.(사료 ①의 俘虜亦多 餘衆潰散) 처인부곡의 성이라면 그것은 처인부곡의 치소가 있는 읍성(邑城)의 성격을 가진 것이며, 동시에 당시 주변의 백성들이 이 작은 성으로 피난하여 여러 사람들이 성안에서 싸움에 참가하였다고 여겨진다. 김윤후는 이곳에 모여든 백성들로부터 신망

을 얻은 인물이며, 그의 신망은 그의 천성이 신분을 초월하여 백성들을 단결시킨 것에서 잘 나타나 있다.

조선시대에 이르러 처인성터에 대하여는 지리지에 기록되어 나타나 있다. 처인(處仁)이란 땅이름에 대하여 『세종실록(世宗實錄)』의 지리지에서는 고려 현종(顯宗) 9년에 이미 이러한 이름이 있었다고 하였을 뿐이나,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서는 고적(古跡)에서 처인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在縣南二十五里 土築 今盡頽廢 有軍倉 ○高麗高宗時 遷都江華 元帝怒 遣兵問狀 元帥撒歹繫御史雜端薛慎於軍中 到松京 將渡江南下 慎謂撒歹曰 國諺有之 異國大官渡南江者不吉 撒歹不聽 抵漢陽山城拔之 次至處仁城 爲流矢所中而死 元兵回到松京 謂慎有知識 遣入江華

이러한 기록은 처인성의 축조재료가 토축(土築)인 점과 조선왕조의 전기(前期)에는 이미 성벽이 많이 퇴락하여 폐하여졌으나, 군창(軍倉)이 있었음을 전하고, 감훈후에 대한 얘기보다는 설신(薛慎)에 대한 얘기가 전해왔음을 알려준다.

1842-1843년경의 『경기지(京畿誌)』에서는 처인성에 대하여

在縣二十五里 土築 今盡頽廢 有軍倉 今無 ○高麗高宗時…

라하여 처음으로 군창(軍倉)이 이미 없어졌음을 밝히고 있으며,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기록된 전고(典故)를 그대로 전제하고 있다.

처인성에 대한 기록은 1860년대의 『대동지지(大東地志)』에 있어서는 처인고성(處仁古城)이라하여 토축(土築)이고 둘레가 3리(里)라 하였음을 볼 수 있다. 이 기록은 무엇을 근거로 한 것인지 불명이지만 성의 규모가 3리라고 하였음을 주목할만하다.

1) 『世宗實錄』 卷 148 地理志 京畿 龍仁縣에서 處仁縣 本屬水原爲部曲 顯宗戊午 已有此名 本朝太祖丁丑 始置令 太宗癸巳 併二縣 號龍仁이라 하였다.

II. 처인성터의 위치와 주변환경

오늘날 처인성은 용인시 남사면 아곡 2리의 마을 입구 구릉상에 남아있다.[도면 1] 이곳은 북쪽이 “성들”이라 불리는 전답지대이고, 안쪽으로 아곡동 마을이 있다. 이 아곡동 마을은 서쪽과 동쪽에 낮은 구릉이 있으며, 북서쪽으로는 험준한 산맥이 가로막고 있다. 아곡동 마을의 북서쪽으로는 함봉산(咸峰山:해발 306m)에서 화성산(華成山:해발 171.4m)에 이르는 산줄기이고, 거기서 남향하여 여러개의 낮아지는 구릉이 뻗어 나와 있다.[도면 2] 이 여러개의 낮아진 구릉 가운데 하나가 처인성이 위치한 곳이고, 그 북쪽의 것이 “사장터”라 불리는 구릉으로, 이 두 구릉 사이의 거리는 직선으로 200m 쯤이다.

이곳을 중심으로 교통로를 살펴 보면, 남북 교통로의 한편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옛 교통로에 대하여 『청구도(靑丘圖)』에서는 용인에서 남으로 구흥역(駒興驛)을 지나 수유현(水踰峴)에서 길이 두갈래로 나뉘어 동쪽 길은 곧바로 안성(安城)으로 그려지고, 서쪽 길은 고치인현성(古處仁縣城)을 지나 양성(陽城)으로 이어져 있다.²⁾ 그러나 『여지도서(輿地圖書)』의 용인현 도로에서는

- ① 自官門東距陽智縣界 大路三十里
- ② 自官門南距陽城縣界 中路五十里
- ③ 自官門西南間距振威縣界 大路三十里
- ④ 自官門西北間距廣州府界 大路十五里

라고 하였고, 지도에는 수유현(水踰峴)에서 갈려 화곡산(花谷山)의 서쪽을 통과하는 길과, 보다 남하하여 화곡산(花谷山)의 동쪽에서 서향한 길이 처

2) 『靑邱圖』 乾 17層 13版

인창(處仁倉)에 이르기 전에 합쳐서 냇물의 북쪽으로 서남향하고 있는 길이 그려져 있다. 이러한 도로망은 현재로는 용인에서 남쪽의 무네미고개(水踰峴)를 넘어 용인시 동면 천리(泉里)에 이르러 서남향하는 길과, 더욱 남하하여 덕성리(德城里)에서 달봉산(達峰山)의 북쪽으로 넘어 완장리(完庄里) 상등으로 넘거나, 화산리(華山里)와 송전리(松田里)에 이르러 “안어고개”를 넘어 서쪽의 창리(倉里)로 넘는 길을 표시한 것이라 여겨진다. 결국 진위천(振威川)을 따라 내려오는 길과 진위천의 서쪽 지류인 완장천을 따르는 직로(直路)의 차이가 있다.

결국 처인성은 용인에서 진위(振威)나 양성(陽城)에 이르는 직로(直路)에 있었으며, 이 길은 대로(大路)와 중로(中路)로 이용되는 남북의 요충에서 수원(水原)-오산(烏山)-안성(安城)으로 통하는 동서로 연결되는 길과의 교차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III. 처인성터의 현상

1. 조사의 연혁

처인성터로 전해오는 오늘날의 아곡리에 위치한 토축의 성에 대하여는 그동안 다음과 같은 조사기록이 있다.

①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朝鮮寶物古蹟調查資料)』에서는 남사면(南四面) 아곡리(衙谷里)에 있으며, 처인현의 폐지(廢址)라 한다고 하고, 토축(土築)으로 높이가 1간반(一間半) 내지 2간(二間), 둘레가 약 240간(間)이며, 곳곳이 붕괴되었다고 하였다. 이 기록은 비고에서 1917년에 토목국으로 도면을 인계하였다고 한다.

이 조사기록은 처인성의 규모를 성벽의 높이가 2.7-3.6m의 토루이고, 둘

래가 432m에 가깝다는 것이다.

② 『전국유적목록』에서는 길이 800m의 토성이라 하였다.

③ 『문화유적총람』에서는 성내면적이 약 3,000평이고, 둘레가 400m, 높이 3-5m의 토축이 남아 있고, 김윤후가 살리타이를 사살한 곳은 사장(死將)터라고 전해지고 있다고 하였다.

④ 『경기도백제문화유적』에서는 현상을 가장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다. 아곡동 마을로 들어가는 길 입구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음과, 해발 72.7m의 兄弟峯의 한 지류의 구릉상에 만들어진 平地域으로 梯形的 토축성이고, 현재는 360m의 둘레인 점에 이어서,

“城周는 350.69m로 사다리꼴에 가까운 형태를 하고 있는데 주변보다 약간 높은 지형을 이용하여 쌓았기 때문에 보인다. 土壘는 削土와 版築을 병행하여 만든 것으로 보이지만 확실한 것은 알 수 없다. 城壁의 높이는 475-630cm에 이르는데 지형적으로 西쪽이 동쪽보다 265cm가량 높아 성벽도 그에 비례하여 서쪽이 동쪽보다 높다. 城壁의 內部는 段이 저있고 그 폭은 2m이다.

門址는 東쪽에 한곳이 있는데 그幅은 아래쪽은 70cm 위쪽은 1093cm로 원래의 상태에서 많이 무너져 내렸다. 城內部는 平地이고 동서로 나뉘는 단이 형성되어 서쪽이 50cm가량 높다.”

라고 하였다. 그리고 대략의 윤곽을 도면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 있다.

⑤ 『한국의 성곽과 봉수』에서는 토축으로 둘레가 약 350m, 높이가 4.8-6.3m라 하였다. 대체로 앞의 것을 전제하고, 1977년 10월 12일 경기도 지방기념물 제 44호로 지정된 것과 그 후 남쪽부분의 성곽 205m가 수축된 사실만 부기하였다.

이와 같은 조사기록을 통하여 우리들은 예비적으로 이 성에 대한 얼마간의 정보를 알 수 있으나, 성벽의 상황이 어떻게 변한 것인지는 잘 알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근대적 방법으로 최초로 조사된 기록에서 둘레를 대략이라 하더라도 240간이라 하였고, 또 그에 대한 圖面이 작성되어 있

었다는 것으로 보아, 오늘날의 것이 곧 당시의 성벽 규모와 같은 것인지에 의문이 간다. 한편으로는 이미 『대동지지』에서 주위가 3리라는 기록이 있었으며, 문화공보부에서 발행한 기록에서 둘레를 800m, 혹은 400m로 혼동을 야기시키고 있는 점도 석연치 않다. 한편으로는 이 성이 과연 고려시기에 사용한 성이라는 확신을 줄 수 있는 물적인 증거가 제시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하여도 의문을 풀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생각에서 다시 이 성에 대하여 간단한 실측을 하고, 유물을 수습하지 않으면 아니되었다.

2. 처인성터의 현존 상황

아곡리 산43번지 일대에 있는 성터에 대하여 평면도를 작성한 것이 [도면 4]와 [도면 5]이다. 도면에서 보듯이 성터는 해발 70m 남짓한 구룡의 선단부(先端部)에 위치하고 있다. 주변과의 상대고도(相對高度)가 15-20m에 불과한 나즈막한 구룡이며, 성벽은 구룡의 능선을 따라 축조된 서남벽에서 북동쪽으로 낮아지는 완만한 경사면을 이용하여 토루가 마련되었다.

성벽은 전체적인 평면이 사다리꼴에 가까우며, 구룡의 선단쪽인 동쪽이 좁다. 서쪽 모서리의 회절부(回折部)가 서북쪽으로 구룡의 안부(鞍部)로 이어지는데, 성벽 외측 아래는 이 안부가 농로로 단절되었다. 성벽의 외곽은 동북방향은 아곡동 마을로 통하는 포장도로이며, 이 길에서 이어진 농로가 북서쪽의 성벽 외곽을 따라 나 있고, 남동쪽으로도 성벽의 외곽 아래로 농로가 나 있다. 남서쪽은 밭과 무덤구역이 있으나, 경사가 완만하여 성벽의 외곽을 한바퀴 도는데에는 지장이 없다. 서남쪽으로는 계속하여 밭과 논이 이어지면서 완만한 남향 경사면을 이루고 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도면 4]에서는 현재의 출입구를 정문이라 하고 서남벽의 중간부분에 후문이라 하여 이 성에 두 개의 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최근 필자의 답사에 의한 실측에 의한 [도면 5]에서는 이 서남벽의 후문은 자취가 없음을 알게 되었다. 이는 어느 시기인가 후문을 옆두에 두지 못하고 성벽이 보

수되었거나, 아니면 실제의 상태와 다르게 보수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생각된다. 이제 현존하고 있는 처인성터의 각 방향의 성벽의 실태를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서북벽[사진 9]

북쪽 모서리에서 서쪽 모서리 까지 성벽 윗쪽의 길이가 85m이다. 성벽 상단은 약간의 굴곡이 있으나, 대략 2-2.5m의 너비로 길처럼 되어 있고, 성안으로 겹층된 윗면이 30cm 내지 1m 정도의 높이로 성벽 윗면이 드러나 있다. 북쪽에서 서남쪽으로, 즉 능선의 윗쪽에서 이러한 현상은 두드러진다. 벽의 외측으로는 급한 경사면을 이루며 농로에 닿아 있다. 농로와 닿은 아랫 부분에는 절토면이 나타나 있고, 간혹 흘러내린 기와조각과 그릇조각이 표토상에서 발견된다. 절토면은 능선을 자른 서남 모서리 외측에서 현저하며, 당초부터 이러한 절토면이 해자처럼 있었는지는 불명이다. 그러나, 현상으로 판단하건대, 이 절토면은 농로의 개설로 말미암아 생긴 것이고, 당초는 서북쪽의 능선과 이어진 위에 서남 모서리를 만들어 외부와의 높이차가 크지 않았다고 여겨진다. 성벽 상단에서 외측으로 농로까지의 너비가 최대 8m까지에 이른다. 성벽의 아랫쪽 기초의 전체 너비는 10-15m가 된다.

② 서남벽[사진 10·11]

서쪽 모서리에서 남쪽 모서리까지로 성벽 상단의 길이가 83m이다. 서북쪽에서 내려오는 능선의 줄기를 따라 성벽을 축조한 것으로 여겨지며, 거의 직선을 이루고 있다. 서북벽과는 거의 직각을 이루어 꺾이고 있다. 성벽 상단은 약 2m의 너비로 길이 되었으며, 성안쪽으로 1-1.5m의 높이차로 윗면이 내외겹층의 양상을 보인다. 외측으로는 소나무와 참나무 사이로 아카시아가 무성히 자라고 있으며, 다른 벽의 외측보다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다. 기단의 너비는 13m에서 최고 16m에 이른다. 특히 중간부위에서는 너비가 가장 넓어서 별도의 시설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예컨대 곡성(曲城)이나 치

성(雉城)의 존재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서북벽과 남동벽은 이 서남벽의 양단에서 회절하면서 북동향하여 완만히 경사져 내려가고 있다. 그리하여 회절부는 보다 높고 크게 곡절(曲折)하고 있어서 역시 곡성이나 치성의 존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③ 남동벽[사진 4·5]

서남벽에서 120-130도의 각을 이루어 낮아지면서 거의 직선으로 뻗었으며, 상단에서 56m의 길이가 된다. 성벽의 윗단은 역시 2m 정도의 길이 되어 있고, 성안쪽으로는 서쪽 약 10m의 구간에서는 심하지 않으나, 동쪽의 구간에서는 단을 이룬 때문에 성내와의 높이차가 심하다. 외측으로도 경사를 내려와 단을 이룬 후 다시 경사가 있어서 본디의 성벽은 이 단을 이룬 부분의 위에 조성되었다고 판단된다. 단을 이룬 부분의 기단 너비는 16-17m이다. 다른 부분에 비교하여 내외측의 성벽 윤곽이 가장 잘 남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성벽의 표토에서 기와조각과 그릇조각이 발견되고 있다. 동쪽 끝에 이르러서는 북동쪽 성벽으로 이어지며 회절한다. 이 회절하는 부분의 바깥으로는 급경사를 이루며, 거의 직각을 이루며 회절한다. 이곳에도 곡성이나 치성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④ 북동벽[사진 6·7·8]

성내의 가장 낮은 지형을 이루며, 외측으로는 아곡동 마을로 통하는 포장 도로와 논이 있다. 성벽의 상면에서 안쪽으로는 구획은 불분명하며, 약간의 굴곡이 있으나 대체로 동쪽에서 밖으로 휘 곡선을 이룬다. 윗면을 기준으로 길이가 126m의 구간이지만, 동쪽 모서리에 가까운 곳에 통행로가 있어서 약 10m의 구간이 절개지이다. 도로면이 외측 하단부를 일부 절개하고 있으며, 외측 경사면의 너비가 7-8m이다. 현재의 이 벽면이 당초의 성벽이었던지는 확실치 않다. 길을 동북으로 건너면 바로 논으로 되어 있으며, 이 논외 동북쪽 한계에서 현저한 높이차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도 기와조각과 그

룻조각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벽면에는 현재의 출입구(문터라고 함) 이외에도 북쪽으로 치우쳐 물로 침하된 곳이 두곳이 있다. 이는 성의 내부에서 물이 자연적으로 배수되는 곳이 문터라 일컫는 곳 이외에 북쪽에 치우친 곳에서도 배수가 이루어지고 있었을 것임을 알려준다.

⑤ 성내의 지형과 형상

성의 내부는 서남부와 동북부가 크게 단을 이루어 구분되고 있다. 서남부는 성벽 축조 이전의 자연상태에서도 본디 높은 위치였다고 생각된다. 이에 비하여 동북쪽은 굴곡을 이룬 선으로 마치 사태가 난 것처럼 낮아진 곳이 있고, 약 25도의 경사를 이루어 갑자기 낮아진 형태가 되었다. 특히 남쪽에서는 현저하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깊어지고, 현재의 출입로에서 서남부의 높은 곳으로 오르는 길이 되어 있다.

서남부의 높은 곳은 대체로 평탄면이지만 동향, 혹은 북향으로 경사가 완만하다. 여기에는 서쪽 모서리에 치우쳐 민묘 2기가 아직도 자리잡고 있으며, 그 주변으로 5개의 웅덩이가 있다. 이 웅덩이들은 아마도 예비군용의 참호나, 방공포좌 처럼 직경이 1.5-2m 정도의 원형이고, 깊이가 1m 내외이다. 이 높은 지역에서 동남향의 낮은 지역으로 자연적인 배수가 이루어져, 지속적으로 약간씩의 토사가 유출되고, 그에 의해 앞으로도 약간씩 지형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여겨진다.

성내의 한단 낮은 지역은 중앙에서 북으로 조금 치우친 곳에 민묘를 조성하였던 방대형의 흔적이 있다. 이 위치를 기준하여 북서쪽(성안 전체로는 북쪽)은 평탄하며, 배수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지표에 나타난다. 중앙에서 동쪽으로는 평탄한 지면이 현재의 출입로를 향하여 경사를 이루며, 이 경사는 동남쪽 성벽의 내측과 성내의 높은 지역 남쪽에서의 물이 배수되는 경사이다. 가장 배수량이 많아서 점차 높은 곳의 토사가 유출된 결과로 현재의 모양으로 되었다고 여겨지며, 이러한 현상은 성내가 경작지로 이용되는 기간에 심하게 진행되었다고 여겨진다.

IV. 처인성터 수습유물

1. 토기류

① 토기 편[도면 6-①, 사진 15-①]

회청색 경질의 편병편으로 여겨지며, 태토는 정선되었고, 세사립이 소량 함유되었다. 내외면에 회전물손질 흔적이 있다. 기벽이 얇고 고르다. 크기 4×4×0.7cm

② 토기 편[도면 6-②, 사진 15-②]

회청색 경질 토기편으로 기심은 자주색을 띤다. 태토는 정선되었으며, 사립이 소량 함유되었다. 경부 아래에 횡침선이 돌아가며 외면은 세격자문이 타날되었으나 희미하다. 내면은 회전 물손질 흔이 남아있다. 크기 7.3×10.7cm

③ 토기 편[도면 6-③, 사진 15-③]

흑색 경질토기 구연부편으로 기심은 자주색을 띤다. 태토는 정선되었으며, 세사립이 소량함유되었다. 크기 2×3.5cm

④ 토기 편 [도면 6-④, 사진 15-④]

회백색 토기편으로 경질에 가깝다. 태토는 정선되었으며, 사립이 함유되어 있다. 표면에는 3조의 횡침선이 돌아가며, 기벽 내면은 물손질 흔적이 있다. 크기 4×5×0.5cm

⑤ 토기 편[도면 6-⑤, 사진 15-⑤]

회청색 경질 토기편으로 기심은 연한 자주색을 띠고 있다. 외면은 경부 바로 아래 두줄의 단선파상문이 돌아가며, 횡침선을 사이에 두고 점으로 물

방울 모양의 무늬를 연속으로 시문하여 횡으로 돌아가고 있다. 그리고 그 아래로 두줄의 횡침선이 돌아가고, 그 아래에 꽃무늬가 시문되었는데 파손되어 원형을 알수 없다. 크기 4×3.8×0.7cm

⑥ 토기 편[도면 6-⑥, 사진 15-⑥]

회색 경질 토기편으로 태토는 정선되었다. 외면은 단면삼각형의 텃띠가 두줄로 돌아가고 있으며, 내면은 회전 물손질 흔이 있다. 크기 5×5×0.8cm

⑦ 토기 편[도면 6-⑦, 사진 15-⑦]

흑색 연질 토기편으로 태토는 정선되었으며, 세사립이 소량 함유되었다. 외면은 두줄의 굵은 단선 파상문 아래에 다시 두줄의 횡침선이 돌아가며, 내면은 테쌍기한 것처럼 굴곡이 있고, 횡침선이 돌아가고 있다. 크기 7×6.5×0.7cm

⑧ 토기 편[도면 6-⑧, 사진 15-⑧]

회청색 경질 토기편으로 아주 경질이며, 태토는 사립이 다량 함유되었다. 외면은 띠를 동그란 막대 같은 것으로 좌하향으로 눌러 띠를 꼬은 것처럼 횡으로 붙이고, 그 아래에 횡침선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크기 4×4.5×0.9cm

⑨ 토기 편[도면 6-⑨, 사진 15-⑨]

회백색 토기편으로 경질소성에 가까우며, 태토는 사립이 다량 함유되었다. 외면은 횡침선이 얇게 돌아가고 내면은 좌상에서 우하 방향으로 빗질흔이 있으며 횡침선이 얇게 돌아가고 있다. 크기 5.6×3×0.7cm

⑩ 토기 편[도면 6-⑩, 사진 15-⑩]

회흑색 토기편으로 아주 경질이며 기심은 자주색을 띤다. 태토는 정선되었으며, 백운모가 소량 함유되었다. 외면은 횡침선이 굵게 돌아가고 있다.

크기 3.2×4×0.8cm

⑪ 토기 편[도면 6-⑪, 사진 16-⑪]

회청색 경질토기 구연부편으로 기심은 자주색을 띠고 있다. 태토는 정선되었으며, 백운모가 소량 함유되었다. 경부에서 나팔상으로 살짝 외반하는 구연에 구연단을 밖으로 말아 붙였다.

복원 입지름: 약 11cm, 잔존 높이: 4cm

⑫ 질그릇편[도면 6-⑫, 사진 16-⑫]

회흑색 질그릇 구연부편으로 연질소성이다. 태토는 정선되었으며, 백운모가 소량 함유되었다. 기체에서 바로 밖으로 꺾은 후 다시 안쪽으로 꺾어 붙여 구연을 만들었다.

복원 입지름: 약 22cm, 잔존 높이: 2.3cm

⑬ 토기 편 [도면 7-⑬, 사진 16-⑬]

회청색 경질 토기편으로 태토는 정선되었으며, 백운모가 소량 함유되었다. 구연은 나팔상의 경부에서 수직으로 올라가며, 굽은 횡침선이 두줄로 돌아가고 있다.

복원 입지름: 약 9cm, 잔존 높이: 2.2cm

⑭ 질그릇편[도면 7-⑭, 사진 16-⑭]

흑색 질그릇 저부편으로 연질이다. 태토는 정선되었으며, 표면에는 흑색 슬립이 입혀 있으며, 내외면은 회전물손질 흔이 있다. 평저이다.

복원 바닥지름: 약 28cm, 잔존 높이: 4.7cm

⑮ 토기 편[도면 7-⑮, 사진 16-⑮]

회청색 경질 토기 구연부편으로 태토는 정선되었으며, 세사립이 소량 함

유되었다. 나팔상으로 외반하다 밖으로 꺾은 후 등글게 봉둥그려 처리하여 말아 붙였다.

복원 입지름: 약 14cm, 잔존 높이: 1.4cm

⑩ 토기 편 [도면 7-⑩, 사진 16-⑩]

회청색 경질토기 구연부편으로 태토는 정선되었다. 나팔 모양으로 올라가다 단면 삼각형의 입술받이 턱이 전처럼 돌출되었다. 구연단은 등글게 처리하였다. 구연 안쪽면은 돌대가 희미하게 돌아가고 있다.

복원 입지름: 약 10.8cm, 잔존 높이: 2.3cm

⑪ 토기 저부편[도면 7-⑪, 사진 16-⑪]

회청색 경질토기 저부편으로 태토는 정선되었으며, 백운모가 소량 함유되었다. 기형은 조잡하며, 평저이다.

복원 바닥지름: 약 14.6cm, 잔존 높이: 4cm

⑫ 토기 편[도면 7-⑫, 사진 16-⑫]

회청색 경질 토기 저부편으로 기심은 자주색을 띤다. 태토는 정선되었으며, 사립이 소량 함유되었다. 성형상태는 조잡하며, 평저이다. 크기 9×7×1.2cm

⑬ 백자 편[도면 7-⑬, 사진 16-⑬]

백자 구연부 편으로 유백색 유약이 전면에서 시유되었다. 부드럽게 곡선을 이루며 올라가다 수직으로 올라가 직립 구연을 이룬다. 구연단은 등글게 처리하였다.

복원 입지름: 약 15cm, 잔존 높이: 4cm

㉔ 백자 편[도면 7-㉔, 사진 16-㉔]

백자 저부편으로 유백색 유약이 전면에 걸쳐 시유되었다. 표면은 유빙열이 심하다. 기형은 내저부에서 사선으로 올라가다 원각을 이룬 후 꺾여 올라가고, 외면은 사선으로 내려와 굽에 이룬다. 굽은 대마디 굽이며, 그릇 내저부와 굽에는 모래가 흡착되어 있다.

복원 굽지름: 6cm, 잔존 높이: 3cm

2. 기와류

① 암키와 편[도면 8-①, 사진 17·18]

암키와 편으로 회청색 경질이며, 기십은 자주색을 띠고 있다. 태토는 정선되었으며, 사립이 다량 함유되었다. 표면은 굵은 선문이 우하향으로 배열어져 있으며, 내면은 포목흔이 보인다. 측면은 안에서 밖으로 1/4 정도 와도흔이 있다. 크기 15×12.5×1.5cm

② 암키와 편[도면 8-②, 사진 19-②]

암키와 편으로 회청색 경질이다. 태토는 모래가 다량 함유되었다. 표면은 굵은 선문이 얇게 배열어져 있으며, 밖에서 안으로 와도흔이 1/3 정도 보인다. 크기 7×6.5×1.3cm

③ 암키와 편[도면 8-③, 사진 19-③]

암키와 편으로 회백색 연질로 태토는 정선되었다. 표면은 굵은 선문이 배풀어진 것으로 보이나 탈락이 심하다. 크기 6.2×5×1cm

④ 암키와 편[도면 8-④, 사진 19-④]

회백색 암키와 편으로 연질소성에 가깝다. 태토는 정선되었으며, 백운모

가 함유되었다. 표면은 무문이며, 내면은 비로 쓸은 듯한 흔적이 있다. 안에서 밖으로 1/2정도 와도흔이 있다. 크기 7.5×6.5×2cm

⑤ 암키와 편[도면 8-⑤, 사진 19-⑤]

암키와 편으로 회백색을 띠며, 연질소성에 가깝다. 태토는 사립이 다량 함유되었다. 표면은 굵은 선문이 베풀어져 있으며, 내면은 찰과문이 조잡하게 남아있다. 크기 6.7×6.7×2cm

⑥ 수키와 편[도면 8-⑥, 사진 20-⑥]

황갈색을 띠며 연질이다. 태토는 조질 태토에 사립이 혼입되어 있다. 표면은 굵은 선문이 종으로 베풀어져 있으며, 내면은 포목흔이 있다. 크기 7×10×1.8cm

⑦ 암키와 편[도면 8-⑦, 사진 20-⑦]

암키와 편으로 회백색이며 연질에 가깝다. 태토는 사립이 다량 함유되었다. 표면에는 선문이 베풀어 졌으며 내면은 물손질 정면흔이 있다. 크기 7.5×8×2cm

⑧ 암키와 편[도면 8-⑧, 사진 21·22]

암키와 편으로 회백색 연질이다. 태토는 정선되었으며, 흑운모가 함유되었다. 표면은 굵은 선문이 종으로 베풀어져 있으며, 내면은 포목흔이 뚜렷하다. 크기 10×7×1.8cm

⑨ 암키와 편[도면 8-⑨, 사진 21·22]

암키와 편으로 회백색을 띠며 연질소성에 가깝다. 태토는 정선되었으며, 백운모와 사립이 소량 함유되었다. 표면은 굵은 선문이 얇게 시문되었으며, 내면은 포목흔이 보인다. 단부(端部) 내면조정이 1cm 정도 이루어졌다. 크

40 고려시대의 용인

기 9×9.4×1.7cm

⑩ 수키와 편[도면 8-⑩, 사진 23·24]

회백색 연질 수키와 편으로 태토는 정선되었으며, 사립이 소량 함유되었다. 표면은 우하향으로 굵은 선문이 배풀어져 있으며, 내면에는 포목흔이 있다. 안에서 밖으로 1/2정도 와도흔이 있다. 크기 6.5×8.8×1.5cm

⑪ 암키와 편[도면 8-⑪, 사진 23·24]

회청색 경질이며, 기십은 자주색을 띠고 있다. 태토는 정선되었으며, 굵은 사립이 소량 함유되었다. 표면에는 작고 선명한 정격자문이 배풀어져 있다. 크기 3.3×3.5×1.8cm

V. 처인성터의 성격

1. 기능상의 성격

처인성터는 우리나라의 성곽을 크게 구분하는 구분에 의하면 읍성(邑城) 류에 속하며, 창성(倉城)이라 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 성터는 옛 수주(水州)시절 부곡(部曲)의 하나였던 자치적인 작은 단위의 행정 중심이 되는 성이었기 때문이다. 고려 시대에 많이 존재하였던 부곡은 군(郡)이나 현(縣) 단위의 행정 조직을 두기에는 규모가 작고 호구(戶口)가 적은 곳에 존재하였던 구역이다. 일반적인 군현에 비하여 이 부곡의 경우는 토성(土姓)을 가지고 있는 점은 같으나, 국가의 직접적인 행정단위가 아니고, 소속된 고을의 통제를 받은 점에서는 차별적인 것이었고, 그에 따라 이곳에 사는 주민들은 신분적으로도 일반 백성과는 달리 인식되었다.

그러나 부곡은 향(鄕)이라는 단위와 아울러 부곡 내부의 행정에서는 자

치적인 조직이 있었다고 여겨진다.

다른 여러 부곡들과는 달리 처인부곡은 읍성을 가지고 있던 셈이다. 고려 시대 우리나라 읍성의 존재에 대하여는 아직 자세한 조사가 진행되지 못하여 그 전모를 알기 어려우나, 읍성에 대하여 아무런 기록이 없는 경기도 안산군(安山郡)의 경우에도 읍성이 존재하였음이 밝혀져 있으며, 충청도 장풍현(長豊縣)의 터에는 태자성(太子城)이란 성터가 남아 있다. 한편 고려 말기에 이르러 수축과 개축을 거치는 여러 읍성들은 당초 소규모의 토축 읍성들이 차츰 대규모의 석축읍성으로 개수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한편으로 처인성은 창성(倉城)이었다. 조선 초기의 기록에는 분명히 이 성에 군창(軍倉)이 존재한다고 하였다. 군창은 물론 산성(山城)에 있는 것이 보통이기도 하지만, 처인성처럼 존재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이다. 이 성안에 있었던 창고의 규모가 얼마만한 것인지는 아직 모르지만 군창이 성안에 있고, 이 창고와 창고내의 저장된 군량과 병기를 지키는 성벽이 곧 처인성이기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몽고군과의 싸움에 나타난 처인성은 인근 주민의 입보(入保)를 위한 성터였음을 알려준다. 즉, 김윤후는 백현원(白峴院)에 있던 승려로서 이 성에 <避兵在城中>(『고려사절요』), 혹은 <避亂于處仁城>(『고려사』)하고 있었다. 백현원은 이곳의 현재 주민들 이야기로는 이 처인성 서북방의 산줄기 아래에 절터가 있다고 하므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었다고 여겨지며, 동시에 처인성 주변의 백성들은 김윤후의 경우처럼 처인성으로 피란하여 있었다고 여겨진다. 전쟁이 일어나 피란하는 곳은 일반적으로 각 고을의 뒷산이나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산성이 이용되는 것이 일반적인 양상이었다. 몽고군이 처인성을 치려고 남하하는 길에 한양산성(漢陽山城)을 함락시키고 있는 것이나, 당시 고려 정부가 백성들을 해도(海島)나 산성으로 피란시키고, 산성에 방호별감(防護別監)을 파견하여 농성(籠城)을 지휘하게 한 것이 그것이었다.

처인성의 기능상의 특징은 이 성이 고려시기나 그 이전에 수원의 관내에

있었던 만큼 수원지역의 이와 비슷한 성터들과 비교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현재 수원 지역에서 알 수 있는 읍성으로는 경기도 기념물 93호인 율릉과 건릉 일대에 있었던 수원 고읍성이 있다. 이 성은 지금 약간의 토축 성벽이 남은 상태이며, 고려시기 이후로부터의 유물이 출토될 뿐이다. 당초의 규모는 『세종실록』 지리지에서는 둘레가 270보(步)이고 우물이 두곳이라 하였으나, 『신증동국여지승람』 이후로는 둘레가 4,035척(尺)으로 보인다.

다음으로는 화성군 향남면 길성리의 구릉상 토축성이 있다. 내외성으로 구성되고 유물에 있어서도 삼국시기 이른시기와 연계된 것으로서 직접 비교가 힘들다.

최근에 간행된 『수원시사(水原市史, 中, 1997)』에 의하면, 옛 정송현과 관련된 정남면 관향리의 성산과, 양감면 사창 3리의 옛 쟁홀부곡과 관련된 사창리성, 평택시 청북면 용성리의 옛 용성현성, 비봉면 자안리의 재양현의 옛 터와 관련된 태산성, 평택군 현덕면 덕목 2리의 옛 광덕현의 치소로 여겨지는 성터 등이 언급되어 있다. 이중 사창리성은 창고의 둘레를 쌓은 창고성이란 점과 부곡이 있었다는 점에서 처인성과 비교하기에 알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여 보았으나, 성벽의 규모가 사뭇 다른 것이다. 이들과의 비교는 이들 성지와 함께 처인성지가 보다 많은 조사를 거친 뒤에라야 가능할 것이다.

지금까지 약간의 조사를 거친 토축 성곽으로서 규모가 작은 것은 충남 천안의 목천토성을 위시하여, 충남 홍성군 결성면의 신금성(神衿城), 충북 충주시의 견학리토성과 충북 청주시의 정북동토성, 그리고 통일신라기 이래의 것으로 여겨지는 충북 영동읍성과 전남 완도의 장도성 등이 있다. 목천토성은 구릉 선단부를 이용한 토루로 이루어진 삼태기모양의 것으로 통일기의 지역 읍성의 전형적인 자료로 평가될 수 있다고 여겨진다. 견학리 토성은 북쪽에 문터가 있는 네모진 토루가 구릉 선단부에 축조된 것으로서 사용년대가 통일신라 후기와 관련된 것이다. 훗일 처인성지가 발굴조사 된다면 이러한 성터들과 그 축조방법과 유물의 양상이 비교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2. 출토 유물의 성격

오늘날 처인성터에서 찾을 수 있는 유물은 지표채집으로 기와조각과 도기편이 고작이다. 이번의 조사에서 수습된 유물은 매우 한정적인 것들이지만 처인성의 사용 연대와 비교적 가까운 시기의 것으로 여겨지는 것도 있다. 대략의 유물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토기류]

처인성터에서 지표채집한 그릇조각들은 크게 도기편과 자기편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서 대략의 연대를 시사해 주는 것은 토기 ① ⑤ ⑨ ⑬ 등의 것들로서 신라토기의 범주에 넣을 수 있는 것들이다. 특히 토기편 ⑤는 신라 통일기에 많이 볼 수 있는 인문(印文)이 시문된 것의 범주에 드는 것이라 여겨진다. 이들 토기류와 함께 대형의 호(壺)이거나 대옹(大甕)의 조각들로서 세격자문이 어깨에 타날된 것과 단선 파상문이 목에 음각선으로 둘러어진 것, 그리고 돌대가 둘러어진 것은 그 사용연대가 대략 9세기를 중심년대로 한다고 알려져 있다. 나머지의 도기편들은 대부분 고려시대의 유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이다.

자기류의 파편 두점은 조선시기의 것으로서, 처인성에 겨우 군창이 남아 있던 시기의 것들이거나, 처인성이 폐기되고 민묘가 조성된 시기의 것들이 아닐까 여겨진다.

[기와류]

표토에서 발견되는 기와들은 막새기와와 명문이 있는 것은 찾을 수 없고, 암키와와 수키와들이다. 특히 무늬가 시문되지 않은 것이 많으며, 수습된 것들은 대략 무늬가 시문된 것들을 위주로 하였다. 기와 ⑩은 토수기와의 조각으로서 표면의 무늬가 선조문계열의 것이다. 이런 종류의 기와는 통일신라기에는 이미 보편적으로 보급된 것으로 여겨지며, 나머지의 것들은 고려

시기에 유행된 어골문(魚骨文)이 적고 선조문 계열의 것들이 주류를 이루면서 복합문양의 것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내면의 무늬는 포목문(布目文)이 잘 남은 것들과 빗자루로 쓸 듯이 처리된 것이 있다. 모골(模骨)로 제작된 흔적을 보이는 것이 없고, 와통(瓦桶)으로 제작한 것들로 여겨진다. 측면의 분할선은 대부분 한쪽 측면만 관찰할 수 있는데, 대부분 안쪽에서 바깥쪽을 향하여 분할한 흔적이 남아 있으나 ②의 경우는 밖에서 안쪽을 향하여 자른 면이 남아 있다. 이것과 ③과 같이 회백색이고 두께가 얇은 선조문계의 기와는 제작 기법이 대략 고려 이전의 것들로 여겨진다.

3. 처인성의 특징 문제

이제까지 지표상으로 관찰된 처인성의 현재 모습과 문헌기록, 그리고 지표에서 채집된 유물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필자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몽고군의 원수 살리타이를 사살한 처인성에 대하여 들어왔고, 이후 관심을 가져왔으나, 실제 객관적 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안타깝게 여겨왔다.

이번의 조사를 통하여 조금이나마 처인성터에 대하여 보다 객관적이고도 실증적인 자료를 제공하여보려고 노력하였으나, 역량이 부족하였다. 우리는 이와 같이 둘레가 350m에 불과한 자그마한 토루에서 몽고의 주력부대를 맞아 적장을 사살하고 승리를 거둔 사실을 기록으로만 다루어온 셈이다. 특히 우리 역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산성(山城)에서의 농성(籠城)과 같은 소극적 방어전략이 전통이라 믿어온 터이므로, 처인성과 같은 작은 규모의 방어 시설에서의 승리가 믿겨지지 않는 면이 있을 수 있다.

처인성은 이러한 단순한 역사적 상상을 뛰어넘는 역사의 현장이다. 처인성은 토축의 읍성으로서 규모도 일반 군현(郡縣)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 보다도 작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적의 주력군과 전투를 벌여 승리한 곳이

다. 필자는 『맹자(孟子)』의 “天時不如地利 地利不如人和”라는 말을 항상 되새겨 본다. 김윤후의 경우에도 이러한 이치를 깊이 깨달았다고 상상해보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산성 위주의 전술이 이미 삼국시대 고구려에서 발달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지리를 십분 이용한 축성이 많았다. 그러나 평지나 평지에 가까운 곳의 성도 축조되었다. 일반적으로 읍성은 행정의 중심지에 축조된 것이고, 전쟁이 일어나면 산성으로 입보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으나, 읍성의 경우에도 입보가 이루어지고, 전투를 수행하였던 좋은 예가 바로 처인성이라 여겨진다.

처인성의 특징을 알기 위하여는 더욱 많은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 예컨대 성벽의 구조, 성내의 시설, 성문과 기타 방어시설의 배치관계 등은 앞으로의 진전된 조사에 의하여 알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임기응변도 아닌 졸속한 정비사업이나 현상변경은 귀중한 문화유산을 매몰 혹은 일실하게 만들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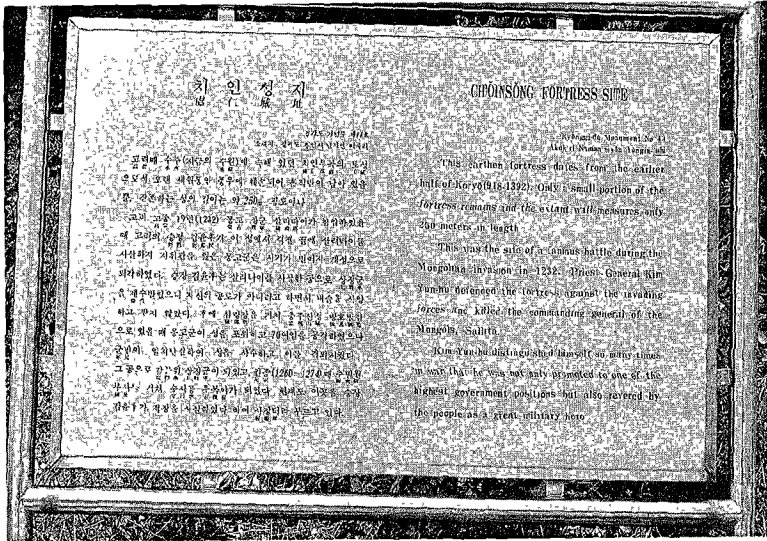


사진 1. 처인성 입구의 문화재 안내판



사진 2. 처인성 동남벽 외측의 처인성성첩기념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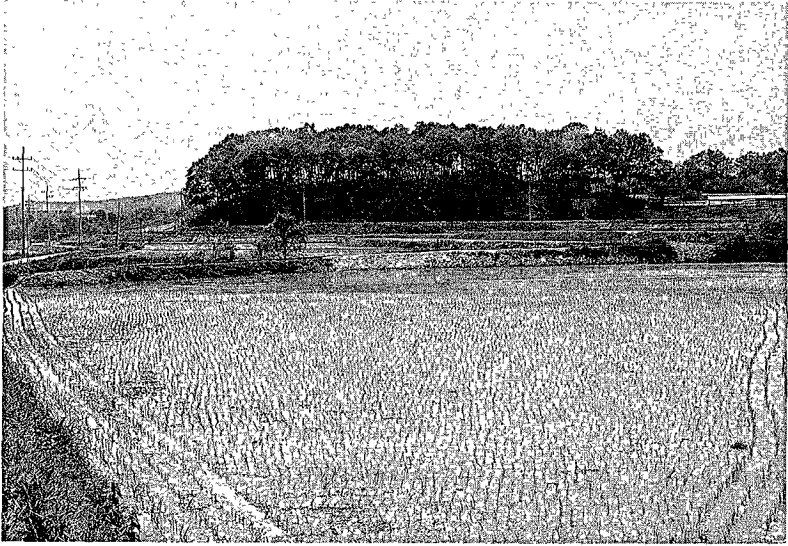


사진 3. 사장터 아래에서 본 처인성 전경



사진 4. 처인성 동남벽 외측 전경



사진 5. 처인성 동남벽의 내측 전경



사진 6. 처인성 동북벽 동측의 현 출입구



사진 7. 처인성 동북벽 외측 전경(동→서)



사진 8. 처인성 동북벽 외측 전경(북→남)



사진 9. 처인성 북서벽과 모서리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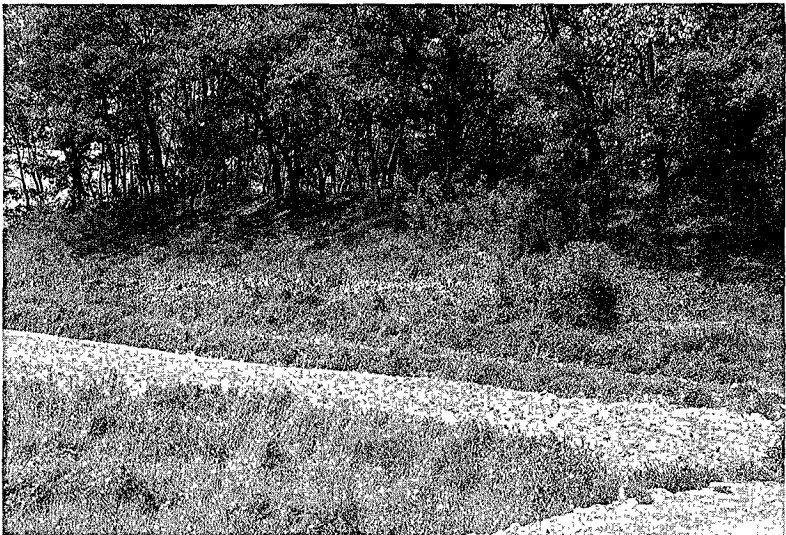


사진 10. 처인성 남서벽 외측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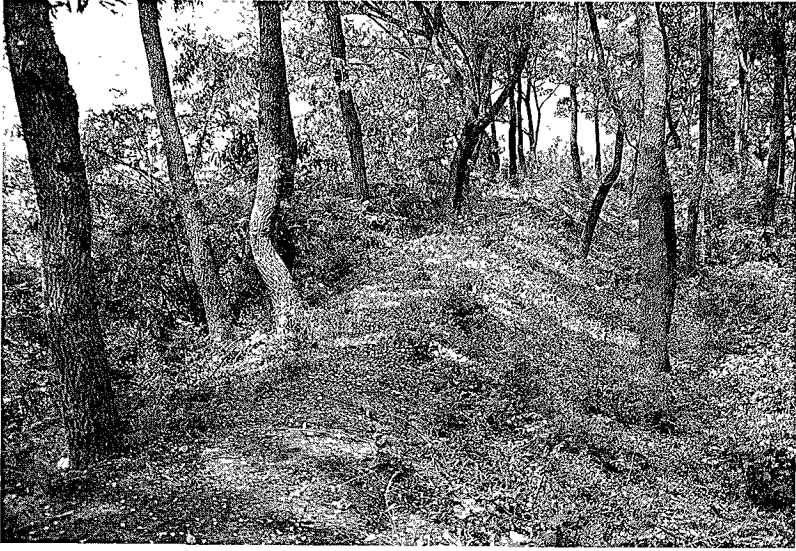


사진 11. 처인성 남서벽 상부모습(동→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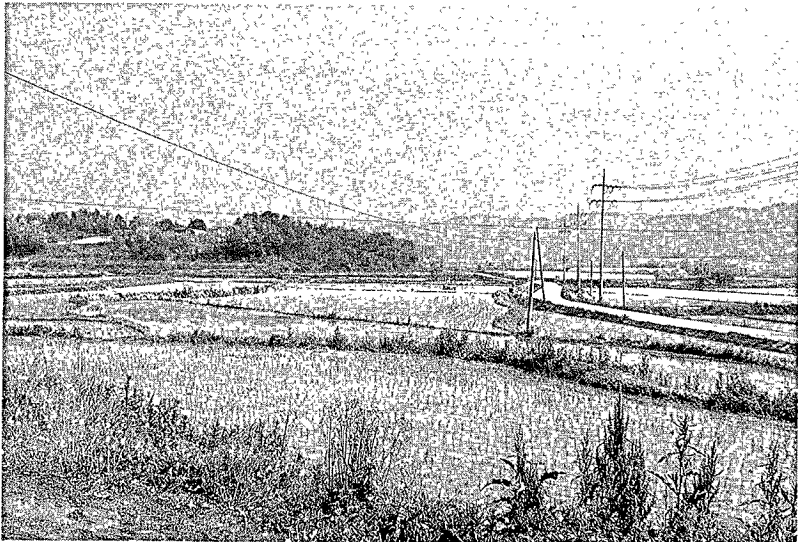


사진 12. 처인성에서 본 성들과 시장터 전경(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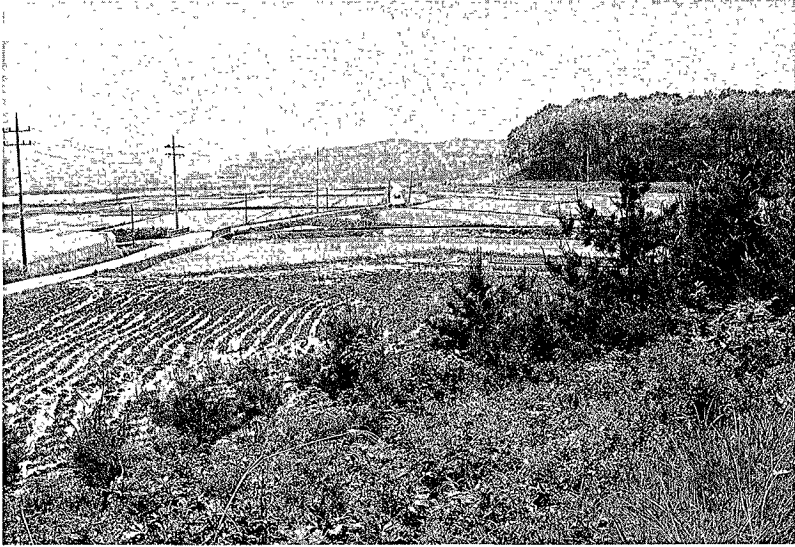


사진 13. 사장터에서 본 처인성과 그 남쪽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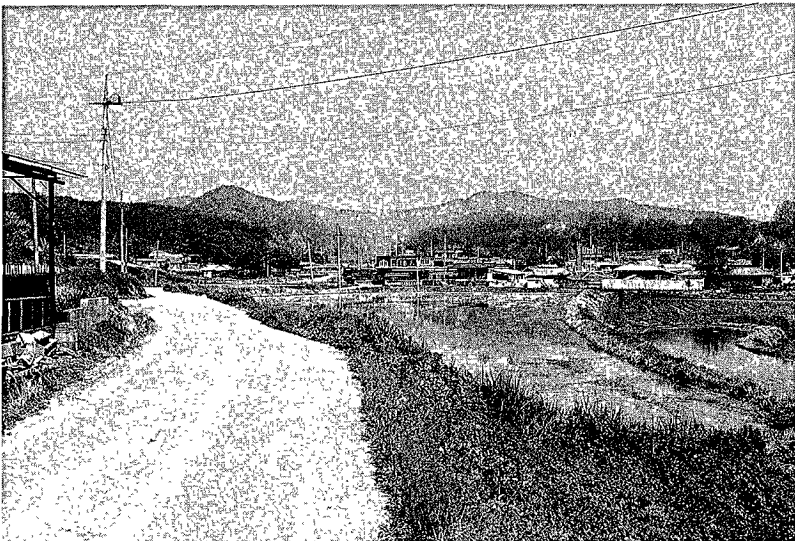


사진 14. 처인성 북단에서 본 아곡마을과 백현원 방향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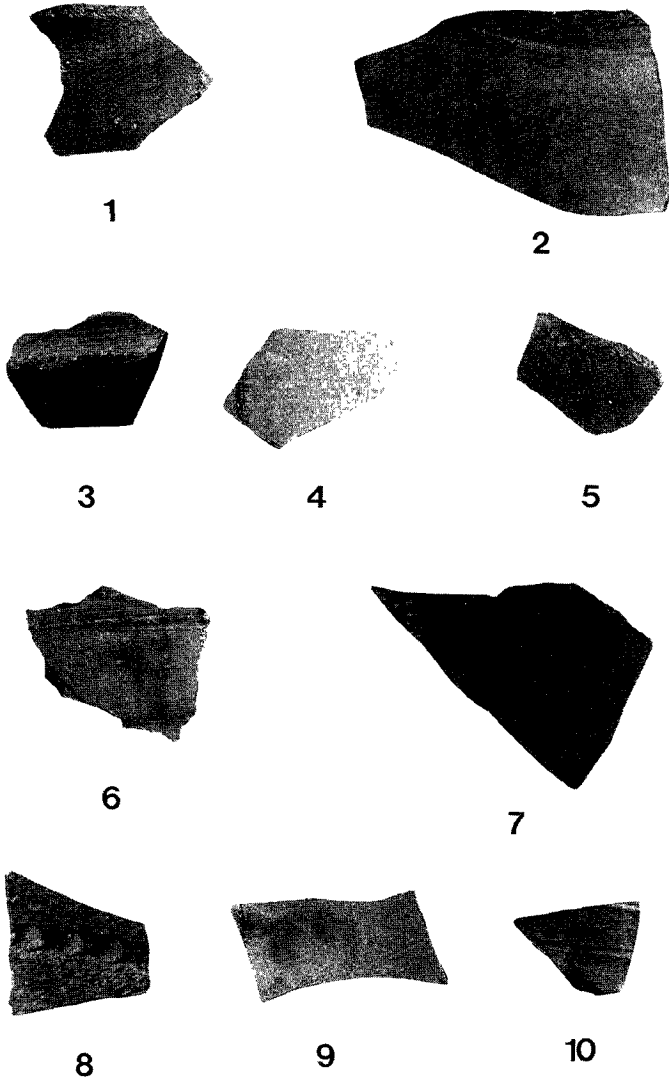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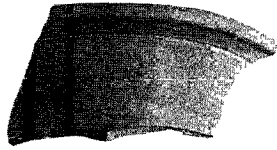


사진 15. 처인성 수습 토기류 ①~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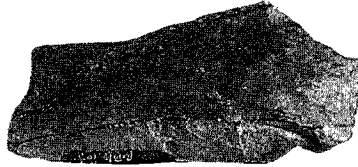
11



12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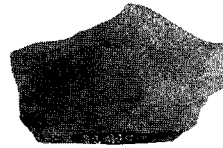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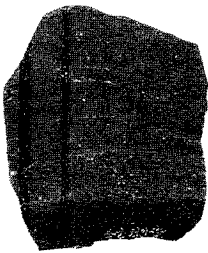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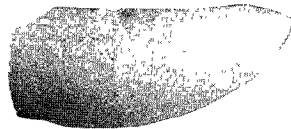
16



17



18



19



20

사진 16. 처인성 수습 토기류 ①~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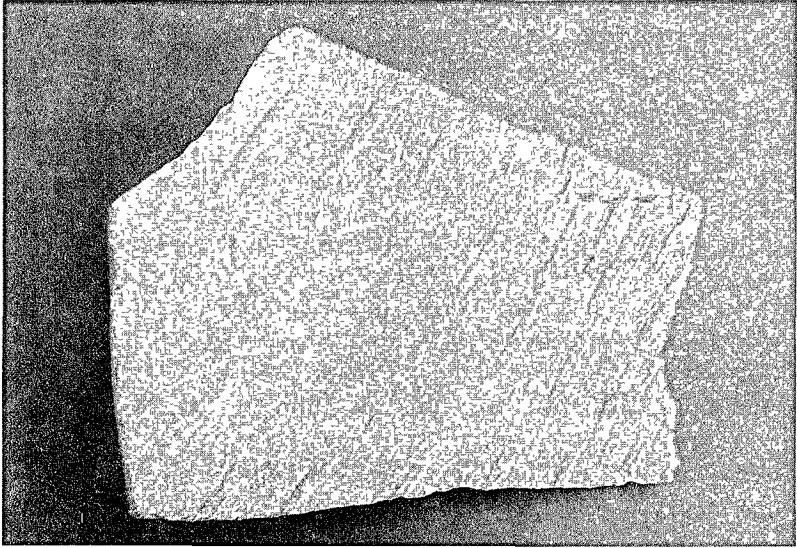


사진 17. 처인성 수습 기와 ㉠ 表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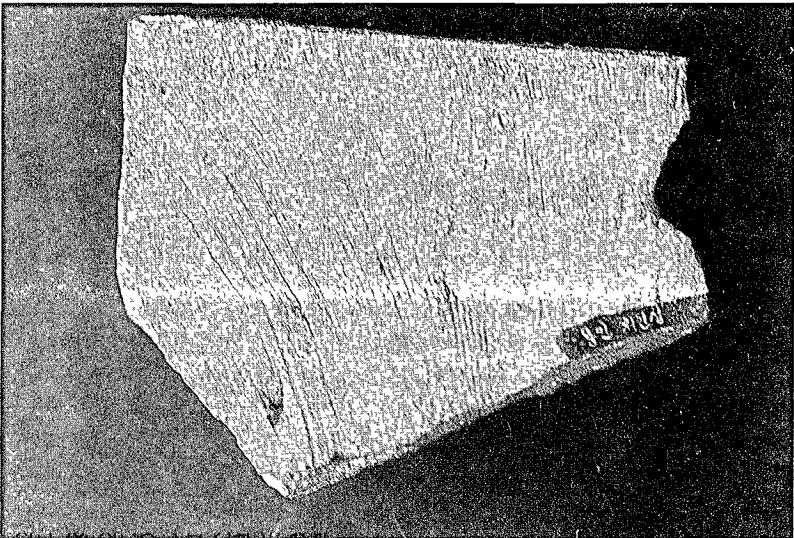


사진 18. 처이서 스스 기와 ㉠ 表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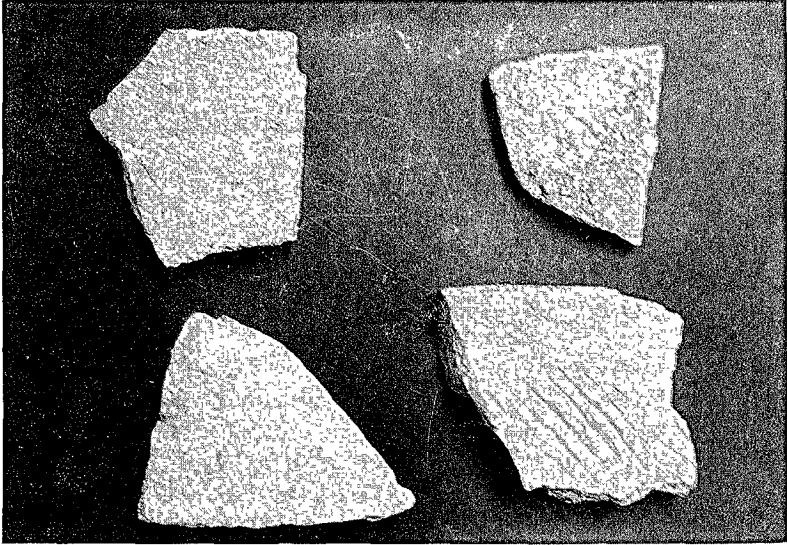


사진 19. 처인성 수습 기와 ②~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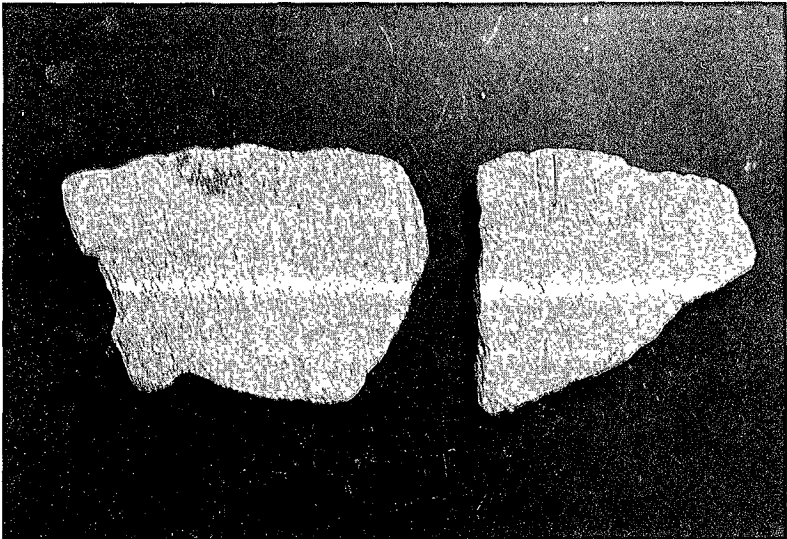


사진 20. 처인성 수습 기와 ⑥·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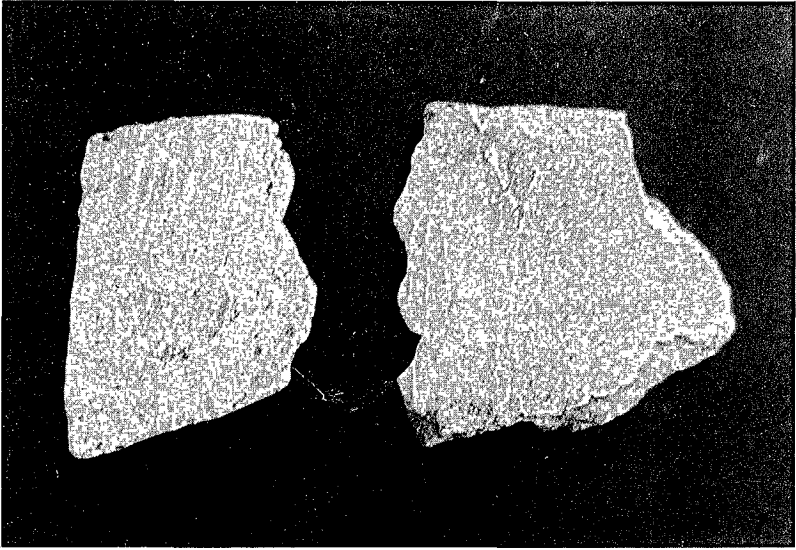


사진 21. 처인성 수습 기와 ㉘·㉙의 表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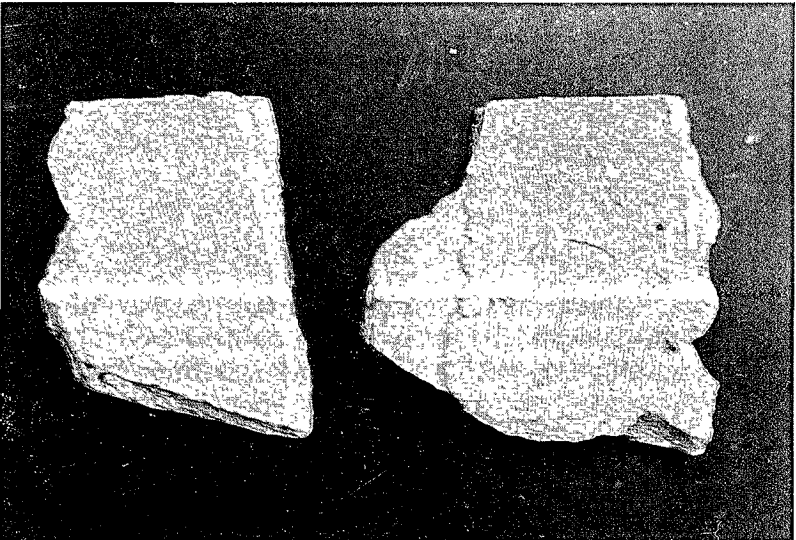


사진 22. 처인성 수습 기와 ㉘·㉙의 裏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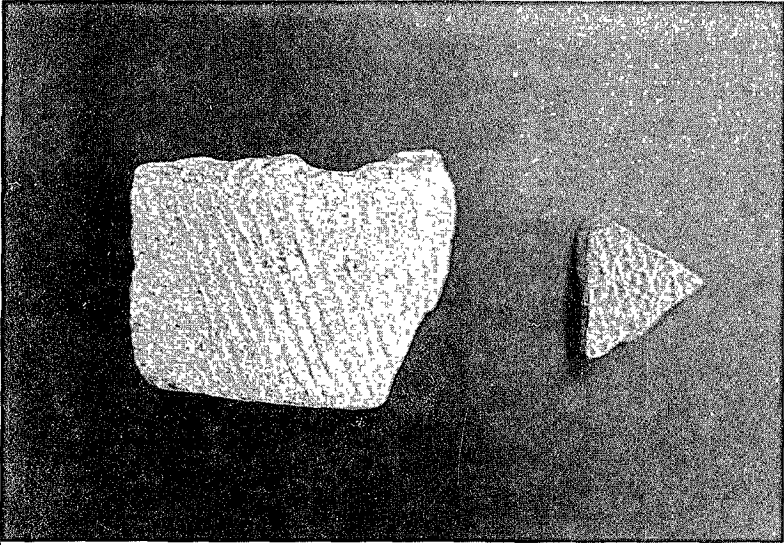


사진 23. 처인성 수습 기와 ⑩·⑪의 表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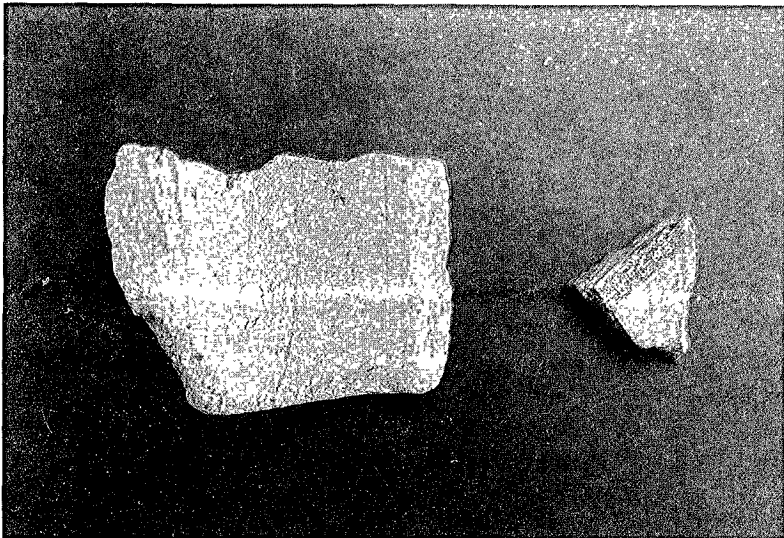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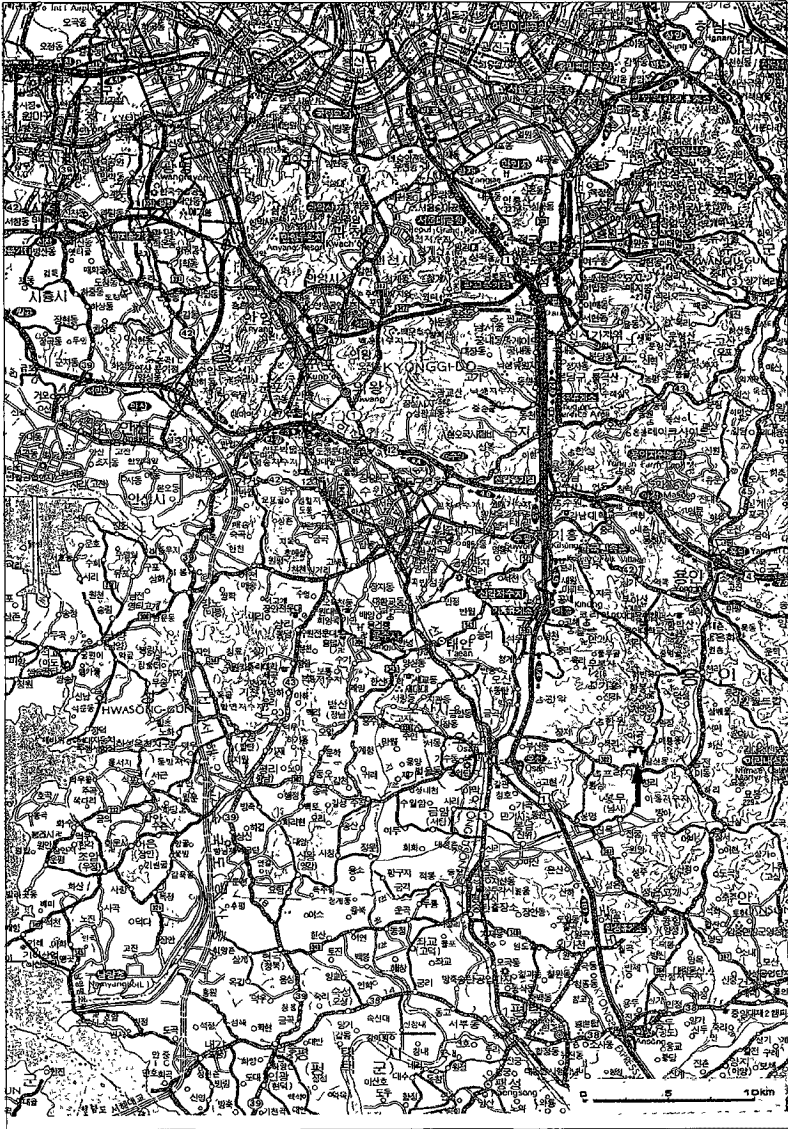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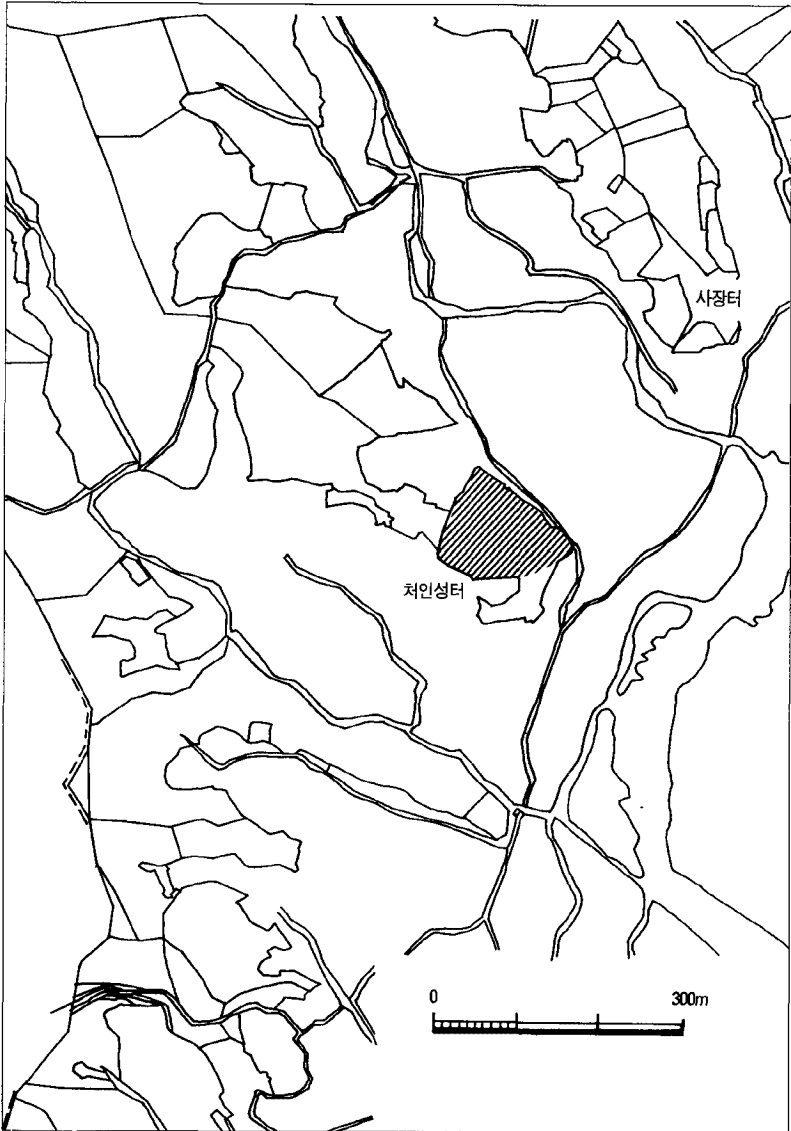
사진 24. 처인성 수습 기와 ⑩·⑪의 裏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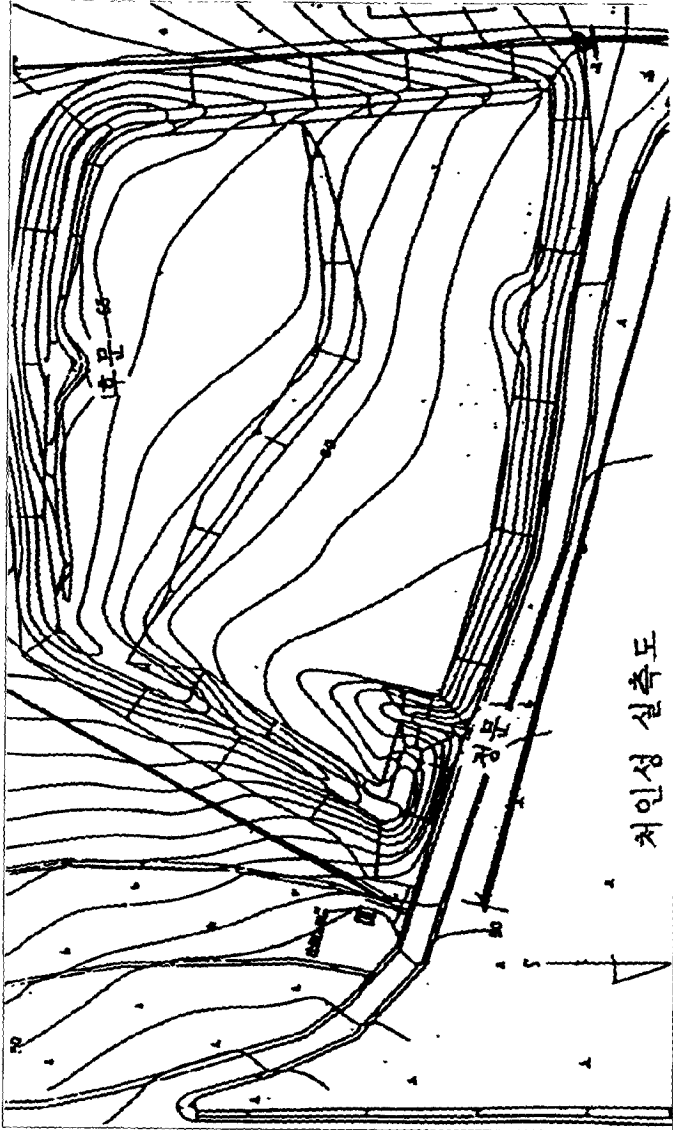
도면 1. 치인성 위치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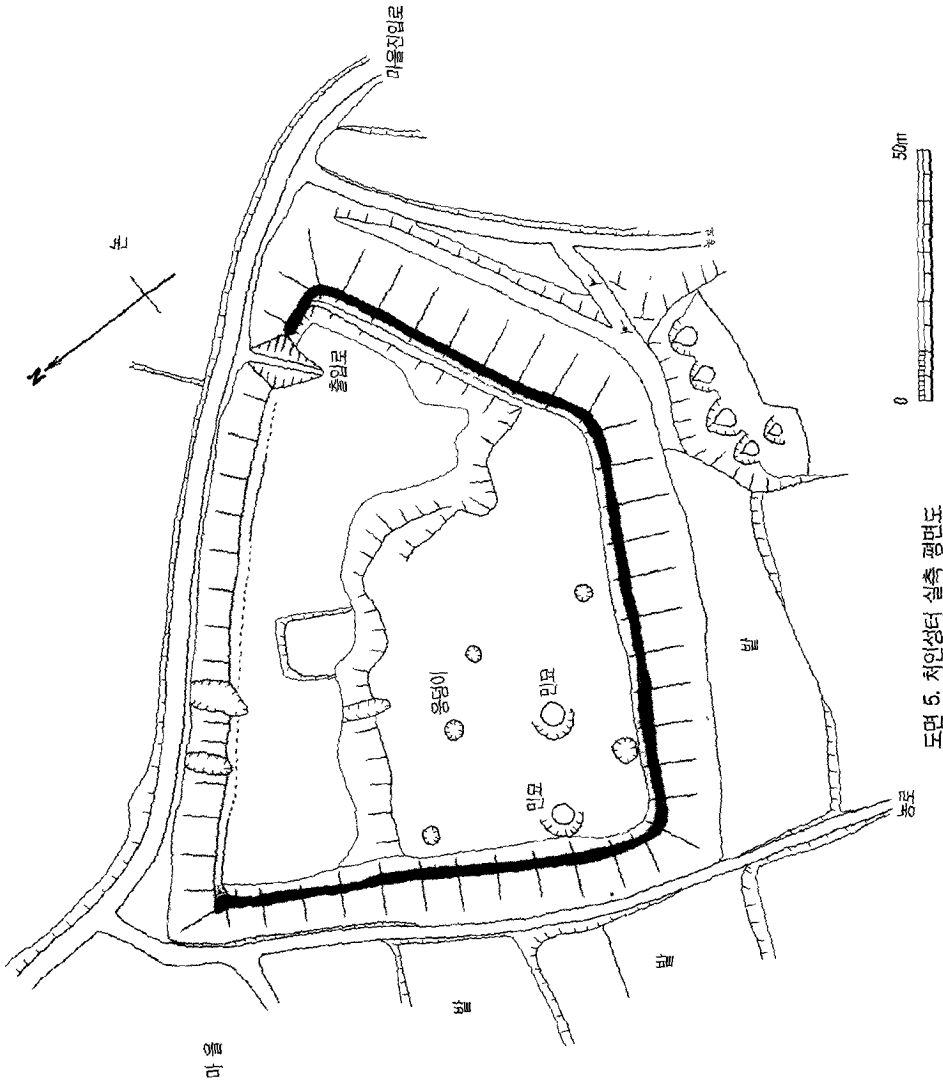
도면 2. 처인성 부근 지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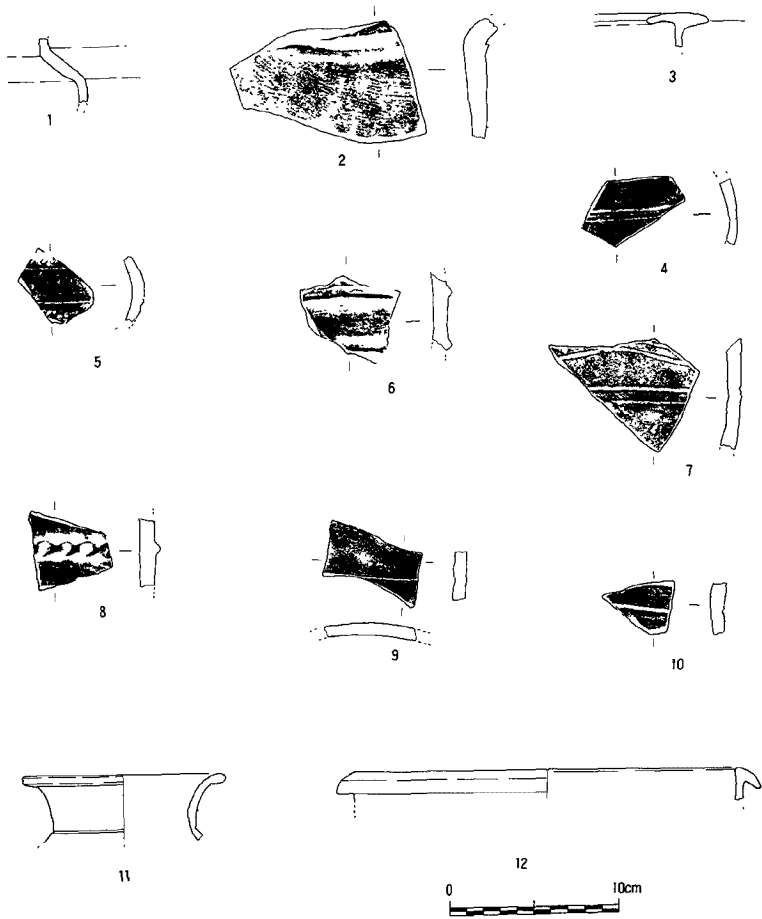
도면 3. 처인성 부근 임야도(용인시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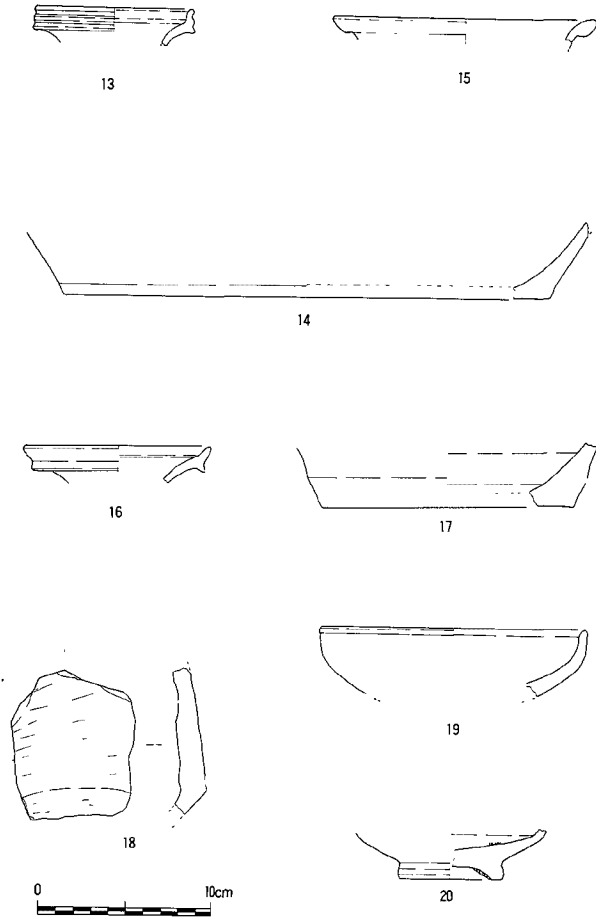
도면 4. 처인성 실측도(용인시 제공)



도면 5. 치안성터 실측 평면도



도면 6. 처인성 수습 유물 실측도 1



도면 7. 처인성 수습 유물 실측도 2



도면 8. 처인성 수습 유물 실촉도 3

「처인성터의 구조와 성격」에 대한 토론요지

沈 正 輔 (대전산업대학교 교양과정부 교수)

處仁城은 강화 천도를 단행한 고려 조정을 위협하기 위하여 남하하는 撒禮塔의 元軍을 저지시킨 역사적으로 유명한 유적이다. 즉 漢陽山城을 함락 시키고 남하하던 撒禮塔이 이 성에서 날아온 流矢에 의하여 射殺됨으로써 元軍이 더 이상의 南下를 포기하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사건이라 하겠다.

發表者는 이와 같은 역사적인 사건의 현장인 처인성터의 구조와 성격을 규명하기 위하여 기존의 文獻과 지표조사 성격의 調査 資料를 검토하고, 이 성에 대한 考古學的인 現狀調査를 실시함으로써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발표자의 이러한 노력은 처인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와 연구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본 유적에 대한 고고학적인 정밀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체 둘레 350m 중 남쪽 부분의 城壁 205m에 대한 수축 공사를 감행한 데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번 現狀調査도 발굴조사를 통한 성벽 절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제한된 조사이기 때문에 남쪽 부분의 城壁 205m에 대한 수축 공사가 이미 이루어진 상태라면, 이번에 조사된 서남벽 및 남동벽에 대한 현상조사자료가 수축 공사 이후의 변형된 토루를 그대로 나타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처인성을 역사의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고고학적

인 정밀조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 조사 자료를 토대로 계획성 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발표문은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처인성터의 구조와 성격을 도출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토론이 필요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한 두가지 발표자의 견해를 듣는 것으로 토론에 대신하고자 한다.

조사 자료에 의하면, 처인성은 형제봉에서 東南으로 흘러 내린 해발 70m 정도의 丘陵 先端部에 위치하고 있는데, 주변 지형과의 相對高度가 15~20m에 불과하여 평지에 가까운 구릉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구릉성에는 필자가 발표요지에서 例示한 자료들이 참고되고 있는데, 특히 홍성군 내에 위치하고 있는 神衿城은 비록 내·외성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전체적인 평면이 사다리꼴을 하고 있으며 축조시기도 統一新羅時代로 편년되고 있어서, 규모가 다르고 발굴조사를 거치지 않았다는 약점은 있으나 일단 처인성과 비교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이미 발표된 자료 중에서 平地에 가까운 丘陵城이며, 서북모서리가 거의 직각을 이루며 꺾여지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토축성으로 木川土城과 全義 呂內里土城이 있어 주목되는데 모두 신금성과 같이 축조시기가 통일신라시대로 편년되고 있다. 이러한 구릉성은 적의 공격을 방어하는 데는 효과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당시의 治所로 이해되고 있다.

한편, 용인시 관내에는 전투용산성으로 분류할 수 있는 성곽은 寶蓋山城이다. 보개산성은 해발 470m의 산정상부를 감싸서 북벽으로 하고, 북북동-남남서로 달리는 산능선을 주축으로 하여 동쪽과 서쪽의 산복을 포용하여 축조한 석축산성으로 그 둘레는 약 3.5km에 달한다. 이 산성의 중요성에 대하여서는 이미 柳成龍이 언급한 바 있다. 즉 ‘용인과 양지 사이에 古城이 있어 길을 가로막고 있는데 이름하기를 石城이라 한다. 지형의 險要하기가 禿城보다 나으며 또한 直路의 要衝에 있다.(『萬機要覽』 軍政編4 關防 京畿條, 柳成龍曰…○龍仁陽智之間 有古城當路 名曰石城 地形險要 勝於禿城 且在直路之衝)고하여 용인관내의 중요한 入保處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처인성과 보개산성을 비교하여 보면, 용인관내에서 토축이며 구릉성에 해당하는 소규모의 처인성 보다는 험준한 山嶺에 石材로 구축한 보개산성이 상대적으로 적을 방어하기에 용이한 전투용산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高麗時代 당시에는 비록 龍駒縣과 處仁部曲으로 관할이 달랐음을 감안하더라도 高宗代에 蒙古軍에 대항하기 위하여 江華島에 천도하는 한편 백성들은 山城과 海島로 入堡토록 하고 山城에는 防護別監을 分遣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이 부근에서의 入堡處는 보개산성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윤후가 撒禮塔을 射殺할 당시의 처인성은 入堡處로서의 기능보다는 處仁部曲의 倉城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으며, 朝鮮朝 太祖 6년에 縣수를 됴으로써 縣治所로서의 縣城이라는 기록을 남기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新增東國輿地勝覽』 龍仁 古蹟條에 「處仁城은 縣 남쪽 25리에 있으며, 土築이었는데 지금은 모두 무너져 내렸다. 軍倉이 있다.(處仁城 在 縣南二十五里 土築 今盡頽廢 有軍倉)」고하여, 太宗 13년에 龍駒縣과 處仁縣을 합하여 龍仁縣으로 한 이후에 處仁城은 성곽의 기능보다는 軍倉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大東地志』 龍仁 城池條에는 「處仁古城 土築 周三里」라 하고, 倉庫條에 「處仁倉 古縣」이라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발표자는 처인성을 邑城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처인성은 처인현의 邑治所(또는 縣治所)로 용어를 정리하여 조선 초기 築城論議에 등장하는 邑城과 구분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된다. 앞에 언급한 바와 같이 邑治所로서의 丘陵城들은 평화기를 맞은 통일신라시대에 주로 정치적인 목적이 강한 保民用으로 축조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는데, 邑城은 주로 倭寇를 방어하기 위하여 고려시대 후기부터 정치적인 면보다는 보다 軍事的인 性格을 띠면서 연해안지역부터 축조되는 것이 특징이라 하겠다. 또한 이러한 邑城을 축조하게 된 목적이 이제까지 淸野入堡策에 의하여 피난을 목적으로 하는 山城에서의 소극적인 방어체계에서 벗어나 적을 연해에서 직접 차단하려는 적극적인 방어체계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견해를 듣고 싶다.

撒禮塔(Sartai)와 몽골 - 고려 전쟁 - 處仁部曲 大捷의 의미 -

周 采 赫 (강원대 사학과 교수; 몽골학회장)

目 次

- I. 머 리 말
- II. 札刺亦兒씨족과 征東元帥 撒禮塔
- III. 撒禮塔 射殺사건과 『몽골비사』 成書年代 比定 문제
- IV. 맺 음 말

I. 머 리 말

아래에 실린 <지도> 사르타이 1차 침공시의 작전상황 개략도¹⁾에서 보듯이 撒禮塔(Sartai)²⁾는 1231년 8월 29일에 전격적으로 北界諸城을 공격해 기

1) 周采赫, 1970, 『麗元間에 있어서 洪福源일가의 구실과 그 位置』,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153~154 참조

2) 필자가 본고에서 쓴 撒禮塔의 몽골식 발음은 당대의 原音を 되살린 것이 아니고 한국의 교과서에서 일반적으로 써 온 이 漢文 音譯을 몽골식으로 읽어본 야나이 와다루의 로마자 표기를 옮겨 적은 것이다(箭內 巨, 1918, 『蒙古の高麗經略』 『滿鮮地理歷史研究報告』 4, 東京帝大, pp. 227~273). 村上正二는 撒禮塔의 原音を 'Sartaq'라고 復元(村上正二 譯註, 1976, 『몽골秘史』(東洋文庫 294), 日本東京, 平凡社, pp. 336~339 注13)하고 있으나 왜 그러해야 하는지에 관한 구체

선을 제압하지만³⁾ 결코 이들을 攻破하지 않은 채 그대로 남겨 두고 경솔하

적인 설명은 없다. 宋代에 오면 이미 漢字音에서 ‘ㄱ’음이 받침에서 사라진다는 사실로 미루어 또 당대의 史料인 『集史』에 그렇게 로마자로 音寫될만한 이름이 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럴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한 연구자가 추정해 본 견해의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하겠다. 실은 몽골인이 아닌 漢人이나 고려인 같은 경우에는 몽골 발음을 조금 잘못 들어 音寫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으며 다른 사료에서 옮겨 썼을 경우에 또한 오류가 있을 수도 있는데, 실은 여러 사료에 나타나는 다양한 그 音寫 사례들은 이를 잘 보여 준다고 하겠다. 필자는 ‘撒禮’, ‘撒里’, ‘薩里’, ‘撒兒’와 ‘沙打’등의 음사까지도 실은 ‘札刺’이나 ‘札刺兒’ 또는 ‘割刺’과 같은 씨족이름의 다양한 음사에 지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고 본다(周采赫, 1977, 「札刺와 撒禮塔」, 『史叢』 21.22합집, 고려대학교 사학회, pp. 283~302 참조).

- 3) 『新增東國輿地勝覽』 권53 2쪽 ㄴ 鐵山郡 名宦 「李元禎」조에 「金坵詩 當年怒寇闌塞門 四十餘城如燎原 倚山孤堞當虜蹊 萬軍鼓勁期一吞 白面書生守此城(중략) 相持半月折骸炊 晝戰夜守龍虎疲 勢窮力屈猶示閑 樓上管絃聲更悲 官倉一夕紅焰發 甘與妻孥就灰滅 千古州名空記鐵」이라 한 것을 보면, 이것이 武人도 아닌 一介 白面書生 이원정이 怒寇와 싸우다가 氣盡脈盡한 나머지 더는 버릴 수 없게 되자 官倉에 불을 지르고 마침내 자기도 기꺼이 아내와 부등켜 끌어 안고 그 타오르는 불길속에 몸을 던져 焚身自殺하고자 말았던 鐵州城血戰의 비장한 풍경을 그려낸 한 폭의 시귀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는 『高麗史節要』 권16 3 ㄴ~4 ㄱ 高宗 18년 8월조 및 『高麗史』 권121 11 ㄴ~12 ㄱ 列傳 권34 「文大」전에 「蒙古元帥撒禮塔 將兵圍咸新鎮曰(중략) 至鐵州城下 令所虜瑞昌郎將文大(중략) 復如前 遂斬之 蒙人攻之愈急 城中糧盡 不克守 城將陷 判官李希勳 聚城中婦女小兒 納倉中火之 率丁壯 自刎而死 蒙人 遂屠其城」이라 기록해 있는 기사와 서로 결맞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곧 고종 18년 8월말쯤에 몽골병사가 쳐들어와서 철주성을 침공하니 판관 이희직이 城民들을 거느리고 싸우다가 마침내 성중에 먹을 것이 떨어져 더는 지킬 수 없게 되자, 城中의 부녀와 소아를 모두 창고속에 몰아 넣고 불을 지르고는 자기는 장정들을 거느리고 스스로 목을 베어 자결해 버린다. 바로 이 처절하고 비장한 대열속에 백면서생 이원정도 끼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은 모두 철주성 혈전풍경속에 내포되는 기사일 뿐만 아니라, 또한 아래와 같은 사실을 보아도 사르타이 2차(1231년)침공시의 기사에 결맞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곧 위에 든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칠산군 「이원정」조에 「李元禎 北兵來寇 時 元禎爲州 卒 固守力盡 知不免 遂焚官倉 領妻子投火而死」라고 기록해 있는 것을 보면, 이원정이 이처럼 비장하게 자결을 했던 것은 바로 「北兵」이 쳐들어 왔던 때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北兵」이란 『고려사절요』 권16 32 ㄴ 고종 34년 여름 6월조에 「刑部尙書 朴暄 言於

게 南下하지 않았다. 사르타이 휘하의 장수 蒲挑元帥, 迪巨원수와 唐古원수 등의 부대가 開京의 四門 밖에 나누어 주둔하고 있던 12월 1일에도 그는 여전히 安北都護府에서 주력부대로 볼 수 있는 北京元帥 吾也而, 遼王 薛闐, 義州等州 節度使 王榮祖와 都提控 耶律捏兒 등의 휘하 각 전투부대와 後援해 온 也速迭兒(Yesüder)의 전투지원부대를 거느리고 北界諸城 공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면서, 한편 사자를 보내 개경의 궁궐에 들어가서 외교전을 펼쳤던 것을 본다. 이처럼 북계제성을 포위하여 고려 병력을 일단 城內에 固着시켜 놓고 일부의 부대를 王京에 直衝케 함으로서 고려왕을 움직여 北界의 難攻不落의 要塞가 스스로 자기의 장악하에 들어오게 하려는 사르타이의 전략전술은 일단 성공을 거두어 이듬해에 龜州와 慈州城까지 더해져 北界 여러성을 모두 확보하게 된다. 심장부를 들어쥐는 방법으로 몸동아리 전체를 손쉽게 빼앗아 버렸던 것이다.⁴⁾

崔怡曰 今北兵連年入寇 民心疑貳(하락)'이라고 기록해 있는 것을 보면 여기에도 역시 '北兵'이 해마다 쳐들어 온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때는 바로 몽골군의 침공이 잇달아 그 병화가 비할 데 없이 극심했던 때다. 따라서 이 기록에서의 '북병'이란 곧 몽골병을 가리키는 것임을 알게 된다. 물론 앞에 인용한 '이원정'조에 실린 김구의 시에 나오는 怒寇나 '이회적'조의 狄兵이란 모두 北兵 곧 몽골병사라 하겠다.

그렇다면 당연히 金丘의 詩에 '當年怒寇闌塞門'에서 '當年'이란 바로 고종 18년인 A.D. 1231년이고 '塞門'이란 咸新鎭 언저리를 이르는 것임을 알 수 있고, 잇달아 나오는 '四十餘城如燎原'이라는 표현은 다름 아닌 1231년 撒禮塔²차침공시의 전황을 그려낸 식귀임을 알게 된다. 윗 관계사료에 근거해 추산해보면 이 당시의 김구의 나이가 갖 스물쯤이었으므로 이때의 전황을 그가 몸소 체험했거나 목격했거나 아니면 귀담아 들어 두었다가 썼던 시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므로 이는 다른 어떤 사료보다도 가장 史實에 가까운 기록이라 하겠다. 이에 따르면 이때 몽골군이, 사료에 기록돼 있는 14개성들만 요리조리 빠져 찾아다니며 공격한 것이 아니고 요원의 불길처럼 일시에 북계사십여성을 덮쳐왔던 것임을 분명히 확인 할 수 있게 된다. 1218~9년 江東城役 이후에 맺은 몽골-고려간의 兄弟의 盟約을 구체적으로 이행치 않은 데 대한 응징의 성격을 가지는 명백한 몽골군의 '계획된 군사행동'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 4) 몽골군은 이와 비슷한 상황하에서 흔히 이런 전략전술을 구사하였다. 가장 경제적인 戰勝方法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밀림을 배경으로 淸野戰術을 구사하며 海

이러한 사르타이 몽골군에 대응하는 고려군 지휘부의 전략전술이 그 이듬해에 실행에 옮겨진다. 고려의 심장부인 王京을 江華島로 옮기고 고려의 軍民이 淸野戰術로 평소의 생활 터전에 먹을 것을 모두 없애고 山城과 海島에 들어가 목숨을 부지하며 장기적으로 항전하는 길을 택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수십년간에 걸치는 몽골-고려전쟁에서 몽골측의 일관된 요구사항은 고려의 심장부를 틀어쥐어서 고려를 통채로 장악하려는 사르타이의 전략전술을 관철하는 것이었고 고려의 대몽항쟁은 이를 한사코 거부하는 것이 그 궁극적인 목적이었다.⁵⁾ 그런데 주목할 것은 그 심장부가 開京에서 江華島로

島와 山城에 入保하여 게릴라전을 많이 벌리는 베트남에 대한 정벌전쟁이 그 대표적인 사례의 하나라고 하겠다. 이곳에서는 몽골군이 끝내 이기지 못했다 (中國史稿 編寫組, 1983, 『中國史稿』 5冊, 北京人民出版社, 當該條).

- 5) 위의 註4)에서도 지적했듯이 이러한 상황에서 고려를 침공하는 데는 사르타이의 이런 전략전술이 가장 효과적인 것이었다고 하겠다. 그 뿐만 아니라 崔氏 武人政權의 對蒙抗戰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그 이후에 펼쳐지는 역사적 상황이 몽골의 군사력을 등에 업은 왕과 문민 지주 관료 층들이 주도하는 王政復古-文民 쿠데타와 이를 통한 몽골군 영향권으로의 고려의 再編이 이루어지면서 몽골 세상이 되고 무인정권의 최후 항전세력이라 할 三別抄軍이 이들에 의해 말살되어, 무인정권의 역할에 대한 평가는 여지없이 貶下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려에 최초로 朱子學을 수용했다는 安珦의 스승인 柳璩(쿠데타로 左右衛上將軍이 되고 門下平章事를 역임했다. 祖父는 政堂文學 柳公權이고 유공권의 6대 祖父가 文化 柳씨의 시조인 고려의 開國功臣 柳車達이다. 高宗이 1259년에 유경의 집에서 병사했다.)이 바로 다른 아닌 몽골 군사력을 등에 업고 최씨정권의 측근으로 別將 金俊 등과 함께 왕정복고- 문민쿠데타를 감행한 문민 지주관료의 대표이었다는 사실은, 그후 주자학자들이 史官이 되어 이 시대 역사를 기록하는 視角이 어땠겠는가 하는 점을 충분히 짐작케 해 준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주자학 이데올로기라는 패러다임이 군사-정치력과 상관없이 공중에 떠돌다가 스며들어 온 것이 결코 아니고 도리어 그것을 배경 삼아 그것의 일환으로 그것을 유지-강화하는 수단으로 그것과 동행해 들어온다는 엄연한 사실이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몽골-고려 관계 시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대륙-한반도 관계가 主從관계에서 姻戚관계로 획기적으로 바뀌고 滿洲지대라는 완충지대가 사라지면서 역사 서술체계가 本紀-列傳체제에서 世家-列傳체제로 그 인식의 틀을 바꾸는 큰 비극이 빚어지게 된다. 몽골-고려 전쟁이 6.25한국전쟁 이전에 유일하게 있었던 세계적 규모의 군대에 대한 전쟁이고 斷續의이기는 하였지만 무려 40~50여년에 걸친 한국사상 유례가 없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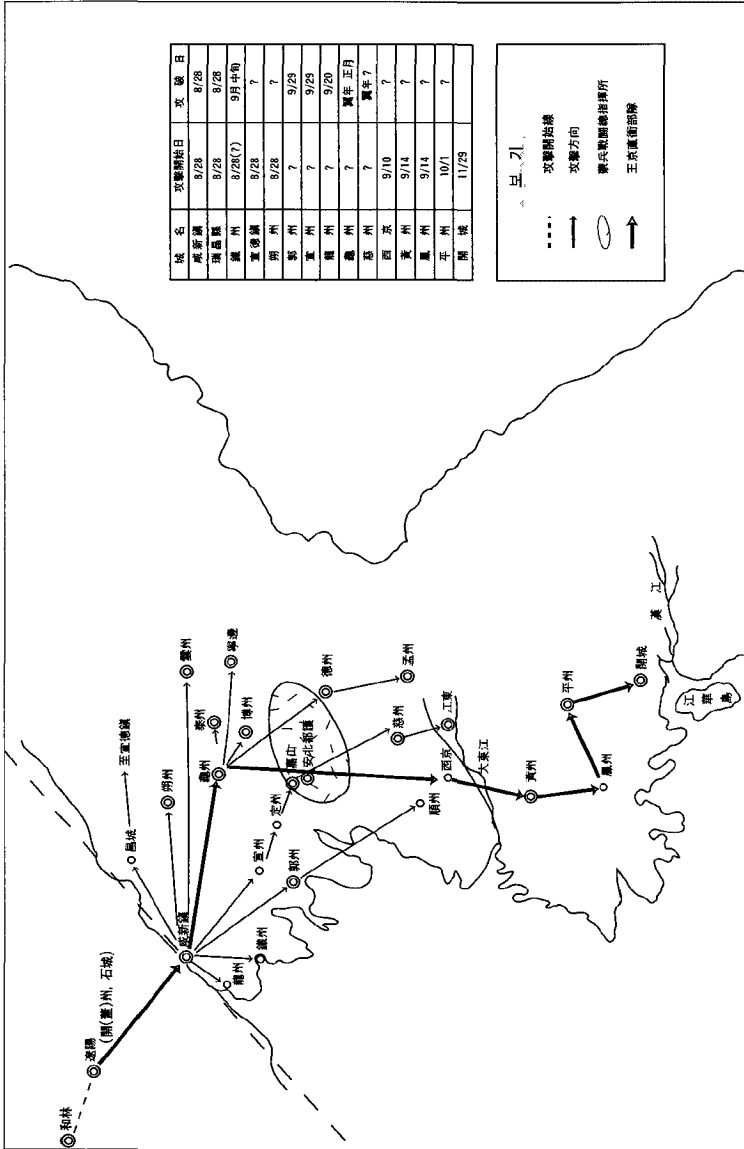
옮겨지고, 심장부의 攻破와 死守가 각각 몽골-고려전쟁 당사자 각진영의 궁극적인 목표였다면 개경과 강화도라는 심장부의 소재지가 몽골-고려전쟁의 핵심부가 되었을 것은 물론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고려의 餘他 地域에서의 전투는 그 규모 여하를 막론하고 외곽을 때려 핵심부를 쟁취하려는 보조적 전쟁이었을 뿐이고 정작 중핵이 되는 전쟁은 심장부의 소재지인 京畿道 지역에서 이루어졌을 것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 몽골-고려전쟁에서 대몽항전 유적지로 珍島나 濟州島가 거론되기도 하지만, 그것은 이미 고려의 심장부가 거의 해체당하다 싶이 하여 서남해의 섬들을 징검다리로서 삼아 日本列島까지 몽골 군사력이 뻗어 내리는 과정에서이었을 뿐이다. 아직 고려의 심장부가 견재한 채로, 본질적으로 反사르타이戰略戰術을 관철시키려는 고려의 진정한 대몽항쟁은 역시 경기도를 무대로 이루어졌다 아니 할 수 없다. 따라서 다른 지역이 아닌 바로 경기도 지역 處仁部曲에서 몽골군의 세계정복사상 몇 개 사례 정도가 손꼽히는, 총사령관인 황제 자신이 전장에서 죽거나 황제의 권한대행인 현지 총사령관 權皇帝가 전사하여 전 병력이 총퇴각하는 획기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고 하겠다.

실로 1232년 음력 12월 16일에 處仁部曲에서 일어난 權皇帝 사르타이射殺事件은, 비정규병인 천민집단의 부곡민들이 스님 김윤후의 영도 하에 이룩한 전과임에도 불구하고, 비단 몽골-고려전쟁사상에서 뿐만 아니라 몽골 세계정복전쟁사상에서도 특기할 만한 큰 사건이었다. 水州의 屬邑인 처인부곡의 작은 성에서 서로 맞서 싸우다가 몽골군 사령관인 사르타이가 사살되었다고 하고 이어서 사로잡은 자도 많았으며 적의 남은 무리는 무너졌다⁶⁾고

대전쟁인데도 기록이 그토록 疏略하고 戰爭遺跡이 거의 보존되지 않았으며, 유물이나 기념비가 별로 남아 있지 않은 사실은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이해할 때만 비로소 그 해석이 가능한 것이라 하겠다. 몽골-주자학 세상이 지속되고 주자학도가 그 시대 역사를 편찬하는 상황하에서 더군다나 處仁部曲에서 있었던 金允侯 스님 주도의 사르타이 몽골 총사령관 사살사건에 관한 유적, 유물이나史料가 제대로 남아있을 까닭이 없었다 하겠다.

6) 『高麗史』 권23 세가 23 고종 2 고종 19년 12월 및 『東國李相國集』 28 「答東眞別

<[도 1] 撒禮塔一次停攻時의 作戰狀況 概略圖



한 것으로 보아 몽골군이 적은 병력은 아닌 것을 알 수 있고 총사령관이 流矢에 맞아 전사할 정도면 彼我間에 격렬한 접전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곳이 교통의 요충지임을 감안할 때 몽골군 총사령관이 이끄는 주력군이 이곳을 돌파해 내려가려 하였을 것을 추정해 볼 수 있다 하겠다. 더러는 김윤후가 직접 사르타이를 쏘아 죽였다는 기록과, 이에 연이어 나오는 기록에 그러나 정작 왕이 그에게 그의 공을 가상히 여겨 상장군을 제수하려하니 공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면서

“싸울 때 나는 활도 화살도 가지고 있지 않았으니 어찌 감히 헛되이 무거운 상을 받겠습니까?”

하고 군이 사양하여 받지 않으므로 고쳐서 섭랑장을 제수하였다⁷⁾는 기록에서 정작 ‘싸울 때는 활도 화살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다분히 修辭의인 이 語句에 걸려 김윤후의 사르타이 사살 사실을 간단히 부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사실을 부정하는 말이나 기록을 남긴 이는 김윤후 자신 이외에는 아무도 없다. 그것도 공을 남들에게 양도하는 자리에서 나온 수사적인 말을 하는데 섞인 내용일 뿐이다. 『고려사』 세가 고종 19년조 기사나 「김윤후」전, 그리고 『고려사절요』 고종 19년 9월조에서도 모두 이 사실을 분명히 확인해 기록하고 있다. 그후 忠州山城 大捷에서도 보여 주듯이 그는 무엇보다도 人和力에 바탕을 둔 뛰어난 지휘력을 지닌 작전의 천재이며 수도하는 스님이

紙」에 「撒禮塔攻處仁城 有一僧避兵在城中 射殺之 答東眞書曰 … 至今年 十二月十六日 水州屬邑處仁部曲之小城 方與對戰 射中魁帥撒禮塔殺之 俘虜亦多 餘衆潰散 …」이라 기록하고 있다.

- 7) 『高麗史』 권103 열전 16 「金允侯」傳에 ‘金允侯 高宗時人 嘗爲僧 住白峴院 蒙古兵至 允侯避亂于處仁城 蒙古元帥撒禮塔來攻城 允侯射殺之 王嘉其功 授上將軍 允侯讓功于人曰 當戰時 吾無弓箭 豈敢虛受重賞 固辭不受 乃改攝郎將 …」이라 하였다. 『高麗史節要』 권16 고종 19년 9월조에도 ‘三軍平忠州而還 … 撒禮塔攻處仁城 有一僧避兵在城中 射殺撒禮塔 國家嘉其功 授上將軍 僧讓功于人曰 當戰時 吾無弓箭 豈敢虛受重賞 固辭不受 乃拜攝郎將 僧卽金允侯也’라고 하여 같은 내용을 적고 있다.

었다. 전투 지휘자로 자기의 공을, 그것도 賤人 신분인 部曲民들에게 돌려 그들이 천민의 신분적인 桎梏에서 벗어나게 해 주었다면 天時나 地利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人和라는 本質의인 戰鬥力을 사람들에게서 이끌어 낼 수 있었던 그는 천생의 전투지휘자였다 하겠다. 이런 시각에서 깨달아 보면 이 수사적 어귀 자체가 실제의 사실이라기 보다는 차라리 충주산성대첩으로 열매 맺어 가는, 私心 없음에서만 비롯될 수 있는 일련의 뛰어난 작전행위였던 것일 수가 있다. 다만 이 한 어귀 때문에 김윤후가 사르타이를 쏘아 죽인 장본인일 수 없고 사르타이를 쏘아 죽인 화살의 주인공이 치인부곡민중의 어느 한 사람일 것⁸⁾이라고 소박하게 단정한다면 이 또한 '民衆史觀'이 유행하는 이 시대 思潮에 迎合하는 천박한 飛躍이라는 악평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어떤 이는 '流矢'에 맞아 죽었다는 기록을 들어 部曲民衆이라는 不特定多數에게 사르타이 사살의 공을 돌리려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근래에 고려 측 사료까지 베껴서 편집해 낸 것으로 보이는 『新元史』 권249 열전 146 의 국1 「고려」를 제외한 어느 몽골측 사료에도 '射殺'이라는 표현은 없다. 가장 핵심이 되는 사료인 『元高麗紀事』나 『元史』에 모두

中流矢卒

이라고 되어 있다. 화살을 맞는 몽골군 쪽에서야 당연히 流矢에 맞아 죽는 것이고 쏘아 죽이는 고려군 쪽에서야 당연히 정확히 조준하여 쏘아 죽이는

射殺

이 되지 않겠는가? 대체로 지휘를 받아 적과 맞붙어 싸우는 사병들보다 전투를 지휘하는 지휘자인 고급장교는 적진의 輕重과 虛實을 넓은 안목으로 파악할 수 있게 마련이고 그래서 지휘가 가능하게 되는 법이다. 바로 김윤

8) 尹龍燦, 1998, 「1232년 치인성에서의 대몽승첩」, 『‘고려시대의 용인’ 학술대회-발표 논문집-』, 용인시·용인문화원, pp. 87~96 참조.

후가 그런 자리에서 敵陣의 核心과 周邊을 제대로 파악하고 핵심을 정확히 겨누어 몽골군 총사령관 權皇帝 사르타이를 틀림없이 사살한 것이라 하겠다. 날아오는 화살에 맞은 이들이야 누가 쏜 화살인지를 몰라 그냥 ‘流矢’라고 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지만, 목표를 똑바로 겨누어 맞힌 사수가 누가 누구를 사살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지당한 일이다. 만약 고려측에서도 사르타이를 특정인이 겨누어 쏘아 죽인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우연히 날려본 화살로 맞혀 죽인 것이었다면 당연히

‘中…射殺’

이나

‘射中…殺之’

가 아니고 ‘中流矢死’라고 했어야 옳다. 그러나 한결같이 ‘射中魁帥撒禮塔殺之’라고 하여 ‘쏘아 맞혀 죽었다’거나 ‘射殺’했다고 했다. 따라서 김윤후 스님이 내가 분명히 안 쏘고 다른 이가 쏘아 맞혔음에 틀림이 없다고 한 것은 자기가 바로 그 사수이기 때문에 도리어 자신 있게 그렇게 말하고 공을 양도할 수 있었던 것일 수가 있다. 도대체 치열한 전쟁터에서 목탁을 들고 염주알을 굴리면서, 또는 맨손으로 교통순경이 교통정리 하듯이 전투지휘를 하는 지휘자가 어디에 있는가? 전투소대장의 지휘봉은 그대로 칼빈소총이어야 힘을 발휘하게 마련임을 필자는 체험을 통해 익힌 적이 있다. ‘정작 싸울 때는 나는 활도 화살도 가진 적이 없었다’는 그의 말이 필자에게는 도리어 사르타이를 사살한 것은 분명히 나지만, 그러나 그 전공을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은 사적으로나 공적으로나 나 같은 중이 아니고 처인부곡 전장에서 피붙이나 동료를 많이 잃은 가엾은 부곡민들이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외치는 절규로 들린다. 산 자가 도둑질해야 하는 공이 아니라 죽은 이들의 염원을 이뤄 주기 위해 드러야 할 布施로 전공을 본 것이리라. 그런데 사르타이 사

살의 전공으로 一介 무명 스님인 그에게 일약 요즈음으로 말하면 4성장군급이라 할 최고 武班벼슬인 上將軍을 제수하려 했던 것을 보면 이 전공이 몽골-고려 전쟁사상에서 얼마나 큰 비중을 가지는 것인가를 알 수 있다. 그의 사양으로 오늘날의 영관급이라 할 攝郎將을 除授받는데 그쳤지만, 그후 그는 忠州山城 防護別監으로 충주산성대첩을 치루어 내어 마침내 監門衛上將軍에 오르고⁹⁾ 東北面兵馬使에 임명되었다가 그곳이 몽골군에게 함몰되는 바람에 부임치 못하기는 하지만 守司空右僕射라는 높은 벼슬로 致仕하기에 이른다. 몽골군 총사령관인 권황제 사르타이가 사살당하고 부사령관인 데게(帖哥)가 지휘체계가 흐트러진 몽골군을 수습하여 총퇴각하게 되었던 이 역사적인 사건이 몽골-고려전쟁의 성격을 一變케 하는 계기가 되었음은 물론이다. 90년 3월 6일에 역사적인 몽골-한국간의 수교가 이루어지고 나서 당시의 몽골인민공화국의 시장과 도지사 수십명이 龍仁에 와서 연수를 받고 돌아갔는데,¹⁰⁾ 92년도에 몽골과학아카데미와 한국몽골비사학회가 합동으로

9) 尹龍燾, 1991, 『高麗對蒙抗爭史研究』, 一志社, pp. 284~288 참조.

10) 이 일을 주선한 이는 초대 駐몽골한국대사인 權永純교수(1998년 현재 한동대학교에 재직중)였다. 6.25한국전쟁을 겪으면서 몽골보다 훨씬 후진이었던 남한이 불과 몇십년만에 자기들을 훨씬 능가하는 단계로 발전해 있는 모습을 1988년 서울 올림픽을 통해 확인해 보고 놀라워하는 몽골인 지도자들에게 산업시찰을 시켰던 것이다(1998년 7월 21일 오후 평창동 자택에 가서 金鮮浩박사와 함께 확인했다). 이밖에도 이때 몽골 젊은이들이 한국에 초대되어 기술연수를 받기도 하고 컴퓨터나 제록스기 같은 선진 器機가 지원되었으며 교육 기자재가 원조되기도 하였다. 비공식 집계이기는 하지만 1997년도 경에는 몽골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이 수백명에 이르고 몽골시장에서 일본 상품을 젖히고 한국 상품이 판을 치며 한국에 머무는 몽골인이 만수천명에 이르게 하는 몽골에서의 한국붐 조성에 초석이 이 시기에 놓여졌다. 필자와의 인연은 특히 1992년 7~8월에 있었던 '동몽골대장정'에 한몽공동 탐사대원의 일원으로 동참하면서 주로 맺어졌다. 너무나 위험한 탐사 코스라서 모두 외면하고 장거리 탐사 길에서 지칠 대로 지친 탐사대원들이 오로지 비야냥거리기만 하던 고올리성터 탐사 길에 흔쾌히 동참해 주어 그후 큰 성과를 거두기에 이르렀던 일이 계기가 되어 탐사를 마치고 몽골과학원학자들과 우리 대원들이 결과를 토론-정리하는 자리에서 필자가 "초대 몽골대사이자 영월한 몽골대사"라는 감사의 말을 했을 만큼 초기 한국몽골학 및 몽골학회의 定礎에 여러모로 헌신한 터였다. 밖으로 드러나지

별인 ‘동몽골 대장정’이라고 자칭하는 동몽골대탐사 과정에서 헨티. 아이막(道)에 들렀을 때 그곳의 도지사가 ‘용인 연수 체협담’으로 우리에게 먼저 말을 건네 오는 것을 보고, 우리는 그 당시에 서울과 평양을 제외하고는 용인이 몽골지역에 가장 널리 알려져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다. 그리고 이는 어떤 면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역사적인 인연관계의 소산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다.¹¹⁾ 고려의 심장부가 있던 開京과 항몽심장부가 있던 江華島가 있지만 실전이 가장 치열하고 집요하게 이루어진 곳은 강화도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京畿道 內陸지방이고 그 중에서도 몽골-고려전쟁사상 역사적으로 가장 큰 사건이 일어났던 지역이 바로 處仁部曲이 있던 龍仁이기 때문이다.

II. 札刺亦兒씨족과 征東元帥 撒禮塔

江東城役(1218~1219년)때의 副元帥 札刺가 바로 다름아닌 그로부터 13년 후 1231년 음력 8월 28일에 元帥로 고려에 쳐들어 온 사르타이임은 이미 『新元史』 열전 제29 札刺亦兒台豁兒赤傳에서 제대로 기록하고 있고,¹²⁾ 『元

않게 늘 뒤에서 지원해 주던 당시 문교부 柳江夏과장의 뒷받침이 이를 고여 주고 있었던 일도 기억된다.

- 11) 필자는 대학 학부학생 시절인 60년대초에 맨 처음으로 치인성터를 답사했고 그리고 대학 박물관에 몸 담고 있던 70년대 초에 三幕寺에 김윤후 관계 사료가 있다는 어떤 이의 글을 읽고 다시 한번(실제로는 아무 것도 관계 사료가 없었다. 무책임한 글이 얼마나 큰 폐해를 주는가를 통감했다), 그리고 3번째는 몽골 붐이 일고 있는 90년대 초의 용인 치인성 유적지를 몽골비사연구회 회원들과 함께 용인문화원의 이인영 선생과 이상학 화백의 안내를 받아 각각 답사한 적이 있다.
- 12) 史料로서의 『新元史』의 신빙성 문제는 이미 관계학계에서 여러 차례 제기되어 왔고 대체로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인정되고 있다. 典據를 제시하지 않은 점이나 편찬자 柯劭忞의 박사학위 취득과정에 대한 잠음 및 그것이 258

高麗紀事』太祖13년조에서 ‘割刺與冲 約爲兄弟’라 한 기록을 『高麗史節要』 권16 고종 18년 8월조에서 조충의 아들 防守將軍 趙叔昌이 ‘吾父與貴國元帥 約爲兄弟’라고 하여 조충이 일찍이, 그 당시에는 副元帥이었던 지금의, 귀국 (현직)元帥 사르타이와 형제맹약을 맺었었음을 고백하여 이를 재확인하고 있다. 곧 1218년의 副元帥 札刺와 1231년의 元帥 사르타이가 동일인임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니, 1218~1219년 당시에 형제맹약을 맺었던 당사자인 撒禮塔 자신이 몸소 총사령관이 되어 著古輿를 죽이고 이를 문책하러 왔던 使者를 쏘아 돌려 보낸 점을 따지러 군사를 이끌고 고려에 쳐들어 온 셈이고 고려에서는 이런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역시 당시에 형제맹약을 맺었던 당사자인 조충의 아들 조숙창을 내세워 사르타이를 맞아 이에 답변하려 했던 것이라 하겠다.¹³⁾ 그러니까 1218년 12월에 강동성을 중심으로 하는 고려의 北界要塞들에서 契丹遺種의 토벌을 빙자하여 고려에 침입해 전투정찰을 수행했던 당시의 부원수 札刺 곧 撒禮塔가 그후 1221년 8월경에 원수로 진급되어 蒲里帶와 함께 사신 著古輿를 통하여 서신 1통을 고려에 보내는 등으로 對高麗관계의 일을 계속 주관해 오다가 1231년 8월 28일에 그간의

에 내포되게 되는 과정에서의 권력의 작용설 등이 더욱 더 그 사료로서의 가치를 문제시하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가 사료를 읽는 시각에서 더러는 날카로운 점이 있다는 것조차도 모두 싸잡아서 버려 버리는데 필자는 동의 하지 않는다. 필자는 물론 앞에 인용한 필자의 논문에서 20여쪽(周采赫, 「札刺와 撒禮塔」)에 걸치는 고증과정을 거쳐 『신원사』의 관계 기사와 전혀 상관없이 기존의 잘못된 견해들을 구체적으로 비판·검증하면서 이를 고증하고 있다. 다만 필자의 이런 글이 나오기 이전에도, 비록 구체적인 고증과정을 거쳐서 논문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시각이 있었다는 것을 소개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생각해서 본론에서 인용하고 있을 따름이다. 참고로 일본식민치하에서 官府의 지원을 받아서 수많은 업적을 낸 이른바 당대의 ‘거물급’ 학자의 관계분야 연구업적에 감탄을 연발하고 경의를 표하는 것이 후학으로서의 당연한 도리일 수도 있겠으나, 수십명의 조교를 마음대로 부리며 관계 자료를 각각 뽑게 하는 데서 오는 서로간의 시각과 인식의 차이들에서 비롯된 혼선과 이로 인한 수많은 오류 및 오류의 가능성을 가법게 간과하는 일 빠진 학문 자세는 재고해 보아야 마땅하리라 생각한다.

13) 앞에 든 주채혁, 「札刺와 撒禮塔」 참조.

형제맹약을 위반한 죄를 물어 征東元帥의 자격으로 고려침공을 총지휘해 온 것이라 하겠다. 강동성 전역에 참가했던 몽골의 장병들이 그 후 1231년의 몽골-고려 전쟁에 다시 동참한다는 것은 산악지대이면서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고려의 공략에서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고 실제로 그런 증거가 적지 아니 보이고 있지만¹⁴⁾ 札刺合를

太祖憲宗朝 征高麗元帥

라고 기록하고 있는 데서¹⁵⁾ 太祖때에 있었던 강동성전역에 부원수로 참전

14) 江東城戰役(1218~1219년)~본격적인 무력침략(1231~2년)에 연달아 참여해 온 이로는 札刺-撒禮塔, 蒲里尙完-蒲里帶-蒲桃(앞에 든 주채혁, 『札刺와 撒禮塔』, p. 289 주15 참조)와 都坦(앞의 주채혁 논문, p. 301 주36 참조)이 눈에 띈다. 耶律留哥-薛闊(子)-石剌(收國奴), 也古(哈撒兒의 子; 1252년)-也生哥(也古의 아우), 王榮祖, 吾也而, 札刺亦兒合-塔出과 買奴 등이 있다(이상은 위의 周夬赫 논문, pp. 300~301 주29~36 참조).

15) 錢大昕 『元史氏族表』 권1 蒙古 札刺亦兒氏編 「札刺合」조. 이에 의하면 札刺合가 몽골의 太祖 칭기스칸때부터 憲宗 몽케때까지, 그러니까 1218~1259년까지 줄곧 征高麗元帥로 복무했던 것으로 되는 셈이다. 그렇다면 札刺合는 칭기스칸때의 札刺-오고데이때의 撒禮塔-몽케때의 車羅大(1254년 閏 7월)를 모두 함께 지칭하는 것이라 하겠는데, 札刺(1218~1219)와 撒禮塔(1218~1232)는 동일인을 서로 다르게 표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3인물을 모두 ‘잘라이르’라는 씨족이름으로 호칭했을 때 가능한 일이라 하겠다. 『몽골비사』 274절에서 잘라이르타이 코르치가 주르체드(Jürüed)와 솔랑가스(Solangas) 곧 女眞과 高麗를 연속해서 정벌하는 것으로 기록되고 있지만 당시의 征東元帥는 여진과 고려를 함께 정벌하는 것이 상식으로 되어 있었다. ‘征東元帥’가 곧 ‘정고려원수’이었던 것이다. 어떤 이는 1218~9년의 강동성전역은 물론 심지어는 1231년 몽골-고려 전쟁까지도 계획된 전쟁 수행이 아니고 우연한 소행으로 파악하려는 견해를 보이기도 하지만, 이는 칭기스칸의 정복전쟁이 이미 무르익어 가던 단계에서나, 더 나아가서 이미 칭기스칸만에 의한 제국이 틀을 잡고 난 후의 상황하에서는 상정하기 어려운 가설이라 하겠다. 투항과 저항이 반복되는 경우는 적지 않았는데 대표적인 경우로는 西夏를 예로 들 수 있다. 이경우에 투항도 저항과 함께 일련의 작전행위에 내포된다는 것은 상식이다. 물론 이른바 고려를 兄弟盟約으로 묶어 우군으로 활용하며 금나라를 함께 협공할 수 있다면 그것이 최선의 전략 전술이라는 것을 몽골군이 계산에 넣지 않고 있었던 것은 아니겠지만 몽골측에

했던 札刺가 바로 太宗때에 있었던 몽골-고려전쟁의 총사령관인 權皇帝 사르타이일 가능성을 더욱 분명히 확인케 해 준다 하겠다. 결국 사르타이는 1218~1219에 1차로 고려에 들어와서 전투정찰을 마치고 1231년에 2차로 고려에 쳐들어 와서 고려왕을 항복시키고 돌아 갔으나, 이듬해에 고려가 강화도로 遷都하고 장기항전태세를 갖추자 1232년에 3차로 고려에 다시 쳐들어 왔다가 마침내 음력으로 이해 12월 16일에 처인부곡에서 김윤후스님의 화살을 맞고 죽어서 돌아가게 되었다.

그런데 사르타이 뿐만 아니라 아예 太祖(1218년)~憲宗(1259년)조의 42년 간에 걸치는 征高麗役에서 그 원수가 모두 札刺台라고 기록하고 있는 위에 인용한 『元史氏族表』 蒙古 札刺亦兒氏編 「札刺台」조는 征東의 役, 그중에서도 특히 征高麗役은 모두 札刺亦兒(Djalair)씨들의 지휘 아래서 그 전투가 수행되었을 가능성을 示唆해 준다. 칭기스칸이 서역정벌을 계획하면서 1217년 이래 금나라의 정벌을 잘라이르 무칼리(木華黎)에게 일임하였음을 고려하면 금나라를 정벌하는 작전의 일환으로 그 연장전장에서 이루어졌던 征高麗役은 1254년 潤 7월에 정동원수직을 맡아 쳐들어 왔던 車羅大까지 합하여 사실상 잘라이르씨가 지휘를 도맡았을 수도 있었다고 하겠다. 왜일까? 몽골 고원의 물은 北流하고 中原의 물은 東流하며 한반도의 물은 西流하는 것이 보통인데, 유일하게 몽골쪽의 起源地인 興安嶺 북서부 초원의 물은 東流하며 嫩江과 松花江의 물까지 동류하는¹⁶⁾ 滿洲벌판과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된

서는 이를 모두 정복행위로 파악하여 기록하고 있음을 관계사료를 면밀히 분석해 보는 과정에서 우리는 곧 파악해 낼 수 있다. 예컨대 『원고려기사』 ‘三年辛卯九月上命將撒里塔火里赤領兵爭討…四年八月降旨復遣撒里塔火里赤領兵討之’라 한 것이나 『원사』 권2 본기 제2 ‘太宗三年秋八月是月以高麗殺使者命撒禮塔率師討之取四十餘城…四年八月撒禮塔復征高麗中矢卒’이라 한 것이 모두 고려의 정복을 기사화한 것들 뿐이다. 그래서 필자는 1218년에 1차로, 1231년에 2차로, 그리고 1232년에 사르타이가 3차로 몽골-고려 전쟁을 일으킨 것으로 정리하고 있다.

16) 고구려연구회장 徐吉洙교수의 도움말이 있었다(1998년 7월 22일 신촌 연구회 사무실).

다. 그래서 테무게 옷치긴은 칭기스칸의 막내동생으로 할하유역을 중심으로 하는 몽골고원의 가장 동북 끝 하라운(哈刺溫)산이라고 불리웠던 興安嶺¹⁷⁾의 서북에 있는 땅을 封地로 받은 뒤에 흥안령 동남쪽으로 자기세력을 확장해 가는데, 마침내 만주나 고려도 장차 점령되면 그의 봉지로 예정되었을 가능성이 아주 많다. 黑韃靼人으로 몽골의 기원지를 근거지로 하는 잘라이르씨¹⁸⁾도 이와 비슷한 경우이다. 테무게 옷치긴은 막내이어서 고향땅을 封地로 받았던 것이라면 잘라이르씨족인 무칼리나 그 휘하로 보이는 사르타이는 만주나 고려와 역사적으로 가장 친숙한 관계가 있어서 이 지역의 정복사업을 담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에 테무게 옷치긴은 이 지역의 재정과 행정을 맡고 잘라이르 무칼리는 정복사업을 맡아 오다가 뒷날 그의 후손들이 遼東의 정치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고려의 瀧王(이지르부카 : 忠宣王) 또한 그러하여 그들이 모두 고려와 밀착된 역사적 역할을 해 왔던 것을 알게 한다.

사르타이는 이런 잘라이르씨족 중에 權皇帝를 자칭한 유일한 征東元帥로 高麗戰場에서 戰死하여 몽골군이 총퇴각하게 하였으며 수십년간에 걸친 몽골-고려전쟁의 기본틀을 짜 놓은 인물이다. 권황제란 어떤 존재인가? 國王 木華黎(Mukhali)가 권황제이기 때문에

‘征伐大事 皆決於己 故曰 權皇帝 衣服制度 全用天子禮’

라 한 것¹⁹⁾으로 보아 정벌대사를 자기가 마음대로 결정하기 때문에 권황제

17) 본래 ‘험한’이라는 형용사나 ‘절벽’이라는 명사로 쓰이는 몽골-만주어계 ‘상간’이라는 낱말에서 비롯된 고개이름이나 밋밋한 고개이어서 말이 달릴 뿐만 아니라 어느 곳은 기차가 넘나들기까지 한다. 몽골인들은 산맥이라고 하기보다 ‘상간다와’(興安고개)라고 부르는데, 특히 북쪽으로 올라가면 이 고개가 분수령이 된다 기보다는 몽골은 고원이고 만주는 저지대 벌판이 많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고 하겠다. 2000년대가 되면 이런 상식을 왜 주를 달아 설명하는가 할 정도로 보편적인 상식이 될 것으로 보지만, 문제는 口碑史料를 비롯한 歷史遺産도 그렇게 남아 보편화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18) 『蒙韃備錄』 「諸將功臣」條

이고 의복제도를 모두 천자의 禮로 쓴다는 것을 알게 된다. 사르타이도 征東에 관한 한 이처럼 막강한 힘을 가진 총사령관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당시에 사르타이가 직접 강화도를 공격하지 못하고 소모전형태로 외곽지대인 대륙만을 치고 다니다가 전사한 데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몽골세계칸국의 세계전선 관리차원에서 금나라를 정벌하고 나서 다음에 남송을 치는 식으로 이에 보조를 맞추어 고려를 공략해 가려 했던 것이 그 주된 이유였던 것으로 보인다.²⁰⁾ 강화도는 서해를 통해 중국대륙으로 들어가는 黃

19) 위에 든 『몽달비록』 「제장공신」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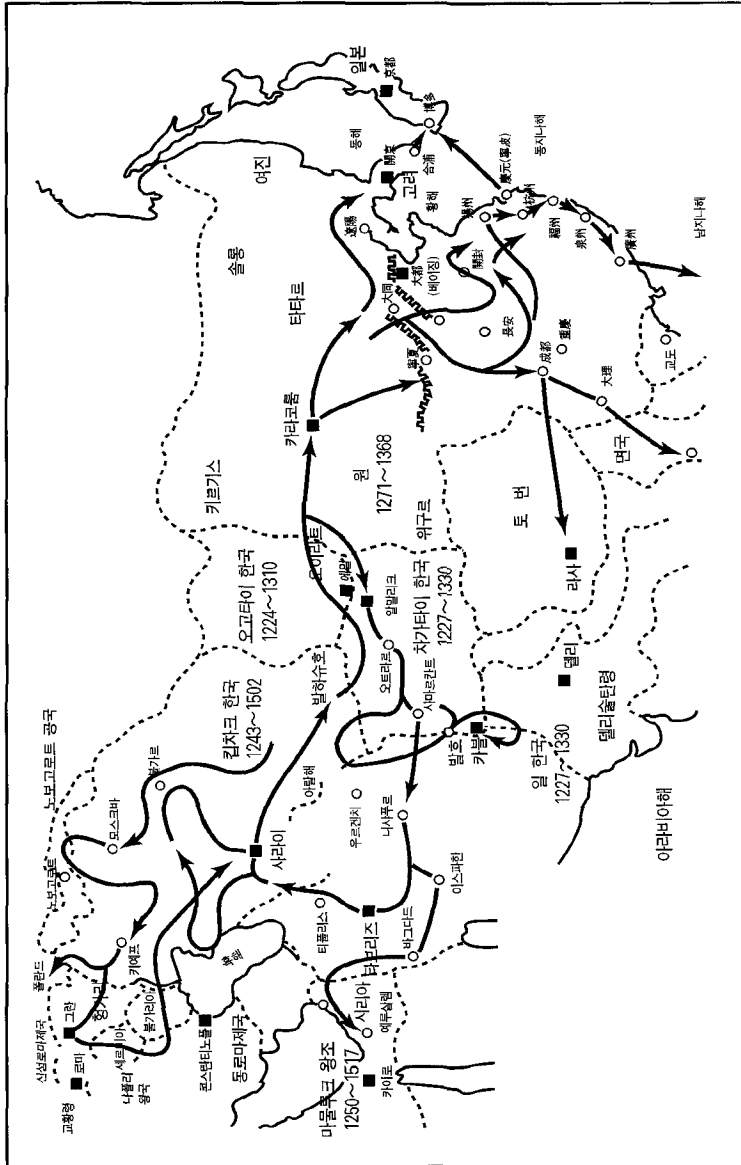
20) 예컨대 미국이 그들의 세계전선 관리 차원에서 1950년 6.25한국 전쟁 때 맥아더 사령관의 만주 폭격 전략이 소련의 유럽 침공을 야기시킬까 무서워서 취소된 사실을 들 수 있다. 요즈음 공개된 소련의 군사 비밀문서들에 의하면 실은 그런 위험은 존재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당시의 몽골군 총사령부에서는 고려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 넣을 경우에, 그 가능성의 실제 여하와 상관 없이 남송-고려-일본의 3국연합 항전을 상정해 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라 하겠다. 몽골 자신도 남송이나 고려와 연합하여 금나라를 협공하려 하였으며 쿠빌라이칸의 참보들 중에는 고려와 연합하여 남송을 칠 전략을 모색하는 경우도 있었고 일본정벌 때는 금-남송-고려 연합군을 동원하기도 하였기 때문이다(『원고려기사』 至元六年…十一月二日 ‘樞密院奏議征高麗事…’라 한 내용을 참조). 금이나 남송을 칠 때는 고려가 몽골과의 연합군 편성을 거부했지만 일본 정벌 때는 고려의 왕실이 몽골군과 손을 잡고 무인정권에 맞서 王政復古를 본격화할 때이므로 三別抄 토벌의 연장선상에서 江華島-珍島-濟州島-日本列島로 공격방향을 잡아 가면서 몽골-고려 연합군의 작전이 전개되었다. 몽골이 고려군을 지원받아 어느 세력을 공격한다는 것은 동시에 그 어느 세력들 간의 연합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이 되기도 한다. 이런 가능성이 있었다면 몽골이 고려를 마구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 붙이기만 할 경우에 궁지에 몰린 江都政府 고려가 동아시아의 지중해라고 하는 황해에서 양자강과 황하로 곧 송과 금으로 연락이 가능할 때, 남송과 금이 아직 건재할 경우에, 남송이나 금과 연결하여 몽골에 대항하는 시도가 실제로 있을 수도 있었다고 본다. 금나라를 공격할 때 툴로이의 右路軍은 이미 남송의 국경 안을 침범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몽골-남송의 금나라 협공이라는 시각에서 문제를 파악하는 쪽과 그 이후를 걱정하는 양쪽이 공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로부터 120년 뒤인 1350년대 후반 고려가 反元투쟁을 벌이면서 舊南宋境內 江浙行省의 方國珍이나 張士誠과 같은 강남의 군벌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元을 견제하는 조처를 취한 역사적인 사례가 있고 1354년에는 逆으로 최영장군이 산동의 장사성군을 토벌하여 승

河나 楊子江의 입구와 연결될 수 있고 서해의 도서들을 징검다리로 삼아 珍島와 濟州島, 그리고 日本列島로 接線되는 海上基地이기도 했기 때문에 아직 금나라나 남송이 견제할 때 몰아 붙이면 3국의 海上聯合이 가능하다고 보았던 듯 하고 이는 결국 쿠빌라이칸이 高麗, 耽羅와 日本 식으로 25史중에 『元史』의 「外夷列傳」에서만 유일하게 耽羅를 독립세력으로 고려와 일본과 병렬해 놓는 인식관행을 보여 준 데서도 그럴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고 하겠다.²¹⁾(〈지도2〉 참조)

리한 적도 있다. 금-남송-고려가 몽골과 연합하여 강화도-진도-제주도-일본의 코오스를 거쳐 일본을 치기도 하였지만, 일본-고려-남송-금이 연합하여 逆코오스로 몽골을 칠 가능성도 몽골군 수뇌부에서는 고려해 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6~700년 후의 일이라는 하지만 이런 상황은 2차대전 때 매우 근사하게 일어나기도 하였다.

- 21) 더러는 아직까지도 몽골군이 강화도를 직접 치지 않은 것을 몽골인들의 물에 대한 공포(water risk) 때문인 것으로 해석해 보려는 지극히 소박한, 구태의연한 아마추어적인 견해를 고수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잘못된 일이다. 몽골은 대단히 넓은 지역으로 초원이나 반사막인 고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서북부와 북부에는 산악지대도 있고 바다 처럼 드넓은 바이칼호, 훌룬호, 보이르호와 훌수굴호 같은 호수도 있다. 따라서 어업을 위주로 하는 몽골인들도 있다. 더군다나 1931년 몽골-고려 전쟁 때에는 이미 수많은 정복과정을 거쳐 칭기스칸 자신이 몸소 이룩한 몽골세계제국의 판도가 틀을 잡았던 터이다. 그의 뒤를 이어 받아 정복전쟁을 계속하는 오고데이칸의 경우는 작전경험을 풍부히 쌓아 온 군대를 지휘하고 있었고 水軍이 내포되어 있었으며 심지어는 포로로 잡은 고려의 수군까지도 부릴 수 있었다. 공병기술이 특히 뛰어났던 몽골군이 수많은 작전 과정에서 수시로 渡河作戰을 수행해 왔음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 근래에는 일본 정벌과정에서 두번 모두 계절풍을 만나 변변히 싸워 보지도 못하고 거의 전멸하다 싶이 해서 일본역사에 ‘가미가제(神風)’ 신화를 안겨 주고 있는 몽골의 일본 정벌 戰役도 어딘가 미심쩍은 데가 있다는 견해조차 대두되고 있는 편이다. 1270~1280년대라면 몽골 세계제국이 이미 완성된 단계여서 몽골군의 전략 전술이 최고도로 세련되어 있고 세계항해사상 특기할만한 민족인 아랍인들조차도 몽골군에 동참할 수 있는 마당에 계절풍 정도를 파악하지 못해 두 번씩이나 연이어 참변을 당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거의 조직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투항해 온 남송군과 옛 금군 및 고려군 잔여세력을 처치하고 일본과 적대관계를 만들어 더욱 확고하게 장악해 버리려는 쿠빌라이칸의 전략전술의 하나이었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일본이 그나마 몽골의

<지도 2> 몽골제국 세력도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사르타이가 부원수로 몽골과 고려가 兄弟盟約²²⁾을 맺은 일(1218~1219년), 사르타이가 1221년 8월경에 元帥로 승진하여 이내 著古典을 고려에 사신으로 보냈다가 살해당한 사건과 1231년 8월에 맹약을 깬 사건을 문책하여 征東元帥가 된 사르타이가 쳐들어와서 고려왕을 굴복시켰으나 1232년 6월에 江華島로 首都를 옮기고 장기항전태세를 갖추자 이를 문책하러 이해 12월에 다시 쳐들어 온 사르타이가 같은 달 16일에 處

침략에서 자신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것은 고려의 武人政權과 금 및 남송의 항전, 그리고 쿠빌라이칸의 음흉한 전략전술에 힘입은 것으로, ‘가미가제’가 아니라 순전히 ‘히도가제(人風)’ 덕분이라는 것이다.

그간 出入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몽골이 제주도를 해상 군사기지로 삼아 실제로는 오늘날의 중국대륙에 대한 홍콩처럼 몽골-고려관계 체제하에서 특수하게 관리해온 것은 몽골세계제국이 갖는 이러한 군사적인 이해관계와 해상무역을 통한 수입이 몽골 세계제국 중앙정권 원조의 재정에서 접하는 높은 비중 때문에 海路를 확보할 基地로서의 제주도의 긴요성이 있었던 까닭이라고 생각된다. 물론 원말에 제국이 멸망할 위기에 처하여 토곤투무르칸(順帝: 天命을 따른 황제라고 하여 주원장이 ‘元明革命’을 합리화하기 위해 뒤에 붙여 준 이름이다)이 제주도에 피난공필을 지으려고 준비하고 주원장이 투항하거나 사로잡은 히야드보르지긴 皇族들을 80여호 이상씩이나 계속 제주도로 보내어 오늘에 이르도록 한 사실은, 제주도와 몽골칸들의 고향인 동몽골이 같은 火山地帶로 너무나 닮아 있었던 데서 비롯된 점도 있었던 듯 하다(주체혁, 1992, 「몽골 다리강가지역의 훈출로와 제주도의 돌하르방에 대하여-답사보고를 중심으로-」, 『역사민속학』 2, 역사민속학회, pp. 122~144과 周采赫, 1993, 「제주도 돌하르방 연구의 몇가지 문제점: 그 기능과 형태 및 계통-동몽골 다리강가 훈출로와 관련하여-」, 『강원사학』 9, 강원대 사학회, pp. 75~118 및 周采赫, 1994, 「제주도 돌하르방 연구의 몇가지 문제점: 그 명칭과 개념정의 및 존재시기-동몽골 다리강가 훈출로와 관련하여-」, 『청대사림』 6, 청주대 사학회, pp. 215~251, 그리고 에르텐 바타르, 1998. 5. 23, 「濟州道の 칭기스칸 後裔들에 관하여」, 『몽골학회 98년 춘계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몽골학회(C.A.M.S.), pp. 6~11과 周采赫, 「쿠빌라이의 海上制覇를 막은 三別抄」, 『統一日報』 1996년 7월 23~26일자(日文), 日本, 統一日報社 참조).

- 22) 高柄翊, 1969, 「蒙古 高麗의 兄弟盟約의 性格」, 『白山學報』 6, 백산학회, pp. 25~78 참조. 『원고려기사』, 「世祖 中統三年 十月 二十九日 詔諭國王植白 … 凡違選諸親附之國 我祖宗有一定之規則 必納質而籍編民 置郵而出師旅 轉輸糧餉補助軍儲」라 있듯이 降附한 나라들이 해야 할 ‘六事’가 있었던 것이다.

仁部曲에서 사살당한 일까지의 일련의 사실들은 몽골-고려전쟁의 실마리를 마련하고 그 기본 틀을 놓아 주었다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 일들이었다고 하겠다. 여기서 한가지 주목되는 점은 몽골군 총사령관 권황제 사르타이가 사살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몽골군이 관행으로 늘 해오듯이 고려에 참혹한 보복 전쟁을 벌이지 않고 느슨한 대응을 해 왔다는 사실이다. 생각컨데 이는 그로부터 불과 1~2년내인 유명한 '1234년'에 완성되는 당시 몽골제국권내에서의 군사적인 최강국인 금나라의 멸망을 눈앞에 두고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유명한 1234년에 금나라가 일단 멸망하고 나서 내부문제가 그니름으로 해결되어 가면서 몽골군은, 남송을 전면적으로 공격함과 동시에, 松柱 나 예케(也古)와 그의 아들 也生哥와 같은 같은 황족들까지²³⁾ 동원하면서 압록강의 넓어진 전투정면을 모두 활용해 서북면은 물론 동북면까지 동시에 휩쓸어 오는 무자비한 보복전쟁을 총체적으로 벌였다. 사르타이의 戰死는 그만큼 큰 비중을 갖는 사건이었다. 그러므로 이런 일들은 그가 죽은 바로 다음해인 1233년 4월 24일²⁴⁾에 '五罪'를 문책하러 온 使者에 의해

23) 『고려사』 권24 세가 고종 40년 4월조 및 『고려사절요』 권17 고종 40년 夏4월조에 송주가 皇弟라고 밝히고 있다. 예케는 칭기스칸의 둘째 동생인 哈撒兒의 아들이다(본논문 주14 참조).

24) 『원고려기사』(國學文庫 제43편: 據廣倉學叢書重印) 태종 5년 癸巳 4월 24일조 참조. 요컨대 이 詔書는 이들 使者 일행이 고려에 들이닥치자마자 大喝一聲하여 먼저 撒禮塔(劊刺) 사살사건을 꾸짖고 이어서 使臣射回事件, 著古與殺害事件 따위를 우선 급한 것 부터 차례대로 꾸짖었으며, 아울러 고려가 萬奴征討軍派兵要請을 거절한 것과 民戶를 俱集見數한다고 北界諸城의 附蒙高麗軍民들을 피어 내어 마구 죽인 것을 나무라는가 하면, '西京金信孝等所管十數城'의 事例를 들어 懷柔하다가, 다시 '自陷罪惡死亡之地也'나 '自抵滅亡耳'와 같은 공갈과 협박의 말로 매듭짓는 교묘한 語勢로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박원길은 토론문에서 '蒙古詔曰 自平契丹賊殺劊刺之後 未嘗遣一介赴闕 罪一也'에서 劊刺을 이깨우찌 히로시가 1924년에 내어놓은 著古與로 比定하여 劊刺가 바로 撒禮塔이라는 필자의 설을 간단히 부정해보려 시도하고 있다(池內 宏, 『蒙古の高麗征伐』, 『滿鮮地理歷史研究報告』 10, 東京帝大, pp. 119~193 참조). 江東城戰役(1218~1219년) 이후부터 劊刺가 사살당하기 까지 몽골 조정에 使臣이 단 한명도 入朝하지 않았다는 것이 여기서 제일 처음으로 지적한 大罪 罪目인데, 그러

핵심적인 문책내용으로 다루어졌으며 그가 죽은지 8년 후인 1240년 5월²⁵⁾과 17년 후인 1249년 8월 15일²⁶⁾에도 계속 거론되기에 이른다. 실은 이러한 일들은 元宗(당시에는 아직 세자 王璵이었다)이 원나라에 入朝하는 1259년 4월까지 계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그가 고려를 정벌하는 총사령관으로 유일하게 權皇帝를 자칭했을 만큼 비중이 높은 인물인데다가 몽골-고려전쟁의 본질을 좌우할 만큼 큰 일들을 주관하거나 빚어 냈던 데서 비롯된 것이라 하겠다.

III. 撒禮塔 射殺사건과 『몽골비사』 成書年代 比定 문제

몽골의 수도 울란바타르에서 1991년 8월 5~6일에 걸쳐 열린 ‘제1회 『몽골비사』에 관한 한·몽 심포지엄’에서는 뜻밖의 에피소드가 빚어지기도 했다. 필자가 「札刺와 撒禮塔」에 관한 문제를 『몽골비사』의 성서년대 비정과 관련하여 발표하고 나자 국제몽골학자협회(I.A.M.S) 이쉬 비라 사무총장이 원로학자라는 자각도 물어버린 채로 흥분하여 별떡 일어나서는 “마침내 사르타이가 죽은 연대를 밝히는 사료를 찾았다!”며 내 발표요지를 치켜들고

나 著古興가 죽은 1221년 이후라면 이미 이 조서가 내려오기 1년전에도 上將軍 趙叔昌과 侍御史 薛愼(順)이 入朝했었다(『고려사』 세가 권23 12 7 고종 19년 여름 4월 壬戌조 및 『원고려기』 태종 4년 4월조 참조). 따라서 여기서 劄刺는 이 조서가 이르기 4개월 8일쯤전인 바로 前年 12월 16일에 處仁部曲에서 스님 金允侯에게 사살된 撒禮塔일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논증은 이미 앞에 든 필자의 논문 「札刺와 撒禮塔」에서 이루어진 터이나 토론자는 아예 이 논문은 거들떠도 안보고 께뻘 목은 옛 일본인 학자의 논문만 읽고 온 듯한 인상을 주었다. 토론문에 典據를 전혀 밝히고 있지 않아서 토론에 임하기가 매우 어려웠거나 아예 불가능했던 것도 사실이다. 시간이 허락되었다면 발표자가 토론자에게 되물고 싶은 문제가 하나 둘이 아니었다.

25) 『원고려기』 태종 12년조

26) 『원고려기』 己酉년조

어린아이처럼 외쳐 댔던 것이다.²⁷⁾ 몽골사를 복원하는 데서 『몽골비사』가 그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성서년대의 비정 문제가 세계몽골학계에서 그만큼 큰 관심거리인데, 바로 이에서 차지하는 사르타이 射殺記事가 그토록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점을 말해 준다 하겠다. 왜 그럴까? 『몽골비사』 成書年代에 관하여는 같은 책 282절에 ‘대쿠릴타이에 모여 취해 7월에 케를렌의 쿠테에섬의 돌로안 볼다과 실긴첵 사이에 궁전²⁸⁾등을 안치하고 있을 때 쓰기를 마쳤다²⁹⁾’고 한 기록에 따라 취해인 1228년(戊子), 1240년(庚子), 1252년(壬子), 1264년(甲子), 1276년(丙子), 1324년(甲子)설이 있는데, 이중에서 사르타이의 사살사건 기록과 직접 관계되는 설은 1240년, 1252년과 1264년설이다. 문제의 핵심은 『몽골비사』 274절에 나오는 札刺亦兒台豁兒赤(Jalayirtai Khorichi)를 札刺-撒禮塔로 보느냐 車羅大로 보느냐에

27) 주채혁, 「몽골 몽골사람」, 『제민일보』 1991년 9월 21일자 3쪽 참조.

28) 유원수 역주, 1994, 『몽골비사』, 도서출판 해안, p. 262 282절에서는 ordos를 行窟이라고 옮기고 있으나 유목민족인 몽골인들에게 그 당시에 과연 농경민족과 같은 행궁 개념이 있었는지 저이기 의심스럽다. 여름 牧地가 있고 겨울 목지가 따로 있는 것이 일상의 관행이기 때문이다. 행궁들이 ‘목고’ 있을 때라는 다소 멧을 부린 듯한 해석도 그렇다. 궁궐들이라는 것은 집인데 도대체 집이 목는다는 말이 말이 되는 소리인가? 차라리 오자와 시계오의 해석이 본래의 글 뜻을 그런대로 살린 것 같다(小澤重男, 1989, 『元朝秘史全釋續巧-(下)』, 東京 風間書房, pp. 560~564 참조). 이 역주서에는 이 밖에도 直譯을 넘어선 意譯이라기에는 이해가 가지 않는 飛躍과 註도 달지 않은 채로 本文의 역주를 省略한 부분이 적지 않고, 심지어는 오역조차도 전문가의 눈으로 살펴보면 꽤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어렵된다. 지금 이 땅에 정녕 『몽골비사』 연구의 大家가 있는가? 한 국민들 앞에서만 유창하게 영어로 강연할 수 있었다는 타계한 어느 미국통 저명인사의 이야기는 우리를 우울하게 한다. 돌이켜 보면 이 책은 한국에서 맨 처음 나온 역주서로 이제 이 역주서가 나온 지도 몇 해인가가 지났다. 원했던 원치 않았든 필자와도 격지 아니 직접 인연이 없히고 섭허 나오게 된 이 책에 관해 ‘12~3세기 몽골어’를 오래 연구한, 몽골어학을 전공하는 ‘참으로 謙虛할 수 있는’ 국내의 『몽골비사』 연구자의 專門의인 書評이 있기를 기대한다.

29) 위에 든 오자와시계의 책의 로마자 音寫는 다음과 같다. yeke quri(n)lta quriju quluGana jil Guran sarada kelüren-ü kôde'e-aral-un Dolo'an boldaG-a Šilginčeg qoyar Já'ara ordos baɣ'uju бүкүй-дүр бисийү дау'усба.

있다. 앞서 인용한 『원사씨족표』 권1 蒙古 札刺亦兒氏編 ‘札刺台’조의 ‘太祖憲宗朝 征高麗元帥’라고 한 기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206년~1259년에 계속해서 정고려원수노릇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실제로 그런 잘라이르씨의 箭筒士(Khorichi)는 없다. 1218년~1232년 12월 16일까지 정동부원수와 원수직을 지낸 사르타이와 1253년에 정동원수가 되어 1254년 봄에 고려에 쳐들어 온 車羅大³⁰)라는 두드러진 인물 두 사람이 있다. 車羅大로 비정한 이들은 다시 1252년설과 1264년설로 갈라지고 사르타이로 비정한 이들은 1240년설을 따른다. 대부분의 몽골국 『몽골비사』 연구자들이 1240년설을 지지하고 이쉬 비라 사무총장 역시 예외가 아니다. 그래서 그는 1232년 음력 12월 16일로 사망일이 분명히 밝혀진 사르타이라는 잘라이르타이 코리치에 관한 『고려사』³¹)의 기록을 접하고 그토록 흥분했던 것이다. 잘라이르타이 코리치에 관한 기사가 실린 274절이 1229~1241년이라는 오고타이칸 시대의 역사 기록속에 내포돼 있으며 ‘주르체드, 솔랑가스에 원정한 잘라이르의 코리치의 후속부대로 예수데르 코리치를 원정시켰다’³²)고 하여 주르체드와 솔랑가스 곧 여진과 고려를 연속해 정벌했다는 기록을 신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는 사르타이에 대한 기록임이 분명하다. 여진은 이미 1234년에 정복되었으므로 1253~4년에 車羅大가 또 정벌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필자는 1240년 庚子說을 지지하고 있다.³³)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물론 『몽골비사』의 성서년대

30) 『고려사』 세가 권24 고종 41년 6월 丁巳條: 『원사』 현종 본기 3년조의 「札刺兒帶」

31) 주6) 참조

32) 앞에 든 오자오 시게오 『元朝秘史全釋』 권12 274절 477쪽에 'Jürëed Solangas-tur ayalaGsan Jalayirtai-qortï-yin ge'ige Yesüder-qortï=yi ayala'ulba.'라고 음寫해 있다. 여기서 Solangas의 한자 음사 밑에 ‘高麗’이라고 白話文 주석을 달은 것을 보고 유원수는 앞에 든 그의 역주 『몽골비사』 251쪽의 주15에서 이것이 ‘高麗’가 아닐 수도 있다는 듯이 ‘Solangras’는 흔히 고려로들 여기고 있으나 방역은 ‘高麗’이다라고 제법 점잖게 주석을 달고 있으나 이는 金の 滿洲와 고려는 征東元帥의 소관이고 그래서 주르체드와 솔랑가스 곧 女眞-高麗가 連稱되는 것이 당시 몽골군의 慣行이었음을 제대로 간과하지 못한데서 오는 소박한 문제 제기일 뿐이라 하겠다.

논쟁'으로 사르타이라는 잘라이르타이 코리치가 일약 세계몽골학계에서 주목되는 존재로 떠오르지 않을 수 없게 됐다는 사실이다.

IV. 맺음 말

몽골-고려전쟁의 특징은 몽골군이 고려의 심장부를 들어주는 방법으로 山城과 海島에 入保해 있으면서 항쟁하는 고려의 軍民을 항복시키는 것이자 고려는 이에 저항하여 수도를 강화도로 옮겨 나라의 심장부를 사수하는 것이었다. 실제로 고려의 심장부를 들어주는 방법으로 고려를 통째로 장악하려는 사르타이의 전략전술은 베트남 같은 삼림지대와 늪지대에서 흔히 사용되었는데,³⁴⁾ 산성과 해도로 입보해서 게릴라전을 주로 벌이는 고려 군민의 항전을 제압하는데는 가장 효율성 있는 것이었다고 하겠다. 물론 이러한 몽골군의 고려에 대한 전쟁을 고려화하는 전략전술의 관철을 불가능하게 만드

33) 이 때 오고데이칸이 죽고 나서 툴루이계의 거센 도전이 있게 되는데 오랜 황위 계승전과 空位時代가 이어 지면서 마침내 1250년대에 들면서 本地派 遊牧系 오고데이系에서 皇權의 正統이 반대파인 漢地派 農耕系 툴루이系로 넘어가는 결정적인 계기를 맞게 된다. 그후 무려 35년간이나 지속된 카이두의 오고데이가 復位 戰爭은 遊牧몽골의 正體性 死守라는 이데올로기와 연결되면서 당대의 몽골칸국 분열 문제에 本質的으로 심각한 영향을 끼친 것은 물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그 논쟁의 여지를 남겨 주고 있다. 기왕에 太祖 칭기스칸 때부터 太宗 오고데이 때까지의 사실이 연이어 쓰여져 있고, 이어 곧 몽골칸국사의 판세를 근본적으로 가름하는 대대적인 繼承戰爭이 장기적으로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자연스럽게 本地派 遊牧系 오고데이系의 正統性 확립 문제가 대두 되게 되고 이에 따라 本格的인 歷史 編纂事業이 이루어졌던 것이라 하겠다(陸俊嶺·何高濟, 1982, 「從窩闊台到蒙哥的蒙古宮庭鬭爭」, 『元史論叢』 1, 北京 中華書局 참조). 칭기스칸 死後인 1228년설도 설득력을 갖는 점이 있지만 몽골칸국의 창업자 칭기스칸이 막강한 권위로 오고데이를 후계자로 指名한 터이므로 오고데이칸 사후 처럼 正統性 확립을 위한 편사사업이 그토록 死活이 걸린 절박한 문제로 대두되어 오지는 않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4) 註4) 참조

는, 심장부를 사수하여 전체 고려를 살리는 최씨무인정권의 전략전술은 南宋이 본격적으로 공략되기 이전까지 그 나름으로 가장 正鵠을 찌르는 대몽항전의 길이었다고 하겠다. 몽골군은 금을 정복하고 나서 남송을 정복해 가는 장기적인 소모전을 펴는 동안 몽골의 世界前線 管理 次元에서 고려를 經略해 갔으니, 어설피 단숨에 강화도 심장부를 몰아붙여 그들이 황하나 양자강 입구를 통하여 중국과의 연계를 가능케 하고 서해의 섬들을 징검다리로서 삼아 진도와 제주도, 일본열도로 이어지는 연계를 가능케 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3국의 해상연합을 두려워한 나머지 단계적으로 制限戰爭을 펴 나갔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러한 전략전술을 쌍방이 서로 관철해 나가는 初入에 처인부곡의 접전이 있게 되었고 여기서 權皇帝인 사르타이 총사령관의 사살사건이 일어나게 됐던 것이다. 사르타이가 부원수로 몽골-고려가 형제맹약을 맺은 일(1218~1219년), 사르타이가 1221년경에 원수로 승진하여 이내 著古典를 고려에 사신으로 보냈다가 살해당한 사건과 1231년 8월에 맹약을 깬 사건을 문책하여 정동원수가 된 사르타이가 쳐들어와서 고려왕을 굴복시켰으나 1232년 6월에 강화도로 수도를 옮기고 장기항전태세를 갖추자 이를 문책하러 이해 12월에 다시 쳐들어 온 사르타이가 같은 달 16일에 처인부곡에서 사살당한 일까지의 일련의 사실들은 몽골-고려전쟁의 실마리를 마련하고 그 기본틀을 놓아주었다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 일들이었다고 하겠다. 수십년에 걸치는 전쟁기간 중에 몽골측이 이 문제를 계속 거론하고 있는 사실이 이를 증명해 준다. 김윤후 스님이 사르타이를 사살하였다는 그 단 하나의 사실만으로 일개 무명 스님에게 국왕이 일약 최고 武班벼슬이라 할 오늘날의 4성장군격인 上將軍을 제수하려 했던 것만 보아도 이 일이 엄청난 비중을 갖는 역사적인 일대의 사건이었음을 간파할 수 있게 해 준다.

그런데 문제는 김윤후 스님이 공을 다른 이에게 돌리며 “싸울 때 나는 활도 화살도 가지고 있지 않았으니……”라는 말을 꼬투리로 잡아 사르타이를 사살한 이는 김윤후 스님일 수가 없고, 더군다나 ‘流矢’에 맞아 죽었다

하였으니 그 공은 不特定 多數인 部曲民衆에게 돌려져야 한다는 것이다. 근래에 한동안 유행한 '民衆史觀'의 입맛에 딱 들어맞을 해석이기는 하다. 그러나 수도승이 그것도 남에게 공을 양도하는 자리에서 한 다분히 修辭의 言語辭를 소박하게 그대로 믿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또 있을까? 도대체가 무기도 없이 맨손에 염주만 들고 치열한 전장에서 전투를 지휘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가? 보병 소대장의 지휘봉은 당연히 칼빈소총이다. 또 '流矢'라는 표기는 모두 화살을 맞은 몽골측의 기록일 뿐이고 화살을 쏜 고려측은 한결같이 '射殺'이라고 뚜렷이 표기하였다. 도대체가 많은 사람이 죽고 포로 잡히고 무너져 흩어지는 일대의 접전 중에, 보통사람도 아닌 몽골의 총사령관 權皇帝 사르타이를 어떻게 '유시'로 쏘아 쓰러트린단 말인가? 설사 어찌다가 재수가 좋아서 가능했다고 하더라도 戰場을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던 지휘자 김윤후가 그 輕重虛實을 꿰뚫어 보고 정확히 正照準하여 총사령관 사르타이를 射殺했을 가능성이 아무래도 훨씬 더 많다. 그래서 활을 쏜 고려측에서는 예외 없이 '사살'이라고 했던 것이다. 그리고 김윤후가 안 쏘았다고 증언한 이는 그 자신 이외는 아무도 없다. 도리어 쏜 것이 확실하니까 자신 있게 공을 부곡민들에게 돌려 이런 과정을 통해 天時나 地利보다도 훨씬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人和의 힘을 部曲民들에게서 이끌어 내어 그 후의 忠州山城 大捷 같은 놀라운 '人和力의 戰勝作戰'을 지휘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는지? 일개 무명스님인 그에게 나라가 事後에 전공을 기리며 일약 上將軍을 제수하려 했던 사실이 이미 김윤후 스님의 撒禮塔 射殺을 公認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아둔하고 깨달음이 천박한 後生 書生의 어설픈 獨善의 인 역사 해석이 크나 큰 스승의 위업을 겁도 없이 헐뜯고 있는 것은 아닐지 자못 두려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잘라이르씨족의 코리치인 사르타이가 여진과 고려를 정벌하는 정동의 역을 지휘하는 총사령관이 된 것은 그의 씨족이 물이 동류하는 흥안령 북서부 초원을 고향으로 삼고 살아 와서 만주와 고려에 대해 역사적으로 비교적 익숙한 편에 속하기 때문이 아니었나 한다. 실제로 정동원수의 주류가 잘라이

르씨족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산성과 해도에 入保해 항전하는 고려軍民을 상대해 싸우는 데에 다른 씨족들보다 그런 역사적 조건을 갖추었을 수도 있는 잘라이르씨족이 유리했었을 것도 같다. 『몽골비사』 成書年代 比定과 관련하여 사르타이 사살사건이 세계몽골학계의 주목을 끌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그 사건이 일어난 때가 분명히 밝혀져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특히 1252년설과 1264년설을 극복하고 1240년설을 뒷받침하는 데에 중요한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남한산성은 동북아시아를 무대로 한 항전유적지로 결국 항복의 치욕을 맛본 곳이 되고 말았다. 그런데 처인부곡은 몽골세계제국군대를 상대로 항전하여 천민집단인 부곡에서 일개 이름 없는 스님이 작전을 주도하여 당당히 權皇帝를 자칭하는 몽골군 총사령관을 사살해 몽골군을 총퇴각시킨 일대의 승첩을 거둘 만큼 세계적으로 유명해질 수 있는 전승유적지다. 이 땅에서 일어난 세계적 규모의 전쟁이 6.25 한국전쟁 이외에 몽골-고려 전쟁밖에 없고 3년에 끝난 앞의 것에 비해 뒤의 것은 이의 10수배나 더 오래 지속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될 만 하다고 하겠다. 그러함에도 어째서 남한산성에는 항전기념관이 제대로 섰는데 처인부곡전쟁터에는 허물어진 토성터만 쓸쓸히 남아 있는가? 史實 자체 때문인가? 눈이 먼 인간들의 史實 認識 姿勢 때문인가? 도대체 세계적 규모의, 이토록 장기적인 몽골-고려 전쟁 중에 단 한번의 대첩도 없었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가? 여고생들이 전철에서 “龜州大捷은 그렇다 치고 鐵州大捷도 있었던 말이야?”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동기보다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총사령관이 전사하면 총퇴각해야 하는 몽골 遊牧騎馬軍團의 慣行이라는 허점을 찔러 이룩한 일대의 勝捷이야말로 이 당시의 大捷중의 대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더군다나 사르타이를 사살한 戰功을 부곡민에게 돌려 부곡민들의 신분 해방을 가능케 했다면,³⁵⁾ 이는 天時보다 더 중요한 地利와 그 지리보다도 더 중요한 人和를 바

35) 윤용혁은 앞에 든 그의 논문 「1232년 용인 처인성에서의 대몽승첩」 92쪽에서 충렬왕 31년(1305년)에 작성된 崔瑞(1233~1305년)의 墓誌銘(이난영, 「崔瑞墓誌

탕으로 노비문서를 불살라 가면서 까지 愛國衷情과 戰功을 價値의 中心으로 삼아 전쟁을 영도한 김윤후 스님의 충주산성대침으로 결실되어 가는 일련의 作戰過程으로 本質的인 大捷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후의 역사가 文民地主와 王家가 몽골군과 결탁하여 무인정권을 타도하는 문민쿠테타-王政復古로 전개되어 ‘몽골관 세상’이 되고 ‘주자학 주도권’으로 되어 가면서 ‘몽골’ 총사령관을 사살한 ‘스님’에 대한 관심이 어떠했겠느냐 하는 것은 능히 짐작해 볼 수 있다 하겠다. 그토록 오래고 참혹한 세계적인 전쟁인 몽골-고려전쟁에 대한 문헌기록을 비롯한 유물과 유적들이 과연 얼마나 남아 있는가? 그나마 남아 있는 문헌사료 마저도 歷史 抹殺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御用史家들의 기록이었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할 것이다.³⁶⁾ 그런데 세계화시대에 몽골세계제국군을 당당히 물리친 戰勝地는 세계적인 관광유적으로 떠오를 수 있다. 이미 ‘한국민속촌’이 자리잡고 있는 ‘용인’이다. 독립기념관이 자리잡고 있는 목천 언저리에 아오내 장터 3.1독립투쟁유적지와 유관순기념관, 조병옥박사 생가와 이동녕선생 생가 및 이범석장군 생가, 세성산동학군 최후항전지와 백계 위례성항전지등이 유적으로 발굴도 되고

銘』 『한국금석문추보』 : 국립박물관 所在-笑軒居士墓誌〈題額〉 奉翊大夫副知密直司版圖判書文翰學士致仕 崔瑞墓誌)에 ‘中統元年 出爲處仁縣令’이라한 사료를 근거로 처인지역이 部曲에서 縣으로 승격된 것을 지적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집단적 褒貶이 일반적으로 郡縣 位階의 乘降이었음을 상기시키면서 이것이 1232년 처인부곡 대침에 대한 褒賞의 결과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 36) 李益柱, 1998, 「1232년 용인 처인성에서의 대몽승첩’에 대한 토론요지, 『고려시대의 용인』 학술대회-발표 논문집-, 용인시·용인문화원, p. 100에서 ‘지금은 대개 최씨정권이 정권 유지에 급급하여 육지를 버리고 강화도로 숨어들어갔다는 평가가 우세한 편이지만, 사실 이것은 결과론적인 시각이고 강화천도 후에도 최씨정권이 어떤 형태로든지 육지에서의 항전을 지휘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지방관과 방호별감이 파견되었고 山城·海島 入保策이 계획대로 추진되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몽골-고려전쟁(대몽항쟁)에서의 최씨정권의 역할에 대해서는 재고가 요구된다고 하겠다’고 한 견해는 이러한 당시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史料批判을 통해 당시의 史實을 제대로 파악해야 되리라는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복원되어 유적지로 보존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제 국제화시대를 맞아 ‘한국민속촌’도 ‘몽골민속촌’과 같은 ‘세계민속촌’과 어울려 있어야 더 눈길을 끌며 세계 각지의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게 된다. 필자의 경험으로 보면 그 역사적인 뿌리를 크게 공유하고 있는 몽골유물과 한국유물이 종류 별로 나란히 전시될 경우에 특히 관람객들의 경이로운 눈길이 오래 머무는 것을 실감했다.³⁷⁾ 김윤후 스님에게 사르타이가 사살된 ‘殺將터’ 넓직한 풀밭 위에 몽골리안들의 3주요경기인 말달리기, 활쏘기, 씨름과 대동구판을 벌이는 축제마당을 펼쳐 내고 이곳에 ‘스님將軍 김윤후의 銅像’과 ‘處仁部曲 抗蒙大捷碑’를 세우며 한국의 ‘몽골 연구센터’를 걸드린 ‘對蒙抗爭紀念博物館’을 번듯하게 지어 올려 보라! 21세기를 문화산업의 시대라 하지 않던가? 그래서 문헌연구도 하고 발굴도 하여 역사를 제대로 복원해 史盲을 면해 가는 사업을, 일시적인 유행으로 분수에 따라 하지 말고 세대 차이 없이 언제나 늘 한결같이 해 나갈 수 있게 신앙차원의 전통을 세워 해 나가야 한다. ‘적을 잘 알아야 적을 잘 이겨 낼 수 있다’는 말도 있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난해 작고한 臺灣의 몽골인 몽골학자 한출로 교수는 1990년 8월에 제주도에서 학술회의 조사차 이 땅에 와서³⁸⁾ 인사말을 통해 “몽골과 고려가 함께 몽골세계칸국을 이룩하였습니다”라고 했다. 이제까지의 인류문화발전사상 가장 위대한 기여로 평가되고 있는 고려의 ‘금속활자’가 팍스몽골리카를 통하여 세계화하였고³⁹⁾ 당시 세계사상 가장 논리적으로 세련된 주자학을 몽골세계칸국의 이데올로기화한 主導者가 고려의 왕씨 王孫이며 몽골 히야드 보르지긴씨-알탄우룩(Altan urug: 黃金氏族)인 쿠빌라이칸의 外孫子로 몽골 세계칸국 중앙정부 元朝의 太子太傅인 이지르부카 藩王 곧 충선왕임이⁴⁰⁾

37) 1998년 5월에 강원대학교 박물관과 몽골학회(C.A.M.S)의 주최하에 열렸던 ‘98년 몽골학회 춘계학술대회 및 몽골유물민예품 전시회’의 개최 경험을 통해서 직접 체험하였다.

38) 국제한국연구원 崔書勉원장의 초청으로 來韓하였다.

39) 周采赫, 1989, 「몽골-고려사 연구의 재검토: 몽골-고려사의 성격문제」 『國史館論總』 8, 국사편찬위원회, p. 104 참조.

이를 말해 주는 단적인 예이다. 이러한 역사적인 크나큰 터전을 마련하는 밑거름으로 동정원수 권황제 사르타이와 그 휘하의 몽골군병들도 이역 만리 처인부곡에 와서 피를 쏟고 非命橫死하였고 처인부곡민도 빛도 이름도 없이 죽어 갔다. 碑木들도 서고 꽃다발들도 바쳐져야 한다. 767년이란 긴긴 세월을 갈 길을 못 가고 九泉을 떠돌아 오고 있는 영혼들의 가슴마다에 맺힌 한들을 씻는 씻김굿과 씻긴 영혼들을 저승으로 제대로 돌려보내는 지노귀굿이 어우러진 대동굿판이 殺將터 드넓은 풀밭 위에서 음력 12월 16일 그날에 해마다 마음껏 한 바탕씩 벌어져야 한다. 빛나는 전공과 무엇보다도 私心 없는 일생으로 如來如去한 스님將軍 김윤후에게는 당연히 유교식이 아닌 불교식 의식으로, 非命에 간 部曲民들과 몽골총사령관 權皇帝 사르타이 및 그의 가없는 몽골 군병들에게는 冤魂을 달래는 ‘대동굿판’으로 해마다 이 때에 그 이들과 우리들 및 너와 내가 제대로 제 길들 더불어 가게 하는 축제마당 한 판이 殺將터, 바로 그 자리에서 벌어져야 한다. BBC와 NHK 방송국이 합작해 만든 ‘대몽골’이라는 VTR 필름에서 우리는 폴란드에서 750년 전에 몽골군과 싸워서 죽은 영령들을 추모하는 기념식이 장엄하고도 비장한 분위기 속에서 弔砲와 함께 해마다 숙연하게 치러져 오고 있음을 본다. 당시에 얼마나 획기적인 대사건이었으면 1232년 음력 ‘12월 16일’이라고 날짜까지 기록해 『고려사』에 실었겠는가? 지금부터 꼭 ‘767년’전의 일이다. ‘폴란드인’과 ‘용인시민’들의 항몽전쟁사 인식자세가 이렇게 다를 수 있단 말인가?41) 이

40) 周采赫, 1995, 「이지르부카 瀋王」 『황원구교수정년기념논총』, 도서출판 해안, pp. 139~172 참조.

41) 이런 認識姿勢는 龍仁시민이나 春川시민이 별로 다른 것 같지 않다. 주민들의 생존방식에서는 그 구성이 서로 다를 수 있겠으나 역사에 무관심한 史實들이 많다는 점에서는 현단계의 우리국민들 일반과 크게 다르지 않게 보인다. 왜일까? 이점은 역사를 연구하고 가르치는 이들이 도외시해도 괜찮은 문제일까? 몽골의 세계정복사상 1236년에 있었던 四川省 成都의 屠城은 그 규모나 잔혹성과 교활성이라는 면에서 세계전쟁사상 널리 알려진 터이지만, 이처럼 決死抗戰하는 한 都城을 모조리 屠戮해 본을 보임으로서 도리어 사람을 덜 죽이고 대상지역을 점령하는 몽골군의 전략전술은 몽골-고려전쟁에서도 恣行되었다. 1231년

날을 기억해 축포 몇 발 쏘고 묵념 잠깐 하지 못해 온 것이 6.25동란이나 IMF寒波 때문이었다고 뒷날에 史書에 기록해 놓는다면 믿는 후손들이 있을까? 21세기를 제대로 살아남을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인 독창력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개체사 내지 민족사와 삶의 현실이, 있는 그대로, 맞부딪칠 수 있을 때만 점화돼 솟아나는 것이다.

의 서부전선인 황해도 平州와 1253년 9월 20일의 동부전선인 강원도 春州의 사례가 그것이다. 춘주란 오늘의 春川으로 주민들이 싸우다가 모두 죽은 곳이 춘천시민이 자고 일어나면 늘 바라보는 '鳳巖山城'이다. 일본 식민치하에서 일본의 조선총독부도 춘천주민을 깔봐서 새로 개발된 정책이 있으면 춘천에 먼저 시험을 해보고 난 다음에야 그 결과를 보아서 전국에 실시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인 약체 춘천의 역사에 왜 이렇게 엉뚱한 사실이 끼여들게 되었는가를 뒤돌아보고 춘천은 언제부터 왜 이런 이미지를 갖지 않을 수 없게 되었는지도 새겨 보기 위해 춘천의 역사상 가장 참혹하지만 영원히 지역사나 한국사상의 기록에 남을 수밖에 없는 음력 '9월 20일'이라는 이 역사적인 날에 그 '746주년'이 되는 올해부터라도 弔旗를 擣揚하고 사이렌을 울려 춘천시민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默念이라도 하며 좀더 마음들이 모아지면 弔砲를 쏘며 영령들을 위로하는 의식을 치르자는 제안을 담은 글을 한 지방신문에 투고한 적이 있었다. 김동길 교수의 증언에 의하면 6.25한국전쟁을 치르고 난 미군이 평가한 보고서에서 가장 전투력이 강한 이들이 충청도 출신 군인들이었다고 지적하였다 한다. 이런 뜻밖의 결과를 인식하는 순간 명칭하고 순해서 당하기만 한다는 자의식을 가졌을 수도 있는 충청도 사람들의 자아인식이 어느 정도는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낸 글이었다. 그러나 기사들이 차고 넘쳐서인지 그후 계속 默黙不答일 뿐이었다. 이것이 이 시대 우리의 역사인식 수준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원점으로 돌아가서 문제를 다시 보기로 하였다. 2000여년을 세계 각지를 떠도는 유대민족은 혼혈이 많이 되어 실은 20~30분의 1정도의 血緣 유대인이 대부분이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다. 그들이 아직도 유대민족인 것은 『구약』과 『신약』이라는 우리의 『삼국유사』나 『삼국사기』 같은 고대사서를, 인생을 보는 초시공적인 패러다임에 초점을 맞추고, 민족신앙차원에서 끊임없이 늘 새롭게 읽어 왔기 때문이라고 한다. 血緣共同體라기 보다는 歷史認識 共同體-패러다임 共同體라 할 유대민족은 그렇게 살아 남아서 혈연공동체민족들보다도 몇십배는 더 세계화시대라는 오늘의 현실에 성공적으로 적응해 내고 있지 않은가? 역사를 연구하고 가르치는 이들 만이라도 '제대로 된' 歷史的인 '自我認識'이 얼마나 무서운 '競爭力의 原動力'이 되는가를 체험차원에서 깨달아 가려 고뇌해 봐야 할 것이다.

「撒禮塔(Sartai)와 몽골-고려전쟁」에 대한 토론요지

박 원 길 (국립민속박물관 전문위원)

본 용인시청에서 주관하는 학술발표회에서 평소 존경하는 주채혁 선생님의 발표문에 대해 토론을 맡게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주채혁 선생님께서 발표하신 「撒禮塔(Sartai)와 몽골-고려전쟁 一處仁部曲 大捷의 의미一」은 초기 한·몽관계사의 성격에 대하여 상당히 많은 논쟁거리를 제공해 준 논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즉 선생님께서 발표하신 몽골제국의 대고려정책이나 撒禮塔의 실체에 대한 해석은 기존의 학설과 배치되는 새로운 관점이 많이 가미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토론의 시각에 따라서는 쟁점사항들이 무수히 전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 토론에서는 시대적으로 撒禮塔에 관계된 것에 국한해 몇가지 질문만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질문은 撒禮塔의 원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발표자께서는 撒禮塔의 원음을 사르타이(Sartai)라고 복원했는데 페르시아족 사료인 『集史(Jāmi' al-Tawārikh)』나 그밖의 문헌을 통해보면 撒禮塔과 음이 가까운 인물들이 모두 사르타크(Sartag)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사실 13~14세기 몽골인들의 이름을 분석해 볼 때 ~tai가 붙은 사례는 ~씨족인을 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撒禮塔을 사르타이라고 복원할 경우 Sartai의 Sar는 씨족을 뜻하는 단어가 되어야 하는데 당시 몽골씨족에서 Sar라는 씨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로인해 村上正二와 같은 학자들

도 撒禮塔을 사르타크(Sartag)라고 복원하고 있는데 撒禮塔의 원음복원에 대한 선생님의 견해를 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둘째 질문은 撒禮塔의 1231년 고려침공에 대한 성격규정문제입니다. 사실 현재까지 몽골의 고려침략을 언급한 논문 중에서 왜 몽골이 고려에 침입하게 되었는가를 몽골측의 입장에서 다룬 논문은 발표된 바 없습니다. 본 발표논문 역시 그에 대한 언급이 생략된 채 “몽골의 침략과 이에대한 고려의 항쟁”이라는 측면만이 강조된 느낌을 받습니다. 본 토론자는 1231년 8월에 시작된 撒禮塔의 고려침공은 몽골측 입장에서 보면 계획된 침공이 아니라 東眞의 征討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일어난 전쟁이라는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1231년 여름 九十九泉(현 集寧市 北)에서 개최된 몽골의 코릴타(Khurilta)를 살펴볼 경우 매우 명확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본 질문의 성격을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해 당시 몽골의 사정을 간략히 언급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1227년 7월 칭기스칸의 사후 2년간에 걸친 툴로이(Tolui)의 監國 끝에 1229년 8월 코릴타에서 몽골제국의 2대칸으로 선출된 어거데이칸(Ögödei Khan)은 즉위후 1년간 賦稅法과 監稅(Jamchi)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30년 7월부터 金國공격에 나선 어거데이칸은 1년 뒤인 1231년 여름 九十九泉에서 코릴타를 개최하여 金國進攻의 세부계획(① 대칸은 中路軍을 이끌고 碗子城(太行山の隘)을 넘어 洛陽을 점거한 뒤 汴京으로 진공, ② 테무게오트치킨은 左路軍을 이끌고 濟南으로부터 汴京으로 진공, ③ 툴로이는 右路軍을 이끌고 鳳翔으로부터 渭水를 건너 寶鶴을 지나 宋境으로 들어가 漢水를 따라 汴京으로 진공)을 수립하게 됩니다.

또한 이 코릴타에서 어거데이칸은 金國의 정토계획과 함께 고려와 몽골간의 형제지맹을 이끈 東眞國의 정토책임자로 撒禮塔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1231년의 코릴타에서 撒禮塔을 東眞國의 정토책임자로 임명한 사실은 그들의 주공목표가 高麗가 아닌 東眞國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東眞國의 정토책임자인 撒禮塔이 대군을 압록강변에 도달시킨 이유는 著古與(Jegüü)

의 피살사건에 대한 고려측의 해명을 들은 뒤 고려군과 함께 동진국을 정토할 목적 때문이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미 앞선 7년 동안 “假蒙古兵(가짜 몽골군)”의 출현에 익숙해진 고려관민들은 1231년 8월 국경에 들던 모습을 나타낸 실제 몽골군에 대해서도 東眞國의 가짜 몽골병으로 인식했지 그들이 진짜라고는 여기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撒禮塔의 몽골군은 뜻하지 않게 고려군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치게 되었고 이같은 고려측의 태도는 撒禮塔에게 매우 당혹감을 안겨주었으리라 판단됩니다. 사실 撒禮塔의 1231년 고려침공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같은 당혹감의 흔적들은 몽골군대의 어정쩡한 전술이나 몽골측 사신단의 말에서도 손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어느 면에서 몽골제국은 1218년 高麗와 형제지맹을 체결한 이후 九十九泉 코릴타의 결정에서도 나타나듯 高麗를 형제국의 하나로 간주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撒禮塔의 압록강 도착 후 高麗가 이 맹약을 파기할 듯한 행동을 보이자 몽골측은 고려측의 태도에 매우 의외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撒禮塔의 언사를 분석해 보면 1231년의 고려침공은 고려측이 과연 몽골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를 파악하려는 의도가 강하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몽골제국의 기본법인 칭기스칸의 Jasag(법령)와 대등한 효력을 지닌 형제지맹의 조약을 과연 高麗측이 준수하고 있는가를 파악하려는 의도가 강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는 1231년 몽골군의 철수를 가져온 趙叔昌의 몽골칸정제출문서 즉 “① 契丹族의 침입시 도움을 주어 감사하다는 것 ② 著古典의 피살은 고려와 무관하다는 것 ③ 阿土의 구금사는 처음에 阿土를 東眞國人으로 오해한 결과에 기인한 것이며 이후 몽골어를 사용하는 것을 알고 곧 석방하였다는 것 ④ 고려의 몽골에 대한 항복은 이미 哈眞과 扎刺 때 이루어진 것[형제지맹] ⑤ 이후 고려는 몽골에 두터운 우호를 보일 것임”이라는 조항이 실제 형제지맹의 준수에 불과하다는 사실에서도 그 일면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상의 설명에서도 나타나듯 본 토론자는 1231년 몽골의 고려침공이 계획적이 아닌 우연적이라고 간주하고 있는데 이에대한 선생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째 질문은 1232년 8월에 개시된 撒禮塔의 고려침공에 대한 성격규정문 제입니다. 이 2차 침공의 발단은 고려의 京·府·縣 등에 파견된 다루가치(Darugachi) 72명의 피살과 1232년 7월 6일에 단행된 崔瑀의 강화도천도가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사실 고려측의 이같은 행동은 당시 고려의 입장이 무엇이든 간에 몽골측으로서는 고려가 이전의 맹약을 파기하고 있다는 인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72명에 달하는 몽골의 다루가치가 한지역에서 동시에 살해당한 일은 몽골 역사상 유일한 케이스로 이는 몽골측의 격렬한 분노를 자아내기에 충분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몽골은 수차 사신단을 파견하여 고려측의 해명을 듣기를 원했지만 성과가 없자 1232년 여름 九十九泉의 코릴타에서 고려문제를 정식 의제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이 코릴타의 결정이 무엇인지는 기록이 없어 분명치 않지만 이후 1232년 8월 고려에 진공한 撒禮塔의 사신이 고려측에 ① 항복한 후의 배반문제 ② 강화천도사 ③ 다루가치들의 살해죄 ④ 東眞國 정토에 왜 군대를 내지 않는가 ⑤ 고려의 人口보고 불이행을 견책한 것으로 미루어 매우 강경한 응징책이 논의되었다고 추정됩니다. 이는 몽골군이 처음부터 고려 重鎮들을 향해 맹렬한 공격을 개시한 것에서도 충분히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공격수위는 칭기스칸이 구축한 신질서를 깨지 않는 선 즉 고려를 멸망시키지는 않지만 그에 준하는 압박을 가해 다시 배반하지 못하게 하는 수준이라고 판단됩니다.

이같은 몽골의 압박정책은 내지에 남아있는 고려군민들이 큰 재난을 당하리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몽골의 강경책에 위기를 느낀 고려는 이번 사태가 양국간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항변을 하면서 몽골병이 철수할 것을 간청했지만 撒禮塔은 국왕 혹은 崔瑀의 출륙을 요구하며 이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당시 아직 몽골측이 왕실과 崔瑀

가운데 누구를 연합의 파트너로 삼을 것인가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만큼 몽골측의 태도가 강경일변도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撒禮塔은 자기의 요구가 관철되기 전까지 고려측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표명한 뒤 각지로 진군을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위기의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 1232년 12월 16일 水州의 屬邑인 處仁城에서 몽골측의 사령관인 撒禮塔이 金允侯의 화살에 맞아 전사한 사건입니다. 몽골의 원정군은 거의 대부분 군사령관이 전권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목군대의 특성이기도 한데 하여튼 몽골전사상 매우 희귀한 사건 즉 군대의 사령관이 전사하는 사건이 고려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어거데이칸의 측근이기도 한 그의 죽음은 돌연 고려에서의 모든 군사행동의 종결을 의미했고 지휘계통을 상실한 몽골군은 부사령관인 데게(Dege, 帖哥)의 지휘하에 모두 철군하였습니다.

역사적으로 몽골군은 아프카니스탄의 바미얀전투에서도 입증되듯이 자국의 고위인물이 전사하면 그에 상응하는 피의 보복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되는 것이 撒禮塔의 전사 후 몽골측이 취하고 있는 행동입니다. 어거데이칸은 측근인 撒禮塔의 피살 후 즉각 반공에 나서지 않고 1233년 4월 사신을 파견하여 고려의 五罪(① 著古與 피살 이후 고려사신이 한번도 몽골에 온적이 없음 ② 어거데이칸의 성지를 받는 몽골사신을 고려가 접대하지 않고 그대로 돌려보냈음 ③ 저고여 피살의 주범이 東眞이라고 자꾸 거짓말을 함 ④ 왕이 입조하지 않고 오히려 섬으로 숨었음 ⑤ 人口조사를 명했으나 하지도 않고 거짓으로 꾸며 보고했음)를 통고하였습니다. 몽골측의 냉철한 태도를 보여주는 이 통고는 이후 고려측의 입장표명을 미리 정해두고 있다는데 주목됩니다. 즉 어거데이칸은 이전 칭기스칸이 추구했던 정책(형제지맹)을 여전히 준수하고 있으며 또 자신이 추구하고 있는 정책도 고려측이 준수해주길 바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 토론자는 어거데이칸이 이상스러운 만큼 고려에 대한 침공의사를 나

타내지 않고 고려의 북변에 위치한 東眞을 공격한 이유는 고려가 東眞이나 일본과 연합을 할지 모른다는 우려보다는 실제 다른 이유 즉 형제지맹의 준수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당시 몽골군이 병력이나 기세로 보아 東眞을 격파한 후 고려로 남하하는 것은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어거 데이칸 때의 전쟁특징은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전투에는 皇子나 諸王을 동원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고려만큼은 시종일관 皇子나 그에 준하는 인물들이 참가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여러 가지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점에서 본 토론자는 1232년 8월 몽골군의 고려침공은 몽골측의 준비된 원칙에 따라 진행된 최초의 전투로 보고 있습니다. 즉 이 전쟁부터 몽골과 고려간에 형제지맹의 준수를 둘러싼 지리한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주목되는 것은 김윤후의 역할입니다. 즉 김윤후의 撒禮塔 사살은 결과적으로 고려를 파멸적인 재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한 계기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발표자께서도 고려-몽골간의 전쟁들이 이 때 놓여졌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론자와 일치하지 않는 점은 당시 고려-몽골간의 전쟁들이 일본이나 南宋을 염두에 두고 전개되고 있다고 지적한 점입니다. 토론자는 과연 고려가 당시 이들과 연합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회의를 가지고 있는데 이에대한 선생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세기 몽골軍服에 관한 研究

李相鶴 (용인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상임연구위원)

目次

- | | |
|------------------------|-----------------|
| I. 머리말 | IV. 몽골군복 형태와 성격 |
| II. 몽골 주변국의 문화와 역사적 背景 | V. 考察 |
| III. 몽골통일 전후의 軍服 | VI. 맺음말 |

I. 머리말

13세기초 1232년(고려 고종 19년) 12월 16일 몽골군의 최고사령관 撒禮塔(살리타)이 대군을 이끌고 處仁城(현 남사면 아곡리 산 43번지)을 공략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城內에서 난을 피하여 입보하고 있던 처인지역민들과 일부의 승려들이 함께 진을 치고 필사의 저항을 하고 있는 가운데 김윤후¹⁾(승려)가 쓴 화살에 적장 살페탑이 사살됨으로써 대몽항쟁사중 몽골군이 7차에 걸친 침공과 그후 고려와 화친을 맺고 연합을 이루어 100여년간 고려 땅에서 침략의 권세를 누렸던 몽골의 침략사중 최대의 치욕적인 敗退의 고배를 마신 기록이 되었으며, 아울러 용인이 겪은 역사의 수난사중 경이로운 대첩의 업적을 용인인이 이룩한 것이다.

1) 『高麗史』卷 103 金允侯傳

필자는 그 위대한 대첩의 전황에 관한 기록화를 제작하기 위한 고증자료를 수집하는 차원에서 당시의 몽골군의 전력과 군장비 및 무기들과 군복식에 관하여 연구를 시도하게 되었다.

고려와 몽골과의 관련의 원인적인 발단은 몽골이 침략을 감행한데에 있었다. 1218년으로부터 1231년 8월 29일 전격적으로 북계의 여러 성을 공략하기 시작하였고 1232년에는 처인성을 공략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오늘에 이르기까지 고려와 몽골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13세기초 고려 침략을 감행할 당시의 몽골군의 전력과 군복 및 군장비에 관한 연구나 문헌이 거의 없어 필자는 이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군복은 병사들이 전쟁에서 몸을 보호하기 위해 착용하는 복장으로서는 고대로부터 중세전쟁의 군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그 기능을 중시했던 것 중의 하나이다.

군인들이 착용하는 복장은 두가지가 있다. 한가지는 전쟁시에만 착용하는 것과 평시 관리들의 직함을 구별지을 수 있는 公服으로서의 官服, 즉 무관이 착용하는 戎服이 있다. 군인으로서 위장대, 친위대, 그리고 각종 의식에 참여할 때나 왕의 행차시 또는 수행시 착용하는 복장으로서, 전투복과 융복은 그 착용 목적이 엄연히 그 구별이 확실하다.

본 연구를 위한 조사연구 방법에 있어서는 문헌을 기본으로 하였다.

우리나라와 몽골, 그리고 몽골의 주변국들이 출판한 번역서들의 몽골문화사 편과 단편적으로나마 역사적, 고고학적 유물들에 관한 기록의 문헌들을 참고하였다. 문헌들 중에는 13·14세기 몽골군의 무기와 복식의 기초 연구자료라 할 수 있는 석인상과 암각화를 중점적으로 조사 연구한 『중앙아시아 유목민-옛날과 중세기』(저자 : 호디아 코브), 『몽골비사』, 그리고 1310년에 완성 집필된 『集史』, 즉 “종합사” 등을 통한 소재를 취하여 군복의 형태를 추정하는 정도의 자료와 기타의 여러 문헌을 참고하였다.

또한 군복식의 형태론에 있어서는 역사적인 시대적 지역권내의 문화적

관련성과 중국 몽골의 軍服과 비교 분석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연구의 중요시점은 시대적, 지리적 자연환경 속에서의 삶의 수단적 기능에서 표출되는 무기와 복식의 형태적 양식(pattern)론에 초점을 맞추었다.

채택한 자료는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서는 매우 미약할 뿐만 아니라 제한점은 자료 수집의 어려움으로써 실물자료를 보지 못하고 전적으로 문헌과 문헌속의 삽화들을 통해서만 추측 형상화하고 해석한 점이다. 필자 자신이 사학자나 의상전문학자가 아닌 다만 화가로서 지나친 추측이나 억측을 주장했거나 잘못 인식된 점이 발견되면 사학계 전문학자의 고견을 참고로 수정 보완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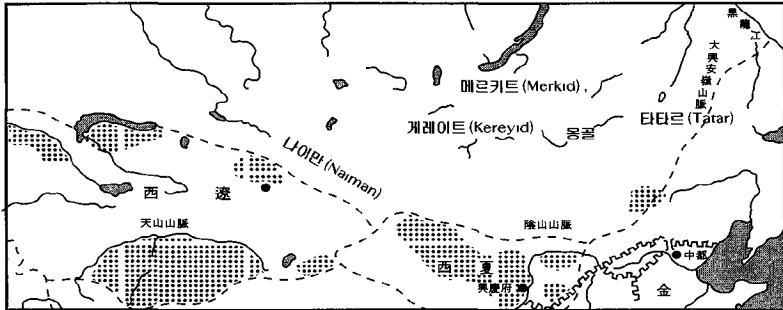
II. 몽골 주변국의 문화와 역사적 배경

몽골은 8세기 무렵 흑룡강 상류인 에르군네(Ergune)河 유역에서 몽골실위(蒙兀室韋)²⁾-蒙古라는 명칭은 몽골실위가 音轉되어 생긴 것이다-라는 이름으로 처음 역사상에 등장하였으며, 위그르제국(唐帝國)·청해·티베트고원의 吐蕃帝國이 붕괴하거나 와해되는 틈을 타 서서히 서진하여 11~12세기 무렵에는 오논(Onon)河 일대까지 진출했다. 오논河 일대까지 진출한 몽골족은 게레이트(Kereyid), 메르키트(Merkid), 타타르(Tatar), 나이만(Naiman) 등 주위의 여타 부족들과 혼합되어 있었다.

몽골족은 여러개의 부로 분산되어 遼·金の 지배권하에 있었다. 당시 문화적으로 볼 때 선진문화 우위의 중국이나 위그르 문화권에 접한 집단과 오지의 몽골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였으며 각 부족은 본거지의 위치나 다양한

2) 孫進己 지음·林東錫 옮김, 1992, 「제4장 실위室韋 여러 족의 원류」 『東北民族源流』, 東文選, p. 209.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9, 「몽골」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8, p. 86.



[지도 1] 11~12세기 몽골부족의 분포도

성격을 띠면서 대립의 양상을 보이고 있었으므로 어지러운 국제정세를 나타내고 있었다.

칭기즈 칸은 주위의 여타 부족들과 항쟁으로 1204년 내의 몽골을 통일하고 1206년에는 西夏·金·만주 등을 공격하여 1219~1223년까지 중앙아시아를 평정한 후에 남러시아를 정복하여 칭기즈 칸을 중심으로 유목민족 사상 거대한 정복력을 지닌 대몽골제국을 탄생시켰다.

칭기즈 칸의 몽골제국은 1207년 金國에 대한 포위전술의 일환으로 西夏와 그 주변국가를 공략하는 세계사적인 대재난의 시발이 되었으며, 고도의 집중력과 기동성을 갖춘 칭기즈 칸의 기마병단은 金·하라즘·중앙아시아는 물론 동서양의 각지역을 유린하면서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신속히 동서양에 걸치는 대세계제국을 건설한 것이었다. 동서양에 걸쳐 확대된 영토는 칭기즈 칸의 생전에(1227년 8월 18일 사망) 2·3차에 걸쳐 여러 동생들과 아들에게 分封되었다. 그는 먼저 몽골의 동변인 흥안령 좌우의 땅을 조치카사르, 카치온, 테무게오트치킨, 벨구데이 등 아우들에게 분봉하고, 몽골의 동남 및 남쪽의 땅을 옹기파트部和 이키레스部的 수령 및 영구트族, 키를루크族, 위그르族의 지배자에게 분봉했다.³⁾ 또 서역 정략후 새

3) 박원길 저, 1996, 『몽골의 문화와 자연지리』(한국몽골학회총서 1), 두술, pp. 14~18.

로 편입된 알타이 산맥 以西의 초원지대는 조치(꺄차크 汗國), 차카타이(察合台 - 차카타이 汗國 : 1227~42), 오고타이(窩闊台 - 오고타이 汗國 : 1229~41, 元太宗) 등의 汗國을 분립하였고 몽골 본토는 칸 자신의 본거지이기 때문에 분봉에서 제외되었다가 몽골의 상속법에 따라 막내아들인 톨로이(Tolui)에게 분봉됨으로써 서하 정벌후 칭기즈 칸이 세상을 떠난후 2년간 본토를 차지하게 되었으며, 칭기즈 칸의 유언에 따라 세째아들 오고타이가 대칸(1229~41)으로 선출되었다.

오고타이는 1230년 7월부터 金國 공격에 나섰다. 몽골군은 1234년 1월 金朝를 붕괴시켰다. 몽골은 오고타이 칸의 代에 이르러 드디어는 金國을 멸망시킨 이후 1235년 제1차 유럽원정을 감행하여 다마스쿠스를 점령한 뒤 소아시아 반도 및 키프로스까지 진출했다. 한편 명케 칸은 1257년 봄 南宋의 공격에 나섰다.

13세기 중엽에는 세계제국이 외면적으로 일단은 완성되었던 명케 칸(1251~59)의 시기로부터 해서 몽골 본토에는 몽골의 본 모습을 상징하는 것 같은 諸王 아리크버케(1260년)가 있으며 꺄차크 한국에는 이슬람 교도의 개종 1호인 베르케 칸(1257~66)이 있고, 준가르 초원은 유목민족의 특성을 진솔하게 간직한 인물인 카이도 칸이 호령하고 있었으며, 동아시아라는 배경을 무대로 한 중국에는 개성이 풍부한 諸王의 一人者인 쿠빌라이 칸(1260~94)이 자리잡고 있었다. 이들 모두는 칭기즈 칸의 손자에 해당하는 세대들로 이미 서로 비교가 가능한 정도로 각기 다른 문화권 속에서 생활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쿠빌라이는 1276년 1월 南宋을 굴복시키고 제위 30여년 동안 분열할거 세력과 이주 치열한 투쟁을 벌였다. 쿠빌라이는 몽골의 제5대 칸(汗)인 동시에 元朝의 창시자로 인정되는 중국땅의 황제로서 각지역의 다양한 장점을 추출하여 통치의 근본으로 삼고 전후의 한족왕조와는 달리 국가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稅役制度에 있어서조차 원대부터 같은 중국땅이었던 강남과 강북에 전혀 다른 체계를 적용시키고 있을 정도로 선진화된 통치술을 구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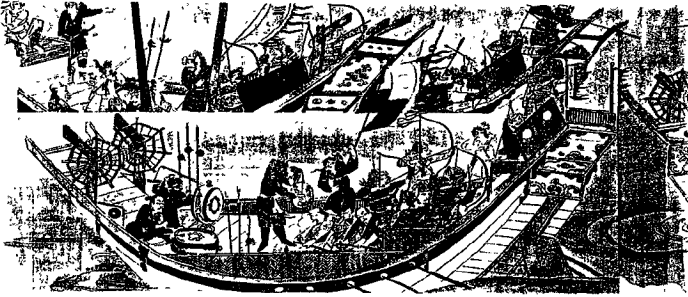
元朝에는 언어, 풍습, 제도, 예술을 비롯한 다방면에서 몽골풍과 중국풍 외의 色目양식도 강하게 존재하였다. 위그르, 탕구트, 나이만, 티벳, 이란, 아랍 등 약 100만명 정도의 이슬람 교도들과 漢人 관료의 움직임을 감시하기 위한 '다루가치'를 파견한 것이 특색으로, 몽골인이나 당시의 국제적인 상황을 반영하여 대부분 이슬람 교도들인 色目人을 다루가치로 등용하였다고 한다.⁴⁾

원조에는 많은 외국인이 왕래했다. 이것은 몽골인의 지배권 확보를 保安하는 차원에서 通商의 활력을 원활케 하여 몽골의 지배체제에 동참케 하기 위함이었다. 원조 국내에 영주하는 자도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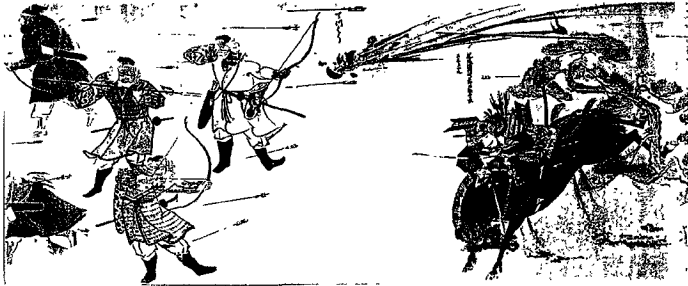
쿠빌라이는 중앙아시아 출신인 아흐마드에게 재정을 위임하였다는 사실과 서아시아 사람들의 대부분과 위그르인들에게 재정관계의 관료에 등용되었다는 史實이 알려지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몽골세계제국의 각지, 그리고 몽골인들의 생활과 그들의 유목생활에서 이용되는 도구와 장비, 심지어는 원조의 여러 가지 내정 등을 소개하고 있어 소중한 사료가 되고 있기도 하다. 軍制의 재구성을 실행했을 때 칸 직속의 侍衛軍團에는 西域衛, 欽察衛-킵차크는 阿速衛, 아스는 唐禮衛, 강리는 幹羅思衛- 등 외국 복속국 출신병의 특수군단이 포함되어 있어서 당시의 국제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

쿠빌라이는 내정의 확립에 주력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고려를 복속시키고 항해에 능한 江南의 사람들로 편성하여 일본에 1274년 원정에 실패하고 1281년 다시 일본의 博多를 병력 14만으로 軍船([그림 1], [그림 2], [그림 3] 참조)과 함께 침략하였으나 충분한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4) 金美子, 1995, 「元の 軍服·戎服에 관한 研究」 『學藝誌』 4, p. 151.



[그림 1]



[그림 2]



[그림 3]

Ⅲ. 몽골통일 전후의 軍服

몽골족은 8세기 무렵 초원에 살고 있던 여러 부족들이 융합되어 형성되었음을 전술한 바 있거니와, 그들은 각자 족원이 달라 그 족원의 유형이 각기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개성과 특성이 독자성을 띠고 있다고 본다.

칭기즈 칸이 1204년 여러부족을 토벌하여 몽골초원을 통일한 이후 각 종족들의 특징적 군복식 또는 장비들과 무기들을 유목군단의 최정예 부대를 형성하는 과정에서도 일률적으로 동일한 양식의 군복식을 채택하지 않은 것으로 여러 문헌속의 삽화등을 통해서도 추정이 가능하다. 또한 군복은 갑옷과 투구가 완벽하게 갖춰졌을 뿐만 아니라 군장비와 무기들도 대단한 정도의 수준에 이르렀을 것으로 믿어진다.

12~13세기에 있어서 금속가공의 보급은 『몽골비사』라는 고고학적 자료에서 확실히 밝히고 있다(코진 1941년). 이에 대하여 프라도 칼피니가 보고한 내용에 의하면, “... 넓이는 손가락 폭 정도, 길이는 손바닥 정도의 얇은 철조각을 몇개 만들어 각각에 8개의 작은 구멍을 몇개 만든다. 강하고 좁은 세계의 가죽띠를 밑에 펴고 철조각을 그 일부가 다른 철조각 위에 겹치도록 놓고 상술한 작은 구멍에 좁은 가죽끈을 하나 꿰어 묶는다. 그 상단에 각 철조각이 서로 꼭 고정되도록 가죽끈을 하나 꿰어 동여맨다. 이와 같이 하여 몇개의 철조각으로 하나의 띠를 만들어 이것들을 모두 묶어서 위에 말한 것처럼 갑옷의 각 부분을 만든다. 인간이 사용하는 갑옷 뿐만 아니라 말에 필요한 것도 이렇게 만들고 사람의 모습이 비칠 정도로 번쩍 번쩍 빛나게 한다. ... 騎手와 軍馬를 위한 이와 같은 방어용 기구는 몽골 알타이 산중에 있는 암벽에 묘사되어 있다([그림 4], [그림 5] 참조 : 필자 주). 이것들은 아마도 중세기 초기의 것일 것이다(칼피니·護雅夫 譯 : 필자 주)”라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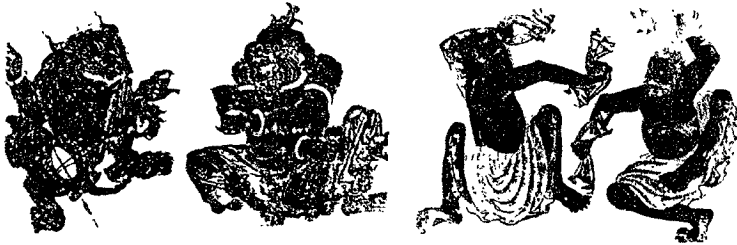
[그림 4] AD. 6~10세기 쿠르강 군인



[그림 5]

위글의 내용을 보아서도 1232년경의 몽골군 복식은 갑옷·투구가 완벽하게 갖춰졌을 뿐만 아니라 군장비와 무기들도 상당한 수준으로 발전했을 것이다.

이스탄불의 토포카피 미술관에 있는 『몽골회화(MONGOL ZOURAG)』라는 책에 공개된 그림([그림 6])은 당시 몽골에 대한 많은 추측을 낳게 하고도 남음이 있다 할 것이다. 이 그림들은 흉폭하고 잔인한 괴물들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춤추거나 음악을 연주하기도 한다. 이렇게 불가사의한 그림의 중요한 주제는 몽골의 영웅 서사시에 등장하는 용사 거인이나 會戰(대병력끼리의 격투) 풍경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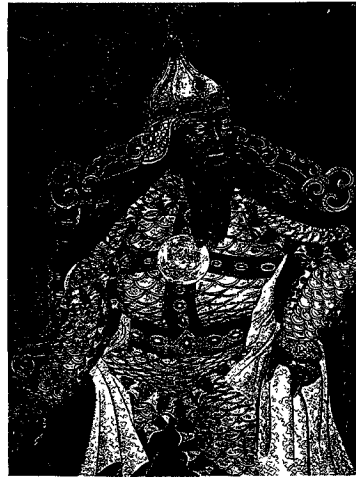


[그림 6]

칭기즈 칸의 서역정벌 이후 시기의 경제적 도약은 놀라우리만치 전과는 대조적인 생활 상태로 급변의 양상을 띠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몽골비사』 173의 기록에 의하면, “들개와 들쥐의 가죽으로 옷을 해입고, 이러한 동물의 고기를 먹으며 살던 몽골인들은 마치 천국과 같은 세계에 사는 것 같았다. 그들의 주머니와 지갑은 재물로 가득하고 매일 입은 의복은 금으로 짜여지고 보석으로 치장되었으며, 생활에 필요한 물자 역시 풍족하였고, 술은 마치 옥서스(Oxus : 아무다리야)江처럼 그들 주변에 흘러 넘쳤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몽골비사』 p. 263의 기록에서는-칼피니 역시 당시의 몽골족에 대한 글에

서, “그들은 낙타·소·양·염소와 같은 가축을 많이 갖고 있고, 얼마나 많은 말을 갖고 있는지 그만한 숫자는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황제와 군사령관, 그리고 다른 귀족들 역시 많은 금과 은 비단과 진주를 갖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또 칼피니가 묘사한 말가운데 다음과 같이 묘사되어 있다. “귀족이 한(칸)으로 선출될 때 그가 탄 말의 고삐와 가슴막이, 안장과 혁대는 모두 금으로 장식되어 있었다.” 그리고 킷차크 汗國의 베르케



[그림 7] 몽골의 노전사

(Berke : 1257~66)는 이집트의 사신들을 접견할 때 그들의 눈에도 놀라울 정도로 화려한 복장을 하고 있었다([그림 7] 참조)고 묘사하고 있다. 군복 뿐만 아니라 부유한 부인의 의복과 모자는 비단으로 만들어 졌고 값비싼 진주로 장식된 경우도 드물지 않았다. 과거와는 달리 솜이나 비단, 혹은 금으로 짠 옷감으로 옷을 해입었다고 한다. 옷감은 중국이나 페르시아,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운반되어 왔고, 모피는 러시아, 불가리아, 헝가리, 체르카시아 등지로부터 왔다 라고 알려주고 있다.

당시의 몽골인들의 수공업 역시 극도의 번영을 누렸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이나 이란으로부터 몽골로 강제로 이주된 수공업자들은 몽골인들이 알지 못하던 기술을 전해 주었다고 장춘진인⁵⁾(도교의 진인 - 장춘)이 서방으로 여행하던 도중 알라수타이(Yalasuṭai)라는 곳에서 중국인 수공업자 집단을 목격한 목격담을 들려 주었다.

상술한 내용을 비춰보더라도 이미 기원전 4~5세기부터 아시아 서유럽을

5) 장춘진인 : 몽골군이 中部 함락 이후 太傅邵國公으로 봉해지는 동시에 蒙古漢軍兵馬都元師로 임명되었다. 1216년 53세 나이로 병사.

침략하여 얻은 전리품을 각기 그 특색적인 문양으로 장식된 것들을 혼합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에 진정 군제복이나 무기와 군장비는 상당한 문화적 수준이었음을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이다.

IV. 몽골군복 형태와 성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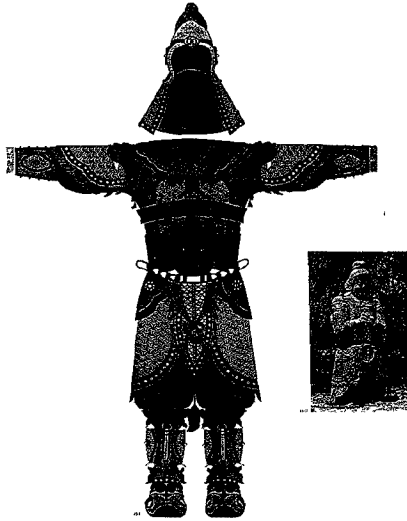
몽골군복에서는 진정 몽골고유의 특징적 양식을 발견하기 어렵다. 몽골군복의 형태를 분석해 보면, 첫째는 중국군 복식의 양식([그림 8], [그림 9], [그림 10])과 둘째는 유럽군 복식의 양식([그림 11], [그림 12])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겠다. 따라서 몽골군 복식의 형태적 양식은 중국군 복식의 형태와 중세 유럽군 복식의 이 두 양식과 혼합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 두 혼합된 양식중 중국군 복식의 양식이 가장 많이 인용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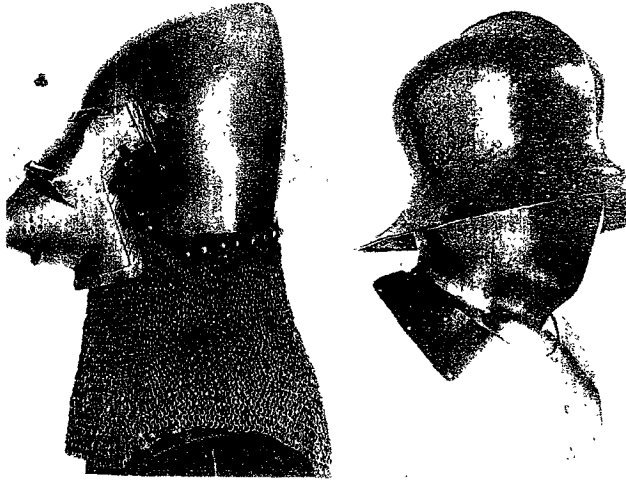
[그림 9]



[그림 10]



[그림 11]



[그림 12]

이와 같은 현상적 원인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록을 통하여 類推해 볼 수 있다.

(1) 1206년 칭기즈 칸을 중심으로 몽골제국이 형성되기 그 이전 최초의 몽골족원인 메르키트는 바이칼호 유역, 나이만은 알타이 산맥의 지역 등에 분산되어 부족을 이루고 살던 그들 중 나이만은 서유럽 지역에 자리하고 있어서 그들의 생활양식이나 복식에 있어서는 주변국의 발전적인 문화를 취하여 생활면이나 복식 등이 혼용되었을 것이며, 대흥안령 산맥 주변지역에 있던 타타르족과 케페이트족은 몽골족과 같이 지금의 중국문화적 양식의 영향을 다분히 취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칭기즈 칸은 여러 부족들을 통일한 후에도 몽골군의 일률적인 일체의 통일된 군복색을 채택하지 않고 각부족장 및 병사들의 특색적 복식의 본디 양식으로 존중된 것으로 믿어진다.

이와 같은 전례로 후일 일汗國의 몽골군이 천산을 넘어 서역을 침공하여

점령한 후 복속국의 종교나 그네들의 관습등을 존중하였던 사례와 같이 몽골군복의 양식을 통일화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2) 隋·唐代의 室韋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6세기경 복제와 수나라 때 실위부락은 늘 조공해 왔으며, 당대에 이르서는 실위 각 부가 중원과 늘 연계를 맺으므로 해서 사적마다 실위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기재하고 있다고 한다.⁶⁾

이러한 사실들 살펴볼 때 몽골족(先代 室韋族)은 隋·唐代에 이르기까지 이 두나라의 문화적 영향권에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출토유물에 의해서도 5·6세기 당시의 군복의 양식과 형태를 몽골족은 인용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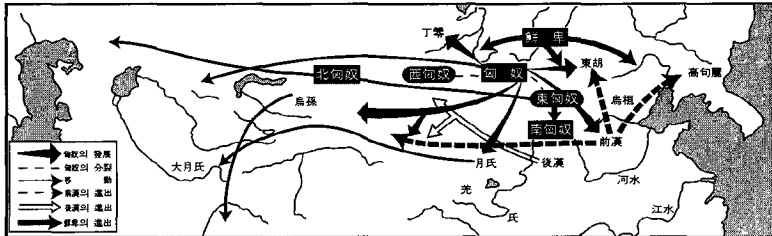
(3) 『몽골비사』 252절에는 金國이 몽골족에 헌상했다는 기록이 있다. 오랜 신석기시대로부터 중국에는 비단의 생산기술이 있었고 화려하고 가벼운 이 비단은 북방 최초 유목국가의 흉노인에게도 重視되고 있었다. 흉노는 B. C. 200년 漢과 체결한 白登山의 盟約 이후 漢측으로부터 매년 繪·絮·布·帛 등의 직물을 제공받았으며, 이중 일부는 서역과의 무역에 쓰였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에 의해서도 일찍이 기원전 200년경부터 서역문화의 일부가 유입 모방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4) 몽골족의 일원으로 알려진 유목민족인 匈奴族은 東흉노·南흉노·西흉노·北흉노족으로 분파되어 있었다. 기원전 3세기 중경부터 흉노족은 중국의 西北近境을 호시탐탐 노려 약탈을 일삼았다. 중국농민의 가축과 사람을 가리지 않고 약탈과 살생을 저질렀다. 드디어는 漢으로부터 쫓겨 서쪽으로 달아나 B. C. 8세기 유럽을 침략하기 시작함으로써 민족대이동의 시발이 되었다 라고 그리스어의 『歷史의 父』 헤로도투스⁷⁾의 記錄에서도 밝히고 있으며, 또한 유럽인들이 동양에서 훈족(HUN족 = 흉노족)으로 알려진 기마민족 몽골인들은 이동을 계속 하였으며 그들은 B. C. 207~A. D. 39년에 여러차례 漢나라를 침략하려고 하였으나 좌절하고 서쪽으로 쫓겨났다 라고 영국 출신의 장

6) 孫進己 지음·林東錫 옮김, 앞의 책, p. 195.

7) 『民族의 世界』 4, 中央유라시아의 世界에서.

군 ‘버나드 로 몽고메리’는 자신의 저서 『전쟁의 역사』에서 밝히고 있다.



[지도 2] 서역진출의 길을 개척한 匈奴의 侵攻圖

(5) 몽골 복식에 관한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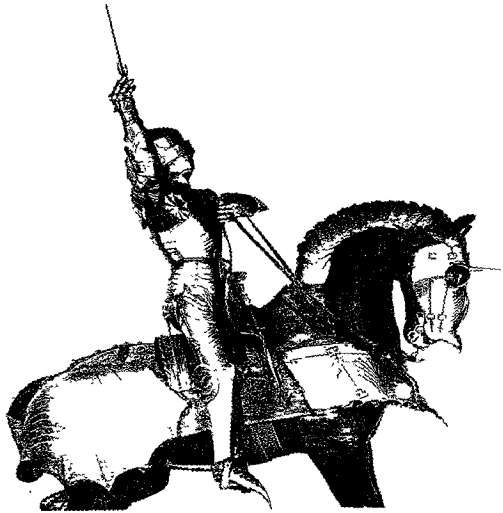
북방민족의 의상형태는 주변 부족들이나 정주민족에 대한 끊임없는 전쟁을 수행하기 위하여 방한과 보온 및 기마와 노숙에 편한 의복을 입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몽골족의 의복의 형태는 자신들이 살고 있는 자연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유목생활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그네들의 자체 필수품을 거의 가죽을 통해서 얻어지고 있는 것이다.

『몽골비사』 106절에는 몽골군의 전투복장인 ‘Khatangu deei’에 관한 기록은 페르시아의 삽화, 또 『전쟁의 역사』에 나타나는 13세기초 쇠미늘 갑옷([그림 11], [그림 12] : Maitunic)과 이탈리아의 면갑투구([그림 25-①])와 연결된 쇠미늘 갑옷과 서코트(surcoat = 갑옷위에 입는 짧은 외투와 갠비션(gambeson = 가죽이나 누빈천으로 만든 갑옷 외투) 등을 착용하였다는 기록에 의하면 쇠미늘 갑옷은 13세기초 유럽군대의 군복의 일부로써 최초 서역진출을 한 흉노족(HUN족)에 의하여 유입된 전리품이거나 탈취품일 것으로 생각된다. 유럽군대의 쇠미늘 갑옷은 13세기까지 착용되었으나 14세기에 들어와서는 파충류 형상의 판금갑옷([그림 13], [그림 14], [그림 15])으로 바뀌었다.⁸⁾



[그림 13] 토머스 페어팩트경(잉글랜드)



[그림 14]

8) 버나드 로 몽고메리 지음·송영조 옮김, 1995, 『전쟁의 역사』, 책세상, p. 271.

이상의 사료나 문헌의 기록에 의해서도 몽골군 복식은 진출영역에 따른 영향으로 몽골군 복식의 형태적 성격을 알 수 있다.

(6) 胸背

흉배는 중국·한국·몽골이 공통히 관복의 가슴과 등에 붙이던 수놓은 형견조각으로 직함과 계급에 따라 그 문양을 달리하고 있다.

『集史』의 세밀화([그림 20])와 세밀화 칭기즈 칸의 一家([그림 16])의 그림에서는 왕가의 가족들의 복장등에 새겨진 흉배는 최고 권위자들에게만 표현되는 상징적인 용의 문양이 새겨져 있다. 그 외의 관리들에 있어서는 용의 문양을 장식할 수 없을 만큼 엄격히 구별되어 있다. 즉 왕과 왕족, 그리고 왕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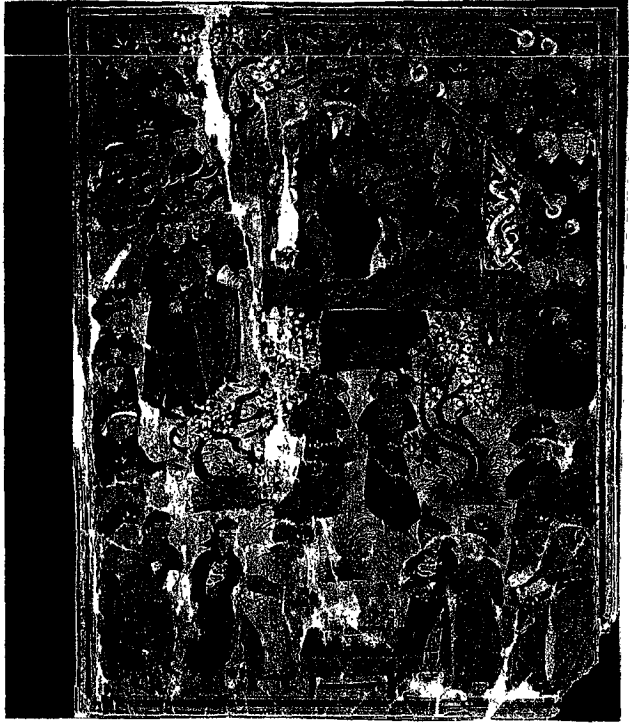


[그림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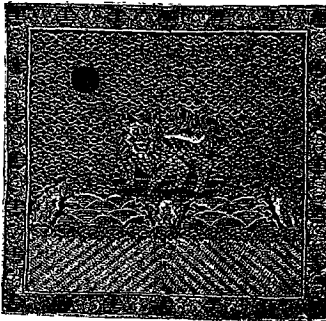
대신들만이 붉은색의 관복을 착용할 수 있는 관습과 같이 흉배의 문양 또한 문관과 무관이 장식할 수 있는 문양은 확실히 구별되어 있기 때문이다.

① 武官의 胸背 문양([그림 17])중 중심적 문양은 붉은 태양과 용맹한 맹수(사자, 호랑이)의 상을 하였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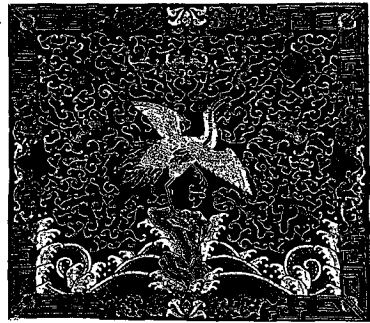
② 文官의 胸背([그림 18])는 붉은 태양, 새(학), 구름, 꽃 등과 기하학적 무늬의 양식과 10장생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그림 16] 칭기즈 칸의 일가



[그림 17] 일품 무관 흉배(전면·배면)



[그림 18] 일품 문관 흉배(전면·배면)

1) 『集史』의 세밀화(miniature)

표 1. 『集史』의 세밀화(miniature) : 『集史』에 나타난 몽골 군복

번호	출 처	제 목	신분	투구	바지	(델)포	갑옷	(부스)대	(구달)화	비고
1	『集史』 원색 사진 도판(오리온 프레스 제공) 토포카피 궁전박물관 소장 · 『역사독본월드』, p. 113 · 『조일백과』 51 A325	적병을 추격하는 몽골 騎馬兵	①	고동색		장포	고동	갈색	흑	
			②	고동색		고동	고동			



[그림 19] (천연색)

표 2.

번호	출 처	제 목	신분	투구	(도투르 참츠) 바지	(델) 장포	(키탕구) 갑옷	반 비의	(부스) 대	(구달) 화	기타
1	『集史』 · 칭기즈 칸 『集史』를 통 해본 몽골군 단 「압승과 영광 의 서정」 · 『역사독본 월드』, p. 184 · 『몽골제국』, p. 22(colour 사진)	하리즘軍을 추격하는 몽골기마병 (1219~1221) (파리국립 도서관 소 장)	2人	진고동	홍색	주황색	진고 동색	청		2人 두록색	1人 바지속에 반비의
			2人	진고동		홍색	진고 동색	녹		홍색	1人 홍배
			1人	황색		두록색	진고 동색		홍	흑색	
			1人	진고동		두록색	녹색	두록		흑색	
			1人	진고동		보라색	녹색	연청		흑색	



[그림 20] (천연색)

표 3.

번호	출 처	제 목	신분	투구	(도투르 르 참치 바지)	(델) 포	갑옷	반비의	(부스) 대	화	기타
1	『集史』 · 『DIE MONGOLEN』, Pinguin Verlag, Frankfurt/Mai n p. 68 (colour 사진)	城을 공격하 는 몽골기마 병(1219~12 21) (파리국립도 서관 소장)	2人	고동색	·	분홍색	분홍색		대	홍	담호 (분홍)
			1人	연청색	·	분홍색	연청색		대	심청	담호 (연청)
			1人	연청색	·	분홍색	분홍색	분홍색	대	흑	
			1人	고동색	·	연청색	분홍색	분홍색	대	홍	
			1人	고동색	·	분홍색	연청색	연청색	대	·	



[그림 21] (천연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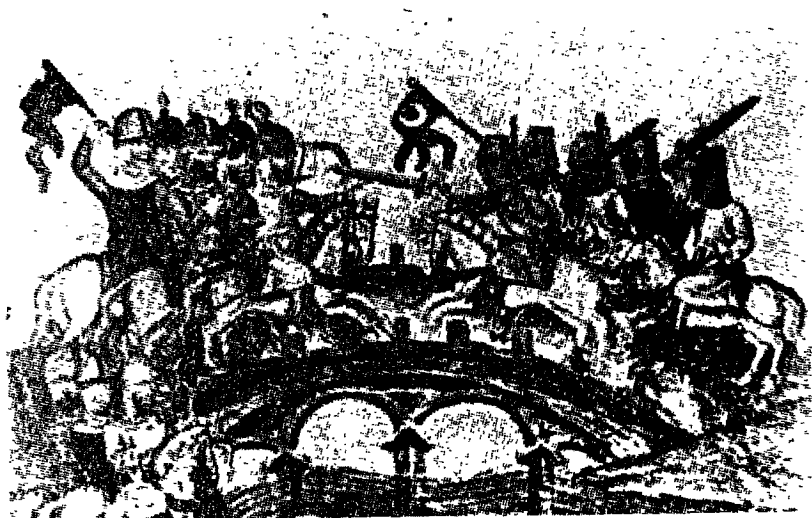
[그림 22] (흑백)



[그림 23] (흑백)



[그림 24] (흑백)



[그림 25] (흑백)



[그림 26] (흑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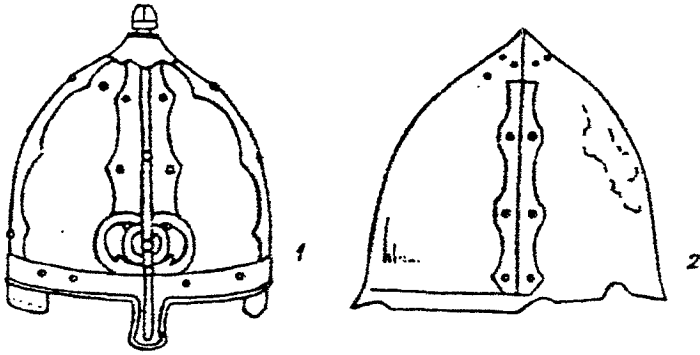
『集史』는 칭기즈 칸의 선조로부터 시작해서 칭기즈 칸의 전생애에 관한 사록이 일한국(汗國)의 가잔한(칸 : 1295~1304)에 의하여 저술된 ‘종합사’가 있다. 『集史』는 몽골의 복속국인 페르시아의 역사가·의사이며, 일한국의 제상인 ‘라시드 앳단’이 저술한 것으로서 칭기즈 칸의 세계정복 諸汗國의 역사를 가잔한(칸)까지 기술하였으며 여러 사록중 가장 평판이 높은 기념비적인 저술로 알려져 있는 풍부한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다. 그리고 『집사』에는 역사적 기록화라고 할 수 있는 여러 세밀화(miniature)가 삽입되어 있어 당시의 전쟁상황이나 군복식 및 무기들에 관한 연구자료로 제공되고 있다. ‘라시드 앳단’이 『집사』를 저술할 때 기록에 삽입할 세밀화를 그리기 위해 몽골 화가⁹⁾와 중국 화가를 초청해 갔다는 기록에 근거해 보더라도 개개의 국가사 집필은 해당국가 출신 학자들에게 맡겨졌고 세밀화, 즉 기록화 역시 해당국의 화가들에게도 맡겨 그렸을 것으로 추측된다.

2) 암각화와 고고학적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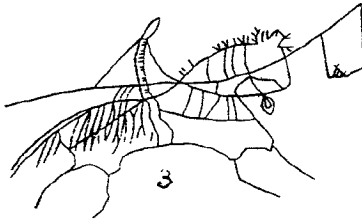


[그림 27] 암각화를 해석한 형태의 기마병(거란의 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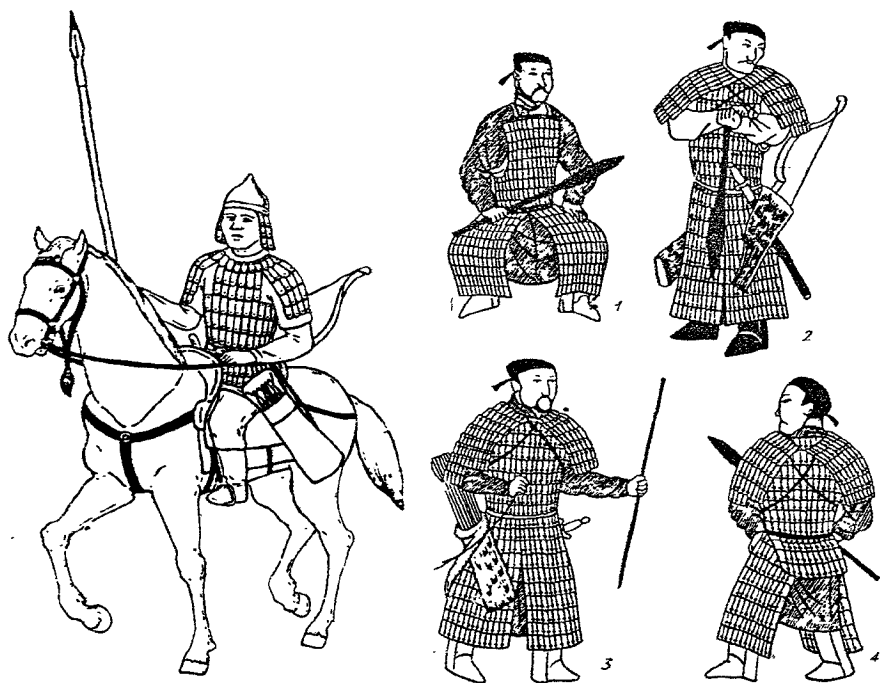
9) 테 바이에르 지음·박원길 옮김, 1994, 『몽골석인상의 연구』, 도서출판 혜안, p. 53.



[그림 28] A. D. 9세기 몽골군의 투구
(1. 출토유물의 형태를 해석한 투구의 형태, 2. 출토된 투구)



[그림 29] 암각화 [그림 4]를 해석한 형태의 기마병(장창을 든 군인)



[그림 30] 암각화를 해석한 형태의 기마병 [그림 31] A. D. 6~9세기의 군인들

몽골 헝가리 고고학 조사단은 1974년 아르한가이 타이르군 부근의 호이르江 연안 알탄상다르山 근처의 비안차간 계곡 합류점에서 鹿石을 발견했다. 보통 볼 수 있는 양식화된 사슴과 머리가 넷인 말 무기(단검, 나이프, 방패, 화살통, 창), 창에 달린 띠(말갈기 띠), 그 밖에도 작은 正方形의突起가 있는 곡괭이形 무기가 새겨져 있었다.¹⁰⁾ 그리고 『중아시아 유목민·옛날과 중세기』¹¹⁾ 6~10세기경의 '쿠르강 군인'이라는 여러 암각화들,

10) D. 마이달/N. 슈르렘 저·김구산 역, 1991, 『몽고문화사』, 東文選, p. 190.

11) 호디아 코브 저, 1990, 『중아시아 유목민·옛날과 중세기』, p. 19.

3) 『몽골秘史』의 所載畵



[그림 32]



[그림 33]



[그림 34]



[그림 35]



[그림 36]

4) 불화



[그림 37]



[그림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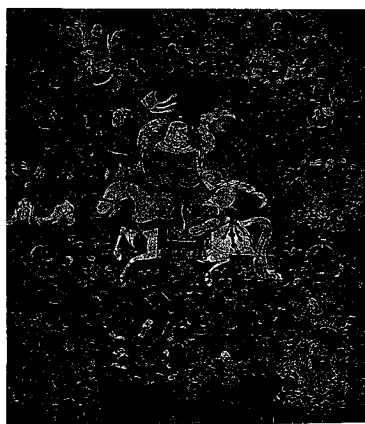
[그림 39]



[그림 40]



[그림 41]



[그림 42]



[그림 43]

몽골의 불화들에 대해서는 그 불화의 제작년대(제작년대를 알 수 없는 불화들이 대부분이다)가 언제였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질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그러나 몽골의 불화(라마교)는 시라사무렌河에서 발원한 거란제국(915~1125)은 불교국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각지에 많은 불교유적을 남기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의 제국들의 불교와 몽골 제국간의 어떤 상관관계도 찾아볼 수 없다. 몽골의 불교는 몽골제국 건립 이후부터이다 라고 알려져 있다.¹²⁾ 그러나 샤민의 우두머리라 할

만치 미신을 신봉하는 칭기즈 칸에게 불교의 영향을 미치게 한 여러문헌에 그 계기가 나타난다. 문헌에는 중원의 종교정책에 관한 것인데 海雲和尚(和尚 = 윗사람, 스승)은 무칼리(Mukhali)가 화북을 경영할 때부터 몽골인들의 존경을 받았던 불승으로 몽골 칸들의 祭祀를 주관한 적도 있었다. 그의 이같은 행적은 후일 몽골이 불교를 받아들이는 계기를 제공하였으리라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무속인들의 미신적 우상은 장군대감이라는 장군상이다. 완벽하게 장군복과 무기를 갖춘 중세의 장군에서부터 가깝게는 조선시대의 장군, 그리고 근대의 대통령, 6·25전란 때 참전하였던 UN군의 장군에까지 이른다. 몽골 최대의 발흥기, 아시아 전지역을 유린한 몽골군의 그 기세 당당함을 불화 그 속에 표현되어 있으며 또한 몽골군사적 모든 것이 불화

12) 박원길 저, 앞의 책, p. 171.

그 속에 있음을 알 수 있다.

5) 현대 재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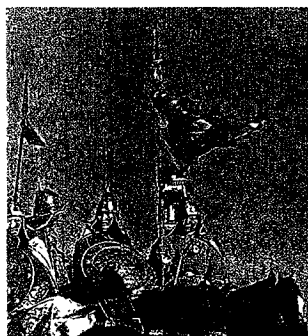
[사진 1]



[그림 44]



[사진 2]



[사진 3]

[참조] 몽골 복장

No	종별	명칭	형태	재료	용도	비고
1	저고리	가도르 참츠	대퇴부까지 내려오며 팔소매가 길다.	광목, 비단	속옷	
2	바지	도토르 참츠	다리통이 넓고 길이가 길다.	광목, 비단, 가죽	하의	
3	겉옷	델(deél)	팔소매가 길며 옷의 전체 기장이 길다. 허리에 띠(büise)를 맨다.	광목, 비단	외투	안감은 새끼양의 털을 붙여 만들. 짧은 여름철과 긴 겨울철을 양피제의 옷을 입는다.
4	속옷	참츠	수구가 꼭 끼는 팔이 길고 옷의 전체 기장이 길다.	광목, 비단	속옷	
5	털외투	닥투(dakhu)	기마의 편의상 무릎위까지 내려오는 털외투	털가죽	털위에 입는 겉옷	안팎이 털로 된 외투. 허리띠를 맨다.
6	장옷	오즈	팔소매가 없는 털위에 걸치는 긴 장옷이며 여자들의 옷이다.	비단	털과 같은 겉옷이며 장포로서, 치녀는 띠를 매지 않는다.	기혼여인만 띠를 맨다.
7	쇠미늘 갑옷	하탕구 델(khataggudeéi)	철사로 그물 같이 짜여진 반판, 길이는 대퇴부 밑에 까지 내려온다. 투구와 연결되기도 한다.	철사	전투복, 갑옷	

가. 갑옷(甲冑)¹³⁾

전투복인 갑옷으로 무장한 입음새는 3가지로 구분된다.

13) 이하 갑옷, 장포, 담호의 명칭은 金美子, 앞의 논문 중의 도포와 의상의 명칭을 인용하였음.



[그림 45]

‘구달’(신발코가 위로 휘어 올라간 것)로 표현되어 있지 않다. 상신부분만 보이는 기마병은 청색장포(蓑)위에 홍색갑옷을 착용하였다. 궁대와 장도는 11세기형을 휴대하였다([그림 45]).

나. 장포(長袍 = deél)

장포는 몽골인들의 기본으로 착용하는 겉옷으로 두루막힌 옷으로서, 우입이며 허리에 비단색띠(부스)를 맨다. [그림 20]에서 나타난 기마군대는 모두 똑같은 형태의 옷을 착용하였다. 즉 몸에 꼭 맞으며 손목에 꼭 끼는 옷을 입었는데 속옷(참츠)와 같은 것으로 생각된다. 참츠위에 입은 팔소매가 짧고 길이는 무릎위 대퇴부 길이로서 몽골 전통의상인 닥투(dakhu)와 같은 형으로 보여진다.

이 옷은 목이 둥글게 파였으며 가슴앞은 매듭으로 여미며 밑길이까지 열려 있으며 허리에 띠를 맨다. 가슴에는 사각의 胸背가 붙어 있고 목둘레와 팔소매끝, 그리고 옷의 밑끝부분에 표시된 점선들은 귀족들이나 관리들의 옷, 특히 무관의 응복(戎服) 등에 장식되는 문양으로 이해된다. 몽골 『詩史』에 삽입된 세밀화 [그림 46]은 하라즘의 寺院에서 군중(귀족들과 관리들) 앞에서 연설을 하는 칭기즈 칸의 장면에서도 칭기즈 칸과 군중의 옷은 모두

첫째는 투구를 쓰고 長袍위에 갑옷을 입고 화(靴)를 신은 경우이다.

[그림 19]의 오른쪽 병사가 적병을 추격하는 모습이다. 적병을 향하여 길을 겨누며 말을 달리는 몽골기마병은 투구를 쓰고 녹색 갑옷을 홍색 長袍위에 착용하였으며 허리에 띠(부스)를 매었고, 띠에는 활이 꽂혀 있는 궁대와 칼집이 왼쪽에 달려 있다. 흑색 靴를 신었는데 몽골 유목민들의 전통적 승마시에 신는

[그림 20]과 일치하고 있으며, 옷의 형태 뿐만 아니라 옷의 앞가슴의 흉배와 어깨부분, 짧은 팔소매 등에 문양이 장식되어 있다. 또한 속옷(참츠)차림도 위의 『集史』의 세밀화와 똑같이 표현되어 있다. 이들이 입은 옷과 문양을 보아서 일반인들은 아니며 왕가의 가족들과 관리들일 것이다. 일반인들에 있어서의 옷에는 흉배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옷의 어깨나 기타의 부분에 문양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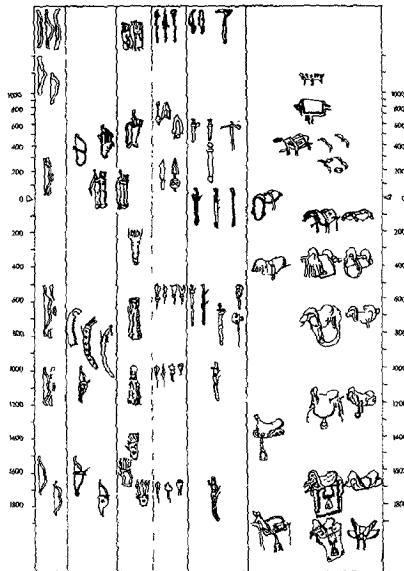
[그림 46] (전연색)

[그림 20]의 기마병들의 복장은 전투복은 아니며 흉배를 붙인 복장을 착용한 군사는 무관복차림인 것으로 생각되며 군대의 지휘장교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 세밀화는 『集史』의 기록을 설명하기 위한 것일뿐, 세밀화에 표현된 형태를 통한 군복의 진실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다. 답호(搭襖)

[그림 21]은 城안에서 갑옷을 착용한 병사들이 활을 쏘고 있고, 城밑에서는 몽골군 6인이 城을 공격하고 있는 장면이다. 몽골군은 투구를 쓰고 장포(蓑) 위에 갑옷을 입고 또 그 위에 6인이 모두 답호(搭襖)를 착용하였다. [그림 19]에서의 갑옷과 일치하고 있다. 이 그림에서는 답호를 착용하지 않았다. 답호는 소매가 없고 앞이 트이고 허리부터 옆트임이 있다. 허리띠를 하였는데 허리띠에는 장도(竈楯)와 화살이 든 화살통(화살통은 11~12세기의 형태)이 달려 있다(〈참조표 1〉 몽골군 병기 및 장비의 변천 참조). 신발은 역시 [그림 19]와 같이 코가 뾰족한 형이다.¹⁴⁾

<참조표 1> 몽골군 병기 및 장비의 변천(變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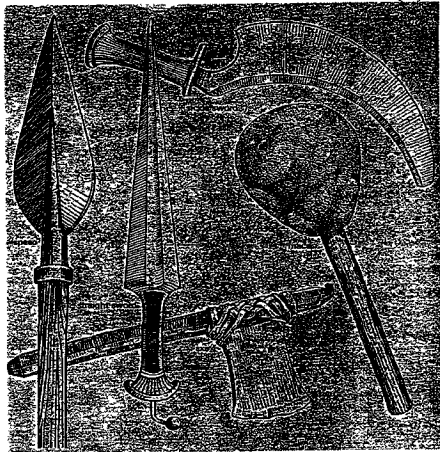
14) 훈트호아 지역에서 발견된 석인상은 신발코가 뾰족한 것과 위로 솟아오른 두가 지의 신발을 신고 있었다(테 바이에르 저음·박원길 옮김, 앞의 책, p. 86).

이 그림에서는 몽골병사와 똑같은 군복과 투구, 활 등을 착용하고 있는데 城을 공격하는 몽골군의 갑옷위에 착용한 褶호를 적군(城위)은 착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몽골군과 적군의 복장과 일체의 갖춤이 똑같게 나타남은 의문점이다.

[그림 19]¹⁵⁾는 1207년(용인 처인성 전투 25년전) 가을 몽골군의 탕구트 요새 공격장면이다.

① 완벽한 투구와 갑주로 장식된 갑옷을 착용하였다. 가슴에는 둥근 원판의 태양을 상징하는 표식¹⁶⁾이 붙어 있고 허리에 벨트(부스)를 하였다.

② 가죽 또는 철로 만들어진 투구 위에 창날이 꽂혀 있고 수술이 달려 있다. 양어깨에는 상징적인 문양([그림 8], [그림 9], [그림 10])을 달았으며, 동양적인 일반적 형태라고 할 수 있는 일직선의 곧은 장도와 곡선형의 장도([그림 47])를 든 병사도 보인다. 또는 중세 유럽군대가 백병전시에 사용하였던 대 끝에 공 같이 둥근 쇠가 달린 철퇴(쇠몽둥이)를 들고 있는 병사와 완전한 중세 유럽군들이 착용하였던 쇠미늘 갑옷([그림 11], [그림 12]) 차림의 병사가 있다.



[그림 47]

③ 창과 방패를 들고 있는 병사.

④ 말에 화려한 문양의 갑주로 장식된 모습이다.

15) 『몽골과 서구 “그리스도교의 세계”』 중 「동서로 잇는 몽골인」, p. 16에서 인용.

16) 몽골 무당의 가슴에 장식된 원반과 유사한 것으로 거울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

● 칼은 동양적인 일직선형과 서구적 형태인 곡선형의 칼을 혼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장인들을 소환하여 제작한 것이거나 노획한 것일 것이다.

● 여인들을 희롱하는 장면등

● 중국식 복장의 장포(長袍)를 입고 그 위에 단포를 입은 갑옷, 허리에 천의 띠(부스)를 맨 것도 보인다.

● 우임식의 장포를 입은 병사도 보인다.

전체적으로 세밀화의 기법으로 보아 사람의 얼굴 형태등이 유럽식 기법으로 묘사되어 있다. 유럽인 화가의 솜씨일 것이다.

[그림 23]은 1211년 봄 金國의 수도(연경)를 공격하는 몽골기마병의 모습을 보여주는 세밀화이다. 앞의 [그림 20]의 세밀화와 동일한 장비들(투구, 군복, 방패)을 착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법 역시 똑같다. 다만 전쟁의 장소가 각기 다를 뿐이다.

[그림 20]은 하라즘 군을 추격하는 몽골기마병이며, 연대는 1219~1221년 이고, [그림 23]은 1211년 金國의 수도를 공격하는 몽골기마병의 모습이다. 이 두 세밀화는 그림의 기법이 똑같고 세밀화 인물들의 복장, 칼, 방패, 투구, 신발 등이 똑같이 나타나며, 전쟁의 연대도 각기 다르다. 간소한 구도와 공격적인 사실감이 없이 단편적인 그림으로 보여진다. 이 그림에서도 역시 [그림 20]과 같이 다만 기록에 그 의미를 두었을 뿐, 당시의 군장비 및 복식의 형태나 양식과는 상관 없이 표현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24]는 1223년(용인 처인성 전투 9년전) 칭기즈 칸이 본토로 개선중에 본군과 합류하는 기마군대의 장면으로 그림의 구도와 사실적인 묘사를 진실에 가깝게 표현하고 있는 그림으로 보인다. 군대의 투구와 갑주로 장식된 갑옷, 들고 있는 창, 깃발, 허리에 찬 궁대, 화살통, 칼 등을 잘 묘사하고 있는 장면이다.

위의 그림에서도 기마병들이 서로 합류하는 장면에서 마상의 군인들보다 말이 서로 절을 하는 듯한 모습 또한 당시를 매우 잘 설명하고 있는 그림으로, 아마도 이 그림은 몽골인 화가나 중국인 화가가 그린 것으로 믿어진다.

그 펼치와 기법이 동양적인 느낌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 25]는 1241년 북아시아의 헝가리를 공격하여 도나우천의 다리 위에서 헝가리 기마병과 접전하는 장면이다. 앞의 세밀화 [그림 19], [그림 20], [그림 21], [그림 46]과 [그림 22], [그림 23], [그림 24]의 세밀화의 군복식 등 그림의 기법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르게 표현되어 있다. 이 그림의 양군의 군복중 우측군대는 기원전 유렵군대들이 착용하였던 面甲투구를 쓰고 있는 모습이 확연히 나타나고 있다. 이 세밀화는 펼치의 선이 세밀하지는 못하며 선이 굵게 표현되었으나 설명적이다. 동양인 화가의 펼치로 믿어진다. 그리고 [그림 26]은 [그림 25]와 같은 해인 1241년일 뿐만 아니라 대전국이 서로 같은 헝가리이다. 그림에도 같은 연대에 그려진 세밀화의 기마병들의 복장이 서로 상이한 점에 대해서 의문시 하지 않을 수 없다.

2) 암각화와 고고학적 출토유물 : 고대 몽골인들·홍노·시안비·조우장·투르크 오이칼(위그르)·키르키스·거란·하무그 몽골 등의 부족들이 유목생활을 하던 지역의 암각화를 중심으로 몽골군복의 양식과 형태를 밝혀 보고자 한다.

[그림 27]은 암각화를 해석하여 완성한 갑옷을 착용한 군인의 형상이다. 이 그림에는 기마병의 갖춤이 완전하고 말 역시 완전한 갑주로 입혀져 있다. 세분하면 ① 투구, ② 갑옷, ③ 활집과 활, ④ 창(창대와 창칼이 연결된 부분에 띠, 즉 말갈기털-고대 몽골부족들은 부족의 상징적인 표식으로 말갈기털을 사용하였다는 설이 있다.-(술테¹⁷)의 의미일 것이다. 필자 註), ⑤ 화살통과 화살, ⑥ 등뒤의 창(이것은 창대가 짧으며 칼날이 유선형으로서 투창이다.), ⑦ 말의 면갑.

[그림 28]은 9세기경의 출토유물인 투구이다. 재현된 투구 1과 출토초기

17) 柳元秀, 1990, 「오르도스 地域의 Sülde 猛威祭」, 『비교문화』 6.

郭永明이 成吉思汗-칭기즈칸-祭奠이라는 제목으로 1988년 내몽골 呼和浩特市에서 漢譯出版社가 출판한 바 있고, 1989년에는 柳元秀가 제례를 수행하던 제관들에 관한 자료를 다룬 위책의 8장을 영역하여 “Shir-a-Dargat Families in Ordos”라는 제목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디아나 대학에 제출한 바 있다.

의 형태 2의 그림이다.

[그림 4]는 6~10세기경 쿠르강 군인 모습의 암각화이다.

[그림 29]는 암각화 [그림 4]를 해석 완성한 군인의 모습으로, 창을 들고 말을 달리는 기마병의 모습이다. 세분하면 ① 투구(투구 위에 수술<말갈기 털>이 달려 있다.), ② 갑옷, ③ 창([그림 27]의 것과 동일함), ④ 뒤로 활과 화살이 보임, ⑤ 말의 고삐·굴래·고들개·가슴걸이 가죽띠, ⑥ 등자, ⑦ 신발(구달).

[그림 30]은 6세기경의 암각화를 해석 완성한 기마병의 모습으로서, 투창을 세워두고 말을 타고 서서히 걸어가는 기마병의 모습이다. 세분하면 ① 투구, ② 갑옷([그림 29]와 동일한 갑옷 착용), ③ 창(띠가 없음), ④ 활, ⑤ 화살통(6세기형. <참조표 1> 참고), ⑥ 등자, ⑦ 신발(코가 위로 휘어 솟아 오른 구달), ⑧ 간단한 마구 장식.

[그림 31]은 6~9세기 암각화를 해석한 형상적 군인들의 모습 1·2·3·4이다.

1의 그림은 군인의 모습으로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이다. 그림 2·3·4의 갑옷을 착용한 군인들의 어깨위의 갑주가 착용되었으나 1의 그림의 군인은 어깨위에 갑주를 걸치지 않았으며 손에는 창의 대가 짧은 투창을 들고 앉아 있으며 코가 뾰족한 흰색 신발을 신고 있다. 갑옷은 어깨걸이(어깨끈)가 있는 앞뒤 트임이며 갑옷의 길이는 발목까지 내려와 있다.

2의 그림은 서있는 갑옷차림의 군인으로 앞뒤트임의 위아래가 연결된 갑옷을 착용하고 있으며 갑옷속에는 흰색의 참츠 또는 델을 입고 있다. 궁대와 장도를 허리에 차고 있으며, 장도는 1~5세기형으로 보여진다(<참조표 1> 참고). 코가 뾰족한 검은색 신발을 신고 있다.

③ 3의 그림은 2의 그림과 같은 형태의 갑옷을 착용하였으며 화살통(A. D. 1세기형), 화살통과 장도를 차고 있고 왼손에는 긴 막대를 들고 있다.

④ 4의 그림은 서있는 군인의 뒷모습으로서 상하가 분리된 갑옷을 착용하고 있다. 세분하면 (가) 어깨갑주, (나) 뒷갑옷, (다) 아랫갑옷, (라) 투창

을 휴대하고 있다.

그림 1·2·3·4의 군인들은 갑옷 속에는 수구가 꼭끼는 팔이 길고 몸에 꼭맞으며 옷의 길이가 발목까지 내려오는 속옷(참츠)과 겹옷(텔)이 일반적인 겹옷이지만 위그림의 군인들은 갑옷속에 받쳐입은 옷은 무릎위까지 내려오는 半袖衣를 입었다. 그림의 1을 제외하고 2·3·4의 군인들은 속옷(참츠) 차림과 양피가죽의 텔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그림 1·2·3·4의 군인들은 투구가 아닌 隋·唐代的 官吏들이 쓰는 천으로 된 검은색 모자를 쓰고 있다. 가정해 보면 이들은 무관급의 모습으로 7세기경 隋·唐 및 吐蕃¹⁸⁾의 官吏들이 썼던 리복삼(裏幘衫)인 것이다.

몽골기마병의 무가중 적을 조준하여 던지는 투창과 위협과 동시에 적과의 접전시 사용하는 장창의 두가지가 있다.

- 투창은 창대가 짧으며 창날이 예리하며 유선형이다.
- 장창은 창대가 길며 창날이 길고 두꺼우며 위협적이다.

3) 몽골불교(라마교)의 불화

[그림 32]는 만두하이¹⁹⁾를 이상화한 그림이다. 이 그림에는 몽골국가를 상징하는 문양이 투구에 표시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만두하이의 일생을 통한 모든 역사성을 집약한 내용의 의미를 담고 있는 그림이다.

오른손에 연꽃 한송이를 들고 있다. (동양계 민족의 가장 널리 퍼져있는 꽃이며 몽골의 무늬종류 가운데에서도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순결의 상징으로 또는 종교적인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왼손에는 몽골유목민에게 있어서 가장 그 의미가 깊은 것으로 인정되는 화살을 들고 있다.²⁰⁾

18) 「公元 641年 隋·唐代的 裏幘衫」, 『中國歷代服飾』, 學林出版社, 1991, p. 125.

19) 몽골의 15세기 후반 일개 대신의 딸로 태어나 몽골의 부흥을 일으켜 역사에 그 이름을 남긴 '다얀왕'의 왕후가 된 실존의 인물.

20) 화살은 실재적으로는 살생·살생은 생존의 수단적 가치- 또는 속도감의 상징. 정확성의 상징. 시간적 공간의 상징. 솔직, 정확성, 순결, 정직의 심오한 의미를

이 사진에서의 주인공인 만두하이와 배경에 배치된 인물들이 몽골의 군사적인 갑옷·투구·화살·화살통 등의 일체의 무기들이 표현되어 있다. 이것들은 『몽골비사』의 所載畫 [그림 32], [그림 33], [그림 34], [그림 35], [그림 36]과 일치하고 있다. 또한 불화들의 주된 형상들이 착용하고 있는 군사적인 무기들과 갑옷의 형태는 5~6세기 隋·唐代 초기의 軍服의 형태 ([그림 8], [그림 9], [그림 10])와 우리나라 고대 가야국의 철갑옷(A. D. 4세기)과 일치한다.

[그림 38]은 갑옷을 입고 있으며, 투구와 화살통과 궁대를 착용하고 있다.

[그림 39]는 악을 쫓는 괴물형상과 거북의 형상을 하고 있다. 군사적 복장을 하고 있으며 유럽형의 장도를 쥐고 있다.

[그림 40]은 군사적 투구와 갑옷 차림을 하고 있고 화살통과 궁대를 찻으며 말을 타고 있다.

[그림 41]은 군사적 모습을 하고 있으며 일직선형의 칼을 오른손에 들고 왼손에는 창을 들었으며 말을 탔다.

[그림 42]는 군사적 복식을 갖췄으며 오른손에 깃발을 들고 있다. 호랑이, 낙타 등의 동물을 타고 있는 장군들의 모습이 표현되어 있다.

[그림 43]은 분노의 상(忿怒像 : 護法神) 다르마파라(Dharmapala)이다. 괴이한 동물의 몸이 마치 인간의 모습처럼 묘사된 머리의 투구나 갑옷 양쪽 허리에 궁대와 화살통을 차고 있다. 특이한 것은 투구에 너댓개의 해골로 장식되어 있으며 호랑이의 형상을 뒤집어 쓰고 있다.

4) 『몽골비사』의 所載畫

[그림 32]는 『몽골비사』의 내용중에 있는 소재를 그림으로 묘사한 것이다. 이 그림의 내용은 몽골의 통일을 기원하고 그 결심을 하늘에 맹세하는 칭기즈 칸의 모습과 기마군대의 모습이 표현되어 있다. 이 기마군대의 모습

을 세분하면 ① 투구, ② 갑옷, ③ 활, ④ 화살, ⑤ 장도, ⑥ 망토 등이다.

⑥ 망토는 유럽기사들이 어깨넘어 등뒤에 걸치는 것이며, ⑤ 장도는 곡선형으로서 역시 유럽형의 장도이다. 또는 『集史』의 세밀화 [그림 22]의 몽골군의 복장과 동일하다. 그리고 불화에서 나타나는 군사적인 일체와 동일한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다. 갑옷은 長袍위에 착용하였으며 코가 위로 휘어올라간 신발(구달)을 신었다.

[그림 33]은 전장에서의 용맹스러운 기마군단의 위용을 나타낸 그림이다. 이 그림을 세분하면 ① 투구, ② 갑옷, ③ 궁대, ④ 화살통과 화살, ⑤ 장도, ⑥ 방패, ⑦ 구달(靴) 등이다. 전체의 갖춤중 ⑤ 장도는 유럽형인 곡선형이며, ② 갑옷의 가슴에는 원반형의 둥근 태양, 또는 몽골 무속인의 가슴에 붙어 있는 거울이 붙어 있다. 역시 長袍 위에 갑옷을 착용하였다.

[그림 34]는 앞의 [그림 32]와 같다.

[그림 35]는 앞의 [그림 33]과 같다.

[그림 36]은 전쟁중에 격전장에서 칭기즈 칸이 적의 독살에 맞아 중태에 빠졌었다는 『비사』의 기록화이다.

이 그림을 세분하면 첫째 인물 칭기즈 칸 ① 투구(뒤의 인물 무릎에 놓여 있다.), ② 갑옷위 양어깨 부분에 머리를 통해 입은 ‘머렵치’(어깨위에 덮여 씌워 입는 것), ③ 갑옷(겉상의), ④ 아래 갑옷, ⑤ 갑옷 속에 입은 텔(長袍), ⑥ 신발(코가 위로 휘어 올라간 신발<구달>), ⑦ 장도, ⑧ 벨트(부스), ⑨ 망토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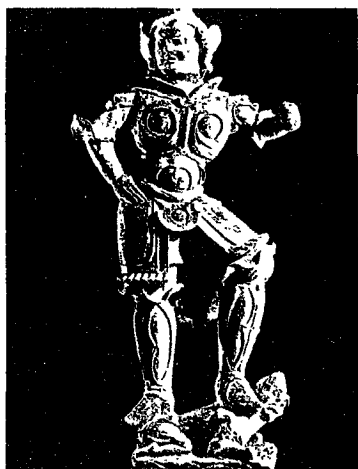
① 투구는 앞은 암각화와 고고학적 출토유물 [그림 27], [그림 28]과 같고 ②는 ‘머렵치’로서 거란황제의 초상화에도 묘사된 것으로 보아 오래된 전통을 이어받은 것으로 보인다.²¹⁾ 이 ‘머렵치’의 가슴에 둥근 원반이 있는데 (혹자는 몽골의 무당들의 가슴에 달고 있는 ‘거울’이라고 하나 필자는 ‘태양’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머렵치에 표현된 문양 또는 머렵치의 형태에 대해

21) 데 바이에르 지음·박원길 옮김, 앞의 책, p. 115(27번째 석인상).

원제국시대의 텔에 묘사되어 있는 문양(『중국역대복식』, p. 115).

서는 어떤 문헌에서도 그 뜻을 밝히고 있지 않다.²²⁾

③ 갑옷은 상하 두쪽으로 되어 있다. 그림의 인물은 벨위에 속갑옷과 겹갑옷을 착용하고 아래 갑옷(무릎위까지 내려옴)을 착용하였다. 갑옷은 위와 아래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벨을 입은 다음에 위갑옷을 입은 다음 아래갑옷을 입고 그 다음 벨트(부스)를 한다. ⑦ 장도는 곡선형으로서 유럽형이다. ⑧ 벨트(부스)²³⁾ 출토유물의 형태와 일치한다. ⑨ 망토는 유럽군 기사가 착용한 것과 동일하다.



[그림 48]

이 그림 앞의 인물뒤에 있는 둘째 인물은 앞의 인물과 동일하다. 다만 ‘머릿치’ 앞부분에 묘사되어 있는 등근 원반이 두 개가 있다. 이 표현은 일부의 삽화에서 나타나기는 하지만 그리 흔하지 않은 표현으로서 初隋·唐代의 출토유물들의 像([그림 48])에서의 표현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

이상의 여러 사료들은 13세기초 칭기즈 칸의 활약상을 『비사』에서 증언하고 있으며, 당시는 이미 군복식이나 무기와 장비 등이 완벽하게 갖춰졌음을 알려주는 소재가 아닐 수 없다.

22) ‘머릿치’에 관해서는 첫째 몽골민족의 사머니즘 사상의 최고의 이상적 대상은 하늘인 것이다. 하늘의 자연현상에서 나타나는 태양·달·구름, 10장생 무늬중의 하나인 구름에 속하는 형태와 무늬로서 무궁함을 뜻하며, 둘째 ‘머릿치’의 효용가치는 옷을 입은후 목부분의 허전한 틈을 막기 위한 것으로 착용되었을 것이다.

23) 테 바이에르 저·박원길 옮김, 앞의 책, p. 117(하르히라시 근처의 고분에서 출토된 은제 장식을 가진 부스).

V. 考 察

1) 『集史』의 세밀화(miniature), 2) 암각화와 고고학적 출토유물, 3) 몽골 불교(라마교)의 불화, 4) 『몽골비사』의 所載畫, 5) 現代 재현화 등을 고찰한 결과, 『集史』의 세밀화 [그림 20]과 [그림 23]은 세밀화의 필치와 군복의 형태 등이 서로 일치하고 있다.

1207년 몽골군의 탕구트 요새 공격 장면([그림 22])의 몽골군을 확대 해석한 형태의 기마병 [그림 45]는 불화 [그림 37~43]과 『몽골비사』의 소재화 [그림 32~36]은 몽골기마군복을 알 수 있는 모든 것 뿐만 아니라 군복의 형태와 무기들의 형태가 일치하고 있다.

2)의 암각화와 암각화를 해석 형상화한 기마병 [그림 4~5], [그림 27~30]과 『集史』의 세밀화 [그림 19], [그림 21], [그림 24], [그림 25], [그림 26]은 그림의 필치와 군복의 형태가 각기 독자성을 띠고 있다. 특히 『集史』의 [그림 24]와 [그림 25]는 1241년 對戰國이 헝가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림 24]와 [그림 25]는 기마병의 군복·투구·장도 등이 각기 그 형태가 상이하게 표현되어 있고 세밀화의 필치도 서로 다르다.

[그림 1]은 1274년 10월 여·원軍 1만여명이 1차 일본원정에 실패하자 1281년 강남과 고려로 하여금 건조한 軍船으로 또다시 일본 博多를 병력 14만으로 침공했다.²⁴⁾ 그림 위쪽에 파열하는 것은 소위 신식무기라 불렀던 ‘총’이며 화약을 사용하는 投石機의 일종일 것이다.

[그림 1], [그림 2], [그림 3]에서는 몽골군들이 거의 투구를 쓰고 長袍(델) 위에 半袖衣를 『集史』 세밀화 [그림 20], [그림 23]에서도 똑같이 착용하였다. [그림 20] 하라즘군을 추격하는 몽골기마병, 몽골기마병의 탕구트 요새를 공격하는 장면 [그림 23] 등이 똑같이 착용하였다.

반수의는 옷깃은 둥글고 몸에 맞으며 반소매이고 대금이며 길이가 무릎

24) 閔丙夏, 1973, 『韓國史大系』 4, 三珍社, p. 238.

위 대퇴부 길이이다. [그림 1], [그림 2] 역시 『集史』 소재화 [그림 20], [그림 23]의 그림속의 군사들의 복장이 바지를 입고 반수의의를 착용하였는데, 반수의는 앞이 트여 있으며 목밑에서 겹혀 입었다.

『集史』의 세밀화 [그림 20]은 1219~1221년 하리즘군을 추격하는 몽골기마군의 전투장면이며, [그림 23]은 1211년 봄 金國의 수도 연경을 공격하는 기마병의 침투 광경이다.

[그림 1], [그림 2]는 1274년도의 기록으로 볼 때 『集史』의 세밀화 [그림 20]의 1219~1221년대 보다 그 연대 차이가 53년이후가 된다. 그러나 1274년 경의 당시 [그림 1]의 일본군은 완벽하리 만치 日本특유의 군장비를 갖추고 있는 것에 비하여 여·몽군들의 군복은 그 당시로부터 53년전의 복식으로 표현되어 있다.

가설을 세워 보면, 문화적 수준에 있는 일본으로서는 몽골군에 관해서는 軍事的 차원의 史錄的인 시각에서 솔직하게 표현되지 않고 몽골족에 대한 卑下의 태도를 취한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1], [그림 2]의 군복은 半袖衣형의 갑옷으로서 『集史』의 세밀화 [그림 19], [그림 21] 半袖衣 갑옷위에 袴襪을 입은 『集史』의 세밀화 [그림 24-2]와 일치하며 세밀화 [그림 24-1]과는 세밀화 [그림 22], [그림 45]와 일치한다. 그리고 불화 [그림 37~43]과 『몽골비사』의 소재화 [그림 32~36], 현대 재현화 [사진 1~3], [그림 44]와 거의 일치하고 있다.

이상의 『集史』의 세밀화들은 많은 의문점을 남기고 있다.

[그림 19]는 1256년 이란의 바그다드를 공격, 이란의 2대 이슬람 세력을 멸할 당시의 기록화이다. 추격하는 기마병은 몽골군으로서, 투구·갑옷·궁대·화·장도의 형태와 활 등은 쫓기는 적의 병사와 똑같은 형태로 표현되어 있는 점이다.

[그림 20]은 1219~1221년 하리즘軍을 추격하는 몽골기마군과 쫓기는 적병의 복장·투구·화·장도, 그리고 방패 역시 동일하게 표현되고 있는 점이다. 그리고 몽골기마병의 복장은 전투복장으로 보여지지 않는 점이다.

[그림 21]은 1219~1221년 몽골기마군대가 城을 공격하는 장면이다. 공격하는 쪽은 몽골기마병이고 성안에서 방어하는 병사는 적군이다.

이 그림 역시 양편 군인의 군복과 무기 등이 똑같이 표현되어 있어 의문점을 남기는 세밀화이다.

[그림 25]와 [그림 26]은 이 두 세밀화의 기록 내용 연대가 1241년으로 똑같은 뿐만 아니라 대전국이 서로 같은 헝가리임에도 불구하고 두 세밀화는 몽골군의 복장이 서로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 점이다.

본 연구의 주대상인 『集史』의 세밀화 중 [그림 19]와 [그림 24-2]는 군복의 형태와 작화의 기법이 일치하고, [그림 20]과 [그림 23] 역시 군복의 양식과 형태와 작화의 기법이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위의 세밀화를 비롯하여 본 연구에 채택된 『集史』의 세밀화들은 몽골군복의 양식과 형태가 여러 사료에서 나타나는 양식과 형태들과는 상당한 차이점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연대와 시대에 따른 몽골군과 적군의 복식의 고증적 형태 표현이 전적으로 배제되어 있다. 따라서 『集史』의 세밀화는 기록적인 발생사건의 설명을 위한 단순한 표현에 불과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음과 같은 문헌의 기록을 근거로 가설을 세워 보면 칭기즈 칸의 전생애에 관한 사록이 일한국의 가잔한(칸)에 의하여 저술된 『集史』, 즉 “종합사”는 몽골의 복속국인 페르시아의 역사가 의사이며 일한국(汗國)의 재상인 라시드 앳딘²⁵⁾이 저술한 것으로서 여러 사록중 가장 평판이 높은 기념비적인 저술로 알려져 있다. 그것은 풍부한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集史』에는 역사적 기록화라고 할 수 있는 여러 세밀화(miniature)가 삽입되어 있어 당시의 전력의 상황이나 군복식 및 무기들에 관한 연구 자료로 제공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集史』를 저술한 라시드 앳딘은 가잔한(칸)의 요청을 받고 저술하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궁정안에 있는 서고를 이용하여 중국측에서 기록한 『황

25) 라시드 앳딘 : 페르시아인 역사가 의사. 『集史』 저술자.

금책』으로 소급하여 기록을 하였으나 금기 때문에 언급하지 못했던 칭기즈 칸의 패배를 승리로 바꾸어 기록함으로써 솔직하게 사실적으로 기록한 『성무친정록』과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원사』의 ‘본기’에는 누락되어 있는 부분도 많고 딱딱한 문체로 씌어져 있으나 ‘열전’ 부분에는 개별 가문의 역사에 토대를 둔 서술이 있어 칭기즈 칸의 성격을 판단하는데 매우 가치있는 기록을 전해주고 있다.

이렇게 두가지의 서로 다른 흐름 사이에서 독자적이고 아무런 금기에도 얽매이지 않은, 전사들의 생생한 이야기들로 이루어진 『비사』의 기록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궁정 사가들에 의해 공식적인 형태로 재조성된 몽골족의 역사가 있는 셈이다. 그러나 본 연구자료가 『集史』 그속에 있으므로 해서, 한편 필자 스스로의 생각에, 특히 세밀화(miniature)에 대해서 부정적인 면과 의문점들이 발견되었지만 일단 자료로서 채택하여 보기로 하고, 의문점이나 부정적 요소에 대한 분석은 다음 순서에서 밝혀 보기로 하였다.

이미 상술한 바와 같이 당시의 일한국에는 여러 복속국으로부터 소환된 장인들이 제기능과 능력에 맞춰 전문성을 인정받고 물품 제작을 하도록 하였던 것과 같이 『集史』의 역사기록을 그림화하기 위하여 중국화가와 몽골화가²⁶⁾가 그리고 유럽화가들도 참여시켰을 것으로 믿어진다. 또한 점령한 각 나라의 종교를 비롯하여 군복 및 무기 일체는 그 나라의 양식대로 존중되었다. 그런데 라시드 앳딘은 『集史』를 저술하는 가운데 상당한 고민에 빠져들게 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왜냐하면 복속국의 한 사람으로 점령국에 대한 솔직한 표현을 할 수 없는 경계심의 부담을 크게 안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세밀화의 畵題에 있어서 대상국의 경제·문화적 수준 정도와 대등한 차이의 군복식으로 표현되도록 화가들에게 권유하여 세밀화를 그리도록 했을 것이다. 그럼으로써 라시드 앳딘은 점령국에 대한 경의를 간접

26) 『集史』의 삽화를 그릴 때 몽골화가들이 참가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사스트 노이 註解, 1957, 『카르피니, 루브루크의 동양여행기』, 모스크바; 데 바이에르 저 · 박원길 옮김, 앞의 책, p. 53에서 재인용).

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다.

라시드 앳딘의 솔직하지 못한 표현. 그 가운데의 세밀화에서 노출되는 여러 의문점들이 바로 필자가 주목한 부분점들이다.

라츠네프스키는 자신의 저서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라시드 앳딘의 『集史』가 금기 때문에 언급하지 못했던 칭기즈 칸의 패배를 승리로 바꾸어 기록함으로써 『성무친정록』에서는 쿠빌라이 칸²⁷⁾에 의해 개정되어 공식적인 판본이 부여되었다²⁸⁾라고 한 내용과 『비사』에서도 칭기즈 칸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사실을 궁중사자들이 칭기즈 칸의 평판에 해롭다고 생각하여 언급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도 거침없이 기록하고 있다. 또는 칭기즈 칸의 이복형제인 ‘베크테르’의 죽음, 동생인 ‘하사르’에 대한 처벌, 칭기즈의 아버지인 ‘이쉬게이’가 ‘회엘핀’을 약탈해온 사실, 조치의 출생에 얽힌 일화 등을 전하고 있는 유일한 사료이며, 궁중사자들에 의해 칭기즈 칸이 승리를 거두었다고 한 전투도 『비사』에서는 패배한 것으로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기념비적인 저술로 평판이 높은 라시드 앳딘의 『集史』는 칭기즈 칸 전생애의 은밀한 부분까지 알고 있었으나, 그 역시 궁중사자에 지나지 않은 신분으로 칭기즈 칸의 명성에 누를 입히는 기록을 남기는 것을 금기시 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많은 학자들은 아직도 『集史』의 사료들을 존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세밀화를 직선적으로 反射鏡式 인용을 서슴치 않는 사례를 日本·韓國의 文獻들에서 발견하게 된다.

필자는 생각건대 『集史』의 세밀화들은 전술한 바와 같이 다만 역사적 사건에 관한 기록적 표현에 불과한 것일뿐 사건 당시의 군복식이나 무기 등의 고증적 기록화는 아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27) 쿠빌라이 칸(5대, 1260~94) : 칭기즈 칸의 손자.

28) 라츠네프스키 지음·金浩東 옮김, 1992, 『몽고초원의 영웅 칭기스칸』, 지식산업사, p. 11.

VI. 맺음말

13세기초 몽골통일 이전의 몽골군복의 형태는 각부족의 특성으로 다양한 양식의 군복을 착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각부족의 정착지역에 따라 인접국의 문화적 영향으로 자연적으로 유입 인용되었을 것이다. 몽골초원에 동서남북으로 분파되어 있던 흉노족([지도 2] 참조)이 기원전 3~4세기경 서역진출 시기부터 서역의 문화가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한 계기의 시발이 되었으며, 군사적으로는 기원전의 유럽군복의 양식인 쇠미늘갑옷, 곡선형의 장도, 백병전의 무기인 쇠몽둥이, 도끼, 그리고 망토 등을 사용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암각화를 해석한 형태의 기마병이 탄 말에게 면갑([그림 27])을 착용시킨 것 또한 같은 영향일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 한편의 몽골족은 5~6세기 隋·唐代²⁹⁾의 초기 이미 몽골선대부족 실위로부터 시작하여 흉노와의 교류가 있었던 관계로 전술한 바와 같이 隋·唐代의 군복의 형태([그림 8~10], [그림 49, 50])을 인용한 군복을 착용하였음을 확실히 증명하고 있다.

1204년 몽골통일 이후부터 서역의 제국들을 점령하기 시작하였고 금국마저 멸망시킨 후 각 복속국으로부터 장인들을 소환하여 카라코룸에서 소환된 장인들의 전문성을 존중하여 제작된 각종 공예품들을 생활필수품으로 또는 전쟁무기로 사용하였으며, 전리품과 조공된 것들과 혼용하여 사용함으로써 13세기 몽골군의 투구·갑옷·장도 기타의 무기들은 수·당대의 군복과 유럽형의 군복 등으로 혼합된 형태를 보이고 있었던 것이다. 은으로 된 투구·금으로 된 갑옷·보석 등으로 장식한 노전사의 모습([그림 7] 참조)은 당시를 단적으로 응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진정 몽골군복의 형태는 수·당대의 군복형태를 가장 많이 인용하고 있었다. 결론적인 몽골군복의 형태는 5. 考察 2) 암각화와 고고학적 출

29) 『中國歷代服飾』, 學林出版社, 1991, p. 159, p. 160, p. 2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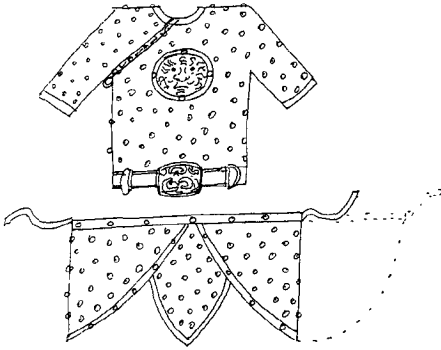


[그림 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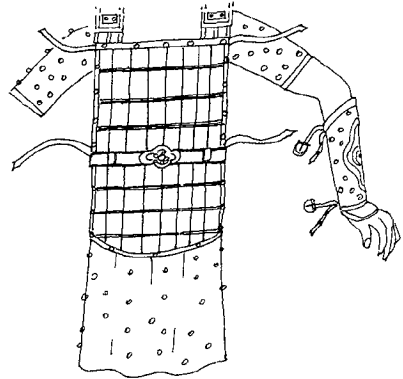


[그림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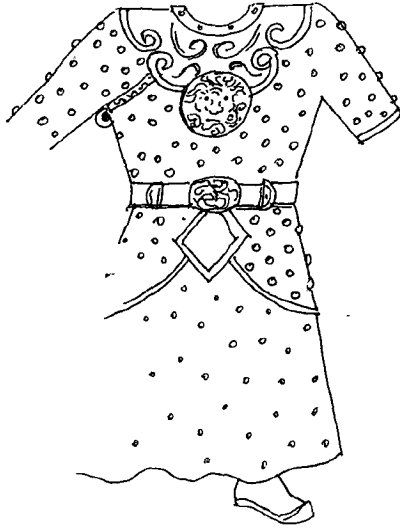
토유물 [그림 28]과 형상적 형태의 갑옷 [그림 27], [그림 29~31]과 3)의 『몽골비사』 소재화 [그림 32~36]과 4)의 불화 [그림 37~43]과 5)의 현대 재현화 [사진 1~3], [그림 44]와 6)의 군복의 형태 [그림 51~54]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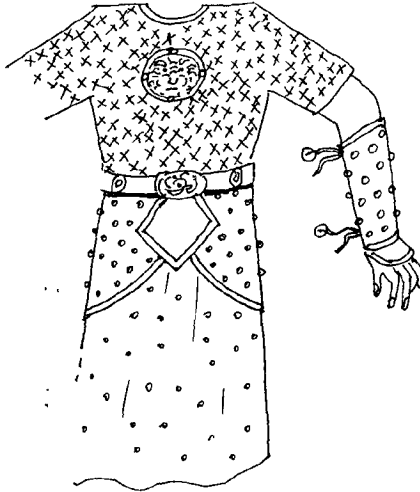
[그림 51]



[그림 52]



[그림 53]



[그림 54]

1232년 용인 처인성에서의 대몽승첩

尹 龍 燻 (공주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目 次

- | | |
|------------------------|------------------|
| I. 머리말 | V. 살레탑은 누가 사살하였나 |
| II. 1232년, 몽고군의 고려 침입 | VI. 처인성 승첩의 의의 |
| III. 살레탑이 처인성에 이르기까지 | VII. 맺음말 |
| IV. 12월 16일 처인성 싸움의 경과 | |

I. 머리말

1232년(고려 고종 19년) 용인 처인성 승첩은 고려의 대몽전 사상 가장 극적이면서도 불가해한 수수께끼를 안고 있는 대몽승첩 사례이다. 1231년에 본격화된 몽고의 침략에 대항하여 당시 권력자였던 최우의 결단으로 1232년 개경으로부터 서울을 강화도로 옮긴 직후, 몽고의 침략은 재개되었다. 기세 등등히 남하하던 살리타이의 몽고군이 용인 처인성이라는 작은 성에서 돌연 사살당함으로써 이 싸움은 중식되었다.

살리타이는 왜 12월에 이 지역을 통과하게 되었는가, 그는 어디로 침략의 예봉을 향하고 있었는가, 살리타이를 적중시킨 그 화살은 누가 발사한 것이었는가, 지휘자 김윤후는 왜 전공에 대한 포상을 거부했는가, 살리타이를 사살한 이 처인성 전투는 대몽전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 것인가, 이러한 여

러 사항들이 금방 문제로 떠오른다.

본고에서는 이 처인성전투의 경과를 정리하고, 아울러 여기에 등장한 김윤후라는 인물과 그 역할에 주목한 다음, 한국의 대외항쟁사에서 이 승첩이 갖는 의의를 언급함으로써 이같은 의문에 대한 부분적 해답을 제시하고자 한다.¹⁾

II. 1232년, 몽고군의 고려 침입

13세기 몽고의 고려침략은 한국의 대외항쟁사에 있어서도 극히 주목되는 일련의 사건이었다. 전후 11회, 30년에 걸치는 이들의 되풀이되는 침략으로 고려 전도는 유린되었고, 고려 사람들은 오랜 전쟁이 가져다준 무거운 전쟁의 굴레 속에서 시달리며 생존을 위한 외로운 싸움을 전개하여 나갔던 것이다.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몽고군의 침략이 본격 개시된 것은 고려 고종 18년(1231)의 일이었다. 서북 국경지역에서의 방어전에도 불구하고 이를 돌파한 몽고군에 의하여 왕도 개경이 포위되었고, 고려 정부는 몽고와의 화의를 체결함으로써 일단 몽고군이 철수하도록 유도하였다. 이듬해 고종 19년(1232년) 집정자 최우는 강화도에의 천도를 전격 결정하고 즉각 이를 시행에 옮겼다. 아마도 이는 몽고의 재침을 우려한 최씨정권의 대응책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고려의 강화천도는 이후 무인정권의 대몽 강경책 유지의 기

1) 본고와 관련하여 필자는 「몽고의 2차침구와 처인성승첩 -특히 광주민과 처인부곡민의 항전에 주목하여」(『한국사연구』 29, 1980)이라는 논문, 그리고 김윤후의 인물을 주목한 「몽고 항쟁의 주역 김윤후 - 왜곡된 역사가 영웅을 만들었다」(『여성춘추』 92년 2월호)라는 글을 쓴 바 있다. 또 『고려대몽항쟁사연구』(1991, 일지사)에서도 이에 대하여 언급한 바 있는데, 본고는 이같은 기왕의 글을 많이 참고하여 작성하였으며, 이에 대해서는 특별한 註記를 붙이지 않는다.

조가 되었고, 이후의 몽고군의 침략전은 궁극적으로는 강화도를 겨냥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고려의 강화천도가 고종 19년(1232) 6, 7월에 걸쳐 이루어지고난 이후 8월, 고려에 대한 몽고의 정토전이 개시되었다. 살레탑의 재침군이 고려땅에 당도한 것은 빠르면 8월 말, 아니면 9월초 쯤의 일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 후 살레탑이 용인의 처인성에서 저격된 것은 12월 16일의 일이었다. 따라서 살레탑이 고려 영내에 침입한 이후 그후 죽음까지는 대략 석달 남짓의 기간이었던 셈이다. 이 시기 몽고군은 곧바로 군사적인 공략을 전개한 것은 아니었다. 몽고군은 처음 상당기간을 고려정부의 의도와 향후 전망, 대책 등을 확인하는데 주력 하였으며, 본격적인 남진 공략은 이같은 기간이 경과한 후의 일이었다.

이 3개월의 과정은 기록에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다. 이 때문에 『고려사』에서는 이 시기를 당시 몽고군에게 보내졌던 이규보 제작의 書狀을 『동국이상국집』으로부터 전채하여 그 공백을 메우고 있다.²⁾ 이로써 보면 이 시기의 기록은 이미 『고려사』를 편찬하던 15세기에 매우 희소한 상태였음에 틀림없다. 이같은 기록의 缺失은 몽고군의 2차 침입 전반에 대한 지식의 빈곤을 야기하고 있다. 2차 침입군의 내침 이후 처인성에 이르는 시기별 경과라든가, 전투 상황, 몽고군의 의도 등에 대하여 거의 알 수 없는 상태로 되어 있을 뿐아니라, 대몽전 사상 가장 주목되어야할 처인성싸움에 대해서도 그 구체적인 전말을 파악할 수 없는 것이 그 실상인 것이다. 이같은 기록상의 한계는 고려의 대몽전 전반에 걸치는 것이기는 하지만, 특히 2차전쟁시의 경우는 그 도가 더욱 심하다.

1232년 2차 침입의 몽고군은 어떤 명분으로 고려에 침입하였으며, 이들의 요구는 무엇이었는가? 또 고려와의 전쟁을 어떤 방향으로 전개하고자 하였

2) 몽고군의 침입기인 고종 19년 9월부터 12월 사이 『고려사』 고종세가에 전채된 이들 문서는 9월에 1건, 11월에 4건, 12월에 3건 등 도합 8건이며, 이중 7건이 몽고측 또는 몽고군 진영에 보내진 것이다.

는가, 이에 대해서 이 무렵 몽고군에 보내진 이규보 제작의 답장을 통하여 얼마간 엿볼 수 있다.

몽고군의 2차 침입의 직접 계기는 고려정부가 돌연 개경을 버리고 강화 천도를 단행한 데 있었다. 이는 기존의 양국간 '和約'을 파기한 것이며 몽고에 대한 대결적 자세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거기에 천도 직후 7월 경에는 서북면 일대에서 몽고의 다루가치에 대한 노골적인 적대적 조치를 취하였다. 내시 윤복창으로 하여금 서북면 일대 여러 지역의 다루가치에 대한 무장 해체를 추진하였으며, 서경에서는 이곳에 주재하여 있던 다루가치를 체포, 처단하려는 계획이 진행되었다. 그리하여 이같은 일련의 반몽조치에 대하여 서경에서는 8월 1일 도리어 이에 반발하는 란이 일어났다. 즉 서경의 순무사 대장군 閔曠가 司錄 崔滋溫과 함께 장교들을 시켜 서경의 다루가치를 처단하려 하였는데, 8월 1일 서경인들은 다루가치 처단의 보복이 자기들에게 이를 것을 염려, 도리어 최자온을 구금하는 반란사건을 야기하였던 것이다. 이 사건은 고려가 반몽으로 명백히 전환한 사실을 명백히 한 것이었다. 9월 강화도에 보내진 몽고군 지휘부의 편지는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는 한편으로, 몽고에 대하여 복속할 것인지, 아니면 싸우려는 것인지 고려측의 태도를 분명히 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고려는 강화천도가 결코 반몽책으로의 전환이 아니라는 점을 누누히 강조하였지만 몽고로서는 쉽게 이를 신빙할만한 여건에 있지 않았다.

이후 11월에 다시 살레탑에게 보내진 답장에서 보면, 고려는 몽고군에 대한 접대사와 함께 공물을 보냄으로써 고려가 몽고와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싶어한다는 것을 표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살레탑은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왕과 집정자 최씨가 직접 나와 몽고군을 마중할 것, 공물을 보다 충분히 보낼 것, 여몽간의 관계를 '손상'케한 인물, 趙叔昌, 宋立章 등을 체포하여 보낼 것, 만노국 특별에 돕는 군사를 낼 것 등을 요구하였다. 이는 몽고군이 고려측의 진의를 보다 분명히 타진하려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그러나 이후 몇차례의 서장 왕래에도 불구하고 고려측의 반응은 말에서 그칠 뿐,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수반되지 않았고, 논의는 걸들고 있었다. 살례탑의 본격적인 남하와 고려정부에 대한 군사적 압박은 이러한 확인 과정을 거친 후인, 10월 이후의 일이었다.

Ⅲ. 살례탑이 처인성에 이르기까지

몽고군이 강도측의 반응을 확인하는 기간동안 군사적으로 전혀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물론 아니었다. 살례탑의 몽고군이 서경 일대에 주둔하면서 강화정부와 승강이를 하는 동안, 몽고군의 다른 일부는 이미 본격적인 군사 작전을 진행하고 있었다. 가령, 11월 몽제에게 보낸 서장중에서는 “귀국 군사가 지나는 곳마다 노약자나 부녀자나 할 것 없이 서슴치 않고 닥치는대로 죽이고 있으므로, 온나라가 아무런 경황없이 허둥지둥 공포에 싸여, 살겠다는 생각을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고 하여, 몽고군이 이미 군사적으로 고려정부를 압박하고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현종 때 만들어진 고려대장경이 고종 19년에 소실되었다는 것도,³⁾ 이 시기 기록에 잡혀져 있지 않은 몽고군의 동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현종 때 제작된 고려장경은 당시 대구 부인사에 보관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 몽고군은 2차 침략시에 경상도 내륙에 이르기까지 내려가 있었던 것이다. 이에 대하여 이규보는 고종 24년 필만대장경의 각판 작업을 시작하게될 때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심하도다, 달단이 환란을 일으킵이여! 그 잔인하고 흉포한 성품은 이미 말로 다할 수 없고, 어리석고 몽매함이 짐승보다 더 심하나이다. …… 이 때문에 저들이 지나는 곳마다 불상, 佛書가 모두 불태워졌고, 부인사 소장의 대장경 판목도 불태워져 남아나지 못했던 것입니다.(『동국이상국집』 25)

3) 『고려사』 24, 고종세가 38년 9월 임오

또 한가지 주목되는 것은 이 사이 몽고군이 강화도 공격을 모색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기록이다.

고종 19년, 몽고병이 松京을 포위하여 왕이 강화도로 피란하였는데 적이 배를 만들어 치려고 할 때 邊呂가 향리로서 포로가 되었다. 적이 강화로 가는 水陸의 길을 물으며 불로 고문까지 하였으나 변려는 육로는 불통이고 수로는 매우 험하다고만하고 끝내 말하지 않았다. 이에 적이 그말을 믿고 배를 불사르고 물러났는데, 나라에서 즉시 상장군의 벼슬을 주었다. (『세종실록지리지』 평안도 태천군 인물)

강화도 침공계획을 위하여 태천의 향리 변려가 지목되었던 점은 이 무렵 몽고군이 서경 일대에 거점을 두고 있었고, 태천 등 서북면 지역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 고려에 대한 군사작전에 동원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당시 이 작업은 변려의 비협조로 실천에 옮겨지지 못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배를 만들면서 준비를 진행시킨 점을 고려하면 계획은 매우 구체적으로 진행되었음을 말해준다. 몽고군은 아마 水戰에 대한 두려움, 강화도 공격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최종 포기한 것이었다고 생각된다.⁴⁾

살례탑의 남하는 고려 내침이후 일정기간 이후의 일이었다. 고려정부의 의도와 생각을 명확히 타진하고, 그에 따른 대책의 정리에 시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이다. 수차례에 걸쳐 편지와 사람이 왕래한 결과, 고려정부의 천도가 몽고와의 대결을 전제로한 계산된 것이었다는 점, 몽고에 복속하여 그 명령을 따를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명백해졌을 때, 남은 것은 군사적인 해결책이었다. 살례탑의 남진은 대략 10월 경부터의 일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후 살례탑의 진로에 대해서는 다음의 자료가 참고가 된다.

4) 몽고군의 강화도 침공 타진에 대한 기록은 약간 다른 표현으로 『신증동국여지승람』 54, 태천현 인물조에 기재되어 있으며, 『동사강목』에서는 이를 고종 19년 '9월'의 일로 정리하고 있다. 전후의 맥락으로 보아 '고종 19년 9월'로의 정리는 무리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몽고 원수 살알(撒歹)이 어사잡단 薛愼을 軍中에 잡아두고 松京에 와서 강을 건너 남하하고자 하였다. 설신이 살알(주:살례탑을 말함)에게 “우리나라에는 다른나라의 大官으로 남쪽강을 건너는 자는 불길하다고 전해오는 말이 있다”고 하였다. 살알이 듣지 않고 한양산성으로 가서 이를 함락시킨 다음 처인성에 이르렀다가 날아온 화살에 맞아 죽었다. 몽고군은 송경에 돌아와서 설신을 식견이 있다하여 강화에 돌려 보냈다.(『신증동국여지승람』 10, 경기도 용인현 고적조)

이에 의하면 살례탑의 몽고군은 개경을 거쳐, 한양을 공략하고, 그리고 다시 한강을 건너 경기도 용인(처인성)에까지 당도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당시 남진하던 살례탑군에 대하여 개경에서는 장기적인 방어전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몽골 침략자들이 개경에 달려들자 성안에 있던 군대와 인민들은 침략군의 공격을 물리치는 싸움에 용감히 일떠섰다. 당시 개경에는 류수병마사가 거느리는 수천 명의 군대가 주둔하여 있었으며 또한 노비를 비롯하여 강화도에 들어가지 못한 수많은 인민들이 남아 있었다. 개경의 군민들은 포위한 침략자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줌으로써 성을 끝까지 지켜냈다.⁵⁾

즉 몽고의 2차 침략전에서 뒤에 언급하는 광주 남한산성과 용인 처인성에서의 전투 이외에 개경방어전이 함께 강조되어 있는 것이다. 이같은 개경방어전에 대한 논의는 김재홍의 주장에 근거한 것인데, 그는 “개경성에서는 8,000명의 방어군을 위시한 인민들과 적 간에 상당히 격렬한 공방전이 전개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바”라고 강조하고, 방어전의 전개 기간은 “포위한 적을 반대하는 개경방어군과 인민들의 투쟁은 제2차 침입의 전 시기에 걸쳐 진행된 것”이라하여, 내침이후 고려에서 철퇴하기까지 수 개월에 걸친 것이었다고 단정하였다. 김재홍이 개경에서 살례탑과 공방전을 벌이며, 끝까지

5) 『조선전사』 7, 1979, p. 50.

개경을 지키고 있었다고 본 것은 이 시기의 기록들이 ‘개경에 이르렀다(到松京)’ ‘개경을 포위하였다(圍松京)’라고 되어 있을뿐, 개경이 함락되었다는 직접적 표현이 없다는 것, 개경에는 당시 8천의 고려 방어군이 주둔해 있었다는 데 그 근거를 두고 있다.⁶⁾ 그러나 이때 개경에 8천의 방어군이 있었다는 것이나, ‘到松京’ ‘圍松京’ 운운은 한마디로 매우 모호한 근거이다.

우선 개경의 8천 방어군이란, 천도 직후 불온한 개경의 치안을 위하여 주둔시킨 8령군의 王京留守軍을 가리킨 것이다. 그런데 7월 6일 고종이 개경을 출발, 강화도로 향하자 곧 개경 성안에서는 어사대의 조례(皂隸) 李通의 란이 발발하였고, 이들 반란군에 의하여 金仲龜, 金仁鏡이 지휘하는 왕경유수군은 곧 축출되고 말았다. 이에 강도에서 趙廉卿, 李子晟 등으로 긴급히 3군을 편성, 파견하여 개경반란군을 진압하기에 이른다.⁷⁾ 반란이 진압된 후 8명의 왕경유수군이 다시 개경에 주둔하였던 것인지, 살레탑 남진시에 개경의 유수군이 강화도로 철수하지 않고 개경의 방어를 위하여 그대로 잔류하였는지, 모두 알 수 없는 일이다. 설혹 약간의 잔류군이 있었다하더라도 강화천도로 인한 민심의 심각한 이반으로 개경민과의 연합에 의한 방어전 수행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到松京’을 개경 방어전 전개로 관련시킬 수 없을 뿐 아니라,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태주의 향리 邊呂에 대한 기록에서 ‘圍松京’이라한 것도, 고려의 강화천도 이전의 사실, 즉 고종 18년(1231) 몽고 1차침략 때의 사실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장기적인 수성방어전으로 개경을 방어하였다는 것은 근거가 모호한 주장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요컨대 살레탑군은 서경을 거쳐 일정기간 후 개경에 이르렀고, 다시 한양 산성을 공격 함락하고, 한강을 건너 처인성에 이르렀다. 그런데 처인성에 당도하기까지는 11월에 다시 廣州에서 치열한 공방전을 살레탑은 경험하게 되

6) 김재홍, 1963, 『원침략자를 반대한 고려인민의 투쟁』, pp. 61~63 참조.

7) 강화천도시 개경에서 발발한 李通의 란의 경과에 대해서는 윤용혁, 1991, 「고려 대몽항쟁기의 민란에 대하여」, 『고려대몽항쟁사연구』, pp. 366~368 참조.

었다.

이 해 여름 나라가 오랑캐의 침략 때문에 도읍을 옮기게 되었다. 廣州는 중부지역의 거점이기 때문에 조정에서 특별히 공(李世華)을 파견하여 다스리게 하였다. 겨울 11월에 몽고의 대군이 수 십겹으로 포위하고 온갖 수를 써서 공격해오기를 몇 달에 이르렀다. 공은 밤낮으로 성을 수리하고 방비하며 상황에 따라 응변하되 뜻밖의 계책을 내어 사로잡거나 죽임이 심히 많았다. 오랑캐들이 불가능함을 알고 드디어 포위를 풀고 물러갔다.(『동국이상국집. 후집』 12, 이세화묘지명)

라고 한 것이 그것이다. 11월 광주성에 대한 몽고군의 공격이 ‘몇 달’에 이르렀다는 것은, 12월 16일 처인성싸움을 전제할 때, 두달에 걸친 싸움이었음을 의미하는 것 같다. ‘수십 겹’으로 포위한 몽고군, 온갖 수를 써서 공격하는 몽고군을 맞아 광주부사李世華(? -1238)는 성안으로 옮긴 광주사람들과 함께 방어에 전력하였고, 상황에 따른 응변을 적절히 하여, 적 다수를 살상하거나 포로로 잡으며, 마침내 살레탑 몽고군의 집요한 공격을 막아내었던 것이다. 살레탑군을 막아냈던 광주의 ‘성’은, 신라 문무왕 때 축성되고 고려 시대에 日長城(혹은 晝長城)이라 불렀던 오늘의 남한산성이다.⁸⁾

남쪽지방 廣州라는 곳은
그야말로 요충지라
임금께서 의지하는 곳이므로
은나라를 지키듯이 하는데
때에 우리 李公이 .

8) 日長山城은 “日長山 在州南五里 一云南漢山”(『신증동국여지승람』 6, 광주목 산천)이라하여 州治와는 불과 5리 밖에 되지 않은 거리이다. 신라 문무왕 12년(672)에 한강유역 진수의 거점으로 축성된 이후 고려시대까지 중부지역의 유력한 요충으로 꼽혀왔으며, 조선조에 대대적으로 확장 개축되어 남한산성이라는 이름으로 오늘에 이른다.

나아가 방백이 되었네
바야흐로 오랑캐에 포위될 때에
그 운명을 헤아릴 수 없었는데
능히 기세로 누르고
談笑하며 적을 물리쳤네
몸을 돌보지 않고 어려움을 구하니
그 功烈이 이처럼 드러났고
萬人을 온전히 살리니
음덕을 저처럼 끼쳤네
(「이세화묘지명」)

이상 묘지명 기록에서는 자료의 성격상 특히 지휘자였던 부사 이세화의 공적이 중점 강조되어 있기는 하지만, 좀더 정확히 정리하자면 이 싸움은, 이세화를 중심으로한 광주사람들의 결집된 공적이었다. 이 사실은 고종 22년 5월의 조에서

廣州는 신묘·임진년에 오랑캐 군사들에 포위 공격 당했으나 능히 굳게 지켜 함락되지 않았으므로 常搖와 잡역을 면제하도록 한다.(『고려사』 80, 식화지 3, 진홀조)

라고한 것에서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신묘·임진년’의 ‘오랑캐’란, 고종 18, 19년 살레탐에 의한 몽고의 1, 2차 침략을 가리킨다. 광주민들의 전공은 수년 후인 고종 22년에 지역민에 대한 집단포상의 형태로 보상되었던 것이다. 이세화가 광주부사에서 예부시랑으로 영전하는 것도 같은 해의 일이었다. 점을 고려하면, 이때에 전공에 대한 포상이 함께 이루어졌던 것 같다.

처인성 이전, 광주에서의 싸움은 살레탐군이 그 남진의 과정에서 고려측의 저항을 받고 있었음을 입증한다. 이같은 사정에 대해서는 처인성전투 이후 고려정부가 동진국에 보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나타나 있다.

지금 나라가 비록 도움을 요청했으나 그 군마가 오는 데 당하여 오히려 대우하기를 더 후하게 하였는데, 그들은 이 뜻을 전혀 돌아보지 않고 원근의 外境을 횡행하여 잔혹하게 구락함이 옛보다 더욱 심하니 이로 말미암아 사방의 州郡이 성을 닫고 굳게 지키며 혹은 물을 격하여 스스로 굳게 하여 그 변을 관망하지 아니함이 없으며 그들은 더욱 병탄할 뜻을 가지고 공취하기를 도모하였습니다. 그러므로 列郡이 어찌 반드시 나라의 지휘에 구속되어 禍心을 품은 자와 더불어 어울려 스스로 범을 길러 먹히게되는 患을 재촉하리오. 이어서 특히 들어가 지킬뿐만 아니라 혹은 가끔 백성들의 참지 못함을 인하여 나가 그들과 싸워 그 관인과 사졸을 살획함이 많았던 것입니다. (『동국이상국집』 28, 「答東眞別紙」: 『고려사』 23, 고종제가 19년 12월)

아마도 광주 이외 지역에서도 종종 공방전이 야기되었던 것을 짐작할 수 있겠다. 광주성에서의 실패이후 살폐탐은 이를 포기하고 다시 남진을 계속하였다. 처인성에서의 운명적인 싸움은 그 남진의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IV. 12월 16일 처인성 싸움의 경과

처인성은 처인부곡에 위치하였던 작은 성이다. 처인부곡은 오늘날 용인시의 남쪽지역 일대, 조선 태종 13년에 북쪽의 龍駒縣과 처인현이 합하여 용인현이 되었다.⁹⁾ 이곳 처인성에는 몽고군 내침 당시 인근의 처인사람들이 피해 있었고, 그중에는 백현원의 승려 김윤후도 있었다.

처인성에서의 전투 상황에 대해서는 사건의 극적 성격에 비할 때, 극히 소략한 사실만이 전하고 있다. 『원사』 208, 外夷 고려전에서는

8월에 다시 薩里臺를 파견하여 군사를 거느리고 고려를 정토케 하였는데, 왕경 남쪽에 이르러 처인성을 공격하던중 流矢에 맞아 죽었다.

9) 『신증동국여지승람』 10, 용인현 건치연혁

고하여, 살레탑이 처인성에서 流矢에 맞아 죽었다는 간략한 기록이 있다. 이 점 『고려사』의 기록에서도 별로 차이가 없다.

살레탑이 처인성을 공격하므로 한 중이 란을 피하여 성안에 있다가 그를 쏘아 죽였다.(『고려사』 23, 고종세가 19년 12월)

성안에 있던 승려의 화살에 살레탑이 저격 되었다는 사실이 더해져 있을 뿐이다. 『고려사』의 김윤후전에는 그 문제의 스님이 바로 백현원의 김윤후였다고 밝히고 있을 뿐이다. 처인성은 낮은 구릉지에 토축된 길이 4백미터 정도의 작은 성에 불과하다. 그리고 논을 사이에 두고 처인성과 정면으로 상대되는 아곡리의 구릉지에는 지금도 ‘殺將(死將)터’라는 곳이 전한다. 몽장 살레탑이 화살을 맞고 사살되었다는 장소인 것이다. 이로써 추측하면, 당시 남하중이던 몽고군은 이 구릉지에 設陣하여 처인성과 대치중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때의 전투상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비교적 명쾌한 정리가 있다. 다소 길지만 참고삼아 인용해 둔다.

이때 처인성에는 용인을 비롯한 인근 각 고을에서 피난온 군민 1,000여 명과 승장 김윤후를 비롯한 승병 100여 명이 성안에서 방어에 임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살리타이 휘하의 몽고군 제4군의 일부인 기병 500여 기가 처인성 부근의 완장리, 매릉리 일대에 포진하여 처인성에 대한 포위공격을 준비하게 되었다.

12월 16일, 용인으로부터 처인성 동북방 50리 지점에 도착한 몽고군 원수 살리타이는 처인성의 동북방인 완장리, 매릉리, 화동 등지에 병력을 3개대로 분산 배치하여 처인성에 대한 공격 준비태세를 갖추었다. 그런 다음 살리타이는 처인성의 동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몸소 5, 6기의 정찰기병만을 거느리고 輕裝으로 처인성 동문을 향하여 접근해 나갔다.

한편 승장 김윤후는 처인성 동문밖 300미터 지점 언덕(속칭 살장터)에 저격병 수십 명을 미리 매복시켜 유사시에 대비하고 있었다. 살리타이 일행이 이 지점에 이르자 매복하고 있던 고려군 저격병력은 몽고군의 주장 살리타이

와 수행 기병들을 기습적으로 공격하여 사살하고 그 목을 베었다.¹⁰⁾

이상은 당시 전투상황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묘사를 시도하고 있다. 사료의 영성함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서술이 불가능한 형편에서 이같은 서술은 독자들에게 훨씬 더 구체적인 인상을 남겨준다. 가령 살례탑이 사살될 때 그가 “처인성의 동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5, 6기의 정찰 기병만을 거느리고 輕裝으로” 나섰다가 매복중인 저격병에게 당했다는 것이 그 예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수처 등 많은 부분이, 상상과 추정이 사실과 구별됨이 없이 함께 섞여져 있어, 그 이해에 신중한 배려를 요한다. 역사서의 원기록에 의하면 살례탑의 사살이 ‘流矢’에 의한 것이 강조되어 있고, ‘유시’라 할 때 그것은 비교적 먼거리로부터 발사된 것이라는 느낌을 받는다. 이점에서 위 책에서, “매복하고 있던” 고려의 저격병력이 “기습적으로 공격하여 사살하고 목을 베었다”는 것은 실제 사실과도 차이가 있어 보인다.

한편 처인성싸움 직후 東眞國에 보내진 고려측의 書狀에는, 승첩의 날이 12월의 16일이었다는 점, 그리고 이때 살례탑의 사살 뿐아니라, 사로잡은 몽고군도 많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금년 12월 16일에 이르러 水州의 속읍인 처인부곡의 작은 성에서 바야흐로 서로 맞서싸우던중 화살이 피수 살례탑에 적중하여 그를 죽였으며 사로잡은 자도 많았으므로 적의 남은 무리는 췌산하고 말았습니다.(『동국이상국집』 28, 「答東眞別紙」)

몽고군은 처인성전투에서 主將을 상실하자 鐵哥의 지휘하에 곧 철군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철군은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지휘체계의 혼란과 이에 따른 개별부대의 약탈 등을 위한 자의적인 행동 때문이었다는 것 같다.

10)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1988, 『대몽항쟁사』(류재성 집필), p. 108.

승려 한사람이 전란을 피하여 성안에 있다가 살레탑을 사살하였고 포로로 한 것도 많았다. 나머지 몽고군은 궤산하였으나 일시에 함께 모여 돌아간 것은 아니었다. 혹은 먼저 가는 자도 있고, 혹은 뒤떨어지기도 하였으며, 동으로 향하려는 것갈기도하고 혹은 서쪽으로 향하려는 것갈기도해서 날짜를 지정한 것도 없었으며 향하는 바도 알 수 없었다.(『동국병감』 하)¹¹⁾

처인성전투에서 공훈을 세운 김윤후는 그 공으로 섭량장을 제수받고 관도에 오르게 되었다. 그는 나중에 감문위의 상장군에 올라 고종 46년 동북면병마사, 그리고 이후 守司空 左僕射(정2품)로 퇴임하였다.

처인성승첩과 관련하여 두가지 점을 좀더 분명히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첫째는 살레탑의 사살은, 살레탑의 불운이었다고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코 ‘우연’으로만 간주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¹²⁾ 이 사실은 살레탑이 저격당한 후의 상황에 대하여,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고려측 기록에 “사로잡은 자도 많았으며 적의 나머지 무리는 궤산하였다”¹³⁾고 한 데서 짐작할 수 있다. 당시 처인성에서는 살레탑군에 대해 매우 조직적으로 대응하였으며, 따라서 살레탑이 저격되자 곧바로 이들을 요격하여 다수를 포로로 잡는 것이 가능하였던 것이다.

또 한가지, 승려 김윤후가 처인성에서 살레탑군을 무찌른 것은 결코 그 한사람에 의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그러면 당시 처인성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 불확실하기는 하지만 약간의 승려집단이 함께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처인부곡민 다수가 이곳에서 김

11) 『동국병감』의 이 기록은 고종 19년 12월, 처인성승첩 직후 동진국에 보내진 답장(答東眞別紙)(『동국이상국집』 및 『고려사』 고종세가 所收)에 의거 기술된 것이다.

12) 『고려사』 등의 관련 기록을 문자 그대로만 읽을 경우, 살레탑 사살은 매우 ‘우연’으로 생각되기 쉽다. 이점, Henthorn이 “살레탑은 처인성 공격에서 우연히 김윤후가 쏜 화살에 맞아 죽었다”(W. E. Henthorn, 1963, Korea: the Mongol Invasions, Leiden, p. 74)고 한것이 단적인 예이다.

13) “俘虜亦多 餘衆潰散”(答東眞別紙)

윤후와 힘을 합쳐 몽고군의 공격에 대항하였으리라는 점이다.

만일 전투에서 처인지역민의 공이 분명히 인정되었다면, 이들에 대한 포상이 반드시 있었을 것이다. 『고려사』 기록에는 승첩 이후의 지역주민에 대한 포상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충렬왕 31년(1305)에 작성된 崔瑞(1233-1305)의 묘지명에 “中通元年 出爲處仁縣令”¹⁴⁾이라 하여, 그가 원종 원년(1260) 처인현령에 발령 되었음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처인부곡이 1232년의 승첩이후 1260년에 이르는 사이에 부곡에서 主縣으로 승격된 사실을 말해준다. 지역주민에 대한 집단적 포폄의 일반적 방법의 하나가 군현 위계의 승강이었음을 생각할 때, 처인부곡의 주현 승격은 1232년 승첩에 대한 포상으로 주어진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즉 이 싸움에서 처인지역민은 김윤후와 함께 공을 세웠던 것이다. 뒤에 김윤후가 충주에 파견되어 나가 몽고군과 치열한 공성전을 벌일 때도 김윤후는 충주민들을 철저히 향전의 주력으로 고무시켜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 이로써 생각하면 처인성에서의 김윤후도 처인사람들을 지휘하여 살레탑군을 무찔렀던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V. 살레탑은 누가 사살하였나

12월 16일, 살레탑은 처인성 공격도중 화살에 맞아 절명하였다. 다윗이 던진 물맷돌처럼, 살레탑을 적중시킨 그 화살은 누가 쏜 것이었는가. 일반적으로 그 장본인은 김윤후 스님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고려사』 김윤후전의 기록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되고 있다.

김윤후는 고종때의 사람으로 일찍이 증이 되어 백현원에 있었다. 몽고병이

14) 이난영 『한국금석문추보』 최서묘지명

이르자 윤후가 란을 처인성에서 피하였는데 몽고의 원수 살레탑이 와서 성을 치매 윤후가 이를 활로 쏘아 죽였다.

이로써 보면 김윤후의 살레탑 사살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이어지는 김윤후전의 기록은 이와는 사뭇 다른 사실을 전하고 있다.

왕이 (김윤후의) 공을 가상히 여겨 상장군을 제수하였다. 그러나 윤후는 공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면서 “싸울때에 나는 활도 화살도 가지고 있지 않았으니 어찌 감히 헛되이 무거운 상을 받겠습니까”하고 굳게 사양하며 받지 않았다. 이에 고쳐 섭랑장을 내렸다.(『고려사』 103, 김윤후전)

여기에서, 김윤후는 살레탑 사살의 공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있을뿐 아니라, 자신은 전투 당시 “활도 화살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하여 자신의 살레탑 사살설을 원천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상장군의 제수’라는 파격적인 포상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기록은 두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하나는 강도의 고려정부가 김윤후를 살레탑을 쏘아죽인 장본인으로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둘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윤후는 살레탑을 활로 쏘아죽인 장본인은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김윤후가 처인성에서 살레탑을 사살한 장본인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살레탑을 맞춘 그 화살은 누구의 것이었으며, 처인성에서의 김윤후의 역할은 무엇이었는가? 결론을 말한다면, 살레탑을 맞춘 화살은 처인부곡민의 것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살레탑이 ‘流矢’에 맞아 죽었다는 표현이 일면 타당성을 갖는다. 김윤후의 역할은 이들 주민들을 지휘한 것이었다. 즉 처인성에서의 승전은 김윤후의 지휘에 의한 처인부곡민들이 함께 거둔 전공이었던 것이다. 강화도의 고려정부는 지휘자 김윤후를 살레탑 사살의 장본인으로 잘못 알고 포상 조치를 시행, 김윤후를 당황케 하였으며, 그것이 김윤후로 하여금 “공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도록 하였고, “싸울때에 나는 활도 화살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응색한 답변을 하도록 만들었던 것이다. 김윤후가 정부

의 상장군 계수를 끝내 받아들이지 않고, 대신 보다 낮은 계급인 섭랑장을 받아들인 것은 처인성에서의 자신의 역할과 관련한 이같은 당시의 실정을 잘 반영하고 있다.

처인성에서의 고려정부의 포상조치와 관련해서는 정작 당사자가 포상을 거부하는 작은 「해프닝」이 있었다. 그러나 처인부곡민을 결집, 살레탑 사살의 전공을 거둔 처인성 승첩에서의 김윤후의 역할은, 결코 과소평가 될 수 없을 것이다. 그 구체적인 상황이 알려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는, 충주성에서의 지휘자 김윤후의 응전형태를 관찰함으로써 그 감추어진 부분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처인성전투로부터 20여 년이 지난 고종 40년(1253), 김윤후는 낭장으로서 충주산성의 방호별감에 임명되었다. 이 무렵 야술이 이끄는 몽고 침략군의 주력은 중부 내륙인 춘천, 원주를 거쳐 10월 10일 경에는 충주에까지 이르렀다. 이때 김윤후는 충주민들을 충주산성 안으로 옮기고 몽고군의 포위공격에 대비하였다. 몽고 주력군의 집요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충주산성에서의 김윤후는 70여 일을 버텼다.

몽고병이 州城을 포위하기를 무릇 70여 일에 성안의 식량이 거의 다하게 되었다. 김윤후는 사졸들을 독려하여 이르기를 “만일 능히 힘을 다한다면 귀천을 가리지 않고 모두 벼슬을 내리겠으니, 그대들은 이를 믿으라”하고, 드디어 관노의 簿籍을 가져다가 불태워버리고 또 노획한 소와 말을 나누어주니 사 람들이 모두 죽음을 무릅쓰고 대적하였다.(『고려사』 103, 김윤후전)

70여 일의 항전 끝에 몽고군은 공성에 실패하고, 결국 고려로부터 철수를 시작한다. 김윤후의 지휘력에 의하여 고무된, 상하 귀천을 막론한 충주민들의 값진 승리였던 것이다. 적군이 철수한 뒤인 이듬해 고종 41년 2월, 충주인들은 몽고군 격퇴의 전공으로 사졸로부터 관노, 백정에 이르기까지 군공에 따라 관직이 제수되었고, 김윤후는 낭장으로부터 감문위 섭상정군에 승진하였다. 또 4월에 이르러 충주는 국원경으로 승격 조치되었다.¹⁵⁾

이 충주싸움에서 우리는 무엇보다 김윤후의 지휘자로서의 비결에 대하여 주목하게 된다.

첫째, 그는 정확한 판단력의 소유자였다. 충주성 공방전이 장기화되자 그는 노비 등 하층민들을 항전대열에 적극 참여시키는 것이 승전의 요체임을 간파하였다.

둘째, 그는 용기있는 사람이었다. 올바른 판단을 실천에 옮기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였다. 충주산성에서 김윤후는 과감하게 관노비의 호적을 불태워 버리고, 전리품을 사람들에게 분배하는 등, 고루한 명분론에 얽매이는 사람 으로서는 전혀 불가능한 과감한 방법으로 문제의 핵심에 접근해갔던 것이다.

셋째, 그는 신의의 사람이었다. 이미 관노의 호적을 불태웠을뿐아니라, 신분의 귀천을 불문한 전공에 따른 관작 제수는 전쟁이 끝난 다음, 실제로 이행되었다. 여기에는 김윤후의 각별한 노력이 개재되어 있었을 것이다.

여기에 처인성전투 때의 김윤후를 덧붙이면, 그는 도덕적인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다. 다른 사람의 공을 자신의 것으로 하지 않고 끝까지 고위직 제수를 거부한 것은 그가 건강한 양심의 사람이었음을 입증한다.

처인성 전투에서도 그는 정확한 판단, 용기, 신의 등 이상과 같은 지휘력을 가지고 처인부곡민들을 격려하면서 이들을 적극적인 항전의 대열에 서게 하고, 전승을 거두었다고 생각된다. 요컨대 그는 피지배층 다수가 갖는 항진력에 주목하여, 이들을 결집하는 훌륭한 지도력의 소유자였던 것이며, 처인성의 승첩에서도 이같은 그의 지도력이 크게 주효하였다고 하겠다.

15) 김윤후의 충주산성 방어전에 대해서는 윤용희, 1996, 「충주민의 대몽항전과 몇가지 관련 문제」 『예성문화』 16·17합, pp. 31~34 참조.

VI. 처인성 승첩의 의의

남진중인 살례탑을 저격, 사살한 처인성승첩에 대하여 가장 커다란 반응을 보인 것은 누구였을까? 아마도 당시 강화도에 웅긴 고려의 피란정부와 무인집정자 최씨가 아니었을까. 살례탑의 군사 작전으로 인하여 가장 곤경에 처해 있었던 것이 이들이었기 때문이다.

살례탑 침입의 직접 계기가 고려의 강화천도에 있었던만큼, 몽고군의 침입에 의하여 천도 직후의 고려정부는 향후의 사태의 추이에 대하여 심한 불안을 가지고 있었다. 천도 자체가 많은 반대 의견을 무릅쓴 일방적 결정이었던 데다, 이를 계기로 각 지역에서 민란이 일어나 정세는 극도로 불안하였다. 천도 직후의 제반 체제와 시설은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고, 본토를 휩쓰는 몽고군에 대해서도 별다른 군사적 대책을 가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었다.

그러므로 처인성에서 돌연 몽장 살례탑이 사살되고 몽고군이 무너지자 이에 대한 강도정부의 반응은 적지아니 흥분된 모습을 느끼게 한다. 무명의 김윤후에게 일약 상장군을 제수하는 포상 조치, 더욱이 그것이 처인성싸움의 진상에 대한 정확한 정보 없이 조급하게 행한 것이었다는 점이 그 한 예이다. 승첩이후 동진에 보낸 편지에서도 잘못은 어디까지나 몽고측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 어투는 매우 당당하다.

연전에 그들의 군사가 왔을 때 저들이 비록 맹약과 신의를 저버리고 횡포하였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잘못이 저쪽에 있을지언정 우리가 그들의 잘못을 본받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대우를 시중 깎듯이하여 보냈으며, 우리가 이렇게 도움을 옹졌지만 그들 군사가 오면 대접을 더욱 후하게 하였던 것입니다.(『동국이상국집』 28, 답동진별지)

처인성 승첩 이후 곧 동진국에 이같은 사실을 전하는 것도, 동진과의 관

계 강화를 통해 몽고의 침략에 힘을 합하고자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하겠다. 그와 동시에 강도정부는 그동안 단절상태에 있던 金國에 대하여 사신을 파견하는 새삼스러운 조치를 취하고 있다. 금에 파견된 사신 崔璘은 길이 막혀 중도에 돌아오고 말았지만¹⁶⁾ 금의 황제에 보내는 편지에는 금과의 전통적 관계를 상기시키면서 몽고의 침략으로 인한 어려움과 피해를 호소함으로써,¹⁷⁾ 금과의 연합을 다시 모색하였던 것이다. 강도의 내성 수축에 이어, 승첩 이듬해인 고종 20년(1233)에는 몽고의 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외성을 쌓기 시작하였다.¹⁸⁾

요컨대 살레탑 사살에 의한 2차 몽고군의 철수는 갑작스러운 천도와 여러지역에서의 민란 등으로 극히 취약해진 강화도 최씨 무인정권으로 하여금, 보다 강력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반몽책을 지속시켜 갈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주었다. 반몽 연합전선을 상정한 인접국과의 대외관계의 새로운 모색을 시도하기도 하고, 강화도의 방비시설을 대폭 강화하는 등 구체적인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로써 강도정부는 천도 이후의 대몽항전 전개에 보다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으며, 고려의 대몽 장기항전이 가능하도록하는 중요한 계기가 조성되었던 것이다. 이점에서 처인성 승첩의 첫번째 의의를 대몽항쟁의 장기적 전개를 가능하게 하였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처인성 승첩의 두번째 의의는 이것이 고려의 정규적인 군사체계라든가, 관리조직의 지휘에 의하지 않은 순수한 지역주민들의 자위적 항전이었다는 점이다. 고려의 대몽항전은 정부의 강화도 천도로 인하여 침략군에 대한 조직적이고 적극적인 대몽방어전의 전개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 때문에 전투의 현장에서는 피란 입보중인 지역주민들이 몽고군의 공격에 대하여 생존을 위한 자위적 차원의 방어전을 치른 경우가 많았다. 가령 고종 41년(1254)의 진천 싸움(임연), 상주산성 싸움(승려 홍지), 충주 다인철소의 싸

16) 『고려사』 23, 고종세가 20년 3월

17) 『동국이상국집』 28, 上大金皇帝表

18) 『고려사』 82, 병지 2, 城堡

움 등이 그 예이다. 관의 지휘를 받았다하더라도 그 주력이 정규적인 군이 아니라 지역민들이었던 경우는 더욱 일반적인 양상이었다. 지역민들의 자율적 능력이 유감없이 발휘되어 역사의 전면을 장식하는 이러한 점은 대몽항전이 갖는 중요한 특성이거니와, 1232년 처인성승첩은 그 가장 대표적이며, 최초의 예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지역 주민의 자발적 항전을 그 특징으로하는 처인성 승첩은, 임진왜란 때에는 항일 의병운동의 선구로서 인식되기도 하였다. 가령 임진왜란시 충청도 의병장 조현(1544-1592)은 의병을 모집하는 격문에서

원충갑이 북을 한번 치고 매를 날려 치악산에서 합단적을 꺾고, 김윤후는 화살 하나로 돼지를 맞혀죽여 黃城에서 몽병을 물리쳤으니, 이들은 모두 儒나 僧이었고, 무를 숭상하는 자나 뛰어난 장수가 아니었던 것입니다.(『重峰集』 13, 「起義討倭檄」)

라고하여, 고려시대의 원충갑과 함께 김윤후를 의병 봉기의 선구적 사례로 거론하고 있는 것이다. 그가 처인지역민들과 함께 몽고군을 맞아 싸웠던 것을 생각하면, 처인성 승첩은 지역주민의 항전 참여라는 점에서 의병항쟁과도 일면 맥락이 닿는 것이 사실이다. 김윤후와 함께 거론되는 원충갑은 고려 충렬왕 17년(1291) 원의 합단적이 침입하였을 때, 원주 치악산성에서 입보한 城民들과 함께 이들의 포위 공격을 분쇄하였던 인물이다. 이 싸움으로 적의 예봉이 꺾여 전세에 결정적 영향을 주었으며 그 공으로 원주는 益興都護府로 승격 되었다.¹⁹⁾

처인성 승첩은 향, 소, 부곡과 같은 신분제적 성격을 갖는 고려의 사회적 질서 해체의 한 기능을 하였다. 처인부곡이 현으로 승격된 정확한 시기가 확인되지는 않지만, 현으로의 승격이 지역민에 대한 전공의 포상이었으리라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전공에 의하여 신분이 상승하고, 기

19) 이에 대해서는 윤용혁, 1994, 「원 합단적의 고려침입과 연기대첩」 『연기대첩연구』, 공주대박물관, pp. 83~91 참조.

존의 군현체계에 동요가 일어나는 현상이 대몽항쟁기에 야기되었다. 처인성 승첩도 이같은 사회변동의 한 사례로 논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또다른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VII. 맺 음 말

이상 본고에서는 1232년(고종 19), 고려의 강화천도 직후에 전개되었던 몽고의 2차침략의 상황과 처인성에서의 몽장 살레탑 사살에 이르는 경과 등을 살폈다. 살레탑은 침입 초기 강도에 대한 외교적 압박을 가하는 한편 강화도에 대한 공격을 진지하게 모색하기도 하였다. 남하과정에서는 남한산성에서 광주부사 이세화에 의하여 지휘된 광주민들의 저항에 부딪혔다.

본고에서는 특히 1232년 12월 16일의 살레탑 사살이라는 승리를 거두었던 처인성 승첩의 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 하였으나, 자료의 부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의문점들을 해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이 승첩이 김윤후에 의하여 지휘된 처인지역민의 항전의 결과였음을 특별히 강조하였다. 아울러 살레탑의 사살은 김윤후 개인의 공적이 아니라 김윤후와 함께 한 처인지역민들이 거둔 위대한 승리였음을 확인하였다.

처인성 승첩의 의의로서, 여몽전쟁에 있어서 장기항전의 계기를 조성한 점, 지역민들의 자발적 자위적 항전으로서 피지배층을 역사의 전면에 등장시킨 의병운동의 선구적 사례라는 점, 그리고 군현체제의 신본적 성격을 변화시키는 사회변화의 한 양상을 초래하였다는 점 등을 그 의의로 꼽았다.

처인성승첩은 그 역사적 의의에도 불구하고 기록의 소략으로 인하여, 유감스럽게도 자세한 전말이 전해지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현지에서의 구전 등의 자료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 전투의 현장이었던 처인성 자체에 대한 조사연구 및 보존관리 문제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1232년 용인 처인성에서의 대몽승첩」에 대한 토론요지

李 益 柱 (서울시립대학교 국사학과 교수)

1231년(高宗 18) 몽고의 고려 침략으로부터 1273년(元宗 14) 삼별초의 폐망에 이르기까지 40여 년에 걸친 고려·몽고 전쟁사는 두 가지 방향에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 하나는 몽고의 고려 침략에 초점을 맞춘 ‘침략사’의 관점이고, 또 하나는 고려의 저항에 초점을 맞춘 ‘항쟁사’의 관점이다.

‘침략사’ 연구의 연원은 멀리 1910년대까지 올라가는데, 이는 당시 일본인 학자들의 연구경향을 보여주는 것이다.¹⁾ ‘항쟁사’의 관점은 金庠基선생의 삼별초 연구에서 처음 나타났고²⁾ 해방 후에는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이 관점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특히 1970년대 이후로는 기본적으로 항쟁사의 관점에 서되, 항쟁에 있어 일반 민의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12세기 말 이래 민의 항쟁과 대몽항쟁을 연결시켜 설명하려는 경향이 나타났다.³⁾ 그리고 최근 일각에서는 ‘항쟁사’ 일변도의 연구 경향을 비판하면서 ‘침략사’를 객관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다.⁴⁾

-
- 1) 箭内互, 1918 「蒙古の高麗經略」, 『滿鮮地理歷史研究報告』4
池内宏, 1924 「蒙古の高麗征伐」, 『滿鮮地理歷史研究報告』10
 - 2) 金庠基, 1938·39·41 「三別抄와 그의 亂에 就하여」, 『震檀學報』9·10·13
 - 3) 姜晉哲, 1973 「蒙古의 侵入에 대한 抗爭」, 『한국사』7
金潤坤, 1978 「江華遷都의 背景에 關해서」, 『大丘史學』15·16합집
——, 1979 「抗蒙戰에 參與한 草賊에 對하여」, 『東洋文化』19
——, 1981 「三別抄의 對蒙抗戰과 地方郡縣民」, 『東洋文化』20·21합집

그러한 가운데서 尹龍麟 교수는 대몽항쟁에 관련된 논문을 가장 많이 발표한, 이 분야의 대표적인 연구자이다.⁵⁾ 그의 관점은 기본적으로 ‘항쟁사’에 중심을 두면서 대몽항쟁의 전과정—몽고의 침략 과정과 고려의 항전 과정—을 실증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하려는 것이라고 파악된다. 「1232년 용인 처인성에서의 대몽승첩」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서술된 것이다.

이 발표는 1232년(고종 19) 8,9월에 시작된 몽고의 제2차 침입 과정을 개관하고, 그 해 12월에 시작된 처인성 전투에 대해 상세한 상황을 정리한 다음, ‘살레답은 누가 사살하였나’하는 문제를 가지고 당시 김윤후의 역할을 조명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처인성 승첩의 의미로서, 이후 몽고의 침입에 맞서 장기적인 항전을 가능케 한 발판이 되었다는 점, 항몽전 중 가장 대표적인 지역주민의 자위적 항전이었던 점을 들었다.

대몽항쟁의 전체적인 상황이나 개별 전투의 구체적인 양상 등에 대해서는 그 분야의 연구를 누구보다도 많이 축적한 윤용혁교수의 설명이 가장 정확할 것이다. 처인성 전투나 그 전초전이랄 수 있는 광주산성 전투만 해도

-
- 4) 주채혁, 1989 「몽골-고려사 연구의 재검토—몽골·고려 전쟁사 연구의 시각문제—」 『애산학보』 8
- 5) 尹龍麟, 1977 「崔氏武人政權의 對蒙抗戰姿勢」 『史叢』 21·22合輯
 —, 1980 「蒙古의 2차 侵寇와 處仁城 勝捷—특히 廣州民과 處仁部曲民의 抗戰에 주목하여—」 『韓國史研究』 29
 —, 1982 「高麗의 海島入保策과 蒙古의 戰略變化—麗蒙戰爭 전개의 일양상—」 『歷史教育』 32
 —, 1984 「13세기 몽고의 침략에 대한 호서지방민의 항전」 『湖西文化研究』 4
 —, 1986 「高麗의 對蒙抗爭과 江都—江華遷都(1232)와 江都 경영을 중심으로—」 『高麗史의 諸問題』, 三英社
 —, 1986 「高麗 對蒙抗爭期の 民亂에 대하여」 『史叢』 30
 —, 1987 「대몽항쟁기 고려 무인정권의 江都生活」 『崔永禧先生華甲紀念韓國史學論叢』
 —, 1991 「高麗對蒙抗爭史研究」, 一志社
 —, 1994 「三別抄의 蜂起와 南遷에 관하여」 『李基白先生古稀紀念韓國史學論叢』 [上]
 —, 1994 「三別抄 珍島政權의 성립과 그 展開」 『韓國史研究』 84

직접적인 자료가 거의 없는 가운데 관련 자료들을 빠짐없이 모아 이 정도로 재구성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또한 처인성 승첩의 의미에 대한 설명도 적절한 것이어서 반론의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따라서 이 자리에서는 발표 내용 가운데 구체적인 사실을 문제삼기 보다는 대몽항쟁 전반에 관련된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토론의 자료로 삼고자 한다.

첫째, 발표문에 따르면 고려정부의 강화 천도 후 몽고의 침략은 궁극적으로 강화도를 겨냥한 것이었다고 하고, 그 근거로서 『세종실록지리지』의 태천군 향리 邊呂의 일화를 들었다. 그러나 이 때 강화도 공격은 실행되지 않았고, 이후로도 연안의 섬에 대한 공격이 시도된 것은, 발표자가 다른 곳에서 밝혔듯이,⁶⁾ 전쟁 막마지인 1255년(고종 42) 제6차 침입 때였다. 따라서 위의 설명은 재고되어야 할 것이며, 그렇다면 몽고군이 강화도를 직접 공략하지 않은 이유가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해 발표자는 몽고군의 水戰에 대한 두려움 때문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러한 논리는 일찍이 강화천도를 설명하면서 개설적인 수준에서 제시된 것이었다.⁷⁾ 그러나 몽고족이 유목민족이라서 水戰에 약하다는 것이 과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사실인가. 주채혁 교수에 의하면 “1231년 고려에 침략해 오기 이전에 몽골군은… 수없이 많은 江河를 건너 작전을 벌였으며 거기서 이에 필요한 공병기술자들을 포로로 하고 水軍을 잡아들여 자기 병력으로 충원도 하였을 뿐 아니라 직접 포로된 고려의 水軍도 앞장세웠던 터이므로, 해전에 무능하여 강도를 장악하지 못했다는 관점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⁸⁾ 따라서 몽고족이 수전에 약해서 강화도를 공략하지 못했다는 논리가 입증되거나, 아니면 몽고군이 강화도를 공격하지 않은 이유가 달리 설명되어야 한다.

6) 윤용혁, 1991 앞의 책, 118~119쪽

7) 金庠基, 앞의 논문

8) 주채혁, 앞의 논문, 37쪽

둘째, 앞에 인용한 주채혁 교수의 글에서도 엿볼 수 있는 것처럼, 당시 고려를 침공한 몽고군에는 이미 몽고에 복속된 거란족이나 여진족, 한족이 포함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몽고족이 정복지역에 요구하는 ‘6事’ 가운데 助軍이 들어있다는 점에서 이런 추정이 가능하고, 실제로 1281년(충렬왕 7) 일본 원정 때 蒙漢軍 3만명 외에 고려군 2만 5천명과 남송군 10만명이 동원된 사례가 있다.

몽고군의 구성과 관련하여 또 한가지 생각해 볼 문제는 당시 고려를 침공해온 몽고군의 규모이다. 어느 전쟁이나 병력 규모를 조사하는 것은 전쟁사 연구의 기초작업일 것인데, 과묵한 탓인지는 몰라도 당시 고려에 침공한 몽고군의 규모를 정리해놓은 글을 보지 못했다. 발표문에 인용되어 있는 『대몽항쟁사』(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8)에는 처인성 전투 당시 몽고군의 규모가 기병 500여 기로 되어 있지만, 그 근거를 찾을 수 없다. 그러나 『高麗史』의 기록에는 당시 몽고군의 규모를 알려주는 대목이 간간이 눈에 띄는데, 이것을 가지고 병력의 규모를 추정하는 일이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 실은 이것이 밝혀져야 전쟁의 규모 뿐 아니라 그 전쟁의 성격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항전의 주체에 대한 문제이다. 일찍이 강진철선생이 대몽항쟁의 주체를 농민과 천민으로 규정한 이래⁹⁾ 이러한 견해가 대체로 수용되었고, 발표자도 기본적으로 같은 입장에 서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처인성 승첩의 의의를 설명하면서 “처인성 승첩의 두번째 의의는 이것이 고려의 정규적인 군사체계라든가, 관리조직의 지휘에 의하지 않은 순수한 지역주민들의 자위적 항전이었다는 점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에는 몇 가지 보완되어야 할 것들이 있다. 주채혁 교수가 지적한 대로 농민·천민들이 왜 싸웠을까 하는 것도 그렇지만,¹⁰⁾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이들이 어떻게 몽고군과 싸워 이길 수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

9) 姜晳哲, 앞의 논문, 367쪽

10) 주채혁, 앞의 논문, 39쪽

훈련되지 않은 일반인들이 아무리 단결하여 분전한다 하더라도 훈련된 군대와, 그것도 당시 몽고군처럼 실전 경험이 풍부한 군대와 싸워서 이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고려측에도 일반인들을 조직하고 훈련하며, 전투에 임해서는 적절한 전술을 구사하며 항전을 지휘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추어져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것을 밝히는 일이야말로 당시 장기간 지속되었던 대몽항쟁의 원동력을 찾는 작업이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금 단계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최씨정권의 역할이다. 지금은 대개 최씨정권이 정권 유지에 급급하여 육지를 버리고 강화도로 숨어들어갔다는 평가가 우세한 편이지만, 사실 이것은 결과론적인 시각이고 강화천도 후에도 최씨정권이 어떤 형태로든지 육지에서의 항전을 지휘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지방관과 방호별감이 파견되었고 山城海島 입보책이 계획대로 추진되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대몽항쟁에 있어 최씨정권의 역할에 대해서는 재고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만일 최씨정권의 역할이 미진하였고, 그래서 몽고군을 막아내는 데 지방민의 역할이 더 많이 요구되었다고 한다면, 그러한 가운데서도 처인성 승첩과 같은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배경을 밝히기 위해서 다음의 몇 가지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즉, (1)몽고 침입 이전 고려의 지방사회가 어떻게 편제되어 있었고, 그것이 몽고의 침략을 받으면서 전투 조직으로 전환될 가능성은 없었는가. (2)12세기 말 전국적인 민란 이후 각 지방에 잠재해 있던 민의 항쟁 역량, 즉 草賊의 전투력이 몽고의 2차 침입 이후에도 항몽전에 동원되었을 가능성은 혹시 없는가. (3)또는 그런 것이 아니라 당시 몽고군의 규모가 훈련되지 않은 일반 민의 분전으로 막을 수 있을 만큼 크지 않았던 것은 아닌가 하는 점 등이다.

마지막으로, 대몽항쟁을 연구하는 시각에 관한 문제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모든 대외항쟁사의 경우가 그러하지만, 대몽항쟁을 몽고의 침략에 대한 고려의 항전이라는 단순한 구도로 파악해 왔다. 그러나 일견 명쾌해 보이는 이 구도는 당시에 실제로 발생했던 중요한 사건들을 제대로 포괄하지 못한

다는 데 문제가 있다. 즉, 몽고와의 항쟁 중에 발생한 民亂이나 전쟁 말 지방 민의 投蒙 등 고려 내부의 갈등은 제대로 설명하기 어렵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대몽항쟁의 주체를 고려의 농민·천민으로 규정하고 최씨정권의 역할을 과소평가하거나,¹¹⁾ 강화천도의 배경으로 草賊의 위협을 강조하는¹²⁾ 견해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이 문제는 몽고와 고려, 고려의 지배층과 피지배층, 고려 지배층 내의 항전파와 강화파 등 다양한 대립의 요소를 설정하고, 그 복합적인 구도 속에서 대몽항쟁과 민의 동향, 지배층 내부의 정쟁 등의 양상 및 이들 상호 간의 영향을 구명하려는 시각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야만 대몽항쟁기에 발생한 사건들에 대한 포괄적이고 구조적인 이해와 평가가 비로소 가능할 것이며, 12세기 사회경제 모순에 따른 민의 항쟁 및 대몽항쟁 이후 이어지는 원간섭기의 역사에 대한 계기적인 설명이 가능해질 것이다.

11) 姜晉哲, 앞의 논문

12) 金潤坤, 1978 앞의 논문

蒙古侵入과 處仁城 勝捷小考

李仁寧 (龍仁文化院 郷土文化研究所長)

目次

- | | |
|------------------------|-------------------|
| I. 머리말 | IV. 處仁城과 金允候의 勝捷 |
| II. 處仁縣과 處仁城 | V. 金允후 저격인가 항전인가? |
| III. 蒙古將帥 살리타이의 侵入과 經緯 | VI. 맺음말 |

I. 머리말

본고는 몽고장수 살리타이(措禮塔)를 一失로 물리친 金允候 장군의 처인성 勝捷에 대하여 史實에 밝혀지지 않은 몇가지 問題點을 郷土史의인 측면에서 考察해 보고자 한 것이다.

이제 몽골과 국제적 외교 관계가 수립되어 1991년 3월 몽골 각 省·州知事와 고위 관료들이 역사적 이벤트를 낳은 처인성 승첩의 본 고장인 용인의 모 연수원에서 새마을 연수를 받고 돌아간 바 있다.

과거 한반도를 지배 하였던 그들의 후손이 이제는 선진 문화국이 된 한국의 정신을 배워갔다는 사실에 역설적인 역사의 윤회가 시작되고 있음을 느꼈다.

또한 이들은 1991년 3월 26일 실시된 지방의회 투표 과정을 참관 하면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태동을 눈여겨 보았을 뿐 아니라 4월 4일에는 당시 용인군을 방문하여 지방자치 행정의 이모저모를 살피고 돌아 갔다.

국교 수립 이후 한·몽 관계에 있어서 유독 역사적 사건을 깊이 간직하고 있는 용인에서 우리의 문화를 배우고 시찰하면서 몽골 국가의 지도적 위치에 있는 살리타이의 후손이었던 그들은 무엇을 생각하였을까에 의구심을 가지면서 本稿를 정리하게 되었다.

최근 한·몽비사연구회, 한·몽친선협회 등 한·몽관계 정상화로 나타난 문화교류가 활발해지고 있으며 용인에서도 몽골 문화탐방을 마치고 올 만큼 민간인의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다.

이에 단편적이기는 하더라도 처인성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간추려 보고 향토사가적인 측면에서 승첩의 성격을 조명코자 한다.

II. 처인현과 처인성

처인성은 현 행정구역상 용인시 남사면 아곡리 산 43번지에 위치한다.

공부상에 나타나 있는 면적은 총5820평이다. 이 城의 구조는 장방형의 둔덕을 이룬 작은 동산에 불과하다. 성곽 둘레는 425m 북측면 좌측에 문대가 있고 남쪽면 서측에 후문이 있었던 흔적이 있었으며, 1979년 복원공사시 이 부분을 절단하여 축성 방식, 연대 등을 조사한 후 복토하여 현재는 구분되지 않는다.

處仁은 본래 水州에 속해있던 하나의 部曲이었다. 종래의 학설에 의하면 部曲이란 천민집단이 사는 鄉 所 다음의 말단 행정구역에 속한다.

1979년 처인성 보존공사의 실시에 앞서 사학자 이선근 박사를 비롯한 일단의 학술조사반을 초치하여 현지를 답사하였을 때 절토된 성벽 단면의 분석과 이곳에서 섞여 나온 토기편 등을 수집한 후 종합된 의견으로는 百濟때

축성된 토성이라는 결론이 내려졌으며 몽촌 토성의 축성 방식과 유사하다는 점이 고증되었는바 용인 지역이 초기 백제 권역에 속해 있었다는 사실 등을 미루어 본다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닐 것으로 본다.

〈동국여지승람〉 처인성 條의 기사를 보면 “고려시대의 軍倉이었다”는 기록이 있을 뿐 그 이전에 관한 기록은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처인성이 용인시 南四面으로부터 화성·평택으로 이어지는 경기평야지대의 가장자리에 위치하고 있음을 보면 그 이전부터 군량미, 또는 식량 저장과 보급 기지로서의 기능을 감당하고 있던 곳이라는 짐작이 가능하다.

이와 같이 곡창지대 가장자리에 토성을 구축한 곳으로서 용인의 경우 원삼면 맹리 행군리 토성지가 있다. 이 지역 역시 용인의 곡창지대라 할 수 있는 원삼, 백암지역의 넓은 들녘의 가장자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성 또한 백제때의 축성인 점등에서 유사성이 있다.

또 처인성 내외의 지표에서 기와조각 등이 산견되고 있으며, 예전에는 인근의 주민들이 이를 주어다가 가루를 만들어 늦그릇을 뒤는데 사용 하였다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다.

이로보아 성 내부, 또는 인접된 곳에 상당한 규모의 권위건축물도 있었을 것이라는 짐작이 가능하다.

그런데 軍倉이던 이곳이 水州의 관할부곡으로 관리되어 오다가 이태조 6년에 와서야 비로소 현으로 승격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주변에 많은 부곡이 있었음에도 유독 천인부곡만이 현으로 승격되고 있는 것은 항몽의 승첩지이기 때문인가 한다.

왜냐하면 어떤 지방에 “人倫之道”에 크게 벗어나는 폐륜이가 있을 때 郡을 한단계 낮은 縣으로 강등 시킨¹⁾ 예가 있었으며 반면 외적의 침입을 받은 지방에서 주민들이 적극 항쟁하여 승리할 경우 또는 그 지방 출신 장수가 외적의 침공을 격퇴시켰을 때 장수의 연고지를 승격시키는 경우²⁾가 있

1) 천주교도 윤지충이 조상의 신주를 불태우고 제사를 지내지 않은 것을 悖義라 하여 그가 살던 진산군을 5년간 현으로 강등시킴.

었는바 처인성은 항몽사상 가장 큰 전과가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이태조의 등극과 함께 정치기반을 다지기 위한 배려에서 현으로 승격시켰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處仁”이란 명칭이 언제부터 있었는지에 관한 기록은 없으나 “이미 고려 현종때에도 그렇게 불리워 졌으며³⁾ 龍駒縣治 南쪽 25리에 있다”라고 한 기록만 보일뿐인데 조선조에 들어와서는 경기 좌도에 속했으며 좌도의 雙阜縣을 越境地⁴⁾⁵⁾로 兼官하고 있었으나 정종 1년(1399) 1월 19일 처인 겸관인 쌍부현을 혁파하고 수원부에 소속 시켰다. 본래 쌍부현은 수원부 남쪽 45리 되는 곳에 있었는데 옛날의 六浦로서 수원도호부에 예속시켰다가 이태조 6년(1397) 처인부곡을 현으로 승격 시키면서 쌍부현을 겸관케 하였다.⁶⁾

그후 1413년 용구와 처인의 두 縣을 합치고 “龍駒”에서의 龍字와 “處仁”에서 仁字를 합쳐 “龍仁縣”이라 하였으며, 이듬해인 1414년 9월 8일 處仁의 人吏와 노비를 龍駒로 옮김⁷⁾으로서 처인현은 폐하게 되었다.

한편 處仁城의 位置에 대하여, 과연 현재의 위치가 기록에 있는 처인성으로 맞는 것이냐는 의문을 제기하는 학자도 있으며, 심지어 어느 교수는 처인성을 석성산⁸⁾에 있다고 기술한 글도 있다.

그러나 위에서 밝혀 보았듯이 문헌의 기록과 이선근 박사 일행의 현장 답사때의 의견 1991년 4월 19일 「몽골비사연구회」⁹⁾의 현장 세미나 등의 의

2) 지방 행정사, 군현의 승강등에 관한 제도는 고려시대로부터 있어 왔으며 용인현, 양지현도 패륜과 무신란 등에 관련된 사건 역모 가담자 등의 거주지로 각각 5 회씩 강등된 사례가 있음.

3) <용인군 행정연혁대장>

4) <용인군읍지>(동국여지승람)

5) 이 제도는 고려 조선시대에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존재하던 군·현의 특수구역이다. 각읍 월경지는 소속읍 경내에 있지않고 본읍의 영역을 뛰어넘어 따로 위치하면서 가까운 읍의 통치를 받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는 소속읍의 지배를 받는다. <세종실록지리지>에는 이를 越境地라 하였고 異稱으로는 飛地라 한다.

6) 조선왕조실록

7) 조선왕조실록 태종조 기사

8) 포곡, 구성, 역삼동, 유방동에 접한 산.

건을 종합해 보면 처인성에 관한 그 위치에 대하여는 異論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된다.

다만 本稿에서는 항몽사상 가장 큰 궤사를 연출해 낸 궤임을 확인하고 김윤후 장군의 전공에 대하여 論하고자 한다.

Ⅲ. 蒙古將帥 살리타이의 侵入과 經緯

그러면 먼저 東方의 強國 高麗와 蒙古의 격돌 상황을 살펴 보자.

고려와 몽고가 최초로 맞부딪친 것은 고려 고종5년 12월 1일 경이다. 이때 몽고 원수 合眞과 부원수 札刺는 거란의 패잔병을 추격하여 거란군의 최후 집결지였던 고려의 江東城을 향하여 진군해 오고 있었다.

당시 몽고병들은 이 지역의 지형지물에 대하여 낮이 설어 작전 수행에 크게 곤란을 겪고 있었다. 이에 따라 거란군은 바로 몽고병들의 허점을 이용하여 지극적인 산악 방어전을 전개하면서 대처하고 있었다.

때마침 몽고군은 엄청난 눈사태를 만나게 되어 병참선이 끊이게 되었고 거란군의 전략에 깊숙히 말려 들어가 추위와 굶주림에서 막다른 골목을 헤매고 있었다.

한편 고려는 北界兵馬使의 지휘하에 고종 3년경부터 줄곧 고려에 들어와 소란을 피우던 이들 거란의 패잔병을 토벌하고 있었다. 이때 같은 지역에 있던 고려의 병력과 몽고의 군사가 서로 거란 격퇴에 대한 동일한 목적을 갖고 있던 터이므로 양 진영은 곧 우군의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

어쨌든 양 진영의 병력들은 이런 여건 속에서 처음부터 마주치게 되었으며 거란이란 적을 토벌하기 위한 서로간의 합동작전 과정에서 그 첫 외교 관계가 맺어지게 된 것이다. 물론 합동작전에서도 고려의 영토내에서 고려

9) 당시 회장 주채혁 교수. 각 대학 몽고관계 전문학자로 구성됨.

가 궁지에 몰린 몽고병을 구원해 주는 상호관계에서의 제휴였다.

그러나 蒙古族에게는 그 입장이 달랐다. 이 江東城 자체가 거란의 패잔병 토벌을 구실로 수행된 고려에 대한 戰鬪情察이었기 때문이다.¹⁰⁾

蒙古는 本來 유목민으로 요와 금에 예속되어 있었으나 鐵目眞(징키스칸)이 일어나 부족을 평정하고, 중앙아시아에서 러시아, 헝가리, 페르시아만에 이르기까지 세계를 정복하여 大帝國을 건설한 후 1227년 병사하였고 셋째 아들 <쿠빌라이>가 그 뒤를 이은 뒤 父帝의 遺志를 받아 후에 金國을 정벌하였다.

이런 과정에서 몽고에 쫓기던 거란이 고려의 변방에 몰려와 소란을 피웠고, 고려는 이들을 토벌하고 있던 시기에 제휴되어 협공작전을 마친 다음 형제국이 되자고 하였으나, 몽고는 이것으로써 고려에 큰 은혜나 베풀 것처럼 매년 과중한 貢物을 요구해 왔다.

예를 들면 「수달피 가죽 1만령, 명주 1천필, 모시 2천필, 용단목(떡) 1천개, 붓 2백관, 종이 10만장, 자초 5근, 남순, 황하, 주홍 각 50근, 광치, 동유, 자청 각 50근」등 진귀한 품목을 요구하며 전에 가져갔던 貢物의 質이 나쁘다는 등 생트집을 잡아 고려의 조정을 몹시 괴롭혔다.

그 즈음, 즉 1224년(고려 고종 11년) 11월 몽고 사신 「저고 여」가 고려에 와서 일을 마치고 그 이듬해인 1225년 귀국하던 중, 압록강 건너 지경에서 도적에게 피살되자 이 사건을 고려의 소행이라고 트집잡아 고려 정복을 위한 야욕을 들어냈다.

이때 몽고 元師 「살리타이」는 바로 강동성역 전투의 副사령관으로서 고려 침입을 위한 사전 전투정찰을 수행했던 札刺였으며, 정예병을 이끌고 압록강을 건너 서북면 일대에 침공을 감행하였다.

고려군은 평안도 자성과 귀주성에서 강력히 대항하여 이들을 격퇴시켰으나 몽고군은 무적을 자랑하는 강병이었으며, 적을 잡아 적을 치게 하는 상

10) 주체혁 <인물 한국의 역사>2. pp. 311-312

투적인 전술을 수행하였으므로 전쟁을 수행할수록 병력이 증가하였다.

이에 고려는 각개 내지 소부대 유격방어진을 펼쳐 이에 맞섰고, 산악지대와 대소 성루를 거점으로 적을 맞아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이때 몽고군은 그 전황을 예측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고려의 병력을 각 거점에 고착시키는 전략¹¹⁾을 쓰면서 개경근방에서 야만적인 약탈과 무고한 인명을 살상하였다.

이에 고종은 허는 수 없이 <살리타이>가 보낸 사신을 맞아들여 사대외교를 수락하는 척 하면서 水戰에 약한 몽고병의 취약한 점을 이용, 강화도로 옮기는 한편 “모든 백성은 산과 들에 웅거하여 적을 무찌르라.”고 하였다.

이러한 고려 조정의 태도를 본 몽고는 동년 9월 <살리타이>로 하여금 10만의 대군을 이끌고 제2차 침공을 감행, 조정이 강화로 파천한 것을 詰問하는 한편, 고종의 출육을 요구하면서 개경을 함락시키고, 더욱 압력을 가하기 위해 계속 남하 하겠다고 위협하였다.

이때 몽고군에 잡혀있던 고려 관원 御史雜端 薛愼은 “異國大官으로서 南江을 건너는 것은 불길하다는 말이 전해오고 있다¹²⁾”고 충고 하면서 만류하였다.

그러나 <살리타이>는 이를 묵살한 채 남하, 한양성을 점거한 후 그 선봉 부대는 파죽지세로 경상도까지 내려가 약탈과 방화, 인명 살상 등의 야만적 만행을 저질렀고, 이때 팔공산 부인사에 소장되었던 팔만대장경판이 소실되었을 뿐 아니라 찬란한 고려 문화가 수없이 짓밟혔다.

11) 주체혁 <인물한국의 역사>2, pp. 311-312

12) <동국여지승람>권10. 처인성

IV. 處仁城과 金允候의 勝捷

〈살리타이〉는 수주를 지나 中原京 청주로 進路를 잡고 남하 하였다. 그러자면 三南의 大路였던 용인을 거치게 되고 용인을 거치자면 龍仁에 인접한 處仁城 또한 짚고 넘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본다.

1232년 12월 16일, 이 날은 살리타이 자신이 출정하는데 몽고군을 이끈 살리타이는 東征軍 元帥이며 최고 사령관인 동시에 한반도 공략의 책임자로서 中軍에 속한 최정에 부대의 호위를 받았던 것이다.

다음은 승장 김윤후가 “피난하고 있던, 성의 규모와 성을 둘러싼 당시의 전황에 대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처인성의 성곽 둘레는 425m, 총면적 1정 7묘, 즉 5천여평에 불과한 작은 토성이다.

그런데 이 작은 성을 공략함에 있어 왜 살리타이 자신이 출정 했느냐 하는 점이 주목된다.

용인의 지리적 위치는 한반도 남방 지대의 공략에 있어서 대세를 좌우할 만한 전략적 요새, 즉 三南으로 통하는 關門이기는 하더라도 처인성은 그 길목에서 남쪽으로 30여리나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그럼에도 먼 길을 우회하면서 반드시 처인성을 유린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겠는가? 이 문제의 열쇠가 될 만한 문헌적 기록도 전하지 않는다.

다만 이 문제와 결부시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병참기지 확보의 필요성에서 찾아볼 수밖에 없다.

당시 고려는 淸野戰術을 구사하므로써 몽고군이 이르는 전략적인 進路나 位置의 食糧은 물론 전략물자를 남겨두지 않았다. 그러나 우군을 위한 식량 보급 기지로서, 그리고 몽고군이 이곳까지 손길이 미칠 것으로 예견치 못했거나, 아니면 미처 손을 쓰지 못한채 였다고 한다면 살리타이 역시 사전 정보탐색으로 신속하게 병참기지 확보를 위한 작전수행이 필요했을 것이며,

처인성은 군창으로서 그들이 식량을 확보해야 할 전략 목표가 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전쟁수행에 있어서 전략물자의 보급 및 수송으로 군사들이 먹고 마실 수 있는 식량의 제공이 원활치 못하다면 최소한 현지 확보, 현지 조달의 수단을 생각지 않을 수 없게 되어있다.

특히 소규모 부대단위의 산발적인 항전법, 즉 치고 빠지는 게릴라 전법에 익숙한 고려군의 습격을 언제 어디서 당할지 모르는 적국의 내륙에서 전진 부대의 분산 전개가 불합리하다는 판단하에, 그리고 식량을 운반 하려면 많은 인력이 필요하였으므로 살리타이 예하 부대의 단일 진공 작전 계획에 의하여, 중원경으로 남하하는 길목 30리 이하에 있는 처인성 공략에 살리타이 자신이 나서게 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승장 김윤후 역시 적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던 가운데 살리타이의 처인성 진공을 예견하고, 여기서 역사에 남겨질 일전을 대비하고 있었다.

본 사항에 관하여는 다음 장에서 거론키로 하고 1232년 12월 16일 처인성 승첩의 상황을 가설로 유추하여 문제에 접근하고자 한다.

성문과 성곽 주변은 木柵으로 굳게 방비되어 있었다. 이 성 안에는 승병과 천인, 그리고 농부들이 응거하고 있었다. 성내는 협소 하였으므로 승장 김윤후 휘하 의병들의 수효는 4-5백여 명에 불과하였다. 토성은 서남에서 동북으로 기울었고 내부는 지형에 따라 2-3단계 층급을 이루고 있었으며, 가장 높은 곳에는 승병과 의병들의 기치가 세워져 있었다.

이처럼 토성의 방비가 완벽하였다 하더라도 사막의 고원을 주름잡던 몽고의 철갑기병과 비교한다면 여지없는 오합지졸이었다.

그러나 이들 고려의 의병들은 다른 민족에게 굴욕적인 복속을 당하기 보다는 의로운 죽음을 택하기로 결의된 정신무장이 있었고, 고려의 국민으로서 나라를 구하겠다는 집념으로 뭉쳐있었다.

또한 護國佛教精神과 理念으로 불타는 僧軍의 살신성인 정신과 승장 김

윤후의 탁월한 통솔력에 의하여 전력이 가다듬어져 있었다.

그러나 무적의 철갑강병, 이들의 발길이 미치는 곳마다 諸國이 무너졌고 민족이 도륙을 당하며 屍山血海를 이루는, 그야말로 공포의 군대요 정복자의 오만한 병사들이 아니가?

더욱이 거란 토평을 구실로 江東城域에서 풍토와 지형지물 등 산악전을 위한 전투 경험까지 축적했던 군대로서 그들의 앞에 놓인 작은 토성 쫘이아 눈 한번만 크게 떠도 박살낼 수 있을 것으로 여겼다.

이 작은 성을 에워 쌓던 천군만마가 그들의 정공법으로 지축이 내려 앉을 듯한 기세로 덤벼 들었으나 풀 한포기 없이 다져진 토성은 물을 부어 얼어붙은 빙벽이었고 사방의 목책을 넘어 가다가 방책 사이로 내려 짚는 죽창이나 도끼에 맞아 희생자가 속출하였다. 더욱이 원정군 사령관 살리타이의 정예 중군이 이 작은 토성에 묶여 곤혹을 치루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초조하고 불쾌하였다. 이에 격분한 살리타이는 그 자신이 선두에 나서 병사들을 질타하고 나섰다. 이때의 호기를 포착한 김윤후는 철궁에 화살을 맬이고 백마누상에서 미친 듯이 날뛰는 살리타이를 향하여 혼신의 힘을 기울여 시위를 당겼다.

화살은 일직선으로 날아가 살리타이의 안면에 깊숙히 파고들자 그는 외마디 소리와 함께 마상에서 떨어져 비명 횡사하기에 이른다. 이를 보면서 김윤후는 이렇게 외쳤을 것이다.

「보아라! 적장이 화살에 맞아 죽었다. 적장이 무너진 마당에 이제 두려울 게 무엇이더냐? 이 싸움에서 우리의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구하는 일만이 있을 뿐이다. 만일 이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여 살아 남는다면 천인과 백정, 그리고 봉졸의 문적을 없이하여 모두 양민이 되게 하리라. 三寶에게 맹세하노니 나를 믿고 따르라! 적을 무찌르고 최후까지 싸워 이기자!」

사기 충천한 의병들은 승세와 신바람을 타고 뛰쳐나와 무너지는 적을 마음껏 무찔렀으리라.¹³⁾

처인성지가 위치한 북쪽의 안산 사이에는 직선거리 200여 미터 거리를 두고 전답이 등서로 넓어져 있다. 이곳을 마을 사람들은 지금도 “死將터”라고 부르고 있다. 이는 곧 몽고에서부터 수만리 떨어진 이곳까지 와서 異國의 땅에서 고향이 된 살리타이가 남겨준 지명이자 그의 생애에 종지부를 찍게한 기념비적 속지명으로 유구한 역사와 시공을 초월하여 아직도 그날의 기억을 되살리는 증거가 되고 있음은 매우 신기한 느낌마저 들게한다.

화살 한 대로 10만 대군을 물리쳤다는 이러한 기록은 마치 고구려 보장왕 때의 장수 楊萬春이 10만의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온 당 태종을 안시성 싸움에서 화살 한 대로 물리쳤다는 야사를 방불케 한다.

〈元史〉에는 “살리타이가 죽자 부장 帖哥가 병력을 인솔하고 돌아왔다.”고 되어 있으나 “이들은 일시에 돌아가지 않고 혹은 먼저 가기도 하고 혹은 떨어져 가기도 하며 동쪽으로 가다가 서쪽으로 가기도 하여 그들의 떠나는 날이나 방향을 알 수도 없었고....” 사실상 지휘체계가 무너져 여기 저기서 소규모적인 전투를 치루며 뿔뿔이 흩어져 제각기 퇴각해 버렸던 것을 알 수 있다.¹⁴⁾

1991년 3월 23일 필자가 몽골인 교수 「수미야 바타르¹⁵⁾」와 함께 처인성 현지를 답사했을 때 수미야 교수는 당시 몽고병들이 퇴각한 후 원수 〈살리타이〉가 거느리던 소속 부대 병사들은 모두 체포되었다고 하는 고증을 들었다.

이는 몽고 병사 1개 부대원의 과반수가 전사하고 패하여 돌아오면 나머지 과반수의 패잔병도 모두 처형하는 몽고군의 엄격한 군율에 따라 용인의 전투에서 패퇴한 참전 부대 병사들도 그 장수가 전사하도록 하기까지의 책임을 물어 중형을 내렸거나 처형 시켰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로 미루어 보아 몽고 부대는 포로로 잡은 점령지의 병사들을 다른 전

13) 출처 〈내고장 용인〉 pp.99-101

14) 주체혁, 전계서 p. 314

15) 몽골 사회과학원 교수. 〈몽골비사〉저술

투에 투입시키는 전술을 구사하여 자국 병졸의 희생을 최소화하고자 했던 것도 그들 특유의 엄격한 군율의 특징때문이었다고 생각된다.

V. 김윤후, 저격인가 항전인가?

살리타이는 용인의 처인성 攻城 작전에서 전사하였다.

물론 7백여년 전의 처인성 상황과 현재 위치의 지형, 지세 등이 현격하게 다르겠지만 1991년 3월 19일 몽골비사연구회 전문가들과 가졌던 현장 세미나에서 처인성 주변의 정황을 분석해 보았을 때 처인성 승첩은 적극적인 항재이었을 가능성에 대하여 많은 의견의 접근을 보았다.

만일 살리타이가 이 성을 포위한 채 지구전을 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렇게 하였다면 단 열흘이 못되어 피 한방울 흘리지 않고 점령되고 도륙을 당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 이유는

첫째, 성내에는 많은 인원이 마시고 버틸 수 있는 식수가 없었을 뿐 아니라 주위로 부터의 보급로가 완전히 차단된다는 점.

둘째, 겨울철의 혹한은 적보다 더 큰 위협으로 견디기 힘들었을 것이며, 또한 열세한 인원과 무장 상태로 세계를 제패한 정예 몽고군과 맞선다고 할 때 어떤 결과가 빚어질 것인가 하는 점이 그것이다.

그렇다면 살리타이는 왜 이에 따른 전략을 강구하지 못했을까?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 보면

첫째, 12월 16일이란 날자는 음력 일자이므로 혹한기로 볼 수 있으므로 천시가 불리 하였을 것이고

둘째, 고려의 淸野戰術로 군량의 현지 조달이 어려웠다면 이곳 軍倉에 보관된 食糧의 확보가 긴박하였고

셋째, 한반도 遠征을 책임지고 있는 살리타이 자신의 주력 부대가 작전상

의 일정에 차질을 빚으면서 까지 정규군도 아닌 오합 잡병과 맞붙어 지구전을 펼치는 것도 체면이 서질 않는 일이 될 것이다.

넷째, 처인성이 갖고 있는 군사적, 전략적으로 한반도 공략에 있어서 그 성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요충지가 되지 못하고 있으나, 살리타이 자신이 이끄는 주력이 이곳을 통과하면서 결사 군량미를 지키겠다고 일전을 불사하는 고려의 의병들을 애교로 보아줄 만한 처지는 더욱 아니라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므로 처인성에 이르자마자 즉가적인 攻城에 돌입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김윤후는 이러한 조건하에서의 그들의 허를 찔러 발목을 거는 한편, 中原京으로 남하하는 길목에서 몽고 병사들의 작전상 일정에 차질을 빚게 공작하므로써, 양민을 대피케 하고, 무고한 인명의 살상을 막고자 하는 한편, 각 처에서 이들과 싸울 수 있는 시간을 벌도록 하자는 치밀하게 계산된 전략적인 행동으로 볼 수 있게 된다.

이런 각도에서 유추한다면 김윤후는 승려이면서 용병의 지략과 기지, 천시와 지리, 그리고 전략적인 면에 통달했던 유능한 전술전략가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김윤후 부대가 살리타이를 물리쳤다고 하는 사실이 결코 우연했던 것만으로는 생각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김윤후의 화살에 사령관 살리타이가 전사하자 부장 帖哥는 부라부라 그의 시신을 수습하여 철수하면서 「異國大官으로서 南江을 건너는 것은 不吉하다」고 충고했던 고려 관원 설신의 말이 옳았음을 시인하고 “그를 식견있는 사람이라하여 석방, 강화도로 돌아가게 하였다.”¹⁶⁾

이와같이 높이 평가 되어야 할 처인성 싸움에서 살리타이를 전사시킨 사실에 대하여 여러 문헌에 나타난 기록을 보면 한결같이 애매 모호하다.

16) <동국여지승람>10권. 처인조 기사

심지어 어떤 기록에는 “살리타이가 처인성 근처를 지나치다가 날아오는 화살에 맞아 죽었다”라고 표현되고 있어 김윤후가 거둔 전과 자체를 부정하기까지에 이른다.

그렇다면 그 화살을 쏜 사람은 누구였는가?

이런 점에 관하여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던 필자는 우연한 기회에 金海根¹⁷⁾ 법사로부터 김윤후가 禪宗출신의 승려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알게 되었다.

선종이란, 즉 참선 수도하여 得道한 僧寶를 지칭하는 말이다. 달마대사가 9년 동안 벽을 보고 앉아 득도 했듯이 김윤후도 참선 수도 하면서 禪武를 닦은 武術僧이었다는 점에서 더 이상 의구심을 갖지 않아도 된다고 본다.

김윤후에 관한 기록을 보면 “이 공으로 상장군에 임명 되었으나 이를 사양하고” “그 공을 함께 싸웠던 관노, 백정, 천인 등에게 돌리고 종과 복속 신분을 가진 자들에게 포상이 돌아 가도록¹⁸⁾했으며, 자신은 다시 본연의 승려 신분으로 돌아가 수도를 계속 하겠다고 하자 조정에서는 攝良將으로 改授하여 예우 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국난이 있을 때는 분연히 일어나 제4차 몽고의 침입시에는 충주 산성 방호별감으로써 싸웠다.

이 때 몽고의 南進을 막은 공으로 東北面兵馬使가 되었으나, 그 때 동북면은 몽고의 점령하에 있었으므로 부임하지 않았으며, 元宗때에는 추밀원부사가 되었고 수사공우복야로 치사 하였다¹⁹⁾고 하는 것으로 그에 관한 기록은 끝이난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김윤후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며, 그의 호국정신에 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먼저 김윤후가 거(居)했다는 곳이 어디였느냐 하는 점부터 따져보는 것이 순서일 것 같다.

17) 의우정사 창건. 선종연구가

18) <동국여지승람>권10. 처인조.

19) <동국여지승람> 고려사

왜냐하면 문헌의 기록과 같이 난을 피해 성 중에 머물다가 저격했는지 아니면 일단의 守城部隊를 이끌고 抗爭했던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이다.

물론 승려가 일정지역에 安住하면서 施務할 수 도 있겠으며, 無學王師가 龍仁市 蒲谷面 稼室里 白蓮菴에 住錫²⁰⁾한 일이 있듯이 이곳 저곳, 명산대찰을 찾아 래왕하면서 보시할 수도 있다.

관내에서 김윤후가 살았다거나 주석했다고 전하는 절터로는 용인시 남사면 아곡리 서북쪽 2Km 산 기슭에 김윤후가 살았다는 절터가 있으며, “장군이 이곳에서 禪과 道를 닦다가 蒙亂을 당해 처인성으로 내려갔다²¹⁾”고 한 것도 있다.

또 용인시 운학동 호리 속칭 別味마을 산 107번지 와우정사 7부 능선에 寺名 미상인 절터가 있는 바 “이곳에서 김윤후가 승병에게 禪武를 익히게 하면서 산채 나물로 만든 음식이 別味로 유명하였다”고 하여 “이질 배질(이 고 지고의 뜻인 듯) 곱등고개 먹던 중에 별미로다”하는 속요 까지 생겨 전해오고 있으며 그래서 마을 이름이 “別味”로 불리우고 있다²²⁾고 한다.

이선근 편 <대한국사> 3권의 기록에는 “城中에 피난하고 있던 김윤후”로 김정기 감수 <한국사>에는 “김윤후는 白峴院의 승려였으며 우연히 난을 피하여 처인성에 몸을 의지했던 난민”으로 표현되어 있다.

또한 용인시 문화공보담당관실 보전기록과 이병도편 <한국사·진단학회>에는 “일찌기 중이되어 白峴院에 있던 김윤후”로 나타나고, <동국여지승람>(용인군읍지) 등에는 “處仁城 爲流矢”라 하여 성중에서 날아온 화살(流矢)에 우연히 맞아 횡사한 것으로 표현되어 있다.

김윤후 장군이 어느 곳에 살았는지 당시 처인성에 머물렀던 것 만큼은 공통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 白蓮菴略史

21) 1976. 10. 7일자 동아일보 김윤후의 승첩지 처인성편 기사.

22) 김해근 법사 주장.

그러나 “피난 중에 몸을 의탁하여 있던 중 피동적으로 싸웠다”는 것, 또는 “처인성 부근에 숨어 있다가 우연히 싸움에 끼어 들었다든지 이에 휩싸였다”고 하는 식의 표현은 싸움의 성격을 규명하는데 엄청난 차이를 들어내고 있을뿐 아니라 이렇듯 장한 의병들의 공과에 대하여 그 후손들이 이처럼 인식하고 야박한 평가를 내린다면 지하의 김윤후 장군의 넋이 통곡할 일이다.

이들이 싸운 것은 최씨의 무단정치 사회를 위해 싸운 것이 아니다.

오직 외적의 침입을 막고 조국을 구하고 민족과 자신의 생존을 지키기 위하여 싸운 것이며 또한 동원 되거나 타율에 의해서 이끌려진 결정도 아니다.

오직 살신보국의 기치하에 외적으로부터 어육이 될 생령의 구난을 위한 싸움에 뛰어 들어 자의적으로 결행된 적극적인 항쟁이 였다는 쪽으로 귀결 짓고자 한다.

VI. 맺 음 말

이상에서 거론 했다시피 史料의 一部를 除外하고는 김윤후 장군이 싸운 것이 “피난 중에” 또는 “몸을 의탁하여” 등으로 표현 되어 있다.

그렇다면 몽고의 제4차 침입시 충주산성에서 싸운 것도 피난민의 한 사람으로서 몸을 의탁하고 있다가 싸웠다고 할 것인가?

아니면 우연히 싸움에 끼어 들었다가 얻은 직책 때문에 자의반 타의반 이끌려서 싸웠다는 것인가?

필자는 김윤후가 “일찌기 승이되어居했다”는 “白峴院”에 대하여 많은 史料를 조사 하였다.

왜냐하면 백현원이란 곳이 처인성 부근에 있었을 것이라는 착상과 함께

처인성 승첩 규명에 단서가 될 수 있다는 의도에서 때문이다.

김윤후가 거했다는 절터에 관해서 주민들은 “처인성 산줄기가 이어진 서북쪽에 있는 절터”를 말하고 있으며 대개 이들의 말을 인용하여 기사화 하는 예도 있고 현지를 조사한 일부의 학자도 그렇게 인용 하기를 주저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백현원은 고려때부터 실시된 驛站制에 의하여 설치된 역원(驛院)으로 승여사에서 관리 하였으며 양계찰방 소속으로 진위현에 있었음을 <동국여지승람> 진위현 편에서 찾을 수 있었고, 진위현은 용인현 경계로부터 남쪽으로 43리이고 현재는 평택시 남쪽으로 10리되는 지점에 있었던 역원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처인성 승첩은 김윤후 장군에 의하여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적극적인 항쟁의 하나였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다.

그 이유는 먼저 살리타이가 한성→수주를 지나 처인성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은 여러 문헌의 기록이 일치하거나와 피난을 하였다면 적이 병참기지 확보를 위해 쳐들어 오는 위험한 길목쪽으로 40여리나 거슬러 갔을 리가 없을 것이라는 점 때문이다.

승려가 되어 거했다는 백현원이 처인성 부근이고 그곳이 진위현(지금의 평택)에 있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할 때, 살리타이의 진로가 수주→진위→처인의 코스로 움직였던 것은 더욱 아니기 때문에 김윤후의 행적을 쫓기는 피난민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왜냐 하면 쫓기는 피난민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적의 위협권 밖으로 안전하게 벗어나려 했어야 맞는 말이 되기 때문이다.

처인의 위치에서 본다면 <수주>나 <진위>는 等距離이기 때문에 수주가 살리타이의 수중에 떨어질 즈음 진위현의 작은 역원인 백현원의 절에 있던 僧 김윤후는 승병, 또는 사전에 조직된 의병과 현지 관속이나 주민등과 함께 합세하여 40여리 떨어진 처인현 군창의 처인성에 포진하고 있다가 적극적인 항쟁을 펼친 끝에 승리를 얻어낸 값진 결과 였다는 심증을 굳게 한다.

특히 처인성 내외와 주변의 지리적 조건을 보아도 피난처로서의 안전지대도 아니며, 또한 숲속에 숨어서 저격할 만한 지형지물도 없는 곳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숲속에 숨어서 저격 했을 것이라는 추측이나 암살했을 것이라는 설, 또는 문헌의 기록같이 “성중 유시”에 의해서 횡사했다는 것 등도 현장이 말해 주는 지형 지물의 정황을 감득치 못한 구전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현장성이 배제된 기록들은 역사의 판단을 그르치게 할 뿐이다.

고려사의 기록과 같이 비록, “김윤후의 공을 가상히 여겨 상장군을 제수 하였으나 김윤후는 공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면서 싸울 때에 나는 활도 화살도 가지고 있지 않았으니 어찌 감히 헛되이 무거운 상을 받겠습니까?”라고 하였지만 이 싸움은 최소한 김윤후가 인술 지휘하였던 禪武僧에 의하여 발사된 화살이거나 이들의 향쟁이 빚어낸 결과였으며, 그 공은 이들을 통솔한 김윤후 장군에게 돌아가야 하는 것은 당연했던 것이다.

이에 중앙, 또는 학계의 역사학자들은 역사의 현장성을 관과하지 말아야 하며, 특히 김윤후의 행적, 그와 관련된 백현원 등에 관하여 연구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2부

龍仁 西里 고려백자요지 발굴조사 내용 및 의의 / 김 재 열

「龍仁 西里 고려백자요지 발굴조사 내용 및 의의」에 대한 토론요지 / 강 경 숙

「용인 서리 고려백자요지 발굴조사 내용 및 의의」에 대한 토론요지 / 김 영 원

高麗時代 古墳에 대한 一考察 / 엄 익 성

「고려시대 고분에 대한 일고찰」에 대한 토론요지 / 길 경 택

龍仁 瑞峰寺址 玄悟國師塔碑에 대한 考察 / 양 정 석

「용인 서봉사지 현오국사탑비에 대한 고찰」에 대한 토론요지 / 이 병 숙

龍仁 西里 고려백자요지 발굴조사 내용 및 의의

김 재 열 (호암미술관 부관장)

目 次

- | | |
|-------------------------|----------------------|
| I. 머리말 | V. 서리요지의 활동시기에 관한 검토 |
| II. 유적의 현상 | VI. 용인 서리 고려백자요지의 의의 |
| III. 發掘概況 | VII. 맺음말 |
| IV. 堆積丘 조사에 따른 層位別 출토상황 | |

I. 머리말

경기도 용인시 二東面 西里 中德마을에 위치하는 고려백자요지(시작은 고려이전일 가능성이 높다)는 1930년대에 일본인 도자사학자인 아사카와(淺川伯教)에 의해 발견되었으나, 1960년대에 鄭良謨선생이 고려초기요지임을 제차 확인하면서 학계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이어 호암미술관에서는 1984년과 1987년, 1988년에 걸쳐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우리나라 자기의 발생 및 초기상황에 관한 많은 새로운 자료들을 찾아내는 수확을 올려, 그 중요성으로 인해 지금 史蹟 329 호로 지정되어 국가의 보호를 받고 있다. 3차례의 발굴조사에서는 유적의 전체범위를 확인하고, 3차에 걸쳐 축조된 건물지를 조사하였으며, 가마유구와 퇴적층에 대한 정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최초의 벽돌가마유구와 최대의 진흙가마유구를 발견하였으며, 퇴

적층 조사에서는 해부리급礫과 관련된 4개의 자연층위를 확인하여, 처음으로 우리나라 자기의 발생 및 변화의 계보를 고고학적 층위에 의해 밝히는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본고에서는 유적의 현상 및 발굴경과에 대해 살펴 본 다음, 현재 청자 및 백자의 발생과 초기상황에 관한 상대편년의 중요한 근거로 인정되고 있는 본 요지의 층위별 출토상황에 관해 다루고, 이어 서리 요지의 활동시기 및 의의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II. 유적의 현상

서리요지는 북서쪽에 負兒山, 동북쪽에 函村山이 둘러싸고 있으며, 그중 해발 350m인 함박산의 남동쪽으로 뻗어내린 산줄기의 끝에 위치한다. 요지의 퇴적구릉은 해발 120~130m에 위치하며 그 앞은 부아산에서 발원한 작은 개울이 흐르고 있다. 이 개울은 자연지형상 서해의 南陽灣과 연결되는 하천의 최종점으로 비옥한 충적평야를 이루는 振威川의 발원수가 된다. 서리요지가 위치하는 이 일대는 경기도의 서남부지방에서는 흔치않는 고산지대로, 땀감이 풍부하고 하천을 이용한 교통이 비교적 용이하여 가마를 운영하기에 적합한 자연환경을 이루고 있다.

요지의 퇴적은 산능선의 방향을 따라 폭 50m, 길이 80m로 2개의 구릉처럼 보이는데, 주로 갑발과 窯廢棄物로 이루어진 퇴적은 조사결과 거의 평지 위에 6m 이상으로 거대한 구릉을 이루며 쌓여 있음이 확인되었다. 가마는 이 양 구릉모양 퇴적의 중간의 폭 2m 가량의 골짜기에 숨어 있었으며, 퇴적은 일부 훼손된 부분도 있으나 대체로 양호한 편이다. 퇴적 구릉의 곳곳에는 느티나무 10여그루가 자생하고 있는데, 특히 수령이 수백년이 된적한 거대한 느티나무 두그루가 서 있어, 본 유적의 긴 역사를 말해주고 있다.

한편, 본 유적의 동쪽 산능선을 넘어가면 사기막골이 있는데, 이 골짜기 안에 고려토기 산포지 1개소, 인화분청사기요지 1개소, 조선중기 철화백자요지 1개소 및 조선말기 백자요지 1개소를 확인한 바 있다. 또 서쪽 산줄기를 직선으로 넘어가면 上盤谷이란 마을이 있으며, 이 부락의 북쪽 산기슭에 본 유적과 성격이 비슷한 소규모의 고려백자요지가 있어, 이곳 서리 골짜기 일대가 고려~조선시대에 걸쳐 요업이 상당히 활발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역사적으로 보면, 용인은 조선 대종때 龍駒縣과 處仁縣을 합쳐 용인현이 되는데, 처인은 고려때에는 수원부에 속했던 部曲이었다가 조선 태조때 처인현으로 승격이 되었다. 요지가 위치한 이동면 서리일대는 옛 처인현에 속했던 것으로 추정되어, 고려때 이곳이 수공업 생산집단을 말하는 부곡이었다는 사실과 무슨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리고 <세종실록지리지>에 의하면, 옛 처인의 窯山洞里(가마골)에 磁器所가 있고, 역시 처인 甘岩里(감바위)에 陶器所가 있었다고 하나 현재 정확한 위치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III. 發掘概況

호암미술관에서 3차에 걸쳐 발굴조사한 진행경과 및 주요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기 간	주요 조사내용
1차 발굴조사	1984. 11. 19 ~ 12.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적의 범위 확인과 대체적인 성격 파악 · 진흙가마 노출 및 건물지 발굴
1차보고서발간	1987. 8.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토유물 분석을 통한 고려백자 개념 정립 · 유물, 출토지역에 대한 통계학적 분석 · 폐기 지역분석에 따른 가마위치 추정

2차 발굴조사	1987. 10. 15 ~ 11.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최대 진흙가마 발굴(83m) · 벽돌가마 존재 확인 · 堆積丘의 연속층위조사
3차 발굴조사	1987. 5. 6 ~ 6.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窯床下部조사 · 벽돌가마 외벽 연장조사 · 퇴적구 층위조사 (E1N1 지역)

발굴조사에서 나타난 가마유구에 관해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구릉 가운데 골짜기에서 나타난 가마는 같은 곳에서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하여 중첩된 상황이 매우 복잡하다. 전체적으로 보아 아래에서 벽돌가마가 나오고 이 벽돌가마와 잇대어 그 위에 진흙가마가 자리잡고 있어, 먼저 벽돌가마를 사용하다가 이를 폐기하고 이 위에 계속하여 진흙으로 축조한 가마를 운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양자가 공히 舊地表面을 파서 축조한 반지하식의 경사진 登窯로, 바닥에 모래를 깔고 갑발을 받침으로 삼아 수평을 유지한 일종의 계단식가마인데, 초기벽돌가마의 존재확인·국내 처음이었다. 가마는 봉통부·소성실·굴뚝부로 이루어져 있으나 굴뚝부분은 확인할 수 없었다.

(1) 벽돌가마

1, 2차 조사에서 대형의 진흙가마가 발견되었는데, 진흙가마의 바닥의 퇴적층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바닥 아래에 벽돌가마가 나타났다. 하지만 국내 최대규모의 진흙가마를 훼손시키기 어려운 관계로 벽돌가마는 대략적인 규모 파악에만 그쳤다. 현재까지 조사에서, 이 벽돌가마는 폭 1.8m, 殘存高 1.4m, 殘存長 40m 가량이며, 7×15×32cm에 달하는 장방형의 큰 벽돌과 작은 벽돌을 사용하였는데, 완형 외에 깨어진 것들도 상당수 이용되고 있다. 봉통부 쪽은 이 위에 설치된 진흙가마와 어지럽게 중첩되어 있어 확인이 불

가능하였으며, 벽돌로 축조된 요벽은 크게 2열로 되어 있어 적어도 한차례 대대적인 改修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약 30cm에 이르는 벽돌가마의 窯床퇴적에서는 백자해무리굽완 파편들이 소량 나오고 있어 이 가마가 퇴적의 II기층과 III기층에 관련될 가능성이 많다고 믿어진다.

참고로 벽돌가마는 중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가마형식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시대 말기까지 오로지 진흙가마를 사용하였다. 통일신라말까지의 토기가마도 물론 진흙가마인데, 유독 磁器의 발생기에 중국식의 벽돌가마가 사용된 것은 우리나라 최초의 청자나 백자의 자기번조의 성공에 중국의 영향이 절대적이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또한 자기의 발생 초기에만 벽돌가마가 사용되고 곧 한국의 보편적인 진흙가마로 변하는 사실은 벽돌가마를 운용한 사람들이 중국에서 직접 건너온 도공들일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게 하고 있다.

(2) 진흙가마

이 진흙가마는 해무리굽 단계부터 최종시기까지 사용된 가마로 추정되며, 벽돌가마가 폐기된 후, 벽돌가마에 잇대어 축조하여 폭이 훨씬 좁아진 상태이다. 처음에는 봉통부를 여러 곳으로 옮겨가며 30-40m 길이의 가마를 사용했던 것 같으나, 최종에는 이들을 모두 연결시켜 83m에 달하는 초대형가마를 운용하였다. 이 최종시기의 가마는 진흙과 갑발을 사용해 축조하였으며, 현재 봉통부·소성실·초벌칸들이 잘 남아 있다. 가마바닥에 깔린 모래퇴적은 약 30cm에 이르며, 여기서 출토된 자기편들은 모두 해무리굽 이후 단계의 것들로, 퇴적의 맨 윗층의 내용과 일치한다. 이 가마에는 왼쪽편에 23개의 출입구가 나 있으며, 진흙가마의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내용 및 규격	구 분	내용 및 규격
계 료	진흙+갑발	소성실 길이	66.5m
총 길 이	83.26m	초별칸 길이	11m
폭	1.2~1.5m	출입문 수	23개
현 요벽높이	1m 내외	출입문의 간격	2.5m~3m
봉통부 길이	5.7m	窯床 경사도	약 11°

이 진흙가마는 지금까지 국내에서 발견된 가마중 최고로 긴 가마이며, 세계에서도 유례가 드물 정도로 장대한 가마이다. 국내의 가마는 고려·조선 시대를 막론하고 대개는 길어도 40m 정도인데, 서리가마는 2배가 넘고 있어 이렇게 긴 가마를 어떻게 운용하였는지 지금의 기술로서도 예측 불가능할 정도여서 앞으로 이 문제는 다각도로 연구되어야 할 과제이다.

그리고 서리 진흙가마의 구조적 특징을 보면, 가마의 벽을 축조할 때 속이 빈 갑발을 대량 사용한 점이 우선 눈에 띈다. 원통형의 빈 갑발을 차곡 차곡 포개 쌓아 올려 뼈대를 만든 다음, 진흙을 발라 틈새를 메꾸어 반듯한 벽을 만들었다. 요벽면은 불 맞은 정도에 따라 어떤 곳은 유리질화가 되어 벽면이 유리처럼 반들거리고, 어떤 부분은 흙면이 불에 살짝 익어 있거나 진흙면이 떨어져나가 갑발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경우도 보인다. 특히 최후의 뒷 부분 요벽은 11m 정도가 갑발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고 불에 익은 정도가 매우 약해 초별칸으로 추정되는데, 이곳에서 갑발을 사용한 요벽의 축조방법을 확연히 알 수 있다. 이처럼 빈 갑발을 이용해 요벽을 축조한 예는 매우 드물며, 빈 갑발을 벽으로 이용하면 가마내의 保温이 잘 되어 熱효율을 한층 높일 수 있다고 한다.

IV. 堆積丘 조사에 따른 層位別 출토상황

서리요지의 발굴조사를 통해 얻어진 최대의 성과는, 요지발굴사상 처음으로 4개의 자연층위를 확인하여 우리나라 자기의 발생 및 변화과정을 파악하는 중요한 근거자료를 확보한 점이라 하겠다.

현재 M形의 구릉 같이 보이는 퇴적은, 조사결과 거의 평지 위에 쌓여진 거대한 순수퇴적임이 밝혀졌으며, 퇴적의 깊이가 5~6m에 달하고 있다. 퇴적은 갑발편과 가마폐기물이 대부분이고 자기편은 소량이었다. 퇴적구릉의 6곳을 절개한 결과, 각 지점에서 3, 4개의 자연층위가 발견되었다. 층위상태는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아 크게, 해무리굽보다 이른 시기층·해무리굽 성행 시기층·해무리굽 이후 시기층으로 구분됨은 명확하여, 그동안 도자사학계의 최대의 쟁점이었던 해무리굽청자의 발생문제에 대한 새로운 자료를 얻게 되었다. 이들 층위별 특징에 대해 간략히 살펴 보겠다.

○ I 期層

폐기물 퇴적의 제일 아래부분에서 확인된 층으로 서리요지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형성된 것이다. 이 퇴적은 가마의 중심에서 우측으로 접해 있으며, 층의 두께는 2m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퇴적의 규모에 비하여 퇴적물의 양이 매우 적은 편으로, 이곳에서 출토된 퇴적물은 정제된 흙으로 만들어진 기벽이 얇은 갑발편들과 가마를 구축하는데 사용되었던 소수의 벽돌편이 주류를 이루며 자기파편은 소량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이 층에서는 해무리굽청자가 출토되지 않아 해무리굽완이 제작되기 이전에도 이미 활발한 자기의 제작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가마축조 재료인 벽돌이 퇴적에서 확인되어 출토된 자기가 벽돌가마에서 제작된 것임이 밝혀졌다. 이곳에서는 퇴적의 윗쪽과 구지표에 가까운 아래쪽에서 출토된 자기

파편의 제양상이 서로 구분되므로, 다시 2기로 세분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라 製磁樣相이 변화되는 대체적인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I期 - a層 : 퇴적층의 아래부분에 형성되어 있는 층으로, 이곳에서는 두께가 얇은 갑발과 함께 청자파편이 출토될 뿐 백자는 보이지 않는다. 출토된 청자는 碗과 鉢로 器種이 매우 단순하고 올리브그린이나 암갈색조의 유약이 얇게 시유되었으며, 기벽이 매우 얇고 잡물이 없는 치밀한 태토로 제작되었다. 완과 발 모두 그릇의 표면이 매우 깔끔하게 다듬어져 있고, 안바닥이 곡면을 이루고 있으며 굽지름에 비하여 굽접지면의 폭이 좁고 굽의 가장자리가 예리하게 깎여 있다. 碗은 표면의 시유상태가 고르고 유약과 태토의 밀착상태가 좋지만, 발은 대체적으로 시유상태가 고르지 못하여 표면 곳곳에 유약이 흘러내리거나 태토의 일부분이 드러나 보여 마치 토기의 여운이 남아 있는 듯하다. 완과 발 모두 굽접지면에 백색의 내화토비짐을 4~7곳에 나누어 받친 후 번조하였다. 특히 출토된 모든 발의 안바닥에는 무엇인가 포개구이를 하였던 내화토비짐의 흔적이 남아 있다. 한편 출토된 완의 안바닥에는 대부분 포개어 구운 흔적이 없고, 수습된 파편 중에는 발의 안바닥에 완이 포개구이되어 붙어 있는 예가 있어서, 대개 발 위에 완을 포개어서 번조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I期 - b層 : 퇴적층의 윗부분에 형성되어 있는 층으로, 청자와 함께 백자가 나타나고 있으며, 기종도 다양해지고 있어서 a층과는 구분되는 변화양상을 보인다. 이 층에서 출토된 청자는 모두 a층에서 확인된 것과 같은 완과 발이며 유약의 색깔이나 세부의 특징도 동일하다. 또한 白磁碗의 경우에도 잘 정선된 백토에 담갈색의 유약을 씌워 번조한 것 이외에는 청자완과 크기·형태·세부의 특징이 모두 같다. 그러나 청자에서 볼 수 있었던 발이 백자로는 한 점도 출토되지 않아 주목되며, a층에서는 볼 수 없었던 잔과

접시가 백자로 소수 제작되고 있어 관심을 끈다. 백자접시는 모두 口緣과 器壁을 꽃잎모양으로 장식한 花形접시이며, 유약의 색깔도 담갈색 이외에 담록색 혹은 담회색을 띠고 있고 포개구이한 흔적은 없다.

○ II기층

이 층은 기마의 봉통에서 중앙으로 이어지는 좌우측에 분포되어 있다. 이 곳에서는 갑발편과 함께 다량의 유물이 출토되었으며 수습된 자기파편의 대부분이 백자이다. I기층에서 청자를 시작으로 자기제작 활동을 벌이던 서리가마의 성격이 이 층의 형성시기를 즈음하여 백자를 주로 제작하는 백자가마로 바뀌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전에 제작되던 완·발·화형접시·잔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한편, 각각의 기종별로 크기와 세부의 형태를 달리하는 다양한 기형의 백자가 새롭게 제작되는 것이 이 층의 특징이다. 출토된 백자는 완과 발이 주류를 이루지만 I기층 출토품에 비하여 크기가 다소 작아지고 기벽의 두께가 약간 두꺼워진 것도 있으며 푸른기가 있는 경질 백자도 눈에 띈다. 또한 접시의 종류와 수량이 매우 증가하였는데, I기-b층에서 소량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던 화형접시가 상당량 출토되어 주목된다. 특히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해무리굽완이 드물게 나타나기 시작하며, I기층부터 제작되던 완과 혼재하는 양상을 보인다. 출토된 해무리굽완의 기벽은 곧게 뻗은 사선형으로 모두가 동일하지만, 안바닥의 형태는 曲面인 것이 대부분이다. 백자의 유색은 담갈색이 주류를 이루며 미백색·담록색·담청색 등으로 다양하다. 해무리굽완을 제외한 나머지 기종의 경우 굽의 형태는 I기층의 것과 대체적으로 유사하지만, 굽접지면의 폭이 다소 넓어지거나 굽가장자리의 예리함이 줄어드는 등의 변화가 나타난다. 이 층에서 출토된 청자 역시 I기층의 것과 유사하지만, 기벽이 두껍고 표면이 거칠게 제작된 것들이 나타나 질이 좋은 백자출토품과는 대조를 이룬다. 갑발은 기벽이 얇고 크기가 작은 것이 대부분이다.

○ Ⅲ기층

가마 중앙의 좌우측 퇴적에 형성되어 있는 층으로, 갑발편과 함께 다량의 백자파편이 출토되었다. Ⅱ기층에 비하여 백자는 器種이 더욱 다양해지고 생산량이 증가하였으나, 청자는 오히려 극소량 제작되었다. 백자는 주류를 이루는 발·완·대접·접시 이외에도 병·잔·잔탁·합 등이 있으며, 단일 기종으로는 해무리굽완이 가장 많이 출토되었다. 이 출토품들은 대체적으로 Ⅱ기층 출토품에 비하여 기벽의 두께가 다소 두꺼워지고 둔중한 느낌을 준다. 특히, 해무리굽완은 모두가 기벽이 斜線形으로 곧게 뻗고 안바닥에 얇은 圓刻이 있는 것으로, Ⅱ기층에서 안바닥이 곡면형태로 만들어지던 예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Ⅱ기층에서 유행한 선해무리굽 형태의 것도 소량 존재하고 있으며, 여기서 다소 변화된 양상을 보이는 것도 다수 나타나고 있어 주목된다.

백자의 유색은 담갈색조가 주류를 이루지만 담청색·담록색·미백색·암갈색 등 다양하며, 어떤 것은 육안으로 보아 청자처럼 보이는 유색을 가진 것도 있다. 유약과 태토의 밀착상태는 대체적으로 양호하다. 반침으로는 백색 내화토비집을 사용하였으며, 갑발은 기벽의 두께가 다소 두껍고 표면이 거칠게 제작된 것이 많다. 특이하게도, 이 층에서는 담청색의 경질백자에 線象嵌과 面象嵌이 있는 흑상감파편이 출토되어 주목된다.

또 하나 주목되는 것이 이 Ⅲ기층의 상단부에서 퇴화된 형식의 해무리굽완이 다량 출토되고 있는 점이다. 완의 전체적인 크기만이 아니라 해무리굽의 지름과 접지면의 폭도 다소 작아지고, 굽도 굽다리가 內傾하는 형태로 변화되었다. 이러한 변화양상은 해무리굽완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지만, 함께 출토된 다른 기종에서도 볼 수 있는 현상이다.

○ Ⅳ기층

이 층은 퇴적의 최상층으로 구릉의 산쪽을 중심으로 서리요지 전면에 넓

게 분포하며, 퇴적량도 가장 많다. 이 층에서는 굵고 거친 모래알갱이가 섞인 두텁고 무거운 갑발들과 함께 다량의 백자파편이 출토되었는데, 이 퇴적은 가마의 발굴결과 진흙가마를 운용하면서 생긴 것이 확실하다. 출토된 백자의 기종은 발·대발·완·대접·접시·종지·합·병·타구·잔·잔탁·항아리·제기 등으로 매우 다양하며, 완과 대접은 물론 크기가 작은 접시와 종지 등 일상용기의 수량이 특히 많다. 또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대형의 그릇이나 제기류들이 다수 제작되었다. 출토유물의 다수는 태토에 모래와 같은 잡물이 소량 포함되어 있으며, 외면을 깨끗하게 다듬지 않아 마무리가 거칠고 조잡하다. 또한 굽과 굽언저리에 시유하지 않은채 露胎시켜 번조하거나 유약의 용융상태가 불량한 것이 많으며, 접시나 종지류에서는 포개구이한 예가 다수 있다. 유색은 담갈색 혹은 갈회색조가 주류를 이루지만, 담청 혹은 담록·회록색을 띄는 것도 있다. 바닥에는 백색내화토를 받쳐 번조하였지만, 굽접지면 곳곳이 얼룩이 지듯 지저분하게 번져 Ⅲ기층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한편, Ⅲ기층에서 많이 출토되었던 해무리굽완은 크기와 기형이 더욱 변화되어, 그 여운만이 남아있는 또 다른 형태의 작은 완으로 바뀌었다. 뿐만 아니라 완이나 접시·종지 중에는 굽안바닥을 오목하게 깎아내는 안굽이 새롭게 등장하고, 대접과 일부 완에는 구연 안쪽에 한 줄의 음각선을 돌려 장식하는 특징이 나타난다. 이 층에서는 표면에 철화장식이 있는 철화백자가 등장하는데, 특이하게도 대부분이 長鼓와 같은 특별한 儀式用器의 표면장식에 사용되어 주목된다.

○ 窯床面 출토품

퇴적층은 아니나 가마의 最終 바닥면에서 출토한 것이어서 본 요지의 최종시기에 번조된 종류들이 분명하다. 본 가마의 폐기 직전에 사용된 바닥면에는 발굴 당시 모래가 깔린 바닥에 원통형의 갑발을 거꾸로 세워 자기 번조시에 받침대로 이용한 것이 그대로 남아 있는 부분도 일부 있었으나 바

다면 전체는 대체로 깨끗한 편이어서 최후에 번조한 자기들을 꺼낸 다음 자연스레 폐기된 것으로 보인다. 최후 가마의 경우, 가마벽이 부실해져 번조 후에도 불량품이 많이 생겨 번조가 끝난 불량품들을 그대로 두고 폐기한 예도 있으나, 서리요지는 끝까지 정상적인 가마상태를 유지하다가 의도적으로 폐기한 것으로 보인다.

이 最終窯床面에 파손된 불량품들이 약간 있었는데, 출토품들은 거의 IV기층과 동일한 것들이며, 발·접시류·대형의 奩류가 포함된다. IV기층에서 흔히 보이는, 내면의 구연아래에 一條 陰刻線이 돌아가 있는 외반구연의鉢들이 이 요상면에서도 채집되었다.

이상 퇴적층의 출토상황을 정리해 보면, 먼저 西里요지는 처음에는 청자를 굽는 요지로 시작하였다가 곧 백자를 굽게 되고, 뒤이어 白磁全燒窯로 변화함을 알 수 있다. 둘째, 지금까지 우리나라 청자나 백자의 가장 이른 굽형식으로 여겨왔던 소위 ‘해무리굽’ 보다 더 이른 시기의 청자와 백자가 존재하였음이 분명해 졌으며, 셋째로는, 해무리굽을 중심으로 볼 때 굽의 접지면의 폭이 좁은 것(先해무리굽)이 먼저 나타나고, 이어 先해무리굽 후기부터 전형적인 해무리굽이 나타나는데, 선해무리굽의 경우는 내저원각이 없고 포개 구운 예가 많다는 점 등이 새롭고 중요한 사실로 여겨진다.

○ 窯道具

지금까지 퇴적층 조사에서 나타난 층위별 출토 자기의 상황에 대해 주요 내용을 간략히 기술하였다. 한편, 3차에 걸친 발굴조사에서 대량의 갑발을 포함한 각종의 窯道具들이 출토하여, 자기의 번조에 관련된 기술적인 문제와 변화양상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중국도자기 기술의 유입에 관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는 중요한 자료들이 많아 특별히 다루기로 한다.

서리요지의 퇴적에는 자기파편 이외에도 다량의 匣鉢을 비롯하여 갑발받

침, 각종의 磁器받침등과 같은 요도구가 포함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서리요지의 자기생산이 갑발번조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갑발의 퇴적량이나 출토된 유물의 상태로 보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퇴적의 층위에 따라 자기의 기종과 기형 등의 특징이 다르게 나타났는데, 자기제작에 사용되었던 요도구 역시 製磁時期에 따라 크기·형태·질 등이 조금씩 다르므로, 이들의 종류와 변화양상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겠다.

1. 匣鉢

갑발은 번조시 그릇에 가마안의 잡물이 묻는 것을 방지하거나 불길이나 고르게 미쳐 그릇을 잘 익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ㄱ모양의 도구로, 내화토계통의 흙으로 빚어 만든다. 서리요지에서 출토된 갑발은 형태에 따라 크게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가) ㄱ모양 갑발

본 요지에서 출토된 갑발중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형태로, I기층에서 IV기층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출토된 일부의 갑발에 자기파편이 붙어있는 형태로 보아, ㄱ모양으로 제작한 후 가마안에서는 갑발을 뒤집어 ㄱ모양으로 주둥이가 밑으로 향하게 하여 자기를 덮어 씌워 번조하였다. 즉, 가마 바닥에서부터 갑발을 얹어 자기를 씌워 일단 수평을 유지한 뒤, 위로 올라간 편평한 저면 위에 다시 그릇을 놓고, 그 위에 똑같이 갑발을 얹어서 그릇을 차곡차곡 쌓아 올라가는 소위 匣鉢覆燒法을 사용했다. 이 방법은 서리요지 전기간에 걸쳐 사용되었으며, 갑발의 直徑이 큰 것은 그릇을 올려놓았던 윗면의 중앙이 그릇의 하중으로 오목하게 내려앉아 M자형과 유사한 형태를 이루고 있다.

이 갑발은 퇴적층위에 따라 크게 두 가지의 형식과 질로 구분할 수 있다. I기와 II기층에는 직경이 15~20cm, 높이가 10cm 내외, 두께 0.7~1cm 정

도인 것이 많고 대체적으로 크기가 작으며 기벽이 얇다. 또한 갑발의 태토는 모래알갱이가 비교적 적고 입자가 고운 내화토이며, 내외면 벽에 성형시 생겨난 물레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는 예가 많으며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다듬어졌다. III기와 IV기층에는 대체로 직경 20~25cm, 높이 10~12cm, 두께 1.0~2.5cm 정도의 갑발이 대부분으로, 크기도 커지고 두께도 두꺼워졌다. 태토에도 입자가 굵은 모래알갱이가 많이 섞여 있어 다소 둔중해 보인다.

(나) 深鉢形 匣鉢

□모양의 갑발 이외에도 직경에 비하여 속이 깊고 주둥이가 다소 밖으로 벌어진 深鉢形의 예가 있다. 대체적으로 크기가 작고 두께가 얇으며, 태토의 모래알갱이도 비교적 많은 편으로, 수량은 많지 않다. 이것은 甁같이 폭이 좁고 긴 상부를 가진 그릇의 제작에 갑발 혹은 갑발뚜껑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대부분 III기층과 IV기층에서 출토되었다.

2. 갑발받침[匣鉢台]

가마바닥에 놓고 그 위에 그릇과 갑발을 포개어 쌓는데 사용하는 요도구로 추정되며, 원판모양에 높이 3~5cm 정도의 나즈막한 형태이다. I기층부터 지속적으로 나타나며, 받침의 두께와 태토의 질은 □모양 갑발의 변화양상과 동일하다.

3. 磁器 받침

본 요지에서는 갑발의 附屬具라고 할 수 있는 磁器의 받침도 출토되었다. 燔造時 갑발 위에 그릇을 직접 올려놓고 자기와 갑발을 포개어 쌓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지만, 드물게 갑발 위에 받침을 놓고 그 위에 그릇을 올려 굽는 것으로, 출토된 갑발파편의 실례를 통해 확인되었다. 이러한 방법은 그

릇의 바닥을 보다 깔끔하게 만들기 위해 특별히 사용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출토된 자기의 받침은 형태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상하가 고르고 길쭉한 원통형과 약과처럼 둥글납작한 작은 원판형, 그리고 둥근 고리처럼 만든 고리형의 받침이 그것이다. 이들 받침을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圓筒形 받침

棒形이라고도 하며 크기가 직경 3~4cm, 높이 5~6cm 정도의 원통모양이다. 태토는 비교적 모래알갱이가 적은 내화토이며, IV기층에서 주로 출토된다. 받침의 직경이 작은 것으로 미루어 제작하려고 하는 그릇의 굽지름보다 작게 만들어 굽안쪽의 바닥에 받쳤던 것으로 추정된다. 대체적으로 윗면에는 백색내화토를 받쳤던 흔적이 남아 있다.

(나) 圓板形 받침

보통 ‘개떡’이라 부르는 것으로 크기가 직경 3~10cm, 두께 0.4~0.6cm 정도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모래알갱이와 같은 잡물이 적은 내화토로 만들었으며, 대부분 IV기층에서 나타난다. 번조시 그릇의 굽바닥이나 굽안쪽 바닥에 깔았던 것으로, 표면에 내화토를 받쳤던 흔적이 남아 있는 예가 많다. 그러나 출토품의 일부는 내화토의 흔적이 없고, 대신 윗면 세 곳에 아주 작고 예리한 철물이나 돌조각과 같은 것으로 찢렸던 듯 한 작은 구멍이 등간격으로 있는데, 이것은 고려중기에 砵石을 받침으로 사용할 때 돌의 예리한 모서리에 의해 생기는 자국과 동일하여 주목된다.

(다) 고리형 받침

둥근 고리와 같은 형태로 크기는 직경이 4~8cm 내외이며 두께가 0.5~1.5cm 정도이다. III기층과 IV기층에서 출토되었으며 수량이 적다. 잡물이 적은 내화토로 만들었으며 윗면에는 내화토를 받쳤던 흔적이 남아 있다.

V. 서리요지의 활동시기에 관한 검토

서리요지에 대한 발굴조사결과가 학계에 알려지자, 새로운 사실에 매우 놀라워하면서 가장 궁금해 한 것은 역시 그동안 논란되어왔던 청자의 발생시기에 관한 문제였다. 특히 이때까지 우리나라 청자나 백자의 발생문제에 가장 핵심적인 사안으로 여겨왔던 해무리굽 보다 더욱 이른 시기의 존재들이 확인됨으로 인해, 우리나라 자기의 발생문제에 대한 또 한차례의 논쟁을 불러일어킨 바 있다. [1990년 12월 1일과 2일에 걸쳐 한국도자사연구회가 주관한 제1회 東垣기념학술대회에서 ‘韓國 磁器發生에 관한 제문제’라는 주제하에 여러 의견이 발표된 바 있다.] 이 문제는 아직도 정확한 결론을 내리기 힘든 부분으로 최근의 이와 관련된 연구성과를 토대로 발표자 나름대로의 시기문제를 언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해무리굽의 발생 및 존재시기에 대해 살펴본 다음, 이를 근거로 서리요지의 전체적인 활동시기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1) 해무리굽의 시기 문제

해무리굽은 완·발류등의 굽을 깎을 때, 편평한 바닥면의 가운데를 폭이 좁고 둥글게 안으로 깎아내고 접지면의 폭은 넓게 남겨 두어 굽바닥의 모습이 마치 해무리와 비슷하다하여 붙여진 굽명칭으로, ‘달무리굽’ 혹은 ‘日暈 굽’이라고도 부른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玉璧形 굽’이라 부르고, 일본에서는 ‘蛇目高臺’라 하며, 歐美에서는 ‘도넛츠형 굽’이라 부른다. 보통의 굽형태는 접지면의 폭이 좁은 수레바퀴 형태의 輪形 굽인데, 이에 비해 해무리굽은 일견 하여 형태가 특이하다. 더구나 이 독특하게 생긴 굽형태가 중국에서는 唐代에 크게 성행하다가 五代 이후에는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사용시기를 비교적 분명히 알 수 있어 일종의 標識的인 유물로 오래전부터 주목받아왔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1930년대부터 고려청자요지에서 이 형식의 굽을 갖춘

유물들이 발견되어 고려청자의 발생시기에 관한 논의의 주요 근거가 되어왔다.

그러나 문제는 중국에서는 唐代의 표준적인 유물형식으로 알려진 해무리굽완·발류가, 우리나라에서는 청자와 백자에, 일본에서는 9세기무렵의 綠釉陶에 유사한 형식이 나타나는데, 형식상의 유사성은 충분히 인정되어 중국으로 부터의 영향을 부인하는 학자는 없지만, 다만 전체 기형의 차이나 굽 접지면의 폭 차이등을 들어 발생시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국내 학자들 간에는 통일신라 유적에서 출토한 해무리굽청자류를 놓고 국산인지, 중국제인지 조차도 의견이 다른 형편이다. 지금까지 국내의 초기 청자나 백자요지가 여러곳이 더 발견되면서 해무리굽에 관한 자료나 연구성과도 어느 정도 쌓여가고 있지만, 정작 중국측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두지 않고 있으며, 확실한 논문이나 보고서가 없이 단지 唐代의 양식이라고만 단정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나라의 청자발생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인정되고 있는 浙江省 일대의 越州窯에 관한 정식 발굴조사가 아직도 전무한 실정이고 간단한 시굴조사나 지표조사에 의존하여 확실한 편년자료 없이 개괄적인 연구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궁금중이나 문제해결에 별반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하에서 해무리굽의 발생시기를 논하는 것 자체가 무리일 수 있지만, 어쨌든 지금까지의 자료를 토대로 하여 국내학자들은, 이 형식의 청자나 백자의 발생시기를 9세기전반, 9세기 후반, 10세기전반, 10세기후반등 여러 설을 내놓고 있다.

최근에 일본의 가메이(龜井明德)씨는 이 문제에 대해 중국의 상황과 일본내의 정황을 폭넓게 연구한 논문을 발표하였다. [龜井明德, 「唐代玉璧高台の出現と消滅時期の考察」, 『貿易陶磁研究』 13집, 1993.] 결론적으로 이 해무리굽(중국에서는 玉璧底라 부른다)이란 독특한 형식의 굽은 중국에서 7~8세기의 형성기를 거쳐 9세기전반에 크게 성행하였고, 9세기후반인 870년경에는 소멸되었다고 보고 있다. 중국 唐代의 굽의 형식이 平底에서 옥벽저로,

다시 유행급으로 변화하는데, 9세기후반부터는 일반적인 유행급으로 변한다고 보며, 일본에 나타나는 옥벽저의 모방도기들도 당연히 중국에서의 성행 시기에 그 영향으로 제작되었다고 보고 있다. 한국청자의 모방도 월주요등의 도공이 이주하여 만들었을 개연성이 높아 중국과 비슷한 시기에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주장하고 있다.

필자도 기본적으로 이 의견에 동의하는 입장인데, 명확한 편년자료는 아직 없지만, 당시 우리나라·중국·일본 3국간의 문화교류 양상을 감안할 때, 비슷한 형식의 것은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졌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토기의 경우, 통일신라 8세기무렵에 성행한 인화문토기에는 당시 중국의 三彩陶에 보이는 기형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으며, 綠釉 등의 鉛釉系 시유도기들의 출현 역시 일본과 마찬가지로 당삼채의 영향이 분명한 것 같다. 나아가 통일신라 佛像들의 기본 양식도 중국 불상양식의 흐름에 기본적으로 따르고 있는 것을 보면, 자기의 발생문제 역시 이런 큰 흐름 속에서 일단 파악하는 것이 보다 순리적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서리요지나 최근에 발굴조사된 시흥시 방산동, 황해도 원산리등의 초창기 가마에서는, 벽돌로 쌓은 오름가마를 사용하여 청자를 구웠는데, 벽돌가마는 중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이 시기 외에는 거의 진흙가마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시기의 가마축조와 자기번조에 중국의 영향이 절대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자기번조시 사용된 소위 M자형 갑발이나 갑발받침대등의 窯道具類도 당시 중국의 월주요계통의 가마에서 사용된 것과 완전히 일치하고 있으며, 번조시 내화토를 여러 곳에 얹게 빚어 받치는 받침방법도 월주요와 동일하다. 이런 사항들을 통틀어 생각할 때, 중국과 유사한 형식의 자기를 제작한 시기 역시 거의 중국과 일치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리라 생각된다.

위의 정황들을 고려할 때, 해무리굽이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시기가 적어도 870년대 이전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된다.

(2) 先해무리굽의 시기 문제

앞서 이야기한 대로 서리가마의 퇴적층 조사에서 해무리굽층 보다 이른 시기의 퇴적층이 존재함이 밝혀져 종전까지 해무리굽 위주로 연구되어온 우리나라 자기발생문제에 커다란 충격을 던져 주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자기 발생시기가 지금까지 생각해 온 것 보다 더 일찍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었다.

선해무리굽은 굽의 형태상으로는 해무리굽 이후에 나타나는 윤행굽과 일견하여 별반 차이가 없다. 다만 선해무리굽이 달린 완이나 발류의 기형·제작방법·태도·유색 등이 해무리굽과 다를 뿐만 아니라 이후에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통식의 윤행굽의 특징들과도 다르며, 특히 해무리굽 보다 앞 시기의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 층위학적으로 증명되었기 때문에, 각 형식들간의 선후관계에 대한 이해를 편하게 하기 위해 임의적으로 ‘선해무리굽’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다.

그런데 중국의 경우, 청자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3세기 이후 唐代 초기까지 완·발류에 달린 굽은 낮은 원통을 붙인 평저형이고 굽바닥의 가운데를 파 내어 낮은 굽다리를 만든 것은 당대 중반 무렵부터 나타난다.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 토기도 마찬가지로 삼국시대 토기에는 낮은 굽다리가 달린 완·발류가 없다가 통일신라시대가 되어서 안압지 등의 유적에서 보이기 시작한다. 이런 흐름으로 보아 평저에서, 바닥을 약간만 파낸, 보다 만들기 쉬운 해무리굽이 나타났다고 생각되지만, 중국이나 일본의 유적에서는 해무리굽과 함께 선해무리굽 같은 윤행굽이 동시에 출토되고 있다. 해무리굽이 비록 8~9세기 무렵 당대의 전형적인 굽형식이 분명하지만, 이와 함께 이미 윤행굽같이 접지면의 폭이 좁아진 굽형식도 함께 사용된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일반적인 상황 때문에 해무리굽의 존재에만 신경을 썼지만, 서리요지에서 선해무리굽이 먼저 나타나고 뒤이어 해무리굽이 나타나는 다소 이외의 상황이 나타났다. 때문에 여기서 중국에서는 동시기

에 존재한 두 형식이 왜 우리나라에서는 선해무리굽이 먼저 나타나고 해무리굽이 나중에 나오는가에 대한 의문이 당연히 생긴다. 이 문제에 대해 지금은 전혀 알 길이 없다. 다만 해무리굽완이 중국에서 飲茶用的 특수한 용도의 그릇일 가능성이 높은데, 처음에는 중국에서 보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기형이 들어와 우리나라에서 자기의 생산이 시작되었지만, 이후 어떤 목적에 의해 특수용도의 해무리굽완류가 생산되다가 차츰 이것이 주류가 되면서 초기청자의 대표적인 기형이 되어, 중국에서 사라진 후에도 우리나라에서는 계속 생산되면서 변형해무리굽으로 까지 발전하게 되지 않았나 하고 막연하게 생각해 볼 뿐이다. 이런 추측의 근거로는 선해무리굽시기에 아주 소량이지만 해무리굽이 생산되고 있었다는 사실 때문이다. 이때는 생산량으로 보아 해무리굽완류는 매우 특수한 존재였던 것 같다. 그런데 뒤이어 해무리굽이 본격적으로 제작되면서 크게 유행하지만 선해무리굽류는 반대로 소량만 나오다가 점차 사라진다. 이런 출토상황으로 미루어 보아 일단 선해무리굽 시기에 이미 해무리굽이 존재하고 있었음은 분명하고 해무리굽 시기에 선해무리굽이 어느 시기까지는 존재하였음은 사실이다. 이런 현상은 形式論의 소위 '시리에이션' 개념으로 볼 때 당연한 사실로, 어떤 형식이 처음 발생할 때는 소량이다가 본격적으로 유행하면 양이 크게 늘어나고 다시 쇠퇴기에 들면서 양이 줄어들다가 마침내 소멸되는 일반적인 현상이, 서리의 해무리굽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선해무리굽이 해무리굽시기에 나타난다고 해도 별로 이상할 것이 없는데, 자칫하면 이런 형식론의 기본개념을 무시하고 단편적으로 판단한다면 시기문제에 혼란을 초래하기 쉽다.

선해무리굽의 발생시기에 관한 문제는 자체만으로는 단정하기 힘들고, 다만 해무리굽의 사용시기와 관련하여 유추해 볼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이 문제에 크게 참고되는 자료가 최근 북한에서 발굴조사된 바 있다. 1989년~1990년에 걸쳐 황해남도 봉천군 원산리에서 4基의 초기청자요지가 발굴되었는데, 2호묘에서 해무리굽청자류와 함께 淳化3년(992년)명이 새겨진 靑磁祭

器類가 여러점 출토하였다. 이 순화명청자가 출토한 2호요는 벽돌가마이며 크게 4차례 개축되었는데, 순화명청자는 이 요의 마지막 4차시기의 가마에서 나왔다고 한다. 그리고 3차가마는 출토된 청자가 고려 3대 正宗(946-949)의 무덤 것과 같아서 늦어도 10세기 중엽 이전에 개축되었다고 보며, 이런 정황들로 보아 1차 가마는 10세기초 또는 그 이전에 만들어졌을 것으로 북한에서는 추정하고 있다. [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조선유적유물도감』 고려편(3), 1992, 평양, pp. 306~321] 그런데 2호요의 가장 빠른 시기의 1차 가마에서는 우리 서리요의 제 II기층에서 유행한 花形접시가 많이 나와 연대추정에 크게 참고가 되는데, 원산리 가마의 편년에 의하면 서리요지의 II기층은 늦어도 10세기초나 그 이전의 것이 되는 셈이다. 그리고 이곳 원산리 가마에서도 해무리굽이 나온다고 하나 그 형식이나 출토층위, 수량 등에 관해서는 아직 자세한 보고가 없다.

또한 작년엔 경기도 시흥시 방산동요지에서 해강도자미술관이 발굴조사 하여, 9~10세기경의 청자와 백자를 생산했던 벽돌가마를 발견하였다. 이 요지는 서리의 초기상황인 II기층과 가마구조·출토자기·窯道具등이 매우 유사하며, 특히 서리 II기층에서 출토하는 화형접시류가 많이 나왔다. 그리고 또한 전형적인 중국식 해무리굽으로 볼 수 있는 굽 접지면의 폭이 매우 넓은 편들도 소량 나타나고 있어 전체적으로 방산동 요지는 서리요지의 II기층 상황과 비슷하다. 그러나 여기서도 확실한 편년자료가 없어 올해 다시 시도될 발굴조사의 결과가 기대된다.

이와 같이 소위 선해무리굽청자나 백자를 생산했던 초기가마들이 남, 북한에서 계속 발굴조사되고 있지만, 서리와 같이 해무리굽 유행시기로 이어지지 않고 또 진흙가마를 사용하기 이전의 상황들만 존재하고 있다. 이런 점을 볼 때, 처음에는 서남해안의 넓은 지역에서 중국식의 벽돌가마를 운용하여 보다 일반적인 형태의 선해무리굽류가 생산되면서 해무리굽완류는 특수한 용도로 소량만 제작되었지만, 어느 시점부터 해무리굽완류가 우리쪽 상황과 맞아 떨어지면서 크게 유행하게 되고 가마도 우리 형편에 맞는 진흙

가마 구조로 변한 것 같다.

(3) 서리요지의 활동시기

위의 사실들을 토대로 하여 서리요지의 활동시기를 고찰해 보기로 한다. 일단 퇴적층조사에서 나타난 층위상의 변화양상을 해무리굽을 중심으로 하여 요약해 보면, 先해무리굽청자시기(I기-a) → 先해무리굽백자시기(I기-b) → 先해무리굽·해무리굽혼용시기(II기) → 해무리굽전성시기(III기) → 퇴화해무리굽시기(III기말) → 輪形굽시기(IV기)로 상대편년을 설정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 각 단계별의 시기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다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절대편년의 자료가 전무하고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만한 자료들이 거의 없는 형편이어서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불가능하며, 학자들에 따라 크게 다른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다만 지금까지 연구된 결과를 바탕으로 조심스럽게 추정해 볼 뿐이며, 또한 많은 부분을 중국측의 자료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먼저 서리 II기층의 연대는 선해무리굽이 성행한 시기지만 이미 해무리굽이 나타나고 있어 늦어도 중국에서 해무리굽이 소멸되는 870년 무렵 이전인 9세기 중엽경에는 활동하였으리라 생각된다. 비록 북한에서 원산리 2호가마 1차시기를 10세기초나 그 이전으로 본다는 다소 애매한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해무리굽의 연대관을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시기를 다소 올려보아도 좋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서리 I기층은 먼저 청자가 출현하고 백자가 뒤이어 나타나는데, 서해안 일대의 초기청자요지의 영향을 받아 일단 청자를 만들고 곧이어 백자를 생산하면서 백자전문생산요로 바뀐 것으로 생각된다. 이 과정에서 백자의 발생은, 당시 중국의 상황이 크게 南靑北白의 요형형태를 이루어 남방에서는 백자의 생산이 거의 없는 반면 북쪽에서는 유명한 邢窯백자요동이 존재하고 있어 아무래도 백자의 발생은 중국북방 지역으로부터의 영향이라

생각된다.

I기층의 시작시기는 월주요에서 갑발의 성행이 9세기 들어서면서 본격화된 점으로 보아 上限은 9세기 이전으로 올라가지 않을 것 같다. 최근 浙江省 寧波市 부근의 唐代 청자요지조사에서 819년 무렵에 사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갑발 및 요도구들이 출토한 바 있다. [林士民, 『勸察浙江寧波唐代古窯的收穫』, 『中國古代窯址調查發掘報告集』, 文物出版社, 1984] 이들의 형식이 I기층 것과 일치하는 점등으로 보아, 이들이 사용된 9세기전반 무렵에 서리 I기층도 존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I기층은 퇴적범위가 작고 자편의 수량도 많지 않아 이 시기의 폭은 아주 작을 것으로 생각되어, 서리요지의 개시시기는 II기층과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서리요지의 開窯시기는 9세기 전반의 늦은 시기로 잠정적으로 두고자 한다. 그리고 백자의 발생은 퇴적상으로 보아 청자에서 곧바로 백자로 넘어온 감이 짙지만, 발굴당시 I기층을 a, b로 나눈 것은 바닥면과 퇴적층을 구분하기 위한 다소 의도적인 구분이었고 조사면적도 매우 협소하였기 때문에 I-a층이 청자만이 아니라 백자와 공존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된다. 어쨌든 I기층의 퇴적상황으로 보아 백자는 늦어도 9세기 전반기말엽경에는 발생하였다고 믿어진다.

서리요지의 下限은 해무리굽완류가 우리나라에서는 적어도 11세기 초까지는 계속된 것으로 추정되어, IV층은 일단 11세기 이후에 형성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 층에서 통상 11세기로 분류되는 형식의 완류와 더불어 특히 철화백자류의 성행으로 보아 11세기중엽까지는 존속되었으리라 믿어진다.

VI. 용인 서리 고려백자요지의 의의

용인 서리요지에 대한 지금까지의 조사연구된 결과를 바탕으로 나름대로

그 의의를 크게 4가지 방향으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첫째는, 세계도자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도자기의 나라로 불리는 한국에서 9, 10세기경에 이미 백자를 본격적으로 생산하였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요지로서 의의가 크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백자는 고품토를 태토로 사용하고 투명에 가까운 유약을 석위 1300°에 가까운 고온으로 번조한 고급자기로 제작과정의 청자보다 어렵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청자가 원시청자 단계를 거쳐 3세기경 부터 본격적인 청자가 만들어지지만, 백자는 6세기 후반 무렵에 북방지역에서 발생하게 된다. 이후 중국도자는 청자와 백자가 공존하면서 南宋代까지 계속되지만 元代에 樞府白磁와 靑華白磁가 나타나면서 세계도자사의 흐름은 백자위주로 바뀌게 된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청자나 백자를 번조할 수 있는 기술이 없어 16세기 까지 중국과 우리나라에서 자기들을 수입하여 오다가 임진왜란 당시 조선의 자기장들을 데려가 이들에 의해 17세기 전반부터 비로소 자기제조가 이루어진다. 한편, 유럽지역에서는 전통적으로 低火度 鉛釉계통의 도기류들만 생산한 관계로 고화도 번조의 청자 조차 만들지 못하고 중국에서 막대한 양의 자기를 수입하다가 18세기초가 되어서야 백자제작에 성공하였다. 말하자면 중국과 한국을 제외한 지역에서 백자를 만들기 시작한 것은 불과 200~300백년전에 불과한 일이다.

이렇게 세계도자사에서 일본이나 유럽에서 백자가 17세기이후에나 만들어진 점을 비교할 때, 실로 서리요지는 중국 唐代의 저명한 邢窯백자와 더불어 천여년전에 이미 수준높은 백자를 생산한 세계도자사상 특기할 만한 요지로 평가되며, 아울러 한국도자기 제작기술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증명해 주는 자랑스런 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되고 있다.

둘째는 서리요지가 한국도자사 연구에 차지하는 중요성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서리요지 발굴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자기 발생 및 초기상황을 연구하는 데에 획기적인 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유명하다. 발굴조사에서 최초로 벽돌가마의 존재를 확인한 점이나, 벽돌가마에서 진흙가마로 순차적으로 변해

간 사실을 처음으로 증명한 사실도 중요하지만, 특히 거대한 퇴적층을 정밀하게 조사하여 4개의 층위를 밝혀내고 이에 따라 확실한 상대편년의 체계를 수립한 점은 서리요지 발굴조사에서 거둔 최대의 성과로 손꼽히고 있다. 이를 통해 해무리굽보다 이른 시기의 선해무리굽이 존재하였음이 밝혀져 기존의 청자발생에 관한 연구의 기본 방향이 대폭 수정받게 되면서 우리나라 자기 발생문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다. 비록 아직까지는 절대편년에 관한 자료가 없어 시기문제를 단정할 수 없지만, 백자의 발생과 초기 도자사의 연구에 중요한 근거자료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서리요지는 우리나라 자기의 발생과 초기상황연구에 표준적인 요지로 국내외에 그 중요성이 알려져 있다.

셋째는 가마유구의 중요성이다. 벽돌가마와 진흙가마가 중첩되어 존재하는 경우도 현재로서는 서리요지가 유일하며, 특히 83m에 달하는 대형의 진흙가마유구는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장대한 규모를 자랑한다. M자형의 거대한 퇴적이 쌓인 골짜기 사이에 비스듬히 뻗어 올라가는 가마는 겉모습만으로도 보는 사람을 압도할 만큼 장관을 이루지만, 세부 구조상으로도 오랜 기간의 사용으로 인해 반들반들하게 유리질화된 가마벽이나 갑발을 차곡차곡 쌓아 만든 매우 건축적인 모습의 가마벽의 축조상태, 그리고 이 장대한 가마를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2.7m 간격으로 나 있는 23개의 출입문도 남아 있다. 이렇게 한눈에 가마의 구조와 운용을 살펴볼 수 있을 만큼 유구가 잘 남아 있는 경우는 흔치 않은 일이다. 더구나 발굴당시 최후에 사용된 진흙가마의 유구가 너무 중요하여 이의 훼손을 막기 위하여 가마의 중첩상황을 일부만 확인하고 발굴을 중단하였지만, 가마터 유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상황이 담겨져 있어 가마유적의 표본으로 삼기에 이보다 좋은 유적은 없다고 단정할 수 있다. 따라서 서리요지는 학술적 가치 뿐만 아니라 고려초기 窯業의 높은 수준을 한눈에 설명해 주고 가마유적에 관한 거의 모든 사항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교육적 가치도 대단히 높은 유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여기서 이와 관련하여 서리가마터를 교육장화하는 문제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미 국내외에서 발굴된 가마유적에 保護閣을 짓고 교육장 내지 관광 자원화하는 경우가 많다. 중국이나 일본의 경우는 차치하고라도 북한에서 발굴조사되어 본고에서도 인용한 원산리요지도 이미 보호각을 지어 발굴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일반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인근의 광주 번천리 백자가마를 발굴된 상태로 보호각을 지어 보존하고 있고, 강진 사당리가마도 일찍부터 보호각을 지어 보존하면서 지금은 바로 옆에 청자박물관을 지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광주시에서도 무등산의 충효동 분청사기가마터를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 발굴조사를 실시하고 보호각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전북 부안에서도 청자가마터를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 지금 한창 발굴조사를 하고 있다. 대전시에서도 유사한 프로젝트로 청자, 분청사기요지를 발굴조사하였고, 시흥시 방산동 청자요지 발굴조사도 이런 계획하에 실시 중이다. 용인 서리 가마터는 위의 예들에 비해 학술적인 중요성은 물론, 시각적으로나 교육적으로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되어 인근의 處仁城유적과 연계하여 용인은 물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고려시대 유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물론 서리요지는 규모가 워낙 방대하고 발굴조사가 아직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이며 우리나라의 현재 기술 수준으로 가마유구가 노출될 경우 완벽하게 보존시킬 수 있는가라는 문제등이 있지만, 앞으로 국민의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네째는 용인의 地方史的인 관점에서 서리요지의 의의를 살펴볼 수 있다. 용인시에는 서리 외에도 조선시대 말기까지의 요지들이 각지에 남아 있다. 그동안 학계에 알려진 용인시내의 요지를 보면, 전술한 이동면 서리일대의 고려백자·분청사기·조선시대의 중기백자·말기백자요지 외에도 이동면 묵리, 내사면 대대리, 남곡리, 용인시 해곡리, 호리, 운학리에 조선시대 전기의 백자요지가 있다고 보고되어 있으며, 원삼면 학일리에는 분청사기요지가, 원삼면 문촌리, 외사면 용천리에는 조선후기 백자요지가 알려져 있다. 근래에

는 도예가 한익환씨에 의해 외사면 고안리에서 인화분청이 주류를 이루는 분청사기요지가 발견되었다. 이와 같이 용인시는 일찍부터 요업이 발달하면서 우리나라 도자기 발달에 인근의 광주시와 더불어 크게 기여한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같은 용인시의 요업발달의 역사가 서리요지에서부터 출발되고 있기 때문에, 본 요지가 이 지역에 끼친 영향도 소중히 생각할 사항이다.

VII. 맺 음 말

지금까지 용인 이동면 서리의 초기백자요지에 대한 발굴조사의 내용과 편년, 의의등에 관해 살펴 보았다. 무엇보다 필자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서리 발굴조사의 의의는, 발굴 당시, 요지에 대한 본격적인 학술발굴조사가 별로 없었던 상황에서 많은 어려움을 무릅쓰고 새로운 자료를 찾기에 애쓴 결과, 한국도자사 연구에 획기적이라 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고, 이후 이를 기점으로 여러 연구자나 단체들이 도자사연구를 위한 요지발굴조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박차를 가하여 전국 각지에서 각종의 요지발굴조사가 활발히 전개되어 도자사 연구가 크게 활성화되는데 기여하였다는 점이다. 그리고 서리요지가 우리나라 자기발생과 전개과정의 연구에 하나의 표준적인 유적이 되었고, 요지발굴조사의 방법과 해석에도 어느 정도 도움을 주었다는 사실에 약간의 자부심을 갖고 있다.

그러나 퇴적층조사에 의해 상대편년은 세웠지만, 아직도 시기문제에 대해서는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다만 우리나라의 청자나 백자의 발생시기가 중국의 상황과 연관지어 볼 때, 고려가 아닌 통일신라 후기인 9세기 어느 무렵이라는 가설만 내놓고 있을 뿐이어서 미안한 심정이 앞선다. 지금 으로서는 앞으로 또다른 신자료들이 나오고 더욱 많은 연구성과가 이루어져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고대할 따름이다.

또한 앞으로 한국도자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서리요지에 대한 다각도의 분석과 연구가 행해져, 미술사적인 것 뿐만 아니라 요업의 운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연구되어 앞으로의 요지연구에 대한 특출한 모델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우선 요지의 위치가 해안에 가까운 당시의 일반적인 상황과 달리 서해안에서 내륙으로 깊숙히 들어와 자리 잡은 이유에 대한 규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서리에서 요업을 운영할 수 밖에 없었던 역사적인 배경이나 수요집단의 문제, 타 지역과의 교역관계 등에 대한 인문과학적인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자기번조에 사용된 태토나 연료등 각종 재료의 수급문제, 태토나 유약의 분석을 통한 타 지역과의 비교를 위한 자연과학적인 연구, 가마의 구조나 각종 요도구의 이용에 따른 자기의 변화상에 대한 기술사적인 연구 등등 앞으로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들이 남아 있다. 필자는 서리요지의 발굴조사를 실시한 책임자의 한사람으로 이의 연구에 대해 계속 정진할 것을 다짐하는 것으로서 맺음말을 대신하고자 한다.

「龍仁 西里 고려백자요지 발굴조사 내용 및 의의」에 대한 토론요지

강 경 속 (충북대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I

용인 서리 고려백자가마터 발굴결과, 밝혀진 의의는 모두 네가지로 김재열선생님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서리가마터가 발굴되기 시작한 1984년 이후 우리나라 도자사학계는 청자발생에 대하여 활발한 학술토론이 전개되었고 또한 이론적인 발전에도 기여한 바 큼니다. 한국은 중국과 더불어 일찍부터 도자공예에서 괄목할만한 발전을 해온 나라라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바입니다.

II

용인 서리 가마터와 관련하여 우선 큰 문제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청자시기문제와 관련하여 수요층에 대한 문제입니다.

토기공예에서 자기공예로의 전환은 단순한 생산상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새로운 기술이 도입될 때는 정치와 경제적인 배경이 있었을 것이며

이것을 수용할 수 있는 사회적 위치를 갖춘 수요층이 있었을 것인데 이들은 모두 서로 유기적인 관계에 놓여있다고 봅니다. 서리 1기층이 대체로 819년 무렵에 존재했을 가능성을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819년경에 청자를 사용할만한 수요층이 이미 형성되었다고 보겠는데, 선생님께서는 용인지방을 중심으로 어떤 수요집단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용인지방에 당시의 豪族세력이라고 할만한 계층이 존재했는가? 아니면 개경과 연관된 어떤 후방세력으로서의 용인이라는 성격은 아니었는가?

역사학에서는 호족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규명합니다. 이들은 일정한 행정구역을 가지고 있으며 그 영역은 城을 쌓아 스스로를 城主라고 일컬었습니다. 또 이들 성주들은 군사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장군이라는 성격을 지니기도 했고 또 이들은 독립된 경제력이 있었으며 외국과는 무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과 관련해서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두번째 질문은 서리 퇴적층의 형성시기문제입니다. 제1층은 9세기초, 제4층은 11세기중엽까지로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6m 높이의 4개층위의 형성은 9세기초~11세기중엽까지 대략 250여년은 된다는 결론입니다. 토론자는 고고학적 층위의 형성을 잘 모릅니다. 얼핏 산술적인 계산으로는 현층위의 형성기간은 약 50~60년이라는 계산이 됩니다.(물론 형성시간의 폭은 서로 다르겠지만) 서리의 경우 폐기물이 가마의 좌·우에 퇴적되었다고 보는데, 이러한 상황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6m의 퇴적이 250여년간 형성되었다고 생각하기에는 왠지 이해가 되지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하튼 두가지 측면에서 해석됩니다. 즉, 6m의 퇴적이 약 250여년간 퇴적되었던지, 아니면 퇴적기간이 보다는 짧은지 하겠는데 서리유적 자체내 편년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과 관련해서 좀더 말씀드린다면 “해무리굽완류의 연대폭을 100~150년으로 해두면 크게 어긋남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1차보고서에서 기술했습니다.(1차보고서 1987, p. 220) 이 보고서는 1차발굴 결과만을 다루었기 때문에 2·3차 발굴에서 확인된 선해무리굽(퇴적1층위)은 포함되

지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만, 그렇다면 1차보고서에서 취급되지 않은 선해무리굽의 형성시기는 대략 그 기간이 얼마나 된다고 보시는지요?

중국과 일본의 경우 해무리굽 제작시기 기간을 100~150년으로 잡는다는 가정 아래 計量的屬性分析을 통하여 73개의 亞式을 찾아냈고 1식을 1년으로 보면 73년이요, 2년으로 보면 146년이라는 시간폭이 나왔습니다.(1차보고서, p. 220) 보고서에서는 대략 2년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면 해무리굽이 거의 끝나는 때가 11세기초라고 볼 때, 선해무리굽청자의 제작이 9세기초로 올라갈 수 있나? 하는 점입니다. 자세한 분석은 앞으로의 보고서에서 밝혀지겠지만, 현재 정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선 궁금해서 질문했습니다.

세번째 질문은 위의 질문과 연관이 있습니다. 발표요지에서는 “순화3년” 명칭자가 출토된 황해남도 봉천군 원산리가마와 서리가마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서리가마의 Ⅲ기층은 늦어도 10세기초나 그 이전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서리의 Ⅳ기층은 적어도 10세기초보다는 조금은 시대가 뒤일텐데, 발표자께서는 원산리가마터 발굴결과를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원산리가마는 순화3년 992년이라는 명문이 나온 가마이므로 청자연구에는 절대적인 편년기준을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원산리가마 발굴보고에 보면 순화3년이 출토된 2호요는 4차례 개축했다고 하므로 대체로 4번의 개축시기가 보고내용에 따르면, 약 100년에 달합니다. 그렇다면 한번 개축해서 약 25년(똑같이 1/4등분되는 것은 아니지만)을 사용했다는 말인데 과연 그랬을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1년에 한번 그릇을 구워낸다고 해도 4번 개축에 약 100번이나 사용했다는 단순한 계산을 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서리 경우도 약 250여년간을 한곳에서 작업했으며 벽돌가마에서 토축가마로 이행하면서 과연 250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었겠는가? 하는 의문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네번째 질문은 발표요지에서 “벽돌가마요상 퇴적에서 해무리굽편이 나왔으므로 퇴적의 Ⅱ기층과 Ⅲ기층이 관계되는 것으로 믿어진다.”라고 하였습

니다. 그러면 선해무리굽과 관계되는 1기층은 벽돌가마에서 제작된 것이 아닌지요?

III

· 이상의 질의내용은 개인적인 궁금증에서 나온 것이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3차에 걸친 발굴결과가 종합적으로 정리되어 나온 보고서가 아직 없는 관계로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1차보고서와 같은 모범적인 보고서가 출간되기를 기대합니다.

「용인 서리 고려백자요지 발굴조사 내용 및 의의」에 대한 토론요지

김 영 원 (국립공주박물관장)

I. 머 리 말

경기도 용인 서리요지는 우리나라 청자와 백자의 발생연대를 시사해 준 중요한 요지로 평가되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없다.

더욱이 이 요지는 한국도자사와 동양도자사 그리고 도자기를 통한 韓中 交流史 및 동양 속에서의 한국의 위치 등을 규명하는데 반드시 참고해야 할 많은 자료와 연구검토해야 할 문제점들을 드러내 준다.

본 논평에서는 서리출토 제기와 이화여대 박물관소장의 「淳化四年」(993) 명호와의 비교, 서리출토 상감청자의 연대, 철회백자와 철회청자와의 제작시기와 선후관계, 경기도 시흥요지와와의 비교 등 검토해야 할 몇 가지 문제점을 간략히 제시하고자 한다.

II. 용인 서리요지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

첫째로 서리요지 출토 유물 가운데 재검토해야 할 것은 제기류들이다. 이

제기류들은 糶胎가 조잡하고 특히 유색이 갈색을 띠며, 목이 긴 항아리 형태와 거북이 형태의 꼬지가 붙어 있는 뚜껑 등 이 지역만의 독특한 기형이 보인다. 이러한 제기들은 서리요의 제Ⅳ기층에서 많이 출토되었다. 그 태도와 유약이 질이나 색으로 보아 순화 4년명 제기항아리와의 이 제기와와의 양식 비교가 병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발표 논문에서는 황해남도 봉천군 원산리 제 2호 청자요지 마지막인 4차 가마에서 해무리굽청자와 순화3년명(992) 청자가 함께 출토되었고, 1차 가마(10세기나 그 이전으로 추정됨)에서 서리요 제Ⅱ기층에서 유행한 화형접시가 출토되었다고 해서 서리요지의 제Ⅲ기층의 연대를 10세기 초나 그 이전으로 상대편년하였다.(논문 발표자는 서리 제Ⅱ기층과 제Ⅲ기층을 10세기나 그 이전으로 편년하여 같은 시기로 구분한 것인지 내용이 다소 모호하다.)

그런데 북측 보고서에서 소개하는 화형접시는 편년자료로 삼기에 다소 문제가 있는 기형이다. 예를 들면 3대 정종(946-949)의 안능과 20대 신종(1198-1204)의 양능에서 각각 출토한 청자화형접시의 양식이 서로 유사하다고 하기 때문이다(김중혁, 「개성일대의 고려왕릉발굴보고(2)」 『조선고고연구』, 1986. 1).

그러므로 용인 서리 제Ⅳ기층 출토 제기들을 이화여대 박물관소장 순화 4년명 항아리와 비교검토하여 10세기 말에서 11세기로 상대편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그 다음으로 상감청자의 발생시기 문제이다.

용인 서리요지 제Ⅲ기층에서 전형적인 해무리굽완과 상감청자편들이 출토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상감청자에 대해서는 그 발생시기를 어떻게 잡고 있는지 명확한 언급이 없다.

오늘날 학계의 시각은 1159년에 돌아가신 文公裕묘 출토 상감청자완을 근거로 하여 상감청자의 발생시기를 12세기 전반기 또는 12세기 중엽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상감청자가 출토된 서리요지 제 III기층의 연대가 10세기 초나 그 이전이라면, 우리나라에서 상감청자를 제작하기 시작한 시기 또한 10세기 초를 전후한 시기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북한에서도 이미 이른 시기의 상감청자가 발견된 바 있으므로 상감청자의 발생시기는 재론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중요한 주제이므로 보완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로 아직까지 뚜렷한 연대를 알려 주는 철회백자의 예가 없다. 단지 강원도 삼척 삼화리 고려시대 고분에서 나온 청자류와 백자정병과 백자철회당초문병 등이 널리 알려진 정도인데, 정양모선생과 고 최순우선생은 11세기 후반에서 12세기로 추정하였다(정양모, 1976, 「삼척근북평읍삼화리출토 고려시대 유물일괄」 『考古美術』 129·130, 한국미술사학회 ; 최순우, 1978, 「高麗陶磁の編年」 『世界陶磁全集』 18 高麗, 東京 : 小學館).

발표 논문에서 서리요지 제 IV기층에서 출토한 철회백자의 경우 10세기 말에서 11세기에 제작되었다고 상대편년한다면, 최순우선생의 철회백자 편년과 차이가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드러내었으면 한다.

그리고 용인 서리요지에서는 맨 처음에 청자가 제작되었고 점차 백자 그리고 철회백자로 그 제작양상이 바뀌었다. 그러면 철회문의 경우에도 철회청자에서 철회백자로 이행해 갔는지, 아니면 거의 동시기에 제작되었는지 등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연구검토가 있어야 하겠다.

마지막으로 현재 서리요지와 비교되는 요지가 경기도 시흥시 방산동에서 작년에 이어 발굴이 진행 중이어서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시흥요지는 벽돌가마라는 점에서 가마의 구조 뿐 아니라 출토 유물에 있어서도 서리요지의 초기 양상과 동일하다.

일단 노출된 시흥요지의 벽돌가마는 진흙으로 축조한 가마보다 시기가 이른 구조물로서 용인 서리요지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발견된 초기의 자기가마이므로 이미 그 학술적인 가치가 중요하다고 인정되고 있다.

Ⅲ. 맺 음 말

우리나라 자기의 발생시기가 9세기 경이라는 학설은 용인 서리요지에 대한 체계적인 발굴결과, 통일신라 말 장보고(828-846)의 해상활동 및 활발한 한중 교류, 익산 미륵사지에서 「大中十二年」(858)명 기와편과 함께 출토한 해무리굽 백자완 등 시대배경과 여러 유물 및 유구에 근거한 것이다. 다만 용인 서리요지에서 명문자료나 기타 편년자료가 출토되지 않은 점은 매우 안타깝다.

따라서 용인 서리요지 발굴 결과를 크게 보완해 줄 것으로 믿어지는 시흥요지의 발굴 결과를 기대해 본다.

高麗時代 古墳에 대한 一考察

-좌향리 고분군을 중심으로-

嚴 翼 成 (명지대학교박물관 학예연구원)

目 次

I. 머리말

II. 좌향리 고분군

III. 고려시대의 묘제

IV. 맺는말

I. 머리말

고려시대 고분에 대한 우리의 학술적 조사는 1947년 개성 法堂坊 벽화고분¹⁾부터 시작되었으나 몇 기의 벽화묘를 제외하고는 학계의 관심을 끌지 못하였고, 단지 삼국시대·통일신라시대 등 앞 시기 유적을 발굴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부차적 유적으로서 보고된 것들이다. 지금까지 약 70여 개 소²⁾의 고려고분이 조사되었으나 전면 발굴이 아닌 국지적인 조사가 대부분 이어서 그 조사 내용이 너무 간략하다. 이는 고려의 중심지가 북한 지역에 위치한 지리적 영향으로 남한 지역에서는 대부분 지배층의 무덤보다는 일반

1) 李弘植, 1954, 「高麗壁畫古墳發掘記」 『韓國古文化論攷』 乙酉文化社.

2) 趙由典, 1993, 「構造에 대한 意見」 『坡州 瑞谷里 高麗壁畫墓 發掘調査 報告書』, 文化財管理局 文化財研究所.

민들의 무덤만 발견되는 경향에도 기인한다. 또 다량의 부장유물 등 보다 많은 연구 자료를 제공하는 先代 고분에 비하여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한 부분도 있다. 다행히 1980년대 직동 고려석곽묘가 발견된 이래 1990년대에 들어 전국적으로(특히 충주 지방) 고려시대 고분의 발견이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이다. 그러나 아직도 삼국·통일신라의 古墳 資料에 비하면 그 수가 열악하기 그지없고, 전국적인 분포 자료조차 가지고 있지 못하다. 이런 현실에서 고려 고분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 논문도 거의 없는 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도 전반적인 고려시대 고분(묘제)에 대한 고찰보다는 좌향리 고분을 중심으로 그 당시 묘제의 일면에 접근해 보고자 할뿐이다.

우선 근래 조사된 고려시대 주요 고분 유적과 그 성격을 살펴어 본고의 주제인 좌향리 유적과의 비교 자료로 삼고자 한다.

1. 忠州 直洞 古墳群³⁾

고려 전기의 수혈식 석곽묘 15기가 발굴 조사되었다. 半地下式的 墓壙안에 兩長壁은 보다 정밀하게 축조하고, 兩短壁은 보다 단조롭게 板狀割石을 세워 마감하고 있다. 각 석곽은 서로 上下로 段을 지며 분포하고, 좌우로 약 5m 거리를 두고 있다. 석곽 내부에 관못이 모두 출토되어 목관의 사용을 알 수 있고, 주요 출토유물로는 靑磁梅瓶과 玉貫子·철제가위 및 咸平元寶(998-1003년)를 비롯한 中國銅錢이 다수 발견되었다. 고분의 분포 형태와 출토유물의 質로 보아 유력한 집단에 속하는 가계의 집단 묘지로 추정한다.

2. 許有全 墓⁴⁾

강화군 불온면에서 발견된 충렬왕때 문하시중을 지낸 허유전(1243~1324

3) 金顯吉·車勇杰, 1986, 「忠州直洞古墓群發掘調查報告」, 『忠州山城 및 直洞古墓群發掘調查 報告書』, 忠州工業專門大學博物館·忠州市.

년)의 묘로 고려 후기 상류층 묘제를 이해하는데 좋은 자료이다. 묘역은 모두 3단을 구성되었는데, 막돌을 「ㄴ」字形으로 2단 석축한 무덤의 前面에는 문비석과 묘표석 및 혼유석 등을 제2단에, 문인석은 2단과 3단의 경계 좌우에 배치하고 있다. 제1단에 무덤을 두었으며, 그 좌우와 후면에는 들레돌담을 「∩」형으로 쌓았고, 시신을 담은 널은 들레돌담의 중앙부에 움을 파고 매납하였는데, 나무널(棺)을 만들어 먼저 넣고, 후에 그 외곽에 납작한 판자돌로 바깥돌덧을 짜 맞추었다고 조사자는 보고 있다. 또 널의 규모는 길이 2m에 너비를 1m 내외로 추정한다. 전체 무덤 구역은 장방형 형태를 이루나, 봉토 부분은 방형이며, 당시 營造尺(1尺:30.785~31.0272cm)으로 복원하였을 때 봉토 외곽 基底部를 이루는 들레담의 길이와 폭은 각각 16尺 이고, 널의 길이와 너비는 각각 8척과 3.5척에 해당한다. 무덤 봉분의 본래 높이도 『高麗史』 「刑法志」의 기록대로 16척(490cm 내외)으로 복원하고 있다. 관못 1점과 宋元通寶(968~975년) 등의 중국동전이 다수 발견되었고, 토기병과 청자잔도 출토되었다.

3. 中原 樓岩里 古墳群⁵⁾

누암리 산 36번지에서 석곽묘 3기·토광묘 1기가 조사되었다. 능선의 南向 斜面에 입지하며, 유구의 장축은 능선의 방향과 일치한다. 석곽묘는 풍화 암층을 「ㄴ」字形으로 파내어 묘광을 만든 다음 할석으로 네벽을 쌓아 올리고 장대한 판석을 개석으로 이용한 竪穴式石槨墓인데 평면 형태는 장방형이다. 토광묘와 석곽묘 모두 맨바닥을 정리하여 이용하고 있고, 관못이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목관이 사용된 것으로 판단한다.

또 누암리 산 41번지⁶⁾에서도 고려 고분 2기가 조사되었는데, 제23호분은

4) 손보기·장호수, 1988, 『가락 허시중공 무덤 발굴조사보고』, 한국선사문화연구소·김해허씨시중공파중앙회.

5) 文化財研究所, 1991, 『中原 樓岩里 古墳群 發掘調査報告書』.

수혈식 석곽묘로 장방형 토광을 파낸 후 그 안에 할석으로 네벽을 쌓아 올리고 장대한 판석 6~7枚를 덮는 구조이다. 목관은 석곽의 북벽쪽에 붙여 안치하였는데, 棺 内部 바닥에는 동전을 한겹 깔고, 곡식을 뿌린 다음 주검을 넣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부장품은 관과 석곽의 남벽 사이에 두었으며 崇寧重寶(1102~1106년) 등 중국동전 30여점과 81점이나 되는 많은 관못이 출토되었다. 제23-1호분은 토광묘로 풍화암층을 단면상 ‘L’자형으로 파내어 무덤 광을 조성하였는데 평면은 장방형이다. 바닥은 평평하게 맨바닥으로 조성하였으며, 중앙부에 요갱(규모:46×30×20cm)을 두고, 그 안에 劍身形鐵器와 鑄造 鐵斧片을 매납하고 있었다. 주요 유물로는 동경과 청동시저가 있다.

4. 忠州 丹月洞 古墳群⁷⁾

모두 석곽묘 20기·토광묘 7기·회곽묘 2기·화장묘 1기 등이 조사되었다. 대부분 장축방향을 능선의 사면방향과 일치하게 조성하였으며, 지면을 ‘L’자형으로 파아 움을 만들고 있다. 석곽묘와 토광묘가 중첩되는 경우 석곽묘가 선행 유구이며, 묘광 안에 할석으로 축조한 석곽묘는 다른 유적과 유사하고, 兩短壁은 보다 간략히 대형 판석으로 마감하고 있다. 바닥은 대부분 생토를 그대로 이용하나 일부 판석을 깔아 棺臺를 설치한 것도 보인다. 목관의 사용은 보편화되었고, 판석을 덮개돌로 사용하고 있다. 부장품은 모두 관 밖(머리와 발끝)에 매납하고 있다.

토광묘에 사용된 목관의 두께는 3cm내외로 보며, 쇠뚝과 숯이 함께 매납되기도 한다.

6) 文化財研究所, 1992, 『中原 樓岩里 古墳群 發掘調査報告書』.

7) 길경택·황정아, 1992, 『충주 단월동 고려묘 발굴조사보고서』 충주박물관.

吉徑澤·李善喆, 1996, 『忠州 丹月洞 高麗古墳群』-第2次 發掘調査 報告書-, 忠州博物館.

화장묘도 묘광을 만들고 그 안에 骨壺를 매납하고 있으며, 다른 부장품도 함께 넣고 있다. 회곽묘에서는 正隆元寶(1156~1161년)가 출토되어 고려시대 회곽묘로 밝혀졌다.

유적의 전체 편년은 11세기에서 14세기로 조사자는 보고 있다.

5. 고양 더부골 고분군⁸⁾

모두 65기의 토광묘와 1기의 석곽묘가 조사되었다. 일부 조선시대까지 내려오는 유구도 있으나 유적의 중심 연대는 고려 후기이다. 묘광의 규모는 길이 2m, 폭 0.7m 내외로 서로 유사하며, 평면 형태는 장방형이다. 유구의 분포상에서 분묘의 造營意識을 엿볼 수 있는데, 서로 장축상 일직선상에 위치한다던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좌우로 배열되는 점에서 동일 집단의 共同墓域일 가능성을 강하게 암시한다. 유물의 매납 위치와 묘광 바닥의 시설 등으로 크게 3개의 유형으로 나누어지는데, 바닥에 요갱을 설치하고 유물을 短壁과 목관 사이에 매납하는 제1유형과 요갱이 사라지나 여전히 短壁쪽에 묻는 제2유형이 있고, 이와는 확연히 구별되게 長壁과 목관 사이에 부장하는 제3유형이 있다. 그중 제1·2유형은 고려기, 제3유형은 조선 전기로 편년되어진다.

전체 유구중 33기에서 요갱의 시설이 관찰되었는데 용도 불명의 철제품(鐵鍊?)과 토기호 등이 매납되어 있었다. 출토유물은 景德元寶(1004~1007년)등의 비롯한 중국동전·朝鮮通寶(1423년이후)·토기호(편호)·청동시·청동발·청자와 백자의 대접·접시 등이며, 실제 사용하였던 물건이 대부분이다.

8) 申千湜·嚴翼成, 1993, 「더부골 古墳群(Ⅰ) 發掘調査報告」 『高陽中山地區文化遺蹟』〈發掘調査報告書〉, 한양대학교·경기도.

6. 안산 부곡동 고분⁹⁾

석곽묘와 토광묘 등 모두 9기가 조사되었는데 고려 후기의 유적으로 편년 된다. 석곽묘인 東1호묘에서는 兩長壁단을 할석을 쌓아 만들고, 兩短壁은 판석 1매씩을 세워 간략히 마감하고 있으며, 대형 판석을 두껍돌로 사용하였다. 석곽내에는 목관을 사용한 흔적인 관못이 보이고, 바닥 중앙의 요갱 안에 높이 27cm인 매병을 매납하고 있으며, 開元通寶(780~804년) 등 중국 동전이 동반 출토되었다. 토광묘인 西4호묘에서는 관못과 청자잔 및 청동시와 바닥 중앙부의 요갱에서 쇠낫이 출토되었다. 또 前面에 제단 시설로 추정되는 돌계단이 노출되었다.

7. 화성 둔대리 고분¹⁰⁾

고려후기에 조성된 4기의 토광묘가 조사되었다. 제5호묘는 바닥에 두 개의 요갱을 설치하고, 그 안에 景德元寶(1004~1009년)를 매납하고 있다. 제7호묘에서는 貨泉(14년 주조)을 비롯한 중국동전 18종 39점과 48점의 관못이 출토되었다. 제8호묘에서는 바닥 중앙의 요갱에 쇠낫이 매납되었고, 북벽 쪽에서는 철제가위와 경덕원보 등 중국동전 13종 16점이 출토되었다. 제10호묘는 積石式 토광묘로 토광의 上端만을 판석과 할석으로 덮고 있고, 바닥에서 鍛造鐵斧와 41점의 관못이 출토되었다.

9) 손보기·장호수, 1995, 「안산 부곡동 옛무덤 발굴조사 보고」 『서해안 고속도로 건설구간(안산-안중간)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1)』, 한국도로공사·단국대학교 중앙박물관.

10) 朴喜顯·金榮官, 1995, 「華城 屯袋里 發掘調査 報告」 『서해안 고속도로건설구간(안산-안중간)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1)』, 한국도로공사·단국대학교중앙박물관.

8. 華城 松羅里 灰槨墓¹¹⁾

제 1호분은 앞면이 넓은 사다리꼴의 護石이 둘러지고, 그 중앙에 묘광을 개설한 다음, 그 안에 자연석회를 활용한 회곽묘를 축조하였다. 관못의 출토 위치와 크기 및 관못에 부착된 목재의 두께 등을 비교하여 二重棺이 사용되었다고 조사자는 보고 있다. 외관의 규모는 너비가 머리쪽과 발치쪽이 각각 70cm와 66cm인 頭廣足狹의 형태로 길이는 210cm이다. 내관은 폭 54cm, 길이는 190cm이다. 또 棺材의 두께는 외관이 7cm, 내관이 4cm이다. 머리 쪽에서 『家常貴富』銘 銅鏡과 빗 2점이 출토되었고, 중앙부에서는 철제가위와 구리반지가 발견되었다. 또 1-1호분과 舍葬墓로 보며, 조성 시기를 고려시대로 보고 있다.

9. 화성 구포리 회곽묘¹²⁾

제 2-16호와 3-2호 회곽묘의 봉토내에서 11세기로 편년 되어지는 고려백자 등이 출토되어 고려시대 회곽묘로 이해하고 있다.

10. 丹陽 下坊里 古墳群¹³⁾

모두 4기의 수혈식 석곽묘가 조사되었다. 장방형 평면형태에 길이는 2m, 폭은 0.6m 내외이다. 바닥은 생토층을 그대로 이용하거나, 板石을 깔아 棺臺

11) 尹世英·金右臨, 1995, 「華城 松羅里 墳墓群 發掘調査 報告」, 『서해안 고속도로 건설구간(안산-안중간)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2)』, 한국도로공사·단국대학교 중앙박물관.

12) 윤내현·한창근 외, 1995, 「화성 구포리 발굴조사 보고」, 『서해안 고속도로 건설구간(안산-안중간)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2)』, 한국도로공사·단국대학교중앙박물관.

13) 길경택·유봉희·이선철, 1997, 『丹陽 下坊里古墳群 發掘調査 報告書』, 忠州博物館·韓國道路公社.

를 조성하고 있다. 축조 년대를 11~12세기로 보며, 청자대접·유병과 보조 비너 등이 출토되었다.

11. 尙州 靑里 遺蹟¹⁴⁾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토광묘와 석곽묘 50여기가 조사되었다. 고려시대 분묘의 중심 연대는 출토된 청자·녹청자의 접시와 완, 그리고 편 병토기 등 유물로 미루어 11~12세기로 보아지며, 일부 象嵌靑磁 末期 양식을 보이는 유구는 14世紀 末로 판단한다. 그 중에서 A-다-25호 석곽묘는 橫口部를 지녔고, 바닥은 판석을 깔아 棺臺로 사용하였으며, 토기병과 청동완 1점이 출토되었다. 또 A-다-38호 토광묘는 규모가 200×65×45cm로 바닥 중앙부에 직경 20cm·깊이 10cm의 요갱을 설치하고 있다. 동경 1점과 철제가 위 및 토기병 등이 출토되었다.

12. 忠州 虎岩洞 遺蹟¹⁵⁾

토광묘 158기와 석곽묘 5기 및 조선시대 회곽묘 등이 조사되었는데, 고려시대 유구로는 토광묘 30여기와 석곽묘 5기이다. 대부분 묘광의 방향은 능선 경사면의 방향과 일치하고, 'L'자형으로 지면을 굴광하여 묘광을 조성하고 있다. 또 주요제는 토광묘이며, 석곽묘는 일부 지역에만 국한되어 나타난다. 조성 시기는 고려초부터 말기까지이며, 주로 생활 용구를 매납하고 있는데 머리와 발치쪽에 큰 물건을 놓고, 동전과 같은 작은 것은 허리쪽에 부장하는 경향을 보인다.

14) 韓國文化財保護財團, 1997.4, 『尙州 靑里遺蹟 發掘調査 概報Ⅱ』-자문위원회의 및 현장설명회 자료-

15) 길경택·유봉희·이윤석·이선철, 1998, 『忠州 虎岩洞遺蹟 發掘調査報告書』, 忠州博物館.

13. 용인 마북리 고려 고분군¹⁶⁾

석곽묘 4기와 토광묘 4기가 조사되었다. 석곽묘는 묘광안에 할석을 5단으로 쌓아 석곽의 벽체를 만들고, 관대 시설 없이 맨바닥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구조적 특징은 무덤의 短壁을 축조하지 않은 점이다. 간단히 조성된 토광묘도 석곽묘와 비슷한 규모이다. 목관이 공통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출토 유물로는 반구병·대접 등의 청자류와 동경과 청동시·중국동전(皇宋通寶-1039년)·동곳 등의 청동류 이외에 철제가위와 구슬이 있다. 무덤들은 좌우로 丘陵性 지대가 감싸고 있는 곳에 입지하여 당시 묘역의 선정 방식을 엿볼 수 있게 하고, 또 밀집 분포하고 있어 친족 또는 가족 단위의 묘역으로 추정하며, 한 봉토내에 여러 기의 묘곽을 설치하는 多槨墓의 존재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다. 묘제상 토광묘와 석곽묘 사이에 분포 성향이나, 매납유물의 조합 등에서도 특별한 차이점은 보이지 않는다. 계급적 혹 性的 차이에 따라 묘제를 택한 것은 아니며, 남녀의 구별은 유물의 매납상에서만 감지된다. 조사지는 무덤의 피장자에 대하여 고려시대에 특별한 지위를 지니지 않은 일반민들로 보고 있다.

14. 여주 하거리 유적¹⁷⁾

고려시대 토광묘 12기와 석곽묘 2기가 조사되었다. 주요제는 토광묘이며, 출토유물로는 熙元通寶(1377년주조)·청동시·청자대접·철제가위·철제검 등이 있다. 토광묘의 경우 바닥 중앙에 작은 요강을 설치하고, 그 안에 철검 등을 매납하는 것이 주목된다.

16) 김성태, 1997, 「용인 마북리 정광지구 고려고분군 발굴조사」, 『'97 京畿道博物館 發掘調査概報』, 京畿道博物館.

17) 경희대학교 중앙박물관, 1998.3.31, 「경기도 여주 하거리 유적 발굴 조사 현장 설명회(자료)」.

II. 좌항리 고분군¹⁸⁾

1. 유적의 위치 및 배경

명지대학교 박물관에서는 1994년 5월부터 8월까지 경기도 용인시 좌항리에 위치하는 고려 고분군을 발굴 조사한바 있다. 좌항리 유적은 행정구역상 경기도 용인시 원삼면 좌항리 산 30-1번지에 위치하며 경도상으로는 동경 127° 19' , 북위 37° 12' 40" 에 해당한다. 용인군 양지면과 원삼면의 경계인 좌전고개(해발 194m)에서 남서쪽으로 약 300m 거리의 17번 국도 우측에 분묘군이 위치한다. 좌전고개는 해발 432.2m의 獨朝峰에서 동으로 이어져 내려 양지면과 원삼면의 面界를 이루는 山稜線狀 위치하며 다시 동남쪽의 태봉산과 능선으로 이어진다. 유적은 독조봉에서 좌전고개로 이어진 山稜에서 다시 남쪽으로 흘러내려 동으로 꺾여 이어지는 구릉의 東南 傾斜面에 위치하는데, 동쪽의 태봉산과 巾之山(해발 411.3m)을 바라보는 형상이며, 좌우에 구릉이 감싸안은 지형에 입지한다.

유적은 남북 폭 20~50m 내외, 동서 길이 110m의 구릉 능선과 東南 傾斜面에만 위치하고 있는데 무덤은 매우 산만하게 군데군데 흩어져 분포하고 있다.(도면 1 발굴구역 및 유구배치도 참조) 유적은 급한 지형의 경사에 따른 자연적인 토사의 유실과 인공적인 조림 및 근대 민묘의 조성으로 많이 훼손되어 있었고 또 1970년대에 자행된 도굴(현지 주민들의 증언)로 파괴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었다.

여기서 분묘군이 위치하는 원삼면 좌항리의 연혁을 살펴보면 1914년 행정구역 개편시 본래 죽산군 원일면 지역에서 원삼면으로 통합되며 恒谷里·佐贊里·行軍里등을 합치고 좌찬과 항곡의 첫자를 따서 佐恒里라 명명하였

18) 신천식·임익성, 1994, 『龍仁 佐恒里 高麗墳墓群 發掘調査報告書』, 明知大學校 博物館.

다.

그러면 현 좌항리(佐贊+恒谷)는 분묘군이 조성된 시기의 즉 고려 초기의 행정구역상 어디에 속할까 궁금하다. 이는 ‘좌찬’이란 지명에서 찾을 수 있겠다. 輿地圖書의 京畿道 陽智篇 地圖에 보면 죽산에서 陽智·京都로 통하는 ‘通竹山大路’상에 ‘佐贊峴’이 나타나는데, 이는 현 좌전고개에 해당한다. 그런데 佐贊이란 지명이 처음 나타나는 것은 『高麗史』이다. 즉 고려시대 22개의 驛道中에서 慶(廣)州道에 속하며 龍駒縣(현 용인)의 金領驛과 竹州의 分行驛을 잇는 佐贊驛으로 나타난다.¹⁹⁾ 고려시대의 站驛制度가 성종대에 驛의 大小에 따라 公須田과 館田 등의 驛田이 지급되는 등 전국적으로 완비되었다고 볼 때 고려 초기(분묘의 편년인 11세기 중반기)에도 佐贊驛이 존재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高麗時代 楊廣道 廣州牧의 속현에 해당하는 竹山の 좌찬역 부근에 금번 조사된 古墳群이 조성되었다고 판단한다.

2. 조사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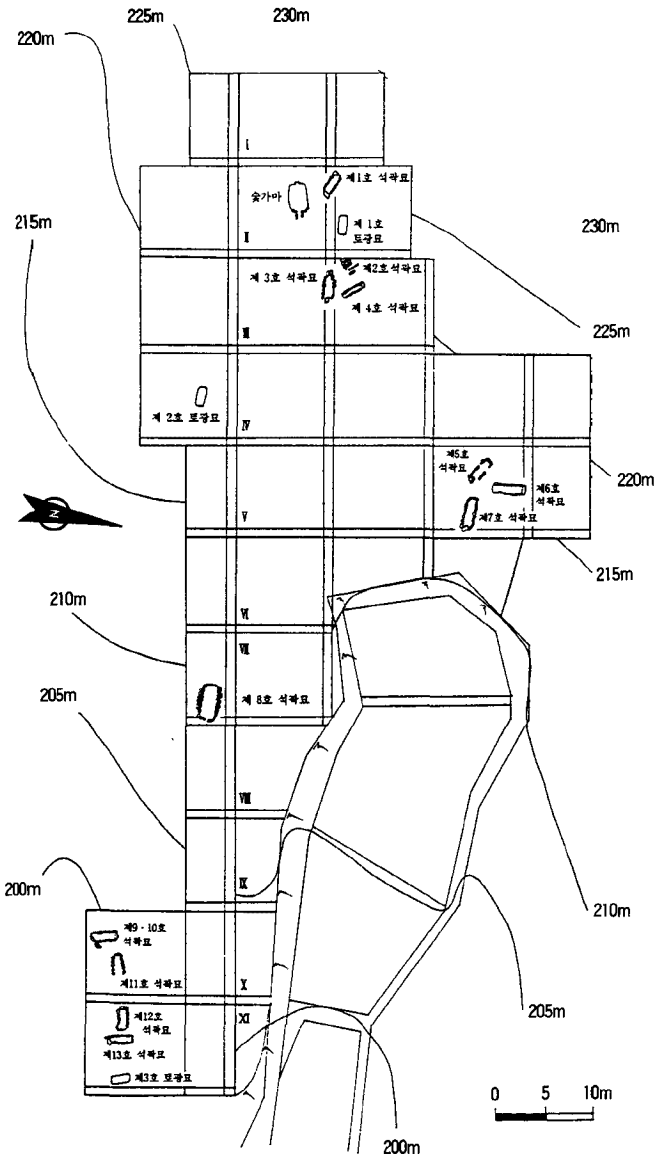
주요 유구만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第 1號 石槨墓(도면 2)

해발 225m 지점의 구릉 동쪽 傾斜面에 위치한다. 遺構는 조사전 이미 도굴로 장방형 구덩이가 파여져 있었고, 조사 결과 봉토와 개석은 이미 유실된 상태였으나 西短壁과 南·北 兩長壁은 비교적 양호한 상태로 남아 있었다. 墳墓의 축조 방식은 西 - 東向으로 길게 ‘U’모양의 土壙을 파고, 그 토광 벽에 기대듯이 板狀割石 등을 쌓아 石槨의 壁體를 이루고 있다. 서벽은

19) 『高麗史』 卷八十二, 志三十六, 兵二, 站驛

“慶州道掌十五 德風 慶安 長嘉 安業 南山(廣州) 良梓(果州) 金領(龍駒) 佐贊 分行(竹州) 五行 安利(利川) 無極(陰竹) 遙安(陰城) 丹月 安富(槐州)”



도면 1. 발굴구역 및 유구배치도

두께 5cm 내외의 판상할석 2매를 立垂積(세로로 세워쌓기)하여 第一段을 만들고 그 위에 판석을 橫平積하여 二段을 이루고 있는데, 이 판석이 양 장벽과의 접합부에 모로 얹혀 西壁의 上段을 모줄임을 하고 있다. 蓋石은 모줄임을 한 제 2단 위에 올렸다고 본다.

南·北 長壁은 西端에서 중간 부분까지 판상할석을 立垂積하여 一段을 만들었고, 그 東便은 할석을 臥垂積하여 서로 다르게 축조하고 있다. 第 2段부터는 縱平積으로 축조한 段의 數를 조절하여 壁面 上端을 일정하게 만들고 있으나 잔존 상태가 불량하고, 壁體의 東端部는 망실되었다.

관대는 평평하게 깎은 토광 바닥면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고, 관못편이 발견되어 木棺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頭向은 西壁이 가장 먼저 축조되었으며 높은 山峰이 서쪽에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西枕으로 판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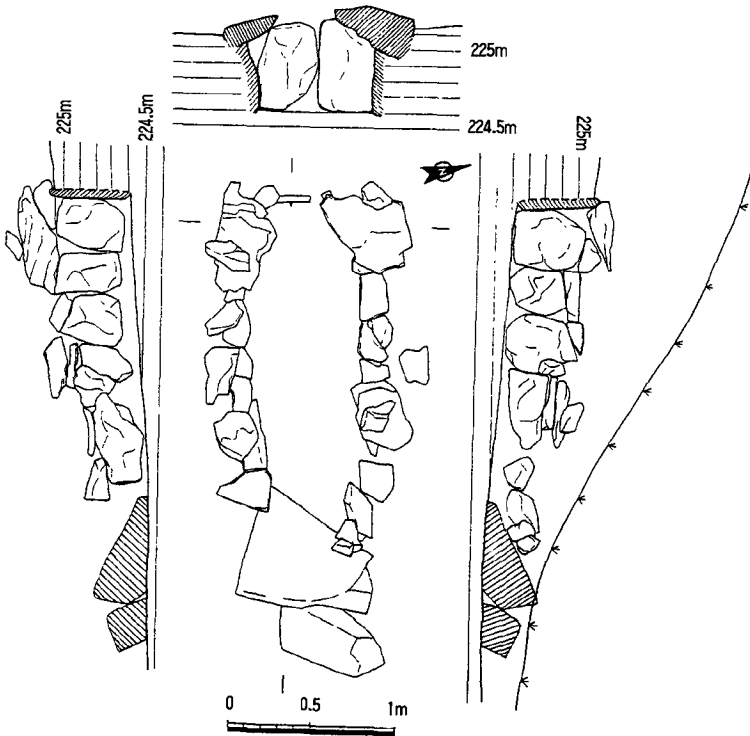
墓制의 구조 형식은 竪穴式石槨木棺墓이고, 石槨의 규모는 東西 잔존길이 228cm, 內部 幅 70cm, 내부 높이 60cm 내외이다.

2) 第 3號 石槨墓(도면 3)

지표 60cm 아래에서 석곽의 상단이 노출되었으며 전반적으로 유구의 잔존 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편으로 장축방향은 西를 중심으로 5° 偏南하는 西-東向이다.

石槨의 축조방식은 장방형 토광안에 할석으로 벽체를 만들어 세우는 일반적인 방식이나 토광은 생토면까지 파지 않았다. 第 3號 石槨墓의 구조상 특징은 西短壁의 未築造에 있다. 즉 서벽은 할석으로 축조하지 않고 수직의 토광 벽면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다. 이는 여러 개석이 토광의 서쪽 어깨선 上段과 남·북 양 장벽의 西端部 上段을 함께 덮고 있는 형태이다. 이러한 구조 형식은 第 7·8號 石槨墓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北長壁은 소형할석(길이 30cm, 두께 15cm내외)을 縱平積하여 5단까지 축조하고 6단부터는 보다 큰 할석(길이 50cm내외)을 縱平積하여 8~9단까지 쌓고 있다. 벽면의 東端部는 소형 할석을 多段 築造한 것이 아니라 대형 막



도면 2. 제1호 석각묘 실측도

돌 2매를 세워 쌓아 마감되는데 이곳을 東壁과의 接合部로 판단한다. 전반적으로 治石되지 않은 할석을 사용하여 壁面이 고르지 못하다.

東壁은 잔존 상태가 불량하다. 南·北 長壁의 東端部와 15cm 간격을 두고 대형 판석(규모:70×40cm) 1매를 세웠으며 그 뒤로 또 하나의 판석을 가로놓아 보강석로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축조 방식은 다른 벽체에 비하여 매우 간략화된 것으로 양 장벽의 東端部 축조 기법과도 유사하다. 본래 동벽의 위치는 대형막돌로 축조된 양장벽의 동단부로 추정하며, 현재 남아 있

는 동벽의 立垂積된 대형판석은 외부 마감 돌로 보고자 한다. 대형판석을 이용하여 石槨의 축조를 마감하듯이 밖에서 막은 점은 판석이라는 關閉의 容易성과 함께 東壁에 橫口의 기법이 가미되었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 이는 양 장벽의 東端部 축조 형태에서도 뒤받침 되는데 長壁의 東端部 下端이 다른 부분보다 20cm나 깊은 점과 다른 곳과는 달리 대형막돌 1~2매만을 세워 축조한 점이다. 이로 볼 때 石槨의 벽면 중에서 동벽을 마지막으로 축조한 것이 확인된다.

석곽의 천장 구조는 길이 80cm 내외의 판석 數枚를 남·북벽에 가로 걸쳐고 그 사이 사이와 각 벽면과의 사이에는 소형할석을 채우듯이 덮어 완성하고 있다.

遺構의 바닥면에서 관못이 출토되어 木棺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고, 따라서 墓制의 구조 형식은 豎穴式石槨木棺墓이다.

遺構의 동서 길이는 250cm 이고, 폭은 73cm 이며, 높이는 64cm이다.

出土遺物로는 土器瓶(도면 4-①·②)·백자대접(도면 5-①)·청자대접(도면 5-②)·白磁甌(도면 5-④)·백자접시(도면 5-③) 등과 橫“8”字形의 철제가위(도면 4-④)가 있다.

철제 가위의 모양은 양쪽에 刀子形 刃部를 지닌 굽은 철사를 꼬아 돌려 刃部가 서로 對稱하게 만들었는데, 이러한 형태의 철제가위는 漢代에서 유래된 것으로 韓半島에는 三國時代부터 사용되어 春川 泉田里 古墳, 慶州 金鈴塚, 梁山 夫婦塚, 玄風古墳 등²⁰⁾과 雁鴨池²¹⁾ 등에서 출토된 바 있고 忠州 直洞古墓群²²⁾, 단월동 고려묘²³⁾, 永同 池鳳里 1地區 2號墳²⁴⁾과 당 좌항리 분묘군 등의 고려시대 유적에서도 출토되어 이러한 형태의 가위가 고려시대

20) 金宅圭, 1978, 「民俗學的 考察」 『雁鴨池 發掘調查報告書』,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p. 398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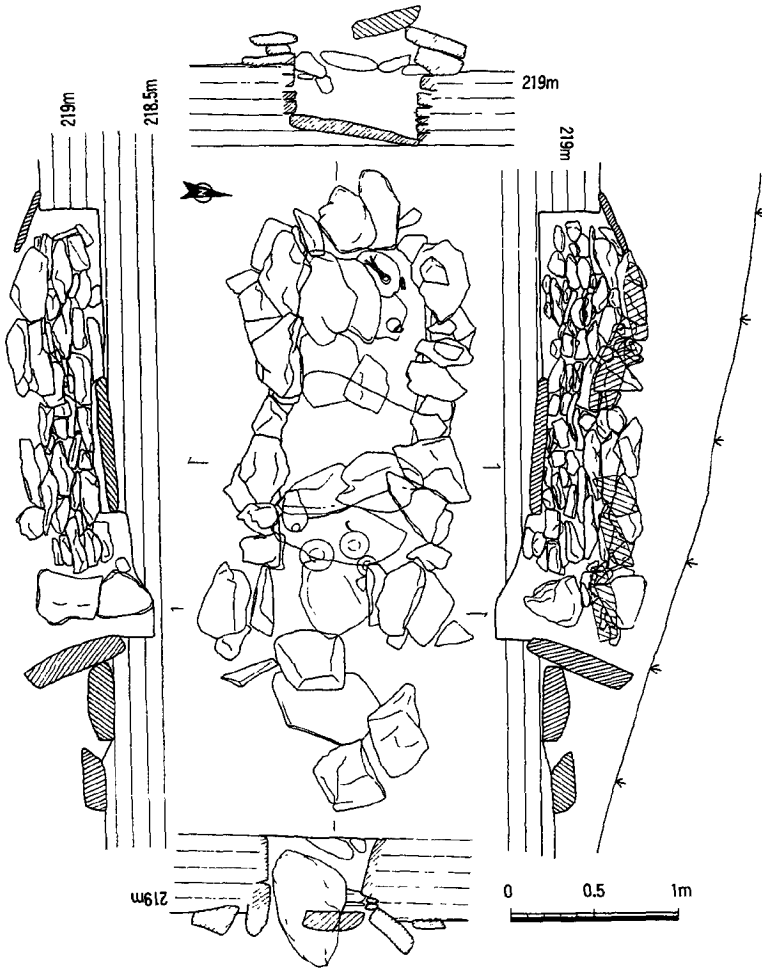
21) 金宅圭, 「앞글」, pp. 395~398.

22) 金顯吉·車勇杰, 『앞책』, pp. 105~106·p. 132 圖10의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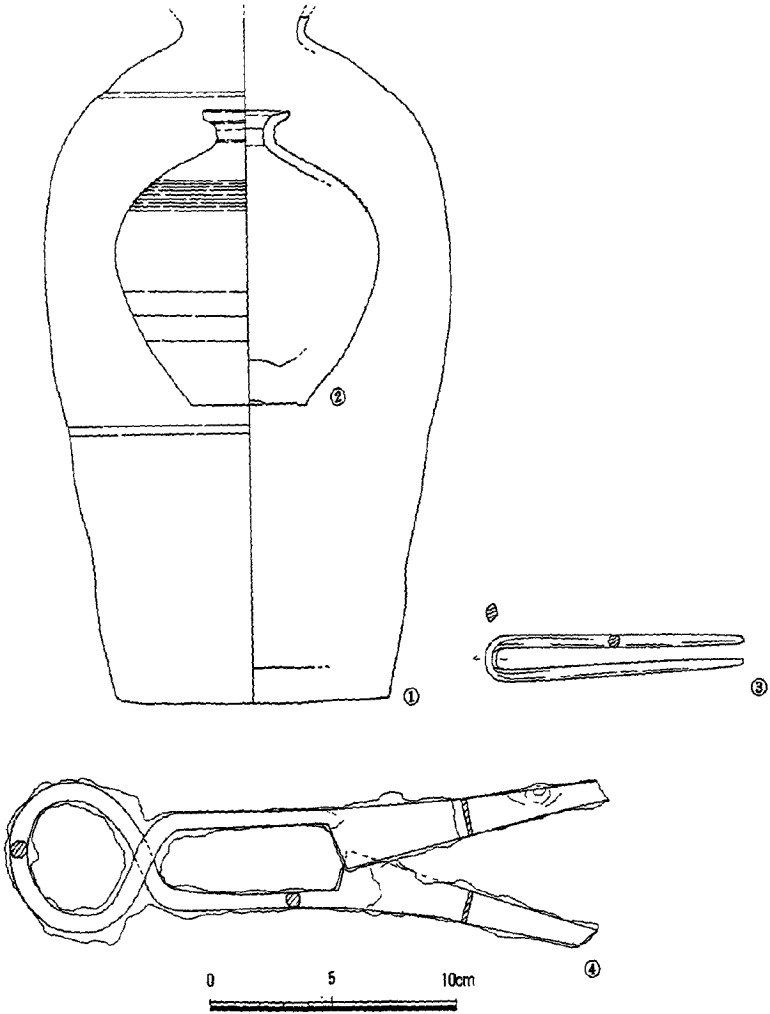
23) 길경택·황정아, 『앞책』, pp. 59~60.

24) 韓南大學校博物館, 1987.6, 『永同 池鳳里古墳 發掘調查 報告』, pp. 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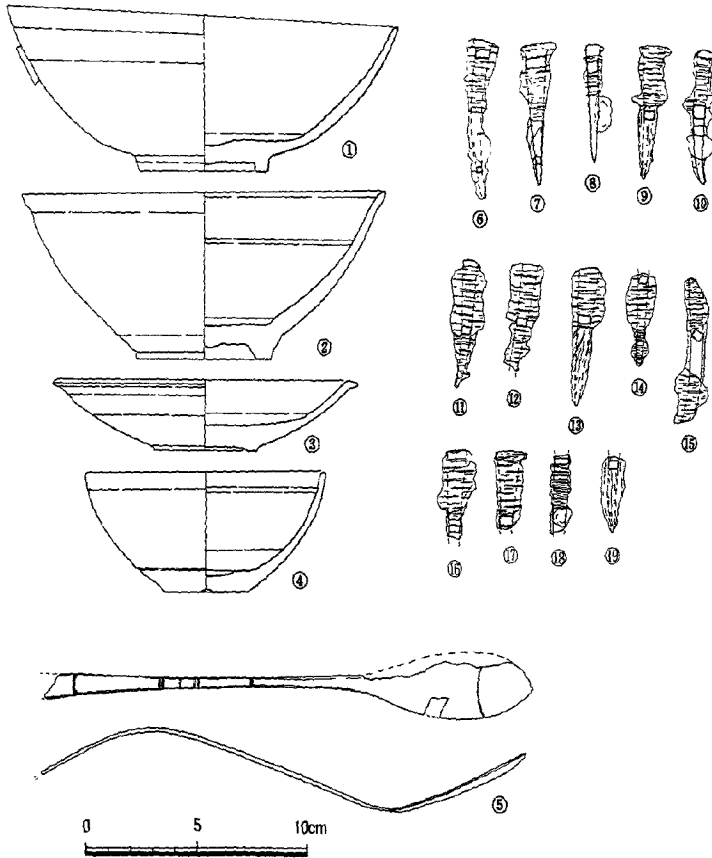
까지 유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전체 길이는 25.5cm 이고, 刃部의 길이는 11cm 이다.



도면 3. 제 3호 석곽묘 실측도



도면 4. 제 3호 석곽묘 출토유물 실측도



도면 5. 제 3호 석곽묘 출토유물 실측도

또 동곳(도면 4-③)이 출토되었는데 단면이 동근 靑銅絲의 중앙을 구부려 양 가지(兩支)를 만든 'ㄷ'字形 동곳이다. 양 가지의 끝은 뾰족하며 구부러진 基部의 단면은 부채꼴(▽)모양이다. 동곳은 머리를 튼 뒤 끌어지지 않도록 꿰는 머리 장식용구의 일종인데 이러한 'ㄷ'字形 모양의 동곳은 樂浪

古墳²⁵⁾에서 발견된 것이 가장 시기가 빠르고 삼국시대에는 傳東明王陵²⁶⁾에서 발견된 바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형태의 동곳은 漢나라로부터 유입되어 三國時代와 高麗時代에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 이후 朝鮮時代 後期까지도 비슷한 동곳이 계속 사용되고 있다. 길이는 10.4cm 이다.

또 관못(도면 5-⑥~⑱)이 14개 발견되어 목관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第 6號 石槨墓(도면 6)

구릉의 경사가 급한 東南쪽 傾斜面에 위치한다. 지표에 개석 상단의 일부가 노출되기도 하였으나, 遺構의 대부분은 지표 1m 아래에서 드러나 비교적 양호한 상태로 남아 있다. 석곽은 장방형 토광안에 할석으로 축조하였는데, 북벽은 길이 90cm의 할석을 臥垂積하여 1단을 만든 다음 2~3단을 작은 판상할석으로 縱平積하여 완성하고 있다. 西(長)壁은 장방형 할석을 臥垂積하여 벽면의 기초를 만들고, 이어 3단까지를 보다 小形割石과 판상할석을 縱平積하여 축조하고 있는데 특이하게 南端部만은 대형 판석 1매만을 臥垂積하여 연결하고 있다. 東壁도 장방형 할석을 臥垂積하거나 縱平積하여 3단까지 축조하였고 할석 사이 사이에는 흙과 소형할석을 채워 넣어 보강하고 있다. 동벽의 잔존 길이는 300cm 이고 높이는 50cm 내외이다.

바닥은 생토면을 평평하게 깎아 관대로 이용하였고, 북벽 가까이에서 관못이 출토되어 木棺이 매납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천장구조는 대형 판석 2매가 遺構를 덮고 있던 것으로 미루어 천장 전면을 판석과 할석으로 덮는 구조였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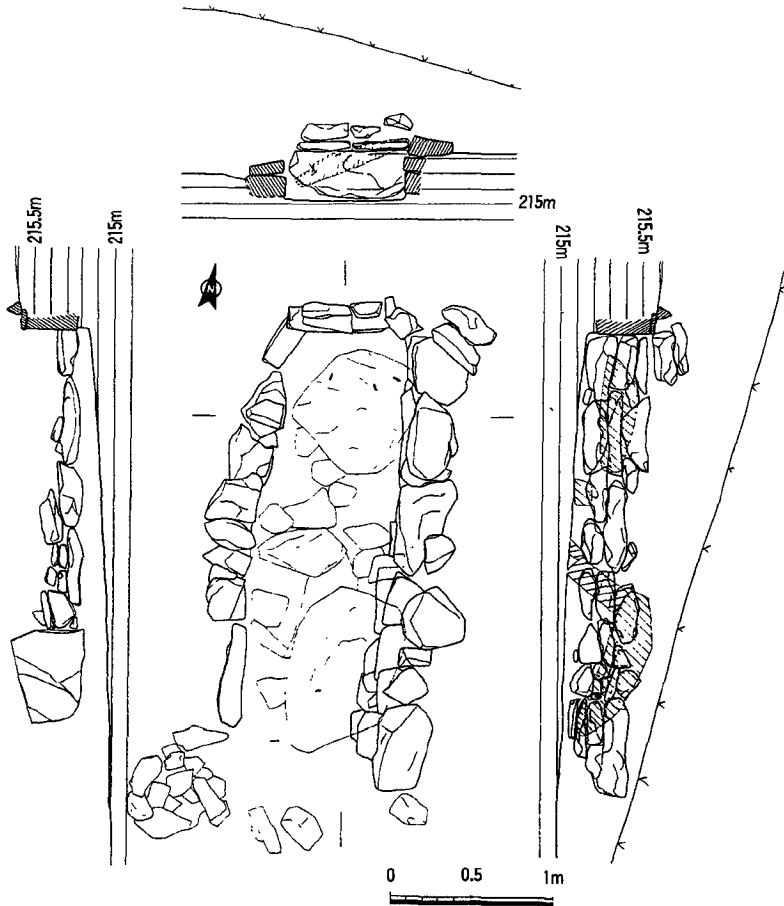
遺構의 장축방향은 北을 중심으로 5° 偏西하는 北 - 南向이며, 枕向은 북벽을 맨 처음 축조한 점과 구릉의 高地가 북쪽인 점으로 미루어 北枕으로 판단한다.

25) 金宅圭, 「앞글」, p. 404.

26) 李浩官, 1992, 「指環 동곳, 뒤꽂이 飾履」, 『古美術』, 1992/가을호, 韓國古美術協會, p. 25.

석곽의 규모는 길이 320cm, 폭 90cm, 높이 50cm 내외이며, 토광의 규모는 355×145cm 이다. 각 관못의 노출 위치로 추정하는 木棺의 규모는 190×40cm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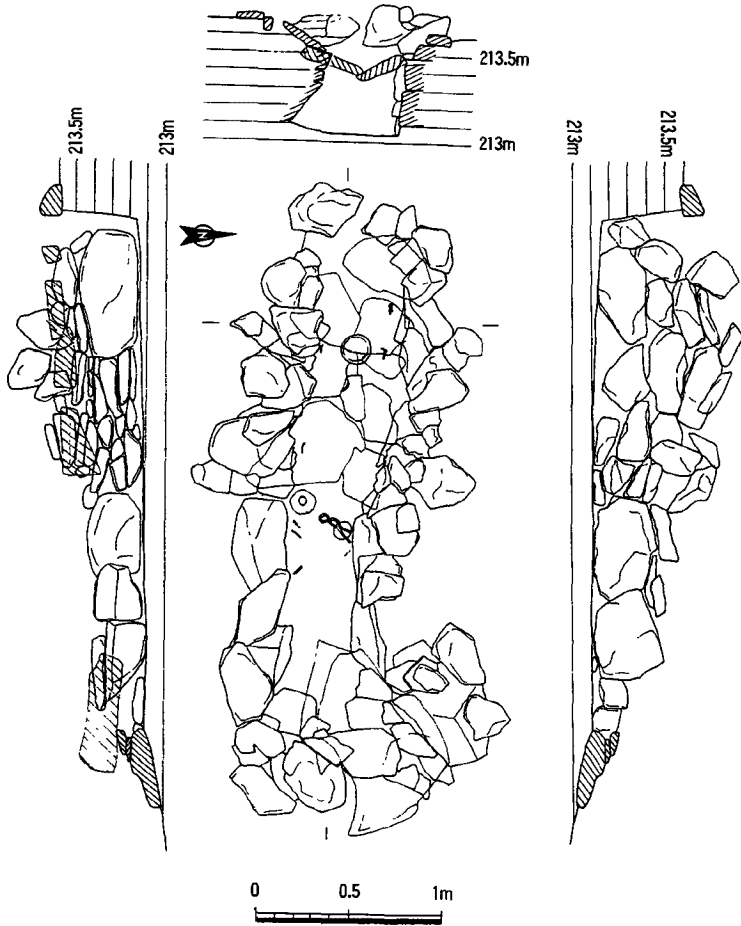
墓制의 형식은 竪穴式石槨木棺墓이며, 출토유물은 관못 뿐이다.



도면 6. 제 6호 석곽묘 실측도

4) 第 7號 石槨墓(도면 7)

구릉의 동쪽 傾斜面에 위치한다. 遺構는 잡석이 많은 지역에 장방형 토광을 파고, 그 안에 주변에서 가져온 治石되지 않은 괴석과 할석으로 벽면을 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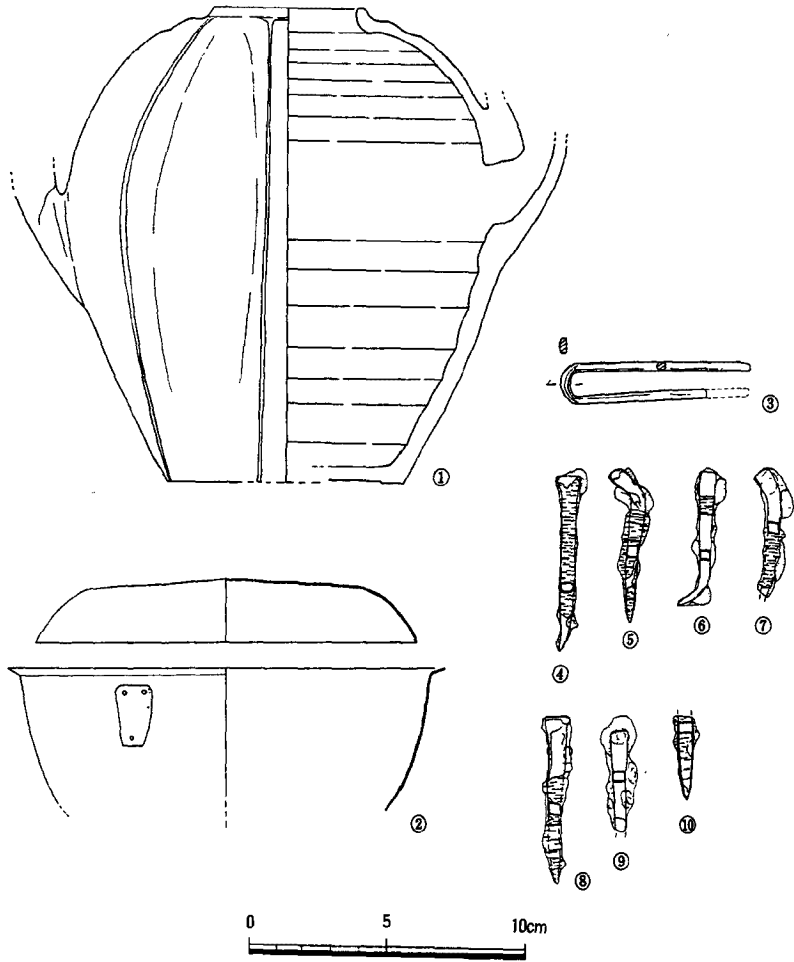
도면 7. 제 7호 석곽묘 실측도

조하고 있었다. 서단벽은 특이하게 석재로 벽체를 만들지 않고 수직 토광면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토광의 어깨선에 동서로 걸치는 소형 판석을 올리고 있다. 北長壁은 부정연한 괴석과 할석을 臥垂積하거나 縱平積하여 벽면을 이루고 있는데, 부분적으로는 4단까지 잔존한다. 벽체의 길이는 3m 이고 잔존 높이는 80cm 이나, 거칠게 축조되어 전체적으로 벽면이 고르지 못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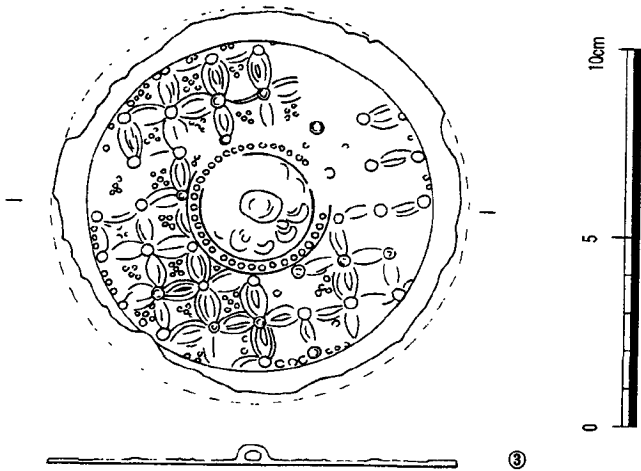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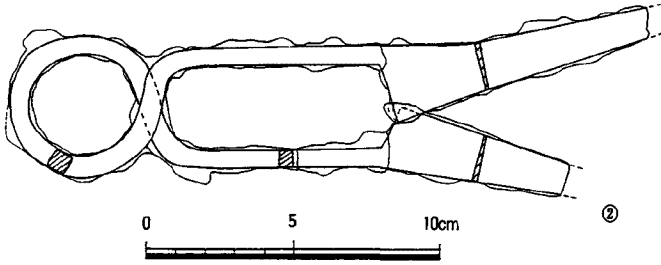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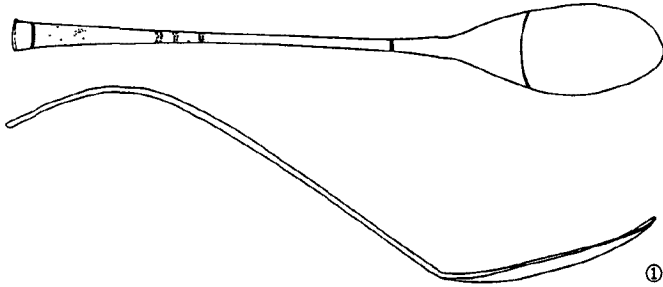
양 장벽의 동단부 외곽을 할석으로 무질서하게 메우어져 있고, 그 위에 판석이 올려져 있어 이를 동벽으로 판단하였다. 그 벽체의 기초를 확인하기 위하여 할석을 제거하자 벽면을 이루는 축조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로 미루어 동벽을 축조하였다기 보다는 외곽에서 석곽을 폐쇄하듯이 메우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石槨의 관대는 평평하게 깎은 토광 바닥을 그대로 이용하였고, 바닥의 중앙부에서는 철제가위와 銅鏡 및 白磁瓜形注子 등이 출토되었다. 석곽의 천정구조는 안으로 함몰되어 잔존하는 개석의 형태로 미루어 남·북 양 장벽에 대형판석을 가로 걸치거나, 中形板石의 경우는 서로 중간까지만 맞대어 2枚가 대형판석 1枚의 효과를 내는 수법으로 걸치고, 여타 남은 공간은 소형판석과 할석으로 채우듯이 덮어 완성하였다고 본다. 遺構의 장축방향은 西를 중심으로 5° 偏北하는 西 - 東向이고, 墓制의 구조 형식은 豎穴式石槨木棺墓이다. 枕向은 지형상 서쪽이 高地이고 木棺이 석곽의 서쪽으로 치우쳐 매납된 점과 동벽을 마감하듯이 메워진 축조한 점 등을 들어 西枕으로 추정한다. 석곽의 내부 규모는 길이 290cm, 폭 56cm, 높이 80cm 이다. 관못이 석곽의 동단부를 제외하고 바닥 전면에서 노출되었는데, 그 위치와 간격으로 보아 木棺의 규모는 150×38cm 내외로 추정한다.

出土遺物로는 白磁瓜形注子(도면 8-①)·七寶文鏡²⁷⁾(도면 9-③)·靑銅盒(도면 8-②)·靑銅匙(도면 9-①)·銀製동곳(도면 8-③)·철제가위(도면 9-②) 등이 있다.

27) 黃互根, 1991, 『韓國文樣史』〈高麗銅鏡에 나타난 文樣을 중심으로〉, 열화당, p. 248.



도면 8. 제 7호 석곽묘 출토유물 실측도



도면 9. 제 7호 석곽묘 출토유물 실측도

5) 第 8號 石槨墓(도면 10)

해발 208m 구릉의 능선상에 위치한다. 조사된 遺構 중 최대형 遺構로 處女墳 상태로 발굴되었다. 지표 20cm 아래에서 蓋石의 上端이 노출되었는데 개석은 대형판석(크기:120×100cm) 1매로 西端部를 덮고 이와 간격을 두어 다시 동편에 길이 1.3m의 막들을 양 장벽에 걸치고 있다. 양 대형개석 사이와 석곽의 東端部는 보다 작은 판석으로 양편에서 중간부까지만 서로 맞대어 덮어 2매의 판석이 1組로 큰 개석 1枚의 기능을 하고 있다. 또 개석과 벽체의 공간 및 각 개석 사이 사이에는 소형 할석을 끼우듯이 보강하여 천장 구조를 완성하고 있다. 개석의 일부를 장비를 이용하여 제거하자 적갈색의 층진토가 나타났는데 특별히 구분되는 층위는 없었다.

석곽의 벽면은 장방형 토광안에 축조되었는데 西短壁은 石材로 축조하지 않고 수직 토광면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다. 南·北(長)壁은 길이 50cm 내외의 塊石과 割石을 縱平積하여 5~6단까지 축조하였고, 벽면의 틈새에는 소형 할석을 끼워 넣어 보강하고 있다.

동벽은 판상할석 위에 막돌 1매를 올린 형태로 북벽과의 접합부만 나타나 있다. 이와 남벽 사이에는 빈 공간으로 벽체를 축조한 흔적을 확인할 수 없어 이 부분을 橫口部로 판단한다. 이는 第 8號 石槨墓가 개석까지 완전한 처녀분 상태로 발굴되었는데 오직 동벽의 南端部만 훼손·결실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관대는 토광 바닥면을 평평하게 깎아 사용하였고 동단부를 제외하고는 바닥 전면에서 관뿔이 검출되었다. 관뿔의 노출 위치로 추정하는 木槨의 규모는 180×70cm 내외이다.

유물은 바닥의 東端部에서 磁器類와 靑銅匙가 발견되었는데, 이로 보아 木槨을 먼저 매납한 다음 木槨과 동쪽 入口 사이에 유물을 埋納한 것으로 판단된다. 石槨의 中央 西便에는 靑銅盒과 靑銅鈔帶片(도면 13-①·②)이 노출되었는데, 이는 木槨 內部에 매납되었던 것으로 본다.

遺構의 장축방향은 西를 중심으로 5° 偏南하는 西 - 東向이고, 枕向은 석곽의 서편으로 치우친 木棺의 위치와 구릉의 高地가 서쪽인 점을 감안하여 西枕으로 추정한다. 墓制의 형식은 橫口式의 기법이 가미된 豎穴式石槨木棺墓이며, 석곽의 내부 규모는 길이 300cm, 폭 100cm, 높이 78cm 이다. 또 토광의 규모는 175×370cm 내외이다.

出土遺物로는 綠靑磁梅瓶(도면 11-①)과 綠靑磁盤口瓶(도면 11-②)이 있는데 器形上 11세기 전반기로 판단되며, 기형²⁸⁾과 녹유의 發色이 뛰어난 상품인 점에서 비교적 고급 綠靑磁를 播造하였던 인천 경서동 요지에서 제조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밖에 기형과 유약의 發色으로 보아 인접한 용인 서리요 번조품으로 판단되는 증상품의 백자대접(도면 12-①·②·③)과 백자잔(도면 12-④)이 있다. 또 청자접시(도면 12-⑤·⑥) 두점은 맑고 투명한 청자유의 發色이 강진요 번조품으로 추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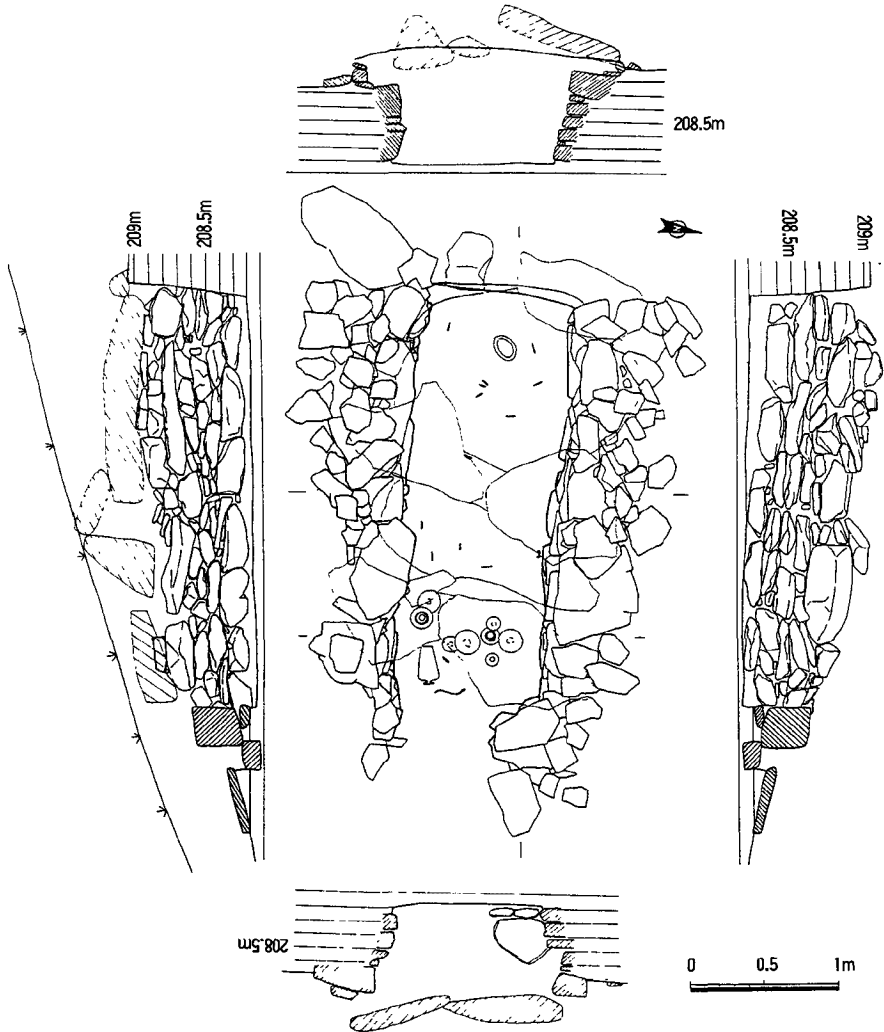
6) 第 13號 石槨墓(도면 14)

도굴로 개석과 遺構 일부가 나타나 있어 지표조사시 遺構의 윤곽을 노출시켜 확인한 바 있다. 遺構의 주변을 정리하자 蓋石 1매가 벽면에 얹혀 있는 석곽이 노출되었는데, 그 장축방향은 북을 중심으로 20° 偏西하는 北 - 南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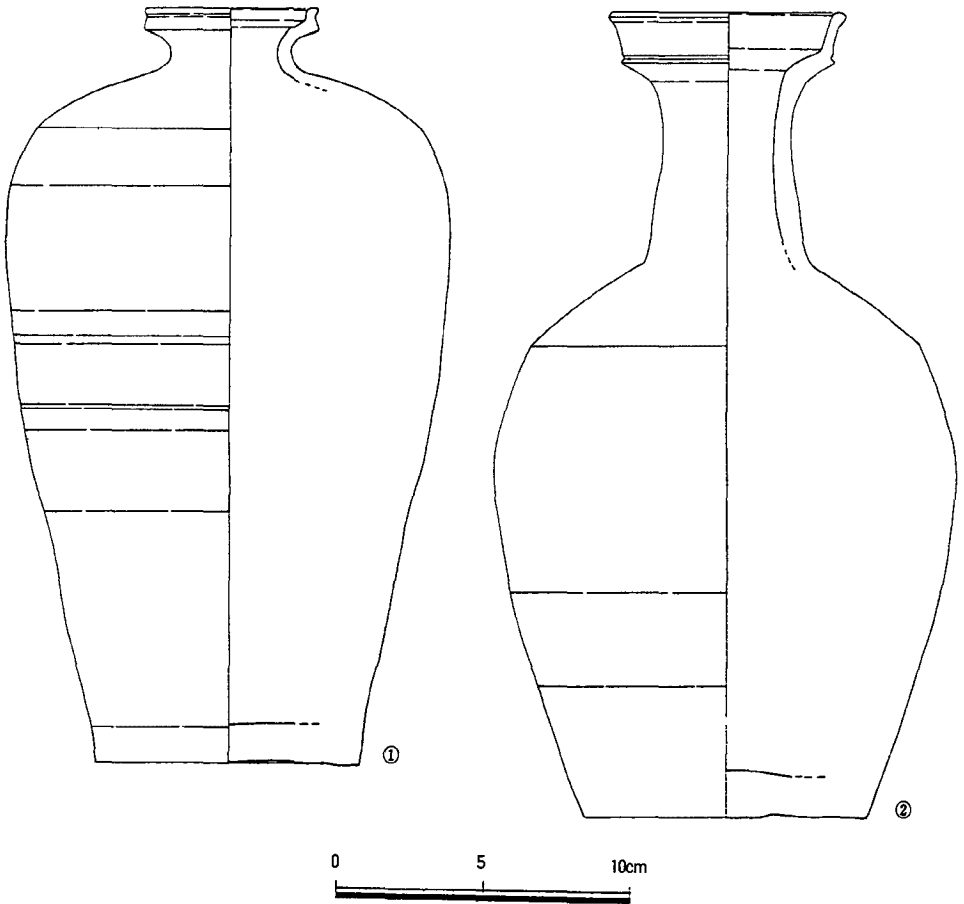
北(短)壁은 길이 45cm의 장방형 판석을 立垂積하여 축조하고 있다. 원래는 동벽과의 접합부에도 동형의 판석 1매가 있었다고 추정되며 서벽의 北端 뒤에도 소형판석이 세워져 있다. 이로 보아 2~3개의 판석을 토광벽에 세워 석곽의 첫 벽면인 북벽을 축조한 것 같다.

西(長)壁은 북벽의 西端 안쪽에 맞대어 직교하게 축조되었는데 중간부까지는 판상할석을 臥垂積하거나 立垂積하여 1단을 만들고 2~3단을 縱平積하여 쌓고 있으나 그 이후는 소형할석으로 1단부터 縱平積하여 6단까지 쌓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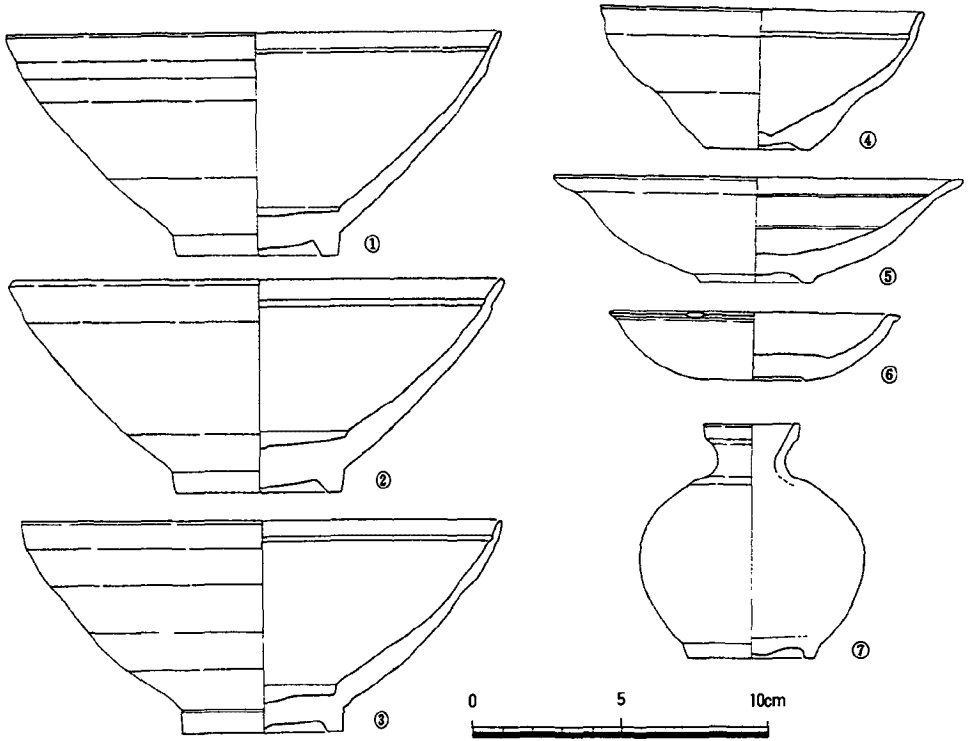
28) 鄭良謨, 1991, 『韓國의 陶磁器』, 文藝出版社, p. 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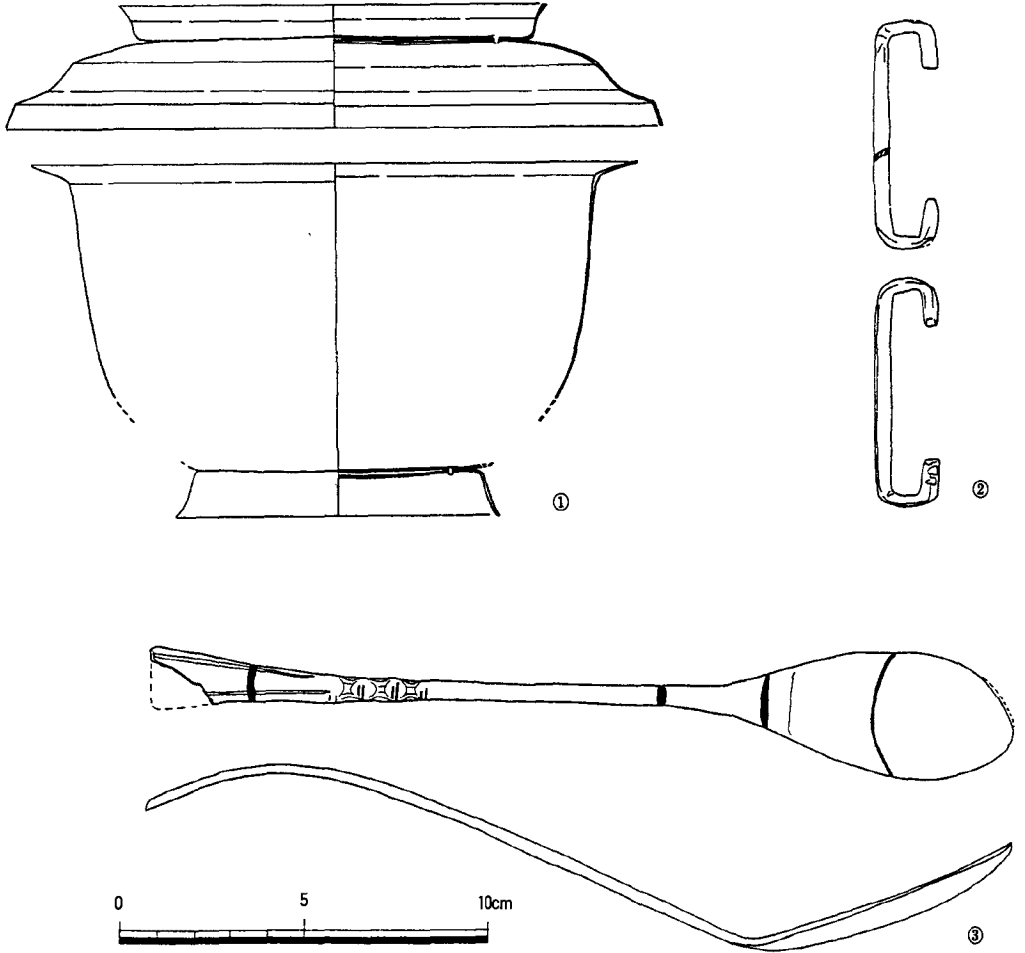
도면 10. 제 8호 석곽묘 실측도



도면 11. 제 8호 석곽묘 출토유물 실측도



도면 12. 제 8호 석곽묘 출토유물 실측도



도면 13. 제 8호 석곽묘 출토유물 실측도

있다. 또 특이하게 서벽의 남단은 판석(크기:60×40cm) 1매를 立垂積하여 마감하고 있다.

남벽은 좁혀진 동벽과 서벽사이에 할석으로 채우듯이 축조되었다. 필자는 이를 횡구부의 폐쇄석으로 판단한다. 그 이유는 兩長壁의 南端部가 대형 석재로 마감한 점과 그 下端이 보다 깊은 점, 그리고 세워 기대여진 판석이 남벽 외곽에 존재하며, 남벽의 안쪽이 일정한 벽면을 이루지 못하고 단지 할석으로 양 장벽의 공간을 채운점 등이다.

관대는 생토면을 평평하게 깎은 토광 바닥을 이용하고 있다. 석곽의 중앙부에서 철제가위가 출토되었고 남단부 입구에서 관못 1매가 검출되었다.

천장구조는 석곽 중앙에 가로 덮여진 개석 1매가 남아 있는 점으로 미루어 전면에 개석을 얹었다고 본다.

墓制의 형식은 횡구부를 가진 石槨木棺墓이고 유구의 규모는 길이 250cm, 폭 80cm, 높이 60cm 이다.

出土遺物로는 橫'8'字形으로 刀子形 가위날이 V字形으로 전개되는 철제가위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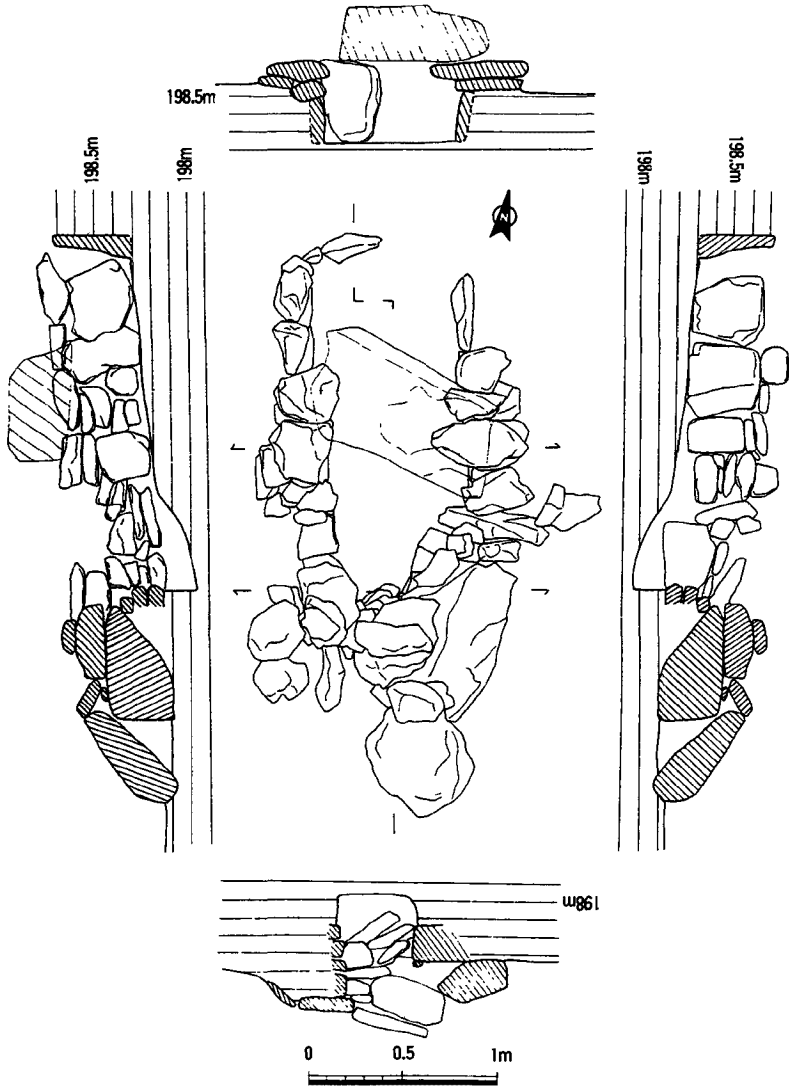
7) 第 1號 土壙墓(도면 15)

구릉 남동쪽 傾斜面에서 발견되었다. 지표 70cm 아래에서 墓壙의 바닥면이 노출되었고 토광은 어깨선은 25cm 높이로 남아 있다. 이는 생토면까지 굴광하지 않고 墓壙을 얇게 조성한 것에 기인한다. 얇게 조성한 것으로 보아 그 당시의 지표면이 현 지표면보다 높았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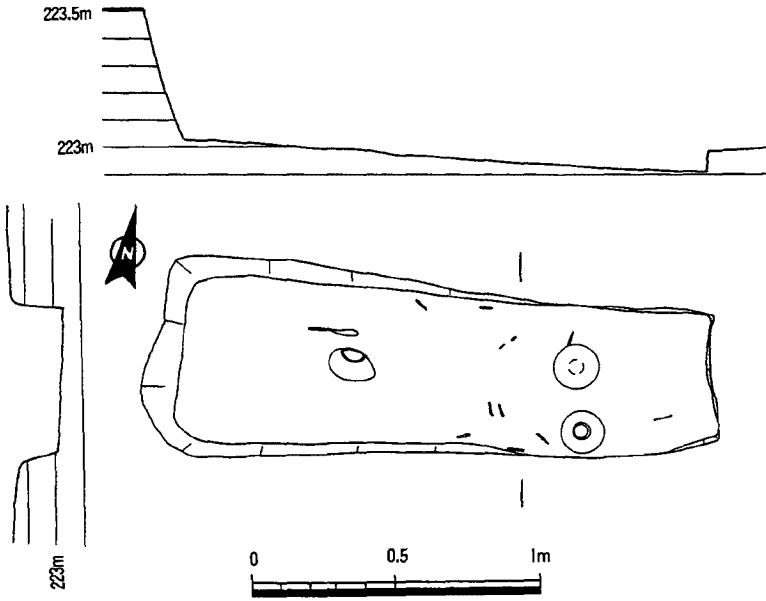
墓壙 바닥의 중앙에는 청동합과 靑銅匙가 매납되어 있었고, 동단부에 백자병이 놓여 있었으며, 관못이 발견되었다.

遺構의 장축방향은 서를 중심으로 10° 偏南하는 西 - 東向이며, 墓壙의 규모는 길이 180cm, 폭 55cm 이다.

出土遺物로는 백자병·청자대접·靑銅盒·靑銅匙 등이 있다.



도면 14. 제 13호 석곽묘 실측도



도면 15. 제 1호 토광묘 실측도

3. 종합

이상에서 용인 좌항리 고려 고분군의 발굴내용을 살펴보았다. 이를 요약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유구는 구릉의 능선과 南東쪽 傾斜面에 위치하는데 그 分布狀은 큰 공간을 두고 몇 군데에 흩어져 있다. 유구의 分布狀에서 분묘군의 일정한 조영 의식은 찾을 수 없는데 이는 지형적인 여건(地盤에 雜石이 많고 협소한 면적)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유구의 장축방향도 일정치 않으나 크게 西 - 東向과 北 - 南向으로 나누어지고 제 9·10호 석곽묘의 重疊狀으로 보아서 - 동향의 유구가 남 - 북향의 유구보다 先行 遺構임을 알 수 있다.

<표 1> 좌항리 고분군 유구 현황 및 유물 종합표

유구	구조 형식	장축방향	遺構(長×幅×高)		출 토 유 물														비 고				
			木棺(長×幅)	木棺	屍珠	토기	백자 대접	백자 접시	백자 완	백자 잔	백자 병	백자 주자	청자 대접	청자 접시	청자 유명	동청자	청동 합	청동 시		동	청동 과대	철제 가위	금
			木棺(長×幅)																				
제1호석곽묘	石槨墓	서·동 W-13 °N	(228)×70×60	有	無																		
제2호석곽묘	石槨墓	북동-남서 N-30 °E	175×47×(30)	無	有																		
제3호석곽묘	石槨墓 (橫口部)	서·동 W-05 °S	250×73×64 175×40	有	無	瓶 1 小瓶 1	1	1	1		1					1				1	1	西短壁 未築造 (土壙面 活用)	
제4호석곽묘	石槨墓	서북-동남 W-40 °N	270×40×45	有	無																1		
제5호석곽묘	石槨墓	서북-동남 W-34 °N	300×60×(30)	有	無	灰釉扁瓶 1	1				1												
제6호석곽묘	石槨墓	북·남 N-05 °N	320×90×50 190×40	有	無																		
제7호석곽묘	石槨墓	서·동 W-05 °N	290×56×80 (190)×38	有	無					1						1	1	1		1	銀製 1	西短壁 未築造 (土壙面 活用)	
제8호석곽묘	石槨墓 (橫口部)	서·동 W-05 °N	300×100×78 180×70	有	無		3		1				精質 2	1	梅瓶 1, 整口 瓶 1	1	1		1			西短壁 未築造(土壙面 活用)	
제9호석곽묘	石槨墓	북·남 N-10 °W	290×85×80	有	無	瓶 1, 灰釉小瓶 1		2		1		1	2			1	1			1			
제10호석곽묘	石槨墓	북동-남서 E-38 °N		無	有																	9號外 重疊, 9號보다 先行遺構	
제11호석곽묘	石槨墓	정서·동	(205)×80×(40)	有	無																		
제12호석곽묘	石槨墓 (橫口部)	서·동 W-10 °S	280×65×(60)	有	無																1	鐵製 1	
제13호석곽묘	石槨墓 (橫口式)	북·남 N-20 °W	250×80×60	有	無																1		
제1호토광묘	土槨墓	서·동 W-10 °S	180×55×(25)	有	無					1		1				1	1						
제2호토광묘	土槨墓	정서·동	170×70×(35)	無	無	壺 1										鉢 1							
제3호토광묘	土槨墓	정북·남	185×55×(20)	無	無																1		

<단위는 cm이며, () 잔존상태이다>

枕向은 木棺의 위치와 유물 매납상태 등에서 서 - 동향의 경우 西枕이, 북 - 남향의 경우는 北枕으로 판단되는데 이는 구릉의 高地를 향하는 것이다.

墓制는 石槨墓가 주류이고 소수의 土壙墓가 혼재한다. 석곽묘의 특징은 일부 橫口式 기법이 가미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입구를 短壁쪽에 두는 구조적인 문제이지 一墓에 二人 이상을 매장하는 기능적인 요소(追加葬을 위한 구조)는 아니다. 또 좌향리 석곽묘의 구조적 특징은 수직의 土壙壁面을 활용한 短壁의 未築造에 있다.

소수의 토광묘는 장축방향과 규모 및 출토유물상에서 석곽묘와 대등소이 하여 동일시기에 활용된 墓制로 본다.

유물은 토기·자기류와 금속류가 주류이다. 자기류는 기형과 기종이 다양하다. 靑磁·白磁·綠靑磁가 동반 출토되며 燔造상태에 따라 크게 粗質燔造品과 精質燔造品으로 구분된다. 녹청자는 기형과 번조상태등에서 인천 경서동요의 생산품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정질의 청자접시는 강진요 번조품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나머지 조절품은 용인서리요의 번조품으로 판단한다.

유물은 대부분 목관과 석곽의 입구 사이에 매납되었고 목관내에는 동경·가위·동곳 등의 금속류가 매납되었던 것 같다. 또 동경은 철제가위와 결합되어 출토하고 있다.

유적의 편년은 자기의 기형과 번조상태 등에서 11세기 중반부로 보고자 한다. 특히 용인서리의 퇴적층위중 '해무리굽백자층'이후인 '조질백자층'의 전기에 해당한다고 본다.

Ⅲ. 고려시대의 묘제

고려시대 묘제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왕족(왕릉)무덤과 귀족층무덤 그

리고 일반민들의 무덤 등 계층간 차이를 보인다고 알려져 있다. 이를 축조 방식에 의한 구조적 측면에서 구분하면 석실분과 석곽분·석상분 그리고 토광묘 및 회곽묘로 나뉘어 진다.

大形 橫口式 石室墳은 왕족의 무덤에 주로 사용된 형식으로 왕릉은 풍수 사상에 의거 南面한 산 기슭이나 중턱에 입지한다. 내부 구조는 반지하 또는 지하에 석실을 마련하는데 治石된 석재를 사용하여 2~3단 쌓아 방형(장방형)이 되게 하고 천장은 平天障 구조로 전체가 箱子形 석실을 이룬다. 석실의 규모는 한변 3m, 높이 2.5m 내외이며, 돌의 표면에 회를 칠하고 벽화를 그렸는데, 천장에는 星辰圖, 네 벽에는 四神圖와 十二支神像·꽃·대나무·소나무·인물 등을 그린다. 또 현실 바닥은 磚을 깔았고, 중앙에 棺臺를 만들었으며 남벽에 입구를 터놓았으나 판석으로 막았고 연도는 없다.²⁹⁾ 묘역의 길이와 너비는 대략 2:1 비율로 조성하는데 남북 길이는 36m, 동서 폭은 18m 정도이다. 또 4개의 단을 마련하고 제1단에 무덤을 마련하며, 그 3면에 돌담을 둘러싼다.³⁰⁾ 봉분은 둥근 모양으로 높이는 3~6.5m, 직경 8~9m이다. 봉분 기저부의 護石(병풍돌)에는 신라시대 고분에서 보이는 12지상을 새겨 놓은 것도 있다. 또 주위로 돌난간을 둘러었고, 그 외곽에 돌집승을 배치한다. 무덤 前面에는 床石을 두고 좌우에는 망주석을 세운다. 묘역 제2단에는 장명등과 문인상을 두며, 제3단에는 무인상을 세우고, 제4단에는 丁字閣을 세우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고려 왕릉의 내부 구조 형식은 통일신라 석실분을 계승한 것으로 당시 중국 宋·元의 아치형 천정구조를 지닌 博築墳의 영향을 받지 않은 고유한 것이다. 또 이는 이후 朝鮮時代 왕릉의 祖形이 되고 있다.³¹⁾

中小形 石室墳은 귀족무덤으로 왕릉보다 규모가 크게 줄어든 형태이다. 대부분 개성의 水落岩洞·法堂坊 石室墳과 같이 내부 벽면에 회칠하고 星辰

29) 金元龍·安輝濬, 1993, 『韓國美術史』, 서울대학교出版部, pp. 257~260.

30) 왕성수, 「개성일대 고려왕릉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90-2, pp. 32~33.

31) 金元龍·安輝濬, 『요책』.

圖와 十二支神像 등을 그린 벽화묘의 형태로 발견되고 있다.

石箱墳(石棺墓)은 대부분 귀족과 일반민의 화장묘로 곱게 연마된 점판암 板石 6매를 짜 맞춘 石棺에 화장된 유골을 磁器類와 함께 넣고 있고, 석관의 외면에 四神圖를 線刻하며, 뚜껑이나 別石에 墓誌銘을 刻字하는 경우가 많다.

石槨墓는 板石(割石)을 이용하여 여러단 쌓아 槨을 조성한 구조로 中流以上 일반인들의 무덤으로 본다.³²⁾ 또 토광묘는 전통적인 木棺用 토광묘로 일반 서민들의 무덤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밖에 고려시대부터 회곽묘가 등장한다.

고려시대 무덤에서 구조 형식에 관계없이 墳丘는 土塚으로, 그 모양은 원형 또는 (장)방형이며, 방형의 경우 들레에 장대석을 두르는 것이 보통이다.

고려시대에는 분묘의 규모를 신분에 맞추어 법으로 엄격히 규제하고 있었는데 『高麗史』 「刑法志」에

경종 원년(976년) 2월 문무양반 墓地의 규모를 정하였는데 1품은 사방 90步·2품은 80步로 하되 무덤 높이는 각각 1丈 6尺이며, 3품은 70步에 높이가 1丈이요, 4품은 60步·5품은 50步·6품 이하는 모두 30步로 하되 무덤 높이는 각각 8尺을 넘지 못하게 하였다³³⁾

이 기록에서 무덤의 높이를 1·2품은 16척(496cm내외: 營造尺= 30.785~31.0272cm³⁴⁾), 3품은 10척(310cm 내외), 4품 이하는 8척(248cm 내외)을 넘지 못하게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묘지의 면적도 제한하고 있다.

또 당시 墓地를 관리하는 규정도 『高麗史』 「刑法志」에 보이는데

32) 金元龍·安輝濬, 『앞책』.

33) 『高麗史』 卷八十五, 志三十九, 刑法二, 禁令.

“景宗元年二月 定文武兩班墓地 一品方九十步 二品八十步 墳高並一丈六尺 三品七十步高一丈 四品六十步 五品五十步 六品以下並三十步 高不過八尺”

34) 윤장섭, 1975, 「한국의 영조척도」 『대한건축학회지』.

다른 사람의 경지(땅)에 몰래 무덤을 쓰는 자는 매 50대를 치고, 묘전(무덤에 속한 경지)에 묻은 경우에는 곤장 60대를 치며, 경지의 주인은 이정(里正)에게 알리고 무덤을 옮겨 묻어야 한다. 이정에게 고하지 않고 옮겨 묻은 자는 매 30대를 친다. 남의 묘전을 몰래 경작한 자는 곤장 100대를 치고 무덤을 철거한 자는 도형(徒刑) 1년에 처한다. … 중략 … 남의 무덤 안에 있는 나무를 찍어 간 자는 (피륙으로 환산하여) 1尺에 곤장 60대·1匹에 70대·2匹에 90대·4匹에 100대를 각각 치고, 5匹에는 도형(徒刑) 1년·10匹에는 1년반·15匹에는 2년·20匹에는 2년반을 각각 처하며, 30匹에는 2,000리 밖으로·35匹에는 2,500리 밖으로·40匹에는 3,000리 밖으로 각각 유배를 보낸다. 친척의 무덤 안에 있는 나무를 베은 자도 이와 같다.³⁵⁾

여기에서 묘지에 속하는 경작 할수 있는 경지(墓田)가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고, 묘지안의 수목도 엄격히 보호되었음을 알려준다. 또 盜葬이나 사사로운 타인묘 移葬까지 세세히 규제하고 있는 등 고려시대에는 墓地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 졌다고 짐작한다.

이밖에 고려시대 葬法의 일면을 유추 할 수 있는 사료가 『高麗史』에 있는데

(文宗)29년(1075년)에 … 중략 … 군인이 죽으면 관과 덧관을 공급하여 隊典(隊典)으로 하여금 시체를 호송케 하며, 그 재물은 처자에게 주고 장례에 쓰는 비용은 나라에서 주기로 결정하였다.³⁶⁾

라는 기록과

- 35) 『高麗史』卷八十五, 志三十九, 刑法二, 禁令. 盜葬他人田笞五十 墓田杖六十 告里正移埋 不告而移笞三十 盜耕人墓田杖一尺 傷墳者徒一年 … 斫伐他人墓塋內樹木者 一尺杖六十 一匹七十 二匹九十 四匹二百 五匹徒一年 十匹一年半 十五匹二年 二十匹二年半 二十五匹三年 三十匹流二千里 三十五匹二千五百里 四十匹三千里 伐親屬墓內樹者亦同 …”
- 36) “高麗史年表征防軍人志三十五者給棺槨令隊典護屍遞傳并其資財付諸妻子官給葬時所需”

高宗 19년(1232년) 11월에 처음으로 관과 덧관에 금박으로 치레하는 것을 금지하였다³⁷⁾

라는 기록이 보여 고려시대에는 棺과 함께 槨이 사용되었음을 알려준다.

또 외국에서 전래된 불교식 火葬을 비판하며, 고유의 장법 시행을 주장하는 사료가 보인다. 즉

공양왕 원년(1389년)에 사헌부에서 상소하기를 ‘葬리는 것은 감춘다(藏)는 것이니 葬事를 지냄으로써 해골을 감추어 나타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 중략 … 네치 두개의 棺과 세치 두개의 덧관(槨)을 쓰도록 제정한 것은 오히려 (시신이) 빨리 썩을까 염려한 것이오, 수십 벌의 옷을 시체에 입히고 싸는 것은 그래도 엷지나 않을까 염려한 것이며, 곡식을 관속에 넣은 것은 개미가 침범하지나 않을까 염려한 것입니다.’³⁸⁾

이상의 사료에서 고려시대에는 葬禮時에 네치 두개의 관과 이보다 약간 얇은 덧관을 함께 사용하고, 여러 벌의 수의를 시신에 입히며, 棺안에 곡식³⁹⁾을 넣는 것이 보통 고유한 장례법이었다고 판단된다.

IV. 맺는 말

고려시대 보편적인 묘제에 좌향리 고분군을 대비하면 우선 입지면에서

37) 『高麗史』 卷八十五, 志三十九, 刑法二, 禁令.

“高宗十九年----- 十一月始禁棺槨飾金箔”

38) 『高麗史』 卷八十五, 志三十九, 刑法二, 禁令.

“恭讓王元年憲司上疏曰葬者藏也所以藏其骸骨不暴露也----- 聖人制以四寸之棺三寸之槨猶恐其速朽斂衣數十襲猶恐其或薄也置穀棺中猶恐其螻蟻之或侵也--”

39) 실제로 중원 누암리 23호 석곽묘에서는 81점이나 되는 많은 관못과 함께 곡식이 출토된바 있어 『고려사』의 기록과 부합된다.

좌우로 보다 길게 흘러내린 구릉을 두고, 그 중앙에 감싸안긴 듯한 구릉에 분묘를 조성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인접한 용인 마북리 고려고분에서도 보이는데, 고려시대 일반적인 묘지 선정 방식(풍수지리)과 일치한다.

좌항리 고분군의 피장자는 고려시대 묘제의 축조 기법상 중류 이상의 일반민(석곽묘)과 평민(토광묘)에 해당한다. 봉분의 높이와 본래 묘지의 면적을 복원하지 못하여 『刑法志』에 나타난 묘지의 규정과 대비할 수는 없으나, 부장품 중에서 인천 경서동 요지의 녹청자와 전남 강진에서 번조된 것으로 판단되는 청자류가 용인 서리 번조품과 함께 나타나는 등 장거리 교역의 증거가 나타나는 점에서 상당한 세력가의 분묘로 추정한다. 이는 고려시대 참역제도상의 하나를 이루는 좌찬역 부근에 입지하는 교통의 편이성도 반영된 것으로 조심스럽게 추정한다.

좌항리고분군의 주요제는 석곽묘이다. 석곽(실)묘의 계통을 살펴보면 삼국시대 낙동강 유역의 지배층 무덤으로 주로 채용되다가 6세기 이후 영남지방과 충청도 지역까지 확대되면서 일반인들의 묘에도 채용된다.⁴⁰⁾ 통일신라기에는 황혈식 석실과 함께 사용되다가 고려기에 들어 사라졌다고 보았으나, 근래 발견 예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축조기법상 삼국시대 석곽묘의 전통은 조선시대 석곽묘⁴¹⁾에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15세기 후반으로 편년되는 김해 덕산리 민묘(석곽묘)에서도 황구식 석곽(실)묘가 발견되어 좌항리 황구식 석곽묘는 계통상 삼국시대 석곽묘에서 조선시대 석곽묘로 이어주는 고리 역할을 하는 셈이다.

좌항리 고분에서는 목관의 사용은 확인하였으나, 덧관(槨)의 사용여부는 명확히 확인하지 못하였다.⁴²⁾ 또 타 유적에서 보이는 요갱⁴³⁾의 구조도 전

40) 朴廣春, 1995, 「考察」 『金海德山里民墓群』, 東亞大學校博物館.

41) 沈奉謹·朴廣春, 1995, 『金海德山里民墓群』, 東亞大學校博物館.

42) 제 8호분에서는 23개의 관뭇이 검출되었으나, 각 관뭇사이에 구분되는 경향은 찾지 못하였다. 그러나 35개의 관뭇이 출토된 화성 송라리 1호분에서는 二重槨이 사용되고 있어 관뭇이 대량 출토되는 고려시대 분묘의 경우 덧관의 사용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혀 보이지 않는다.

용인지역에서 발견된 또 다른 고려고분으로는 植金里 高麗 墳墓群이 있다. 양지면 식금리 金箔山 중턱의 남쪽 傾斜面에 10여기가 분포하는데, 횡구식 石室(槨)墳으로 보고 있다.⁴⁴⁾ 이밖에 전술한 마북리 유적과 상갈리에서 발견된 토광묘 1기⁴⁵⁾가 있다.

용인지역 고려 고분은 모두 구릉 중턱과 사면에 입지하는 경향을 보이고, 석곽묘의 경우 좌향리 고분에서와 같이 횡구식 기법과 단벽의 미축조 또는 간략화 경향이 공통적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용인지역 고려고분의 지역적인 특징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좌향리 고분군의 주인공은 11세기경 용인지역(좌찬역)에 기반을 두는, 봉분의 높이가 8척(약2.5m) 이내로 규정되어 지던 중류층으로 장법상 불교식 장법보다는 삼국시대 이래 우리 고유의 장법인 석곽묘와 토광묘를 선호하던 집단으로 추정한다.

43) 요갱이 발견되는 고려시대 고분으로는 개성 법당방·대구 송현동·상주 청리·안산 부곡동·충주 누암리·화성 건지리·여주 하거리·고양 더부골유적 등이 있고, 조선시대 분묘로는 파주 성동리·법흥리유적 등이 있다. 요갱 안에 토기호·동전·철기 등을 매납하고 있는데, 그 계통이 원삼국기의 요갱과 계속 연결되는 지는 추후 삼국시대와 통일신라기의 고분(특히 토광묘)에서 그 고리를 찾아 보아야 할 것이다.

44) 국립중앙박물관, 1988, 「용인군 지표조사」 『新岩里』 I.

45) 洪鍾必·嚴翼成, 1998, 『기흥상갈지구문화유적 시굴조사보고서』, 명지대학교박물관 외.

「고려시대 고분에 대한 일고찰」에 대한 토론요지

길 경 택 (충주박물관 학예연구실장)

이곳 경기도 용인은 고려시대 처인현으로 충주와도 깊은 관련이 있는 곳 이기에 항상 많은 관심이 있던 곳이다. 몽고침입시 이곳 처인성전투를 승리로 이끄는 데 결정적 공헌을 하였던 김윤후장군이 이곳에서의 전투 후 환속하여 충주산성 방호별감으로 제수받고 충주에서의 전투를 지휘하고 있다. 즉 몽고의 5차침입시 충주성전투에서 야고가 이끄는 몽고의 본진을 맞아 70여일간의 격전을 치루고 승리로 이끌고 있음을 본다. 이런 까닭에 몇번 와 보지는 않았지만 용인과 충주는 상당히 친근한 느낌을 항상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고려시대의 용인”이라는 주제의 학술대회에 토론자로 초청받게 되어 개인적으로도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

오늘 토론의 주제인 ‘용인 좌향리 고려묘군’에 대하여는 보고서만을 통하여 보았기에 자세히 알지 못하고, 고려시대의 무덤들 또한 고고학계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하였던 관계로 연구가 소홀한 분야이기에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제가 충주에서 단월동고려묘군을 비롯하여 호암동 등 고려시대 무덤을 조사하여 본 경험만을 가지고 평소 의문이었던 사항에 대하여 오늘 엄익성선생님께 몇가지 여쭙어 보고자 한다. 또 이러한 주제가 앞으로 많은 조사를 통하여 정리되고 시대적, 지역적 특성들이 심층 연구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린다.

첫째, 고분이라는 용어의 문제이다.

좌항리 고려무덤을 발굴하고 이를 중심으로 정리하여 발표를 하였는데 쉽지 않은 분야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주어 많은 가르침을 받았다. 그런데 그 제목을 ‘고려시대 고분에 대한 일고찰’이라고 하여 ‘고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석곽묘나 토광묘는 논문대로 이야기를 하면 중류이하 사람들의 무덤형식인데 여기에 고분이라는 용어가 타당한지가 의문이다. 물론 옛무덤을 통칭하는 용어로 사용한다면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삼국시대에 보이는 고분과 고려시대의 무덤은 용어에 있어서 구별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견해이다. 삼국시대의 고분이라 함은 일본학계에서 통칭하듯 ‘고총고분(高塚古墳)’의 줄임말로 분구를 크게 만들어 고대의 통치자들이 자신의 세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만든 무덤의 하나를 지칭하는 말로 알고 있다. 이러한 삼국기의 고분과 고려의 무덤은 또 다른 용어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다.

둘째는 석곽묘와 토광묘의 주인공 문제이다.

여기에서는 석곽묘의 주인공은 중류이상의 일반인 무덤이고, 토광묘는 일반서민의 무덤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좌항리의 경우는 석곽묘 13기, 토광묘가 3기로서 석곽묘가 주류를 이루는 상황으로 11세기경 용인지역(좌찬역)에 기반을 둔 중류층의 무덤으로 이해하였다.

그런데 제가 충주에서 92년과 94년 2차에 걸쳐 단월동에 분포한 고려묘를 발굴해 보니 석곽묘 20기로 주류를 이루고 있었고 토광묘는 7기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 이를 신분의 차이라고 생각하면 석곽묘와 토광묘의 크기나 반출하는 유물의 갖춤새가 조금은 달라야 하는데 크게 다르지 않았고, 오히려 석곽묘를 파괴하고 그 위에 토광묘를 만든 시대적인 차이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물론 지역적 차이일 수 있겠지만 단월동 유적의 경우는 시대적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95, 96년도에 발굴한 호암동 유적의 경우 172기의 무덤이 발굴되었는데 이중 고려시대의 것은 40여기로

석곽묘는 5기이며 나머지는 모두 토광묘였다. 이곳은 대부분 도굴이 자행되었던 관계로 유구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웠으나 역시 토광묘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이곳에서 출토되는 유물을 가지고 석곽묘와 토광묘의 주인공이 신분이 달랐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웠다. 물론 시대적인 차이의 구별도 불가능하였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가 의문이다. 충주 단월동과 호암동의 두 유적간의 거리가 2km가 안되는데, 한쪽은 석곽묘가 주류를 이루고 다른 한쪽은 토광묘가 주류를 이루는 모습이 계급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무덤을 만드는 집단간의 전통의 차이인지가 분명치가 않다. 저는 오히려 후자의 가능성이 더 크지 않나 생각한다.

셋째, 출토유물의 제조처에 대한 의문이다.

고려시대는 중국의 송나라 등과도 교섭하는 등 활발한 무역이 이루어진 시대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좌향리 8호석곽묘에서 출토되는 유물중 녹청자매병이나 병은 인천 경서리요지의 번조품이요, 백자대접과 잔 등은 용인 서리요 번조품이고, 청자접시는 전남 강진요의 번조품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의 조사 예에 근거한 비교추정이라 할 수 있다. 이를 교역을 전제로 한 상당한 세력가의 존재로 평가하는 것은 지역문화의 우수성만을 강조한 것은 아닌가 의문이다. 즉 용인지역에서 11세기경 석곽묘를 조성한 처인부곡의 중상류층이 전남과 인천의 상등품을 생활용구로 사용하였다고 하는 것은 그 가능성은 있지만 어딘지 석연치 못한 구석이 있다. 매납유물은 평상시 생활용구로 사용하지 못하는 빈한한 처지였다고 하더라도 고급품을 넣을 수 있기에 이것을 신분의 척도로 생각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용인지역은 일찍부터 도자문화가 발달한 곳인 까닭에 녹청자나 고급청자를 번조하던 또 다른 유적이 확인될 가능성은 없는지 궁금하다.

이상과 같은 의문은 이 시대의 유적을 조사하면서 느꼈던 생각의 일부를 제기한 것이다. 제가 살고있는 충주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한 시대의 사회상을 규명하기에는 이와 관련된 많은 주변자료들이 조사되어야 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석이 내려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 토론하는 고려시대에 대하여는 고려청자만이 강조되었을 뿐 그 주변의 여러 사항들은 그동안 도외시되었기에 많은 의문이 남아있는 시대이다.

오늘 이러한 자리를 계기로 이 시대에 대한 연구가 보다 진전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며, 향토문화자료에 대한 다양한 정보의 교류와 토론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龍仁 瑞峰寺址 玄悟國師塔碑에 대한 考察

梁 正 錫 (龍仁市史編纂委員會)

目 次

- | | |
|-------------------|-------------------|
| I. 머리말 | IV. 玄悟國師와 瑞峰寺의 관계 |
| II. 玄悟國師塔碑의 分析 | V. 맺음말 |
| III. 玄悟國師의 生涯와 位相 | |

I. 머리말

용인지역에는 고려시대와 관련된 유적이 많이 알려져 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이동면 서리의 백자요지, 대몽항쟁으로 유명한 남사면 아곡리의 처인성지 그리고 수지읍 신봉리의 서봉사지 등을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瑞峰寺址에 있는 玄悟國師塔碑¹⁾ 현재 보물 제9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비석의 보존과 유지에 많은 노력이 행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보물 지정이나 보존되는 현황과는 달리 정작 현오국사탑비 자체의 내용이나 현오국사의 위상에 대해서는 학계의 주목을 별로 끌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²⁾ 이는 아마

1) 이 碑에는 塔碑라는 명칭은 들어 있지 않다. 『朝鮮金石總覽』, 『韓國金石全文』 등에도 모두 玄悟國師碑로 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문화재등록이 塔碑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존중하여 본고에서는 塔碑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2) 고려중기 화엄종 승려 및 화엄종단에 대한 논문으로는

도 비문의 상당부분이 풍화로 결락되어 해석이 용이하지 못하다는 점과 그나마 밝혀진 내용에 있어서도 다른 고승들과는 달리 그다지 많은 행적을 남기고 있지 못한 점 등이 그 원인이 될 듯하다. 그러나 전근대사를 연구하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한편의 자료도 아쉬운 상황이므로 이 비문에 대한 해명이 언제가는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왔다. 그러던 중 최근 들어 역사학계에서는 12세기 전반의 시대상황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³⁾ 이와 함께 불교계에서도 역대의 고승비문에 대한 역주 작업이 지속적인 성과물로 나오고 있어⁴⁾ 당시를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제연구들에 힘입어 지금까지 미루어져 왔던 현오국사탑비에 대한 분석을 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武臣亂이 일어나기 전의 불교 상황에 대한 인식의 확대와⁵⁾ 함께, 당시 왕족출신 승려들과의 연계선상에서

崔柄憲, 1980, 「高麗時代 華嚴學의 變遷」, 『韓國史研究』 30.

——, 1990, 「高麗時代 華嚴宗團의 展開過程과 그 歷史的 性格」, 『韓國史論』 20, 국사편찬위원회.

許興植, 1981, 「高麗中期 華嚴宗派의 繼承」, 『韓國史研究』 35.

韓基汶, 1990, 「高麗中期 興王寺의 創建과 華嚴宗團」, 『鄉土文化』 5.

등이 있는데, 그 중 고려 중기 왕실출신 승려에 대해 상당히 자세하게 다룬 바 있는 한기문의 글에서조차도 현오국사의 경우는 제외되어 있다. 현오가 왕실출신 화엄종 승려이면서도 홍왕사와 연관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루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3) 南仁國, 1990, 「高麗 睿宗代 支配勢力의 構成과 動向」, 『歷史教育論集』 13-14합.

——, 1990, 「高麗 仁宗代 政治支配勢力의 成分과 動向」, 『歷史教育論集』 15.

朴宗基, 1992, 「12세기 高麗 政治史 研究論」, 『擇窩許善道先生停年紀念韓國史學論叢』, 한국역사연구회 12세기 사회변화 연구반, 1993, 「공동연구 12세기 전반기 정치세력과 정치운영」, 『역사와 현실』 9.

4) 특히 본고와 관련된 것으로는 李智冠, 1996, 『校勘譯註 歷代高僧碑文』 권4 高麗篇 3.

5) 崔柄憲, 앞의 글, 1990 에서는 고려시대 화엄종단의 전개과정을 4기로 나누어 살펴 피면서 제 2기를 의천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pp.194-208) 당시 불교계에서 의천의 영향력은 실로 막대한 것이기는 하지만, 의천의 사후 武臣亂 전까지가 공백으로 남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의천 이후에 불교계에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던 왕족 출신 승려들의 움직임은 전혀 드러나지 못하게 되었다.

현오국사의 위상과 생애, 나아가 서봉사와의 관련성을 조금이나마 밝혀 보려고 한다. 현학들의 많은 질정을 바란다.

II. 玄悟國師塔碑의 分析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리 광고산 중턱 서봉사지에 위치하고 있는 현오국사탑비는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고려 명종 15년(1185)에 세워졌다. 여기에는 ‘高麗國大華嚴浮石寺住持贈諡玄悟國師碑銘’이라고 하여 그가 부석사 주지였음을 특필하고 있다. 이러한 화엄종 고승의 비문이 왜 광고산 아래의 서봉사에 세워졌는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玄悟國師 宗璘은 『高麗史』 및 『高麗史節要』 등의 문헌사료에는 나오지 않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 알 수 있는 자료는 오직 이 현오국사탑비 밖에는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현오국사탑비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서 시작하는 것이 순서인 듯하다.

[현오국사탑비문]

贈諡玄悟國師碑銘

高麗國 大華嚴浮石寺住持 贈諡玄悟國師 碑銘 并序

朝散大夫 左散騎常侍 翰林學士 寶文閣學士 知制誥 兼太子賓客 賜紫金魚袋 臣 李知命 □□□

入內侍 文林郎 將作少監 國學直講 充史館修撰官 兼太子中允 賜紫金魚袋 臣 柳公權 □□□

가) 盖聞 佛之道難成 言之 使人 悲酸愁苦 其始學也 弃絶骨肉 入山林 衣麻布 自身口意 莫不有禁戒 茹苦含辛 精修□□□□□□□□□□□□□□□□
皆非□蓋人情 好逸樂而惡辛勤也 何況王□子弟 生於富貴 嗜欲玩好 日陳於前 而沉迷 荒惑 至死不悟 滔滔皆是 迺□□□□□□□□□□□□□□□□

라) 門人 具狀以聞曰 吾師之骨 已赴宅 垂
宜有以誌之 敢以誠請 上 命 臣 知命 銘之 臣 無它技 粗巨文字 立身无可□□以辭 乃
據門人所錄 強序而銘曰

十方世界 華藏垢塵 師之遊戲 如海之鱗
一去一來 體道之眞 大空之心 萬像之身
濯濯水月 英英花春 劫風忽起兮 身□一落
情雲散盡兮 心月孤輪
既已能福利三韓兮 風恬浪靜於一國
又烏知却向他方兮 布慈雲甘露而
行化如神 鏤冰琢雪 功跡略陳 流芳萬古
久而彌新

大定二十五年 乙巳 二月 日 門人等 奉宣 瑞峰寺 立石
興王寺 大師 敏求 刊字

* 본 비문은 『海東金石苑』 卷7, 『朝鮮金石總覽』 上, 『韓國金石全文』 中世 下 등에 掲載되어 있는 것을 교감한 『校勘譯註 歷代高僧碑文』 高麗篇 3 을 이용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해석도 대부분 『校勘譯註 歷代高僧碑文』 高麗篇 3을 염두에 두고 이루어졌다.

위의 비문 중 연대기적인 성격이 강한 나)부분을 요약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스님의 휘는 宗璘, 자는 重之며 속성은 王氏이다. 結락이 일부 있지만 帶方公 備의 子로 생각되며, 따라서 그가 王族임을 알 수있다. 13살에 法門이 되었는데, 역시 약간의 結락부분이 있지만 당시 仁宗은 ‘大覺의 餘風’을 계승 발전시킬 사람을 圓明國師에게 命하여 찾았던 것 같다. 이때 15살이었던 宗璘은 佛日寺에 나아가서 受戒하였다(1141). 인종은 종린에게 宮内の 도량에서 한동안 강론하게 하였다. 毅宗 元年(1146)에 이르러서는 首座로 進급하면서, 歸信·國泰·重興·浮石 등의 절을 차례로 住持하였으며, 그 후에는 僧統으로 추대되었다. 1147년에는 大內로 迎入되어 大弟의 머리를 깎아주기에 이르렀다. 그러다가 明宗 원년(1170)에는 다시 佐世란 호가 첨가되었다. 1179년 6월 29일 지병으로 入寂하였으며, 유해는 開京 동남쪽 (歸)法寺에 임시 안장하였다. 7월 16일 國師로 책봉하고, 시호를 玄悟라고

추증하였다. 17일 東林山 기슭에서 茶毗하고, 이 해 11월에 長湍縣 大倬山에 安厝하였다. 大定 25년(1185) 乙巳 2월에 門人 등이 王命을 받들어 瑞峰寺에 비를 세우고 興王寺 大師 敏求가 글자를 새겼다.

이상은 비문 중 현오국사의 행적부분만을 간추린 것으로, 비문에 나타난 행적의 내용이 상당히 소략하다는 느낌을 갖게 한다. 종린이 살았던 당시는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난을 지난 직후이며, 이후 무신의 난이 일어나던 정치적으로 매우 급변하던 상황이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가 왕실의 일원이었던 것을 고려할 때, 다른 왕족출신 승려와는 대조적으로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즉 의천의 경우는 그가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음은 그의 비문에 자세히 나오고 있으며,⁶⁾ 의천의 동생이자 예종의 숙부였던 導生僧統 鑑는 정치적인 문제로 유배되었고,⁷⁾ 宗隣의 스승인 원명국사 澄嚴 역시 이자겸의 난을 피해 한동안 개경을 떠나 있었던 것이나,⁸⁾ 의종의 동생인 冲曦의 경우 당시 정치세력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과⁹⁾ 비교하여 볼 때 매우 특이한 경우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비문의 다른 부분에는 종린이 ‘王家의子弟로서 부귀한 신분으로 태어나 嗜慾과 玩好들이 날마다 목전에 陳列¹⁰⁾되는데도 불구하고 ‘천성이 謙謹하여 검소와 절약으로 몸을 단속하고, 생활에 풍요로움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며, 기겁거나 불쾌함을 얼굴 표정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으며, 善行을 좋아하고 權勢에 아부하지 않았으며¹¹⁾ 나아가 ‘존귀한 위치에서 스

6) 『開城靈通寺大覺國師碑』, 『朝鮮金石總覽』 上, ‘有大政事 必款密諮決 故所與上論列國家事 甚多’

7) 『高麗史』 권 90 열전 3 종실 1 道生僧統 鑑. 『高麗史』에는 道生으로 되어있으나 『金溝金山寺慧德王師眞應塔碑』에는 導生으로 되어있다. 여기서는 金石文의 예에 따르고자 한다.

8) 『開城興王寺圓明國師墓誌』, 『朝鮮金石總覽』 上.

9) 『高麗史節要』 권 11 의종 9년 12월조, 11년 정월조, 21년 4월조; 권 12 명종 7년 2월조, 8년 9월조, 10년 11월조.

10) ‘何況王□子弟 生於富貴 嗜欲玩好 日陳於前’

11) ‘節天資謙謹 以儉約檢身 不求贏餘 喜愠 不形於色 好善忘勢 雖至斯養 莫不待之

스로 下賤하게 처신하였다'¹²⁾라고 하는 부분이 주목된다. 물론 이를 종린이 당시 세속적인 정치상황에서 일정 정도의 거리를 두고 있었던 듯한 표현이라고 이해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표현들 또한 다른 사람들의 평가였기 때문에 일반적인 수사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비문의 (다)부분에 나오는 '불의하게 얻은 부귀는 나에게 있어 마치 浮雲과 같다'¹³⁾라는 종린의 말에 이르러서는 이를 단순히 의례적인 언사라고 하기에는 무엇인가 그 배경이 있는 듯하게 여겨진다. 즉 이러한 그의 淸貧한 모습은 일반적인 왕족출신 승려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으며, 무언가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갖게 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우선 비문에 나타난 종린의 모습을 통해 그러한 변화의 확기가 보이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왕실의 자제로서 부귀와 멀어지게 된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은 仁宗이 '大覺의 餘風'을 이를 인재를 圓明國師에게 찾게 하는 부분이다. 이를 통해 발탁된 종린은 인종의 총애를 듬뿍 받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당시 15살이었던 宗璘이 佛日寺에 나아가서 受戒를 받은 후 宮內의 도량에서 지속적으로 강론하였을 정도였다고 한다면, 인종에게 높은 인정을 받지 않고는 안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그의 불교계에서의 위상은 毅宗이 왕위에 오를 당시까지만 해도 지속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 때는 이미 그가 首座에 이어 다시 僧統에 올라 있던 시기로 大弟의 머리를 깎아주고 있는 것으로 유추가 가능하다. 이는 文宗이 그의 아들인 義天을 당시 최고의 승려인 靈通寺 景德國師를 불러 親教師로 삼아 출가하게 하였고,¹⁴⁾ 肅宗의 아들인 澄儼도 대각국사 의천에 의해 출가하였듯이,¹⁵⁾ 의종의 王弟가 직접 종린을 통해 출가하였다는 것은 당시 그가 최고의 승려로

以厚焉

12) '以貴下賤'

13) '又曰 不義而富且貴 於我如浮雲'

14) 『開城興王寺大覺國師墓誌』 『朝鮮金石總覽』 上.

15) 『開城興王寺圓明國師墓誌』 『朝鮮金石總覽』 上.

인정받고 있었음을 이야기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위상을 가지고 있었던 종린은 정작 毅宗代에 있어서는 이전과는 달리 드러나는 활동을 하지 못하였던 것 같다. 이는 당시 그가 젊었고 僧職 또한 가장 왕성하게 활동할 때인 僧統이었음을 염두에 둘 때 매우 이례적이라고 할만하다. 그러다가 무신의 난으로 인해 왕위에 오른 明宗代에 이르면 佐世란 칭호를 받으며 다시 우대를 받게 되기는 하였으나, 얼마 안되어 입적하여 현오국사라는 시호가 추증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현오국사탑비를 통해 볼 때 그의 행적은 크게 인종에 의해 ‘大覺의 餘風’을 이어나갈 인물로 뽑혀 활발한 활동을 하였던 시기와 비록 승통이었음에도 활동을 하지 못하던 의종 이후의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이렇게 시기를 구분하여 볼 때 ‘불의하게 얻은 부귀’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의 짐작은 할 수 있지만 현오국사탑비의 내용만으로는 그 설명이 충분하지 못한 것 같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비문을 통해 나타나는 이러한 시기 구분을 중심으로 당시의 각종 금석문들과 문헌사료에 대한 검토를 통해 현오국사 종린의 생애와 위상을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종린이 ‘대각의 여풍’을 잇게 되는 시기부터 살펴 보겠다.

III. 玄悟國師의 生涯와 位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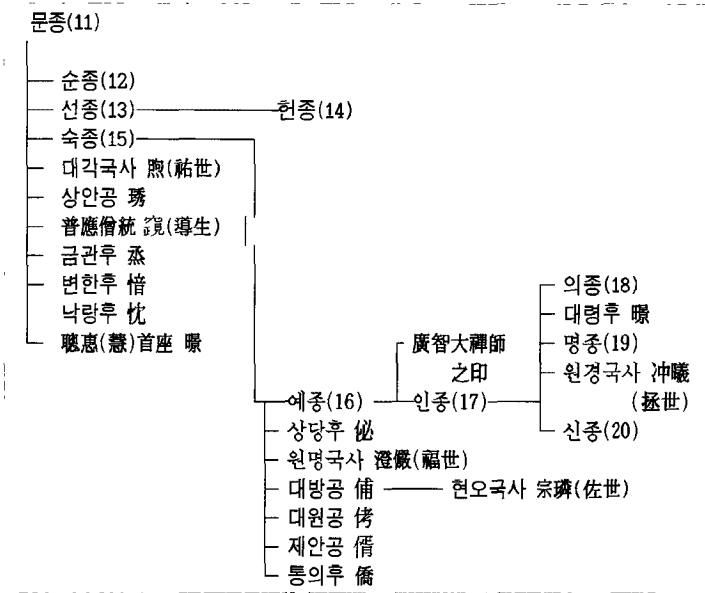
1. 大覺의 餘風과 宗璘

주지하다시피 玄悟國師 宗璘이 학계에 알려진 것은 고려중기의 왕족출신 화엄종 승려 중의 한명으로서였다.¹⁶⁾ 따라서 종린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

16) 許興植, 1981, 「高麗中期 華嚴宗團의 繼承」, 『韓國史研究』 35, p.29.

는 고려중기 왕족출신 화엄종 승려의 계보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아래의 표는 고려 중기 왕실세력의 계보를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다.

표 1)



이를 통해 볼 때 고려 중기에는 왕족출신 승려들이 상당히 많았음을 알 수 있다. 그 중 대부분은 華嚴宗으로 출가하였지만 모두 그러한 것은 아니었다. 瑜伽業의 대표적인 승려인 韶顯의 제자로 잘 알려진 導生僧統 鏡,¹⁷⁾ 예종의 아들로 알려진 廣智大禪師 之印¹⁸⁾ 등은 각기 유가업과 선종으로 진출하여 그 안에서의 입지를 강화하였던 것이다. 어쨌든 위의 표에 나타나는

17) 「金溝金山寺慧德王師眞應塔碑」 『朝鮮金石總覽』 上.

18) 「廣智大禪師之印墓誌」 『韓國金石全文』 中世上.

바와 같이 종린은 大覺國師 義天, 圓明國師 澄儼, 元敬國師 冲曦와¹⁹⁾ 함께 왕족출신 화엄종 승려의 일원이었다. 그런데 종린은 다른 승려들과는 달리 王子나 王弟가 아닌 왕족의 자제로서 이들의 계보속에 들어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睿宗 당시에 왕위를 계승할 아들이 인종밖에 없자 동생의 아들인 종린을 징엄의 문하로 대신 출가시킨 것으로 이해하였다.²⁰⁾ 그러나 종린은 예종대가 아닌 인종대에 출가를 하였음은 앞의 비문을 통해 이미 확인하였다. 게다가 예종대에는 그의 아들로 알려진 之印을 각별히 총애 하였음도 밝혀진 바 있다.²¹⁾ 인종에게도 그의 아들 중 후에 원경국사로 추증되는 冲曦가 있었음을 생각할 때, 종린의 발탁은 다른데서 그 이유를 찾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행히 현오국사탑비에 는 그가 帶方公 輔의 아들임을 유추하게 해주는 부분이 있다. 대방공 보는 인종의 즉위과정에서 이자겸 일파의 반대편에 섰다가 京山府로 축출되었던 인물로²²⁾ 이자겸의 난이 평정된 후 인종에 의해 다시 개경으로 불러워지기 직전에 그곳에서 죽었다.²³⁾ 비문에 나오는 현오국사의 생몰 연대를 통해 볼 때 그는 대방공 보가 경산부로 축출되어 돌아

19) 『高麗史』 권90 열전 3 종실 1 元敬國師冲曦.

20) 최연식, 1997, 「고려 불교사와 경기도 불교 유적」 『경기도 역사와 문화』, p.141.

21) 金相永, 1988, 「高麗 睿宗代 禪宗의 復興과 佛敎界의 變化」 『清溪史學』 5, pp.52-53.

22) 『高麗史』 권 15 인종 즉위년 4월조: 『高麗史』 권 90 열전 3 종실 1 帶方公 輔: 『高麗圖經』 권 8 人物條 李資謙.

23) 이에 대해서는 이자겸의 정계축출 이후 이자겸에 의해 화를 당하였던 인물 대부분이 중앙정계로 복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방공 보가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지 못하고 유배지에서 죽음을 맞이 하였던 것으로 보아, 대방공 보가 한인인 세력과 더불어 왕위를 넘보았던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南仁國, 1990, 「高麗仁宗代 政治支配勢力의 性分과 動向」 『歷史敎育論集』 15, p.81). 그러나 『高麗史』 권 90 열전 대방공 보, 「及資謙敗 仁宗欲召還 六年卒于貶所」라는 기사에서 인종이 보를 개경으로 부르려 하자 한 점이나 또 인종이 보의 아들인 종린을 가까이 한 점 등을 통해 볼 때, 실제로는 이자겸 일파가 이들이 왕위찬탈의 음모를 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명을 씌운 것으로 보는 견해(金潤坤, 「高麗 貴族社會의 諸矛盾」 『한국사』 7, p.45)가 더욱 설득력이 있지 않은가 생각된다.

오지 못하고 죽었던 때를 전후로 하여 태어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仁宗이 당시 정치적 희생양이었던²⁴⁾ 대방공 보의 아들인 종린에 대해 남다른 마음을 갖고 있었을 것임은 쉽게 생각할 수 있다. 한편 종린을 발탁한 원명 국사 징엄의 墓誌銘에는 皇統元年 辛酉(1141) 정월에 자신이 금년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을 하는 부분이 있다.²⁵⁾ 이때는 현오국사탑비에 나오는 인종이 징엄에게 ‘大覺의 餘風’을 이을 새로운 인재를 찾을 것을 당부하였고 그에 따라 종린이 수계한 바로 그 해이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당시는 종린에게 있어서는 얼마남지 않은 그의 생애를 통해 ‘大覺의 餘風’을 이어 발전시켜 나갈 그의 후계를 정해야 할 상황이었고 마침 인종의 염두에 있던 대방공 보의 아들인 종린을 눈여겨본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당시 종린은 이미 불문에 의탁해 있었으며, 징엄이 죽은 그해 12월 바로 종린이 불일사에서 수계를 받게 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징엄에게서 종린으로 이어지는 법계통은 앞에서 살펴본 몇가지 정황을 염두에 둘 때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종린을 발탁하는 계기가 된 ‘大覺의 餘風’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이 大覺國師 義天의 ‘餘風’이 무엇인지 직접적으로 나타내주는 자료는 현재 남아 있지 않다. 게다가 기존의 연구가 주로 義天 당대의 행적만을 왕권과 연결시키는 피상적인 수준의 이해에 머무르고 있었기 때문에,²⁶⁾ 의천 이후 왕실출신 화엄종 승려들에 대한 설명이 매우 미약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義天에서 澄嚴, 그리고 징엄에서 宗璘으로 이어지는 ‘餘風’을 밝히기 위해서는 우선 종린을 전후로 한 왕실출신 화엄종 승려들의 특징을 찾아보는데서 시작하기로 하겠다.

먼저 이들의 특징 중의 하나로 들 수 있는 것은 受戒寺刹이 일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24) 오영선, 1993, 「인종대 정치세력의 변동과 정책의 성격」 『역사와 현실』 9, p.74.

25) 「開城興王寺圓明國師墓誌」 『朝鮮金石總覽』 上.

26) 崔柄憲, 1990, 앞의 논문.

就佛日寺戒壇受具 時春秋十一歲 (「開城靈通寺大覺國師碑」)

受具於佛日寺 (「開城興王寺圓明國師墓誌」)

就佛日寺受戒 (「龍仁瑞峰寺玄悟國師碑」)²⁷⁾

어디서 수계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冲曦를 제외하고는 義天, 澄儼, 宗璘이 모두 佛日寺에서 受戒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남아있는 금석문 자료를 통해 볼 때 문종대부터 인종대까지는 문종 13년에 福興寺에서 수계받은 이자연의 아들인 韶顯²⁸⁾ 끝으로 하여 수계받은 승려들의 종파에 상관 없이 모두 화엄종 사찰인 佛日寺에서 수계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어 주목된다.

당시 불일사에서 수계받은 이들을 나열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표 2)²⁹⁾

義天	화엄종	문종19(1065)
教雄	선종 ->천태종	선종 6(1089)
德兼	유가엄(법상종)	숙종 1(1096)
澄儼	화엄종	숙종 3(1098)
觀輿	유가엄(법상종)	예종 3(1108)
義光	유가엄(법상종)	예종17(1122)
靈炤	유가엄(법상종)	인종 5(1127)
宗璘	화엄종	인종19(1141)

이에 대해서 의천의 수계시기를 기점으로 개경에서의 관단수계의 사례가 불일사 뿐이었던 것을 근거로 개성출신의 귀족자제들이 수계를 불일사에서 총괄하였다는 견해도 제기된 바 있다.³⁰⁾ 그러나 이를 단순히 개성이라는 지

27) 위 금석문들의 교감은 李智冠, 1996, 앞의 책, p.118, p.226, p.472-473을 따랐다.

28) 「金溝金山寺慧德王師眞應塔碑」, 『朝鮮金石總覽』 上.

역적인 특징만으로 보기보다는 근본적인 상황의 변화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즉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당시 왕권과 대립적인 구도로 이해되어 왔던 瑜伽業(法相宗)에서도 수계에 있어서는 화엄종 사찰인 불일사에서 받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것이 현재 남아 있는 금석문만을 정리하였다는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최소한 여기에 나오는 유가업(법상종) 승려들은 불일사에서 수계를 받았음은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기존의 연구에서 숙종의 사후에 天壽寺役의 중단과 같은 형태로 화엄종과 유가업(법상종)의 양 종단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다고³¹⁾ 인식하는 것과는 일치하지 않는 것 같다. 게다가 李資淵系의 韶顯과 의천의 동생인 도생승통 龜의 관계를 통해 볼 때 당시 인주이씨와 왕실의 갈등으로 일반화하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는 견해도³²⁾ 있는 것을 보면 유가업 전체가 반드시 왕권과 대치되는 것으로만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당시 유가업 내에서도 다양한 세력으로 분화되고 있었음³³⁾ 역시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고려 중기에 있어서 官壇受戒寺刹이 화엄종사찰인 불일사로 통일되었다는 것은 의천, 정엄, 종린 등 왕족출신 승려들의 종파가 화엄종이며 왕실 역시 화엄종파의 관계가 깊었던 것을 생각할 때, 이자겸의 擅權 등 정치적 상황에 의한 부침이 있었기는 하지만 불교계의 기본적인 흐름은 왕권 강화의 방향과 맥을 같이 하여 진행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한다. 최소한 僧階 입문의 첫단계라 할 수 있는 受戒만은 왕권과 밀접한 관련 속에서 이루어졌던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29) 위의 표는 韓基汶, 1998, 『高麗寺院의 構造와 機能』, 民族社, p.363-364에 실린 표의 일부를 수정 보완한 것임.

30) 韓基汶, 앞의 책, pp.369-370.

31) 崔柄憲, 1981, 「高麗中期 玄化寺의 創建과 法相宗의 隆盛」 『韓祐勳停年紀念論叢』. 여기에서는 현종대 이후 인종대에 이르는 당시 불교계의 이면에는 왕권과 귀족 세력간의 대립구조가 반영되어 있다고 이해하였다.

32) 秋萬鎬, 1985, 「李資謙의 軍事基盤理解(上)」 『史鄉』 2.

33) 許興植, 1981, 「高麗中期 華嚴宗派의 繼承-元景王師를 中心으로-」 『韓國史研究』 '35, p.28.

한편 현재 알려진 의천,³⁴⁾ 징엄,³⁵⁾ 종린,³⁶⁾ 충희³⁷⁾ 4명의 왕족출신 화엄종 승려에게는 모두 僧統職이 제수되었다. 이들은 모두 僧科를 통해 승계를 받은 것이 아니라, 왕족출신이라는 배경을 바탕으로 승통에 올랐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이들이 승통직을 제수받으면서 하사 받은 號에 공통되는 면에 있어 주목된다. 이들에게 주어진 승통의 호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義天	澄儼	宗璘	冲曦
祐世	福世	佐世	拯世

이들은 표 3)과 같이 각기 祐世·福世·佐世·拯世 등의 호를 하사받았다. 이 호칭들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모두 ‘세상을 돕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이들에게는 국가의 발전이라는 대의명분이 각기 명칭에 부여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왕족출신 화엄종 승려들에게 ‘세상을 돕는다’는 칭호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³⁸⁾

우선 먼저 주목하여야 할 점은 이들이 모두 사후에 國師로 추증되었다는 것이다. 의천의 경우에 있어서 「靈通寺大覺國師碑」와 「僊鳳寺大覺國師碑」를 통해 볼 때 추증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징엄과 종린 역시 그들의 묘지명

34) ‘丁未七月乙酉敎書褒爲祐世僧統’(「開城靈通寺大覺國師碑」)

35) ‘五年乙酉詔除僧統賜號福世’(「開城興王寺圓明國師墓誌」)。

36) ‘迺操爲僧統 … 復加佐世之號’(「龍仁瑞峯寺玄悟國師碑」)

37) 『高麗史』 권17 의종 2년 11월조, ‘以弟興王寺法尊玄曦爲拯世僧統。玄曦는 곧 冲曦이다.’

38) 여기에 한가지 덧붙여 이해하여야 할 것은 비록 화엄종 승려는 아니지만 유가업(법상종)으로 진출한 의천의 동생 정 역시 비록 世는 아니지만 生을 이끌어 간다는 의미의 ‘導生’이라는 호를 받고 있는 점이다. 그 역시 승통이었음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다.

과 탐비를 통해 볼 때 국사로 추증되었다. 다만 증희의 경우는 현재 묘지명이나 탐비가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문헌자료인 『高麗史』와 『高麗史節要』를 통해 볼 때 모두 승통의 위치에 있을 때 행한 행적만이 나열되어 그 역시 국사로 추봉된 것으로 생각된다.

즉 이들 왕족출신 승려들은 현재 남아있는 자료를 통해 볼 때 살아서 활동할 당시에는 모두 승통의 지위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사실 國師나 王師는 그 예우는 극진하게 이루어졌지만 일반 국정이나 승정과는 무관하였다. 즉 일단 국사나 왕사로 책봉되면, 책봉된 이들은 책봉된 이후 바로 故山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 상례였으며, 따라서 교계에서의 실권에서도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³⁹⁾ 그렇다면 이들이 왕족이라는 높은 지위에도 불구하고 모두 죽은 후에 국사로 추증되었다는 것은 역으로 그들이 당시 불교계에서 실권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의천, 정, 징엄 등이 정치와 깊은 관련이 있었음은 이미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다.

위에서 언급한 몇가지 사례를 통해 볼 때 고려중기의 불교계에 있어서 이들 왕족출신 화엄종 승려들은 이미 국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었던 왕권의 강화노력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였음을 알 수 있다.⁴⁰⁾ 즉 고려중기의 역대 왕들은 이들에게 ‘세상을 돕는다’는 승통의 호를 지속적으로 제수하였고, 이들 또한 정권과의 깊은 관련 속에 실권이 있는 승통의 직을 계속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고려중기 왕족출신 화엄종 승려들은 단순히 왕권을 강화하는 이념을 제공하였던 것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실질적인 임무도 주어졌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⁴¹⁾ 이를 통해 당시 불교계에 대한 왕실의 의지를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⁴²⁾

39) 許興植, 1975, 「高麗時代의 國師·王師制度와 그 機能」 『歷史學報』 67, pp.336-340.

40) 왕권강화과정을 이 시기 정치사 전개를 설명하는 방식의 하나로 설정한 연구에 대해서는 朴宗基, 1992, 앞의 논문에 정리되어 있다.

41) 물론 정치적 상황에 따른 변화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지만 導生僧統 鑑을 통해 볼 때 이러한 왕실의 관심은 유가업(법상종)에서도 보이고 있음은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에서 인종은 왜 새삼스럽게 다시 ‘大覺의 餘風’을 진작시키려 하였던 것일까? 위에서 당시 왕족출신 승려들이 정치적 상황과 연결되어 있음을 언급한 바 있다. 그렇다면 현오국사탑비에 나오는 ‘大覺의 餘風’ 역시 동일전상에서 이해가 가능한 것이 아닐까? 실질적으로 고려중기 불교계, 그 중에서도 화엄종이 왕권을 중심으로 한 정치적 변동에 직접 연결되는 계기는 의천에 의해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천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화엄종단에는 상당한 동요가 있었으며, 이와 함께 당시 국왕의 외척이었던 인주 이씨에 의해 장악된 것으로 생각되는 유가업이 의천의 사후 중심을 잡지 못하던 화엄종단을 압박하였음도 이미 여러 학자들에 의해 지적된 바 있다. 특히 인종이 즉위할 때를 전후하여서는 이자겸의 擅權이 극을 이루었는데, 이때 숙종의 4자인 정엄마저도 이자겸의 천단을 피하기 위하여 지방으로 내려가 있어야 했을 정도였다. 그 후 이자겸의 난이 평정되자 1131년 정엄은 다시 興王寺의 주지로 개경에 돌아왔다.⁴³⁾ 그런데 당시는 묘청 등에 의해서 서경천도 논의가 본격화되던 시기였다. 인종 역시 왕권강화라는 측면에서 서경천도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나, 이에 반대하는 세력 또한 적지 않았다. 결국 서경천도가 어렵게 되자 묘청에 의해 난이 일어나고 오래지 않아 평정되었다. 이때 난의 평정에 중심적인 역할을 한 것이 金富弼이었다. 따라서 이후에 있어서 김부식의 정치적인 영향력은 매우 커졌으며, 일순간 권력이 김부식에게 쏠리자 흡인력을 가지게 되어 일시에 큰 세력을 이루게 되었다.⁴⁴⁾ 물론 김부식은 이전의 문벌귀족과는 달리 黨與勢力을 따로 만들지는 않았다. 게다가 유학자로서 근왕주의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었으며, 기존의 연구에서도 김부

42) 이와 관련하여 「開城興王寺大覺國師墓誌」의 ‘今則上以同年生第五愛子零染而爲我國師 … 由是助我國家之盛業者至矣’라는 구절을 통해 당시 왕자의 출가가 국가의 성업을 돕는 것으로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

43) 이러한 저간의 사정은 「開城興王寺圓明國師墓誌」『朝鮮金石總覽』 上에 자세히 다.

44) 馬宗樂, 1997, 「高麗中期 政治勢力和 儒學思想」, 『釜山史學』 32, p.25.

식이 의천의 비문을 써주는 등 왕권과 관련이 있던 의천계의 화엄종과 깊은 관계가 있음에 주목하였다.⁴⁵⁾ 그러나 비록 김부식이 근왕적 성격을 소유한 인물이었음에는 틀림없다 하여도 그 역시 왕권에 대비될 만한 수준의 세력을 형성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정치적 상황은 인종에게 부담이 아닐 수 없었을 것이다. 인종의 이러한 부담을 일부나마 해소케 해준 것이 아마도 징엄이 아니었나 한다. 당시 징엄은 인종 9년에서 인종 19년에 입적할 때까지 홍왕사의 주지를 맡으면서 왕의 숙부로서 예우를 두텁게 받으며, 인종의 의지가 되어주었던 것으로 여겨진다.⁴⁶⁾ 따라서 징엄이 그의 후계이자 입적하기 직전 ‘大覺의 餘風’을 이을 새로운 왕족출신 승려로서 종린을 발탁하여 인종에게 나아가게 한 것은 이러한 정치적 상황과 연결되는 것이 아닌가 한다. 게다가 종린이 이자겸에 의해 정치적 희생양이 되었던 대방공 보의 아들이었음을 상기한다면 그의 발탁이 문벌귀족들에 의해 실추된 왕실의 권위 회복과도 연결된 인종의 왕권강화노력이 아닐까 생각한다.

2. 冲曦의 등장과 中央으로부터의 疏外

현오국사 종린은 위와 같은 상황속에서 불교계의 중앙에 설 수 있었다. 그러나 인종대를 지나 의종대에 이르면 상황이 바뀌게 되는 것 같다. 왕실출신 승려에게 붙는 ‘佐世’라는 호 역시 의종대가 아닌 명종대에 가서나 가질 수 있게 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의종대에 이르러 宗璘은 당시 불교계의 실세로서 毅宗의 大弟의 머리를 깎아주게 된다. 이 大弟는 冲曦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 충희가 『高麗史』에 의하면 受戒를 받은 다음해에 바로 僧統에 오르게 된다.⁴⁷⁾ 그 이후의 상황은 『高麗史』 및 『高麗史節要』에 나오는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45) 한기문, 앞의 책, p.73.

46) 『開城興王寺圓明國師墓誌』, 『朝鮮金石總覽』 上.

47) 『高麗史』 권17 의종 2년 11월조.

의종 9년 당시 충희는 興王寺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이때 이미 충희는 齊安公 侗의 아들 司空 璋 등 일부 정치세력들과 어울리기 시작하였던 것 같다.⁴⁸⁾ 게다가 의종 또한 충희가 있던 흥왕사에 깊은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것 같다. 의종 10년 금은자화엄경을 寫成하여 후사가 탄생되기를 빌고 그것을 흥왕사 홍교원에 두고 액호를 弘眞으로 바꾸었는데 후사가 있자 범회를 크게 열었다.⁴⁹⁾ 이를 필두로 하여 의종 11년에는 의종 자신이 陸親殿에 나가, 아우 冲曦 등 2백여명의 승도를 불러 齋를 베풀고 복을 빌었고,⁵⁰⁾ 의종 21년에도 충희가 왕을 청녕재로 모시고 음식을 바치고, 왕이 覺倪와 侍臣을 불러 같이 노는⁵¹⁾ 등 의종과 충희의 관계는 매우 밀접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종린이 설자리는 없었던 것 같다. 이는 그가 비록 王族이라고는 하나 왕과의 관계에서 왕자나 왕제보다는 멀 수밖에 없으며, 의종 또한 자신의 동생 충희가 있는 상황에서 진왕인 인종이 가지고 있던 종린에 대한 보상심 같은 것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의종대의 왕권은 전대보다 비교적 강하였던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⁵²⁾ 따라서 종린이 의종대에 할 수 있는 역할은 매우 축소될 수밖에 없었으며, 다른 왕족출신 화엄종 승려들이 역임하였던 興王寺에는 가보지도 못하고, 여타의 지방 화엄종사찰만을 돌며 주지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는 의천이나 징엄이 인주 이씨 등 귀족세력과의 정치적인 충돌로 인해 지방의 사찰에 주지하였던 것과 다른 상황이다. 충희가 있는 상황에서는 종린은 더 이상 왕족출신 화엄종승려의 실세는 아니었던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앞에서 살필 비문의 한 부분을 다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종린이 ‘王家의 子弟로서 부귀한 신분으로 태어나 嗜慾과 玩好들이 날마다

48) 『高麗史節要』 권11 의종 9년 12월조.

49) 『高麗史』 권18 의종 10년 4월조.

50) 『高麗史』 권18 의종 11년 정월조.

51) 『高麗史』 권18 의종 21년 4월조.

52) 黃秉晟, 1987, 「高麗 毅宗代의 政治實態와 武人亂」 『朴性鳳教授回甲紀念論叢 慶熙史學』, p.250.

목전에 陳列'되는데도 불구하고 '權勢에 아부하지 않았으며' 나아가 '존귀한 위치에서 스스로 下賤하게 처신하였다'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충희에 의해 실세에서 밀려난 이후의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실제로 증세승통 충희는 의종에서 명종대에 걸쳐 각종 청탁과 뇌물 그리고 추잡한 행위로 이름을 날리고 있었다. 따라서 충희와 종린은 세상사람들에 의해 매우 대조적인 이미지로 보여졌을 것이며, 이를 통해 볼 때 '불의하게 얻은 부귀는 나에게 있어 마치 浮雲과 같다'라는 종린의 말도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宗璘이 明宗代에 가면 다시 개경으로 불리워지고 '佐世'라는 호를 받음으로써 비로서 왕족 출신 화엄종 승려의 위상을 되찾게 되기는 하지만 이미 당시는 武臣亂으로 인해 왕실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다음으로 더 이상 왕실출신 화엄종승려에게 주어진 임무는 없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의종대에 擅權하였던 승통 충희마저도 興王寺 僧의 고변으로 체포되어 鞠問당할 정도였다고⁵³⁾ 한다면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충희는 더욱 부패에 빠졌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IV. 玄悟國師와 瑞峰寺의 관계

한편 현오국사탑비가 왜 瑞峰寺에 건립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아직도 남게 된다. 서봉사가 용인에 소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新增東國輿地勝覽』을 비롯한 많은 문헌에 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이 사찰이 어느 종파인지 나와 있는 것은 단지 『朝鮮王朝實錄』太宗實錄 7年條에서 지역 資福寺로서 龍駒의 瑞峰寺를 들며, 天台宗에 포함시켜 놓은 것 밖에는 없다.

이에 대해 기존에는 서봉사에 대해서 현오국사탑비가 위치하고 있다는

53) 『高麗史節要』 권12 명종 7년 2월조

사실을 통해 고려중기에는 화엄종 사찰이었는데 어느때인가 天台宗으로 개종하여 조선초기 태종대에 이르러서는 사찰정리때 천태종 사찰로 기록에 남게 되었다고 여겨왔다.⁵⁴⁾ 그런데 선종 사찰이 천태종 사찰로 개종한 경우는 의천 당시 많은 선종 승려들이 천태종으로 편입되었음을 상기할 때 쉽게 이해되지만 화엄종사찰이 천태종 사찰로 변한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은 것같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비록 가설의 수준이기는 하지만 아래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떤가 한다.⁵⁵⁾

현오국사탑비가 건립된 시기로부터 그리멀리 떨어지지 않은 1211년에 세워진 순천 송광사의 『佛日普照國師碑文』에는 ‘瑞峰之志端’이라는 구절이 있다. 이는 中國 福州 林陽山 瑞峰院의 유명한 禪僧 志端(892-969)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당시 고려의 불교계에서는 중국의 서봉이라는 사찰이 선종사찰이었음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용인의 서봉사는 이전부터 선종과 관련이 있는 사찰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는 의천 당시 선종에서 천태종으로 개종하였던 많은 사찰 중의 하나가 아니었을까 하는 하나의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왜 이곳에 화엄종 고승의 탑비가 세워졌으며, 탑비에는 天台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이 興王寺 大師에 의해 새겨졌을까.

우리는 앞에서 4인의 왕실출신 화엄종 승려들에 대해서 살펴 보았고, 이를 통해 이들이 모두 왕권강화와 깊은 관련이 있음도 알게 되었다. 그런데 이들은 왕권강화 뿐만이 아니라 천태종과도 일정정도 관련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천태종 개창의 주도자였던 대각국사 의천의 사후 화엄종과 천태종과의 관계는 소원해진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다음의 금석문자료들을 통해 볼 때 이후에도 왕실출신 화엄종 승려와 천태종과의 관계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54) 京畿道, 1988, 『畿內寺院誌』 龍仁郡編, p.600.

55) 현재 용인시에서는 서봉사지정밀지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자료가 나와 추후에 수정·보완이 되길 바란다.

A) 天慶五年中 圓明國師聞之 謂師之德行 可以範儀於當世 以薦帝左右 睿考於是 授三重大師⁵⁶⁾

B) 上 於是 遣戚弟□世僧統 右僕射朴景瑞等 傳宣已後 … 遣使其三請 … 不得已而受命焉⁵⁷⁾

사료 A)는 대각국사의 종지를 이은 원명국사 징엄이 당시 와해되어 가고 있던 천태종의 부흥을 위해, 천태종 승려들 사이의 분규로 인해 지방으로 좌천되어 있던 教雄을 다시 개경으로 발탁하고 있는 상황을 말해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사료 B)는 교왕의 직계인 德素에 대한 王師로의 책봉을 현오 혹은 충희로 생각되는 □世僧統이 주도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모두 의천 이후에도 왕족출신 화엄종 승려들이 천태종의 내부문제에 깊이 관여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한편 「仁同僊鳳寺大覺國師碑文」에 보이는 ‘天台六法眷’을 대각국사가 천태종을 再興함으로부터 受法한 六代의 法眷(大覺國師 義天, 圓明國師 澄嚴, 歸法寺 寂炤首座, 洪圓寺 廣濟僧統, 國淸寺 妙應大禪師, 松川寺 妙能大師)으로 보는 견해를⁵⁸⁾ 따른다면 천태종과 화엄종의 관계가 더욱 깊었음을 알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이는 의천이 천태사찰인 선봉사에 비문을 남기게 되고, 징엄이 五教都僧統의 자리에서 당시 불교계를 총괄하였던 것과도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로 미루어 볼 때 현오국사탑비가 安厝한 長湍縣 大偉山이 아닌 선봉사에 세워지게 된 이유가 간접적으로나마 살펴지지 않을까 한다.

56) 「國淸寺妙應大禪師教雄墓誌」『韓國金石全文』中世上.

57) 「沃川寧國寺圓覺國師碑」『朝鮮金石總覽』上.

58) 李智冠, 1996, 앞의 책, p.210.

V. 맺음말

지금까지 용인 서봉사지에 위치한 현오국사탑비의 분석을 통해 몇가지 사항에 대한 추론을 해 보았다. 이 과정에서 다소 무리한 논지전개가 이루어지기도 하였지만 나름대로의 성과를 정리해 보는 것으로 본고를 마무리하려 한다.

현오국사 종린은 고려시대 불교사에서 크게 두각을 나타낸 승려는 아니었다. 그를 알려 주는 자료도 그의 비문 뿐이며 그 또한 오히려 평범하다 할 정도로 적은 행적 만을 남기고 있다. 그러나 그가 살았던 고려 중기라는 시대상황은 그를 그대로 놓아두지 않았다. 그가 왕족의 자제였다는 것에서 이미 일반적인 승려와는 출발점이 달랐다. 종린은 인종에 의해 ‘大覺의 餘風’을 이어나갈 승계자로서 선발되면서 비로서 당시 불교계의 전면에 등장하게 되었다. ‘대각의 여풍’의 실체에 대해서는 연구자의 입장에 따라 정치적, 사상적으로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여기에서는 주로 정치적인 측면에서 이를 살펴 보았다. 사상적으로 뚜렷한 족적이 보이지 않는 종린의 위상을 밝히는 데는 당시의 정치적 상황과 연결하여 이해하는 편이 무난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고려 중기 왕족출신 승려들의 공통점이 부각되었다. 이들은 모두 화엄종의 佛日寺에서 수계를 받았던 것이다. 수계사찰의 동일은 문종대에서 인종대에 걸쳐 보이는데 이때는 남아 있는 자료의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유가업 승려들도 예외가 아니었던 것 같다. 한편 의천, 징엄, 종린, 충희 등의 왕족출신 화엄종 승려들은 모두 승통으로서 불교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였으며, ‘세상을 돕는다’는 의미가 있는 祐世·福世·佐世·拯世 등의 호를 각기 하사받았다.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부여된 의무가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들에게 부여된 ‘세상을 돕는다’는 칭호는 이들이 왕족 출신이었음과 의천, 징엄 등의 행적을 고려할 때, 왕권과 연계되어 이해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종린은 이렇게 왕권과의 관계 속에서 불교계의 전면에 진출하였다. 그러나 종린의 이러한 위상은 의종대 충희의 등장과 더불어 약화되었던 것 같다. 그의 행적이 의종대에는 거의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비문에는 단지 당시 사람들에 의해 왕족이면서도 부귀에 초연하였던 그의 모습만이 부각되었던 것이다. 이는 종린의 성격 자체가 그러하였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지만 왕족 출신의 승려이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의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의종대에 행하였던 충희의 행적과 비교해보면 그러한 모습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비록 종린이 명종대에 佐世라는 승통호를 받는 등 여타 왕자 출신 승려들과 동일한 위상을 갖게 되지만 이때는 이미 왕권이 더 이상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었다.

마지막으로 현오국사 종린과 서봉사의 관계에 대해서 추론을 하여 보았다. 기존에는 서봉사가 처음부터 화엄종 사찰이었던 것으로 이해하여 왔다. 그러나 현재 남아 있는 자료에는 천태종의 대찰로 되어 있어 언제부터 천태종 사찰이었는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었다. 우선 중국의 선종사찰인 서봉원이라는 절의 명칭이 당시 고려 불교계에서 이미 알고 있었음을 살펴 보았다. 이를 의천에 의해 많은 선종 승려들이 천태종으로 개종되었던 것과 연결해 보았다. 이러한 추론 과정에서 일부 금석문을 통해 의천이후에도 화엄종과 천태종의 관계가 매우 깊었던 것을 찾을 수 있었다. 즉 왕족 출신 화엄종 승려들은 당시 그 기반이 매우 약화되어 있던 교흥, 덕소 등 천태종 승려들의 발탁에 간여하는 등 천태종파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종린 역시 천태종과 일정정도 관계가 있지 않았을까하는 추측을 해보았다. 물론 이것만으로 서봉사가 정확하게 어떤 계열의 사찰이 있는가를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는 고려시대 지방사찰에 있어서 종파의 변화과정에 대한 보다 깊은 논의가 있어야 될 것이라는 문제만을 다시 한번 제기하는 수준에서 멈추고 말았다.

위에서 현오국사 종린은 그 비문의 내용만을 통해서도 그 행적이 매우 소략하지만 그가 처한 상황이 같이 고려될 때 보다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였

음을 살펴 보았다. 그리고 고려중기 불교계가 왕권과 깊은 관련이 있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종린을 비롯한 의천 이후 화엄종 승려들의 사상적인 측면은 이후의 과제로 하고자 한다.

「용인 서봉사지 현오국사탑비에 대한 고찰」에 대한 토론요지

李 丙 旭 (고려대, 중앙승가대, 위덕대 강사)

먼저 「용인 서봉사지 현오국사탑비에 대한 고찰」의 내용을 요약하고, 그 다음 「용인 서봉사지 현오국사탑비에 대한 고찰」의 내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논평자의 견해를 밝히고, 마지막에 몇 가지 질문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발표문의 내용을 요약하겠습니다. 현오국사 종린은 대각의 餘風을 이어받았는데, 이 대각의 여풍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왕실의 안녕, 왕권의 강화와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인종대에 대각의 여풍을 새삼스럽게 강조하는 것은 인종 당시의 정치상황과 맞물려 있다. 그러나 현오국사 종린이 의종대에 크게 활동하지 못한 것은 충희의 등장 때문이다. 충희는 인종의 아들이고 의종의 동생이었기 때문에 예종의 동생인 대방공의 아들이었던 현오국사 종린에 비해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었다. 더구나 현오국사 종린이 인종대에 득세하게 된 것은 그의 아버지 대방공의 정치적 불행(인종 즉위과정에서 이자겸 일파에 반대했다가 경산부로 축출되었던 일)에 대해 인종이 연민의 마음으로 그의 아들인 현오국사 종린을 대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에게 연민의 정을 품었던 인종도 돌아가고, 더구나 왕의 동생인 충희가 나타나자 현오국사 종린의 역할은 다했다.

그 다음 대각의 여풍이라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강설명이 필요하다

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 논평자가 발표한 논문이 있으므로 그 내용을 요약하겠습니다. 의천은 휘는 煦이고, 자는 의천이며, 시호는 대각국사이다. 그는 문종의 네째 아들로 태어나 11세 때 화엄종 승려인 景德國師 爛圓(999-1066)에게 출가하여 화엄종의 영통사에서 공부하였다. 1085년 31세 때 중국의 송나라에 건너가 여러 사람과 교류하였고, 1086년 32세 때 고려에 돌아왔다. 1091년 37세 때 홍왕사에 敎藏司를 두었고, 1094년 40세 때 해인사로 내려가 은거하였으며, 1095년 41세 때 숙종이 즉위하였는데, 숙종은 여러 차례 의천을 불러들이자 그는 서울에 올라가 홍왕사에 머물렀다. 1097년 43세 때 국청사의 주지가 되었고, 1101년 47세 때 돌아갔다. 그의 저술을 살펴보면, 목록으로 『新編諸宗教藏總錄』이 있고, 편집한 저술로 『圓宗文類』와 『釋苑詞林』이 그의 문집에 일부 남아있다.

그런데 의천의 사상은 송나라에 유학갔다는 후 형성되는데, 이것을 전기와 후기로 구분할 수 있다. 전기에는 의천은 澄觀(738-839, 중국화엄종의 조사)의 사상에 의지해서 천태사상을 수용하고 있다. 즉 의천은 징관이 말하는 교판론(불교의 이론에 대해 가치평가를 내리는 이론 체계)과 천태의 교판론은 크게 보아서 같다고 말한다. 이런 입장에서 의천은 천태사상을 받아들인다. 더 자세히 말하면 천태의 5시8교¹⁾와 화엄의 5교²⁾는 대체로 일치한

1) 5교8시를 간단히 설명한다. 5시는 첫째 華嚴時, 둘째 鹿苑時, 셋째 方等時, 네째 般若時, 다섯째 法華涅槃時이다. 8교는 化法四敎와 化儀四敎로 나뉜다. 화법사교는 三藏敎, 通敎, 別敎, 圓敎이다. 화의사교는 頓敎, 漸敎, 不定敎, 秘密敎이다. 5시부터 살펴보자. 5시는 부처가 성도한 후에 설법한 내용을 다섯 가지로 구분한 것이다. 첫째 화엄시는 부처가 성도한 후에 처음 21일 동안 『화엄경』을 설법한 시기이다. 둘째 녹원시는 부처가 『화엄경』을 설법한 다음 12년 동안 인도의 여러 곳에서 소송의 『아함경』을 설법한 시기이다. 셋째 방등시는 녹원시 뒤에 8년동안 『유마경』, 『사익경』, 『승만경』 등의 대승경전을 설법한 시기이다. 넷째 반야시는 방등시 뒤에 22년간 般若部의 경전을 설법한 시기이다. 다섯째 법화열반시는 부처가 최후 5년간 『법화경』을 설법하고, 열반에 들기 위해, 한 낮 한 밤동안 『열반경』을 설법한 시기이다. 화법사교는 중생의 성결과 능력에 따라 가르친 교리내용을 네 가지로 구분한 것이다. 첫째 삼장교는 三乘人을 위해서 『아함경』 등을 말한 것이다. 이는 소송

다고 의천은 밝히고 있다. 이런 입장에 서서 의천은 성종과 상종을 둘 다 배울 필요가 있다는 性相兼學을 주장한다. 여기서 성종은 화엄종을 뜻하는 것이고, 상종은 법상종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성상겸학의 입장은 儒家와 道家의 견해를 받아들이는 하지만, 불교와 비교할 때 부족한 것으로 파악하는 관점과 이어진다. 더 나아가서 이런 입장은 均如를 비판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의천이 균여를 비판하는 이유는 敎(이론)와 觀(실천체계)를 둘 다 닦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의천은 전기에서 징관에 의지해서 천태사상을 수용했지만, 후기에는 元曉(617-686)의 화쟁사상에 근거해서 천태사상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바뀐다. 의천은 원효를 『대승기신론』의 저자로 알려진 馬鳴과 인도 중관학파를 열은 龍樹와 같은 공로가 있다고 보고 있다. 마명이나 용수는 불교에서 보살로 평가되는 인물인데, 원효도 그만큼 대단한 인물로 의천은 보고 있는

의 가르침이다. 둘째 통교인데, 通은 공통이라는 뜻이다. 삼승에게 공통적으로 가르친 대승의 가르침이라는 의미이다. 셋째 원교인데, 圓은 편벽되지 않고, 모든 것이 서로 융합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원교는 부처의 깨달음을 그대로 가르친 것이다.

화위사교는 부처가 중생에게 설법하는 방식에 따라 가르침을 네 가지로 구분한 것이다. 첫째 돈교는 처음부터 부처가 자신의 깨달음을 가르치는 것이다. 『화엄경』이 여기에 속한다. 둘째 접교는 내용이 얕은 것에서 내용이 깊은 것으로 점점 올라가면서 가르치는 것이다. 아함시, 방등시, 반야시의 가르침이 여기에 속한다. 셋째 비밀교는 중생들이 서로 알지 못하게, 가만히 이익을 주는 가르침이다. 넷째 부정교는 같은 가르침을 들고서도 서로 달리 이해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부처는 一音으로 연설하나, 중생이 각자의 능력과 소질에 따라 달리 이해하는 것이다.

- 2) 징관이 풀이하는 화엄5교에 대해 간단히 살펴본다. 첫째 小乘敎는 소승의 가르침을 전하는 것이다. 둘째 大乘始敎는 대승법의 이치를 온전히 전하지 못한 가르침이다. 이 가르침에 따르면, 성불할 수 없는 중생이 있기 때문이다. 셋째 大乘終敎는 모든 중생이 다 성불할 수 있음을 전하는 가르침이다. 이것은 진정한 이치와 일치한다. 그리고 대승시교와 대승종교를 합쳐서 접교라 한다. 넷째 頓敎는 수행의 지위에 의지하지 않고 단박에 부처가 되는 것을 전하는 가르침이다. 이 가르침은 선종의 가르침이다. 다섯째 圓敎는 相即相入의 원만한 뜻을 전하는 가르침이다.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청사를 세워서 천태종을 개창했을 때 의천은 법상종의 조사인 窺基(632-682)와 천태종을 열은 천태대사 智顓(538-597)보다도 더 위대한 인물로 원효를 평가하고 있다. 이는 바로 의천이 원효에 의지해서 천태사상을 수용했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의천은 이런 입장에서 宗密(780-841)의 『원각경소』를 해석한다. 즉 종밀의 『원각경소』에는 여러 종파를 통합하려는 의도가 분명하지 않은데, 이것의 의미를 원효의 화쟁사상의 관점으로 읽어 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3가지로 나타나는데, 첫째 禪敎一致를 주장하는 것이고, 둘째 선종과 교종을 포함해서 모든 종파를 회통하려는 것이며, 셋째 유가와 도가의 가르침도 궁극의 가르침으로 인정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전기에는 징관의 사상에 의지하고, 후기에는 원효의 사상에 의지해서 의천의 사상은 전개된다.

만약 위의 분석이 가능하다면 대각의 여풍이라고 말해지는 것도 체계적 접근이 시도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의천의 전기사상을 계승한 것, 그리고 의천의 후기 사상을 계승한 것으로 나누어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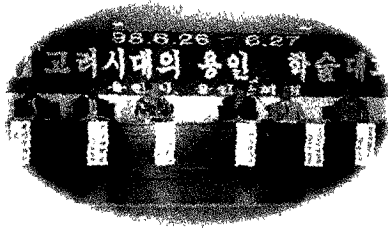
그 다음 다음과 같이 질문을 제기합니다.

첫째, 의천 등의 화엄종·법상종·선종의 승려 6인이 佛日寺라는 화엄종 사찰에서 계를 받은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혹시 종파를 달리해도 국가에서 주는 계는 동일한 사찰에서 받는 것이 관례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둘째, 대각의 餘風을 잇는 것이 왕권강화와 관련이 있다고 했는데, 이 주장과 기존의 주장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가령 최병헌 교수도 대각 국사 의천의 사상은 왕실의 강화와 연결된다고 했는데, 이 주장과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또한 홍정식 교수도 의천이 천태종을 세운 이유를 두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 선종과 교종의 다툼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고, 둘째 천태사상을 국가적으로 활용해서 나라를 보호하고 백성을 편안케 하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병욱도 의천은 당시 불교계의 상황에 위기의식이

있었고, 그리하여 불교계를 바로잡기 위해 의천이 천태종을 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과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셋째, 충희와 현오국사 종린을 대결구도로 바라보는 것은 문제를 단순화 했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보다 충실한 자료(간접적인 자료라도) 제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가령 현오국사가 의종 때 두드러진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은 귀족세력과 정치적 충돌 때문이라고 보지 못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충희가 권력층과 더 가까웠기 때문에 권력층을 충동질해서 현오국사가 중앙무대에서 활동하지 못하게 한 것이라고 해석 못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는 현오국사가 귀족세력과 연합해서 충희와 대결할 수도 있었지만 그의 성품 때문에 포기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 밖에도 여러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3부

종합토론

개 회 사

친애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사학계 및 문화예술계 인사를 비롯하여 이 자리를 빛내주신 참석자 여러분!

녹음이 짙어가는 6월의 향기 속에서 용인지역의 향토문화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큰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학술대회의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바야흐로 문화의 세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나라는 경제개발 우선의 정책과 문화·교육·예술의 중앙집중화로 향토문화예술을 침체화시키는 요인이 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주민의 삶과 정서를 토대로 한 생동감 넘치는 문화적 환경을 조성할 수 없었음은 자명한 일입니다.

따라서 전통적인 지방문화의 연구·계승·발전을 위한 노력은 앞으로 전개될 21세기 세계화의 추세에 발맞추어 더욱더 성숙하고 발전하기 위한 핵심적인 전제조건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오늘날은 문화예술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지 않으면 안되는 단계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역민의 공동체 의식이 담긴 역사와 문화의 원형질로서 우리 민족문화의 다양성과 자생력을 담보해주는 가장 소중한 향토사에 대한 용인시민들의 깊은 관심과 이해는 물론 정책적 지원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고려시대의 용인」이란 제목을 가지고 4개 유적에 대한 각계 전문가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번 학술대회를 통하여 용인향토사 및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견인차 역할로 바람직한 발전과 성장을 이루어 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주제 발표를 위해 깊이 연구해 주시고, 또한 토론에 기여이 응해 주신 여러 선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그동안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998년 6월 26일

용인시장 윤 병 희

축 사

“문화유산 사랑하여 민족문화 꽃피우자”라는 표어의 내면에는 우리 문화 유산을 바로 알고 가꾸어 빛내야 한다는 정책방향의 단면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문화유산 애호에 대한 인식을 재고하고 전통문화유산을 현대적으로 계승하여 문화유산의 보존관리의 질적 향상과 관리체계의 합리적 개선을 장기적인 정책목표로 제시하고 추진중에 있는 시점에 당면해서 수백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역사의 흔적을 뚜렷이 남기고 있는 용인에 대해 학술 대화를 갖고자 원근거리에서 참석하여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급격한 사회변화로 인해 시간적 공간적 거리감이 좁혀지면서 정보화, 국제화, 고도 산업의 홍수 속에서 서구적 생활문화에 용해되어 버린 우리 문화의 현실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용인인의 애국 정신과 문화유적지의 보존성을 인식하고 우리 용인 조상들이 후세에 남기신 찬란한 문화유산의 숭고한 정신을 상속받은 후손들로서 그 업적과 슬기와 지혜를 본받아 현실과 미래의 국가발전에 이바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역사적 유적지인 처인성은 용인시의 것일 뿐만아니라 국가차원의 가치에 준한다 할 것이며, 처인성을 지킨 백성들과 명장인 김윤후 장군의 투

철한 구국이념의 정신은 오늘의 우리 국민들에게 귀감이 될 뿐만 아니라 사상적 이념의 갈등으로 말미암은 국토양단의 비운과 단일 민족으로써 결집되지 못한 이산의 통탄을 안고 있는 이때에 국가 장래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에게 긍지와 민족정신을 일깨워 주는 귀중한 자양이 되기 때문에 하루 속히 복원작업에 굳은 의지를 발휘해 나가야 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학술대회에 주제발표를 위해 준비해 주신 교수님들과 사회와 논평을 맡아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학술대회가 개최되기까지 계획과 준비를 해주신 문화공보실담당관 및 용인문화원 상임연구위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1998년 6월 26일

용인문화원장 송재권

『고려시대의 용인』 학술대회

‘처인성 승첩’ 주제발표 및 토론

일 시 : 1998년 6월 26일(금) 10 : 30 ~ 17 : 00

장 소 : 용인문화회관 다목적실

참석자 : 사회자 - 신천식(명지대학교 사학과 교수)

차용걸(충북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심정보(대전산업대학교 교양과정부 교수)

주채혁(강원대학교 사학과 교수)

박원길(국립민속박물관 전문위원)

이상학(용인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상임연구위원)

윤용혁(공주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이익주(서울시립대학교 국사학과 교수)

〈제1주제 제1 발표 및 토론 : 처인성터의 구조와 성격〉

사회자 : 『고려시대의 용인』 학술대회의 사회를 맡게 된 명지대학교 사학과 신천식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여러 선생님들을 모신 가운데 『고려시대의 용인』이라는 공통주제하에 용인시 관내에 소재한 고려시대 유적지 4곳에 대해 검토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는 용인시의 역사를 규명하는 귀중한 자리가 될 뿐만아니라, 또 앞으로의 연구에 있어서도 기초가 될 유익한 논의가 많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되어 기대가 큼니다.

그러면 오늘 첫발표로 차용걸 선생님께서 「치인성터의 구조와 성격」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충북대학교 교수로 계시는 차용걸 선생님께서는 한국고대사학계에서 혁혁한 업적을 남기신 분이로서, 특히 한국 城郭의 문계에 대해서는 한국의 제1인자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론자이신 심정보 선생님께서는 대전산업대학교 교양과정부 교수로 계시면서 이 분야에서 특출한 연구업적을 내주시고 계십니다. 좋은 발표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차용걸 : 오늘 발표를 맡은 충북대학교의 차용걸입니다. 우리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 역사를 배울 때 處仁城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들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남사면 아곡2리 산 43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치인성터에 대해서는 면밀한 조사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城이 고려시대 때 몽고의 침략에 맞서서 싸운 抗蒙遺蹟地로 기억하고 있지만, 과연 그 객관적인 실체가 어떤 것인지, 즉 이 성이 당초에 어떤 이유로 축조되고 어떤 형태와 구조로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러면 준비된 발표 요지문을 살펴보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문 참조)

마지막으로 몇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전 제가 치인성을 직접 답사해 본 기억에 따르면 여러 사람들에게 물어서 어렵사리 찾아가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상 혹은 동아시아 역사상, 아니면 세계 역사상 저명한 이 유적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오늘날 찾아가 보기 어렵게 되어 있는가, 또 이곳이 교육장화 되지 못하고 왜 지금까지 버려진 상태로 되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다행스럽게도 용인시에서 이런 역사적 유적에 대해서 다시 조명해 보는 자리를 마련한 것은 우리 역사에 대한 깊이있는 이해를 촉진하는 좋은 계기를 마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오늘 발표를 준비하면

서 즐거운 마음으로 현장에 조사를 가서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객관적 사실을 확보해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몇가지 점에서는 여전히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처인성은 후문이 없어진 상태로 잘못 복원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처인성 주변의 주차시설 역시 문제입니다. 택시 서너대 세울 수 있는 공간은 있지만, 학생들이 수학여행으로 이곳을 답사할 경우 큰 차를 세울 곳이 없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이곳으로 답사 혹은 여행하러 오는데 주차시설 없이 처인성을 선양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처인성의 구조가 흩으로 덮혀 버렸습디만, 문터에 대해서는 확인 발굴을 해야 합니다. 지금 정문이라 여기고 있는 곳, 즉 동북쪽의 벽은 城壁인지 아니면 지금의 길 오른쪽에 있는 논까지도 포함해서 城이 있었던 것인지 전혀 확인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표문 중의 圖面에서도 성벽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검은 칠을 해 놓았던 반면에 동북쪽의 벽은 점선과 선으로만 나타냈습니다. 동북쪽의 논둑에서도 상당량의 기와와 그릇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논둑과 그 아래 논과의 높이 차이가 꽤 됩니다. 그렇다면 동북쪽의 성벽은 더 연장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점들을 확인하기 위한 발굴조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 초등학교로부터 대학생, 나아가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이 역사현장을 교육장화 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또 화살터를 포함한 종합정비 계획을 만들고, 매년 음력 12월 16일을 기해서 문화 이벤트 행사 같은 것을 벌여 나간다면 어떨까 생각되었습니다. 아울러 발굴조사를 통해 國家史蹟으로 승격 지정하는 문제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칩니다.

사회자 : 감사합니다. 차용걸 선생님께서 처인성을 직접 방문해서, 또 지표조사까지 겸해서 처인성의 축성 연대와 규모, 그리고 현재 상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심정보 선생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심정보 : 예, 심정보입니다. 저도 토론요지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론문 참조)

사회자 : 심정보 선생님께서 차용결 선생님의 논지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만, 이 문제는 마지막 종합토론 시간에 차용결 선생님의 말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

차용결 : 저,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발표가 끝난 후 바로 가야 되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神衿城이라든지 다른 성과 비교할 수 있다고 한 것은 현재 처인성은 지표채집 유물에서 통일신라기까지 올라가는 유물이 나온다는 점에서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벽이 실제로 축조되었던 시기가 그때까지 올라갈 가능성은 있으나, 통일신라기에 유적이 파괴되고 고려시대에 축조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성벽 절단조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처인성은 발굴조사가 아직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발굴조사가 되어 통일신라기에 축성된 것으로 확인된 성들과 직접 비교가 안되어 아마 앞으로 그럴 것이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다음으로 寶蓋山城의 入保處로서의 가능성 문제입니다만, 보개산성은 고구려 계통의 산성으로, 柳成龍이 『萬機要覽』에서 한 얘기는 당시 한양도성을 방어하기 위하여 禿城, 漢城, 南漢城을 이야기하면서 남한성과 독성산성 사이에 있는 보개산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하할 경우의 거점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몽고군이 그곳을 거점으로 삼는다면 그럴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 龍仁, 水原 쪽에 있던 사람은 山城入保 혹은 海島入保를 하고 있었고,

그 중에서도 이때는 제가 알기로는 海島入保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인성이 倉城이었을 가능성에 대한 문제입니다만, 『大東地志』에 處仁倉이 古縣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고, 지금 衙谷里 남쪽에 倉里가 있습니다. 『대동지지』가 만들어지는 조선후기 1840년대에는 이미 성안에 있던 창고가 없어지고 지금 창리에 다시 만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도 역시 조선후기 기와 등이 나오는지 정밀한 지표조사를 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토론자께서는 邑城을 邑治所와 구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제시와 함께 용어문제에 대해 답변을 요구하셨는데, 邑城은 일반명사입니다. 府에 있으면 府城, 州에 있으면 州城, 牧에 있으면 牧城, 郡에 있으면 郡城이라 하는 식으로 등급이 있고, 都城 이외의 지방 행정중심지의 城은 邑城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컨대 경기도 廣州의 경우는 광주 사창리에 통일신라기의 州治所가 있었는데, 그곳은 성으로 둘러쌓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후 조선후기에 廣州牧, 廣州留守府가 되는 과정에서 남한산성에 邑治所가 있게 되는데, 그 당시에는 남한산성은 山城이지만 기능상 邑城을 겸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순수한 읍성, 혹은 연해 읍성, 그리고 행정치소로서의 읍성 등 읍성의 기능상에 있어서 등급성 같은 것은 별도의 성곽 문제에서 심정보 선생님께서 읍성을 전공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심정보 선생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회자 : 감사합니다. 심정보 선생님,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심정보 : 처인성은 아마 통일신라시기에 축조한 邑治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1996년에 서울대학교에서 실시한 지표조사 자료에 따르면(崔夢龍·李憲宗·吳世筵, 1996, 『龍仁市の 文化遺蹟-용인시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서울대학교박물관·용인시), 南四面 奎宮里에서 통일신라시대 토기요

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통일신라 때 토기를 집중적으로 만들던 요지가 있었다면, 이 일대가 통일신라 때 상당한 위치에 있는 중심처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되고, 그 중심처는 아마 이 處仁城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차용걸 선생님께서도 통일신라시대 때일 가능성을 암시하고 계신데, 저는 차 교수님의 발표문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邑城과 邑治所 문제는 저와 차 교수님이 좀더 연구하여 연구발표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 : 감사합니다. 저는 문의한입니다만 한 말씀 드린다면, 몽고군이 쳐들어왔을 때 처인성이 있는 지역은 部曲이었으며, 이 지역은 州에서 外官을 파견하지 않은 屬縣이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그 당시의 處仁部曲에서 과연 처인성이 邑城으로서 기능을 가졌을까 의심이 됩니다만, 이에 대해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용걸 : 고려말까지의 읍성은 다른 곳에서도 土築이고 규모가 작습니다. 倉庫와 官舍 등 일부의 행정기능을 가진 기구들만이 성 안에 들어가 있고 民家들은 그 주변에 살고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돌로 개축되고 인구수에 비례해서 읍성을 더 크게 하면서 읍성의 성격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고려 이전의 읍성이 토루로 되어 있다는 것은 일반적인 양상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제1주제 제2 발표 및 토론 : 사르타이와 몽골-고려전쟁(처인부곡 대첩의 의미)>

사회자 :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제2 발표 「사르타이와 몽골-고려전쟁」에 대해 발표 및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를 해주실 주체혁 선생님은 연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지금 몽골학회 회

장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토론을 해주실 박원길 선생님은 중앙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지금 국립민속박물관 전문위원으로 계시면서 몽골 관계의 많은 저서를 출간하셨습니다.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채혁 : 소개받은 주채혁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차용걸 선생님께서 처인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발표해 주셨는데, 이 지역에 대해 아주 정밀하게 발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 발표는 이에 비해서는 조금 낮은 내용이 될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현미경적인 측면에서 세세하게 발표해 주신 차 선생님의 발표를 참고하면서 들어 주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저의 경우는 망원경적인 시각이라고나 할까요? 이런 측면에서 볼 수 있는 문제들이 어떤 것일까 염두에 두고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원고를 읽어 내려가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문 참조)

사회자 : 주채혁 선생님께서 몽고의 고려 침략을, 지금의 견해와는 조금 다르게, 세계제국을 건설하기 위한 세계전선의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좋은 내용을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박원길 선생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길 : 국립민속박물관에 근무하는 박원길입니다. 토론요지문이 준비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그전에 먼저 말씀드릴게 있습니다. 처인성 전투는 고려와 몽골에서 모두 잊혀진 전쟁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金允侯와 사르타크는 모두 의도적으로 잊혀진 인물입니다. 사르타크는 어거데이당으로 몰려서 모든 기록이 말살된 인물입니다. 따라서 사료상의 ‘撒禮塔’이 누구인가, 『몽골비사』의 성서년대가 언제인가, 또한 『新元史』의 기록을 믿을 수 있는가 등 많은 문제가 개재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형제 사이에서도 1명이 역적으로 몰리면 그 다른 형제의 기록은 말살이 됩니다. 金允侯 역시 그 행적이

의도적으로 축소된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용인에서 열리는 학술회의는 앞으로 이것을 좀더 중점적으로 연구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한 원고를 읽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문 참조)

사회자 : 주채혁 선생님의 발표에 대해서 박원길 선생님께서 세가지 항목으로 요약하면서 반론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주채혁 선생님, 반론하실 것이나 혹은 해명해 주실 것이 있으시면 해주시겠습니까?

주채혁 : 여러 가지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질문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질문 해주신 내용들은 논문을 다시 써야 될 차원의 질문인 것 같아, 간단히 대답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토론자께서는 撒禮塔이 어떤 인물이었던가의 문제와 관련해, 제 주장이 저의 기존 학설과 배치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기존 학설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몽골-고려 전쟁에서 撒禮塔이 어떤 인물인가를 규명하는 논문을 단 한편도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 학설과 배치된다고 하기 보다는 차라리 처음 해석을 시도하는데 있어서 저의 관점이 조금 다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발표문에서 ‘사르타이(Sartai)’라는 용어를 썼는데, 이것은 몽골식으로 발음한 대로 쓴 것입니다. 또 이것은 제가 발음한 것도 아니고 야나이 와다루(箭内互)라는 사람이 그렇게 쓴 것입니다. 교과서에 ‘살례탑’이라고 많이 썼길래 그것을 몽고말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논문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점에서는 ‘사르타크(Sartaq)’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무라가미(村上正二)라는 사람이 ‘사르타크’라고 했지요. 그런데 무라카미 선생은 논문에서 그것을 쓸 때 아무런 註도 해설도 없이 ‘사르타크’라고 해보면 어쩌나 하는 식으로 문제 제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宋

元代에 오면 이때는 이미 한자발음에서 ‘ㄱ’ 발음이 받침에서 사라지는 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르타이’라는 발음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견해로는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발표자께서는 ‘사르(Sar)’라는 성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르’라는 성은 저도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撒禮塔’이란 말은 ‘撒兒台’·‘撒里打’·‘撒里答’·‘撒里台’ 등 여러 가지로 표현되고 『몽골비사』에서는 ‘札刺亦兒豁兒赤(Jalayirtai Khorichi)’라고 나오고, 이와 비슷하게 『元史氏族表』에서는 성으로 ‘札刺’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 ‘札刺亦兒台(Jalayirtai)’라고도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으로 썼을 가능성도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르타이(Sartai)’와 발음이 상당히 비슷하니까요. 외국 사람들이 듣기에는 그것이 잘못 들리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원사』 열전 제29 札刺亦兒台豁兒赤傳에서 札刺亦兒氏를 이름으로 삼았다, 그래서 혹은 ‘撒里塔(살리타)’, ‘撒禮塔(사르타이)’라고 번역해서 썼다는 견해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견해를 수용하는 이유의 하나는 저는 1218년 江東城 戰役 때 札刺라는 사람이 바로 1231년 쳐들어온 撒禮塔과 같은 인물이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글을 썼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그렇게 결론을 지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토론을 해주신 박원길 선생님과 저의 견해가 기본적인 전제가 다른 것은, 사르타이라는 사람이 1218년부터 1232년까지 14년 간 고려 공략에 간여했다는 것이 저의 견해이고, 아마 박원길 선생님의 견해는 1231년과 1232년의 2년 간 고려 공략에 간여한 것이 사르타이라고 생각하는 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 질문하는 두가지 문제도 조금 다른 입장에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론자께서는 1231년 8월 몽골의 고려 침공을 계획적인 것이 아닌 우연적인 것으로 간주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1218년, 1219년의 副元帥 札刺가 13년 뒤인 1231년 8월 28일에 쳐들어온 撒禮塔이라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1218~19년에 몽골 군사가 고려에 들어온 것은 거란족을 추격해 들어온다는

것을 핑계로 하는 전투정찰로 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40명을 남겨놓아 고려말을 배우도록 했던 사실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蕃古興가 곡물을 탈취하는데 있어 고려측이 난처할 정도로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戰費 조달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高柄翊 선생님께서도 해석하셨듯이 ‘兄弟盟約’이란 것이 말이 ‘형제맹약’이지 사실은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실제로는 ‘六事’를 요구하여 군대를 파견하고 戶口도 보고케 하는 등 완전 복속 장악을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쳐들어왔을 때 곧 대규모 전투를 위한 역량을 갖추고 있지 않았습니까? 西夏 같은 경우에는 투항하고 맹약한 후 배신하기를 여러번 거친 몽골 군대입니다. 그래서 이때 몽골 군대가 ‘형제맹약’을 확인하기 위해 들어온 것은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1230~1234년 사이의 시기는 당시의 가장 세력이 강한 군사대국인 金나라를 장악하기 위해 총공세를 펴던 때이기 때문에, 그 후방인 高麗가 같이 싸우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보다는 고려의 군대를 끌어들이어 협공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1차로 외교적으로 성공하면 협공을 시도하고, 실패할 경우에는 전쟁을 하려고 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1218년 8월 맹약을 맺은 趙沖의 아들 趙叔昌이 ‘내가 바로 조충의 아들’이란 말을 들면서 중재를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몽골 군대가 침략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1220년대에 이미 西征을 마친 상태이고, 칭기스칸 제국, 즉 칭기스칸이 정벌하여 이룩한 영토는 이미 그나름으로 어느정도는 이뤄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 몽골이 허술하게 또 우연하게 고려를 침공할 정도로 동북아 정세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몽골군의 특성은 敵情분석에 치밀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형제맹약을 추구하다가 이것이 안먹혀 들어가자 그전까지의 사전 정찰을 토대로 작전대로 전투를 해나간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北界 40餘城을 그대로 두고 王京을 장악하여 위로 거슬러 올라가 완강하게 저항하는 鐵州, 龜州 등의 성을 장악해 갔던 것은 아주 세련되고 향후

를 꿰뚫어 본 전략전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몽골비사』에 ‘주르체드, 솔랑가스에 원정한 잘라이르의 코리치의 후속부대로 예수대르 코리치를 원정시켰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女眞과 高麗를 침공하는 것은 한 선에서 이뤄진 것이기 따로 떨어진 일은 아니었던 것으로, 당시의 관행으로 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 드렸듯이 『元史氏族表』에서는 太祖 때부터 憲宗 때까지 征高麗元帥로 사르타이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예 太祖 때, 그러니까 1218년 때부터 전쟁으로 생각했던 것 같고, 따라서 1231년은 물론 그러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론자께서는 고려가 남송, 일본과 연합할 가능성은 희박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몽골측은 금, 남송, 일본 정벌 때 고려에 군사 동원을 요구했습니다. 몽골-고려 군의 연합 편성을 요구한 것이죠. 금과 남송 정벌 때는 고려가 몽골-고려 군의 연합을 거부했지만 일본 정벌 때는 고려가 이미 투항한 상태이기 때문에 연합군이 형성되어 침공했습니다. 그런데 몽골이 고려에 군사를 파견한다는 것은 바로 연합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또는 이간시키는 역할도 함께 포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역으로 생각하면 고려가 남송, 일본과 연합을 할 가능성도 엿볼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구 몰아 붙일 경우에는 三別抄 처럼 근거지를 이동해 가면서 저항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경우에 서해바다는 잔잔하기도 하여 珍島, 濟州島, 日本列島 등의 섬들을 매개로 그쪽으로 진출할 수도 있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보다 120년 후인 1350년대 후반에는, 고려가 反元 투쟁을 벌이면서 舊南宋 경내 江浙行省의 方國珍이나 張士誠과 같은 강남의 군벌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元을 견제하는 조처를 취한 역사적 사례가 있습니다. 1354년에는 역으로 최영 장군이 산동의 장사성군을 토벌하는 승전의 사례도 있습니다. 몽골군은 금나라를 공격할 때 툴루이의 右路軍은 이미 남송의 국경 안을 침범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송과도 이미 도발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몽골이 고려를 마구 몰아 붙이기만 할 경우 궁지에 몰린 고려가 항해를 통해 남송, 금, 그리고 일본과 연결하여 몽골에 대항하는 시도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제 나름대로 판단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자 : 감사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또 박원길 선생님께서 반론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 문제는 세계제국을 건설하기 위한 세계전선 관리 차원이라는 문제와도 관련되고, 박원길 선생님께서는 몽고의 고려 침략이 東眞國 토벌 과정에서 일어난 우연한 결과라는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 등, 이 문제는 이번 토론 과정에서 쉽게 결론이 나올 논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간을 두고 연구해 나가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제 생각으로는 이것은 어찌보면 학계에서 각각 하나의 견해로 수용해야 할 문제이지,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르다고 하는 적대적인 입장에서 평가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두분 선생님 조금씩 서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전 주제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발표는 점심 식사후 이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제1주제 제3 발표 : 몽골군 복식과 샤머니즘>

사회자 : 오후 주제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발표로 이상학 선생님께서 「몽골군 복식과 샤머니즘」이란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이상학 선생님께서는 용인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상임연구위원으로 계시면서 용인지역 문화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오시고 계십니다.

이상학 : 저는 전문학자는 아닙니다만 제 나름대로 자료를 수집하여 의견을 이번 기회에 발표하고자 합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요지문 및 필름 등을 살펴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문 참조)

사회자 : 감사합니다. 많은 자료를 준비해 주셔서, 시간이 많으면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시간이 부족하여 아쉽게 생각합니다.

〈제1주제 제4 발표 및 토론 : 1232년 용인 처인성에서의 대몽승첩〉

사회자 : 이어서 제4발표로 「1232년 용인 처인성에서의 대몽승첩」에 대한 발표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를 해주실 윤용혁 선생님께서는 공주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로 계시며, 『高麗對蒙抗爭史研究』라는 저서를 출간하시는 등 고려시대 대몽항쟁사 연구에 있어 혁혁한 많은 업적을 남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토론을 맡아 주실 이익주 선생님께서는 서울시립대학교 국사학과 교수로 계시며, 고려후기 대외관계사 연구에 훌륭한 많은 연구업적을 남기시고 계십니다.

윤용혁 : 소개받은 윤용혁입니다. 대체로 고려는 몽고와 40여년 동안 항전을 지속하게 되는데, 이 40여년 동안의 전쟁 가운데 일반사람들은 三別抄를 가장 많이 기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별초는 항쟁의 마지막 시기에 중앙부가 아닌 한반도의 남쪽 珍島, 濟州島 등에서 장기간 항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또 결국 비극적으로 끝나기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몽고 침입으로 내륙에서 진행되었던 약 30여년 동안의 전쟁기간 중 가장 극적인 사건은 어떤 것이었을까 생각해 보면, 물론 여러 전투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역시 處仁城 승첩이 가장 극적인 사건이 아니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몽고 침략군 사령관인 撒禮塔이 사살되었다는 것 자체도 극적인 성격을 가진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아니라 살레탑을 사살한 사람들은 정규적이고 조직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고 金允侯라는 승려 또는 처인성 주변의 住民이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처인성 승첩이 가지고 있는 극적인 부분을 잘 대변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인시에서 처인성 승첩을 조명하는 기회를 갖게 되어 그 의미가 더욱 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발표문을 살펴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문 참조)

사회자 : 감사합니다. 윤용혁 선생님께서 훌륭한 발표를 해주셔서 많은 시사점을 얻게 됩니다. 특히 處仁部曲이 김윤후의 승첩 이후 部曲에서 縣으로 승격되었다는 사실은, 일반 개설서에서 鄉·所·部曲이 국가에 功이 있을 경우 상급기구로 승급한다는 것과 일치되고 있어서 많은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에 대해 서울시립대학교 국사학과 교수님으로 계시는 이익주 선생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이익주 : 예, 이익주입니다. 평소에 고려-원 관계사를 공부하면서 대몽항쟁이나 몽고사의 공부에 필요하고 저 자신이 그 부분에 대한 공부가 부족하다고 생각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연구하시는 대표적인 연구자라고 할 수 있는 윤용혁 선생님과 주채혁 선생님, 박원길 선생님이 모두 한자리에 나오셔서 만나뵙게 되어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침 발표부터 저로서는 많은 공부가 되었고, 더불어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왕에 토론요지를 만들어 배포해 드렸습니다. 이것을 읽는 방식으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문 참조)

사회자 : 감사합니다. 윤용혁 선생님, 말씀해 주시죠.

윤용혁 : 예, 이익주 선생님께서 대몽항쟁사 전반에 대한 중요한 질문들을 여러 개 해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동안 대몽항쟁사에 대해서는 연구

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토론이라든가 논쟁 등이 별로 없었던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중요한 질문들을 많이 제기해 주셔서 앞으로 대몽항쟁사 논의를 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주는 말씀을 해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선 질문받은 것 가운데 몇가지에 대해 의견을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몽고군의 水戰 문제입니다. 江華島를 공격하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가에 대해 그동안 몽고군이 水戰에 약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이뤄져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몽고족들이 遊牧民族이어서 수전에 약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강화도를 몽고군이 직접 침략하지 않았던 이유, 그리고 강화도가 40여년 동안 지켜질 수 있었던 이유가 단순히 몽고군이 수전에 약했기 때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달리 말한다면 강화도가 지켜질 수 있었던 이유는 몽고군이 수전에 약했기 때문이라는 것만 가지고는 충분한 설명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몽고군이 수전에 약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우선 고려쪽의 기본적인 전략을 생각해 보면 한가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몽고 침입군의 군사력에 비해 고려가 상대적으로 열세였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려가 그 군사적인 열세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가 가령 山城으로 들어가 방어한다든가 海島에 들어가 방어한다든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섬으로 들어가 방어를 한다는 것 자체가 몽고군의 약점을 이용하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몽고군이 고려에 침략해 들어온 이후로 섬을 공격하는 사례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기록상으로는 고종 41년부터 나타나고 그 이전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말기부터 기록들이 나타나는데, 가령 고종 41년 2월에 몽고군이 갈도를 침략한 사실이 있고, 42년 12월에 조도, 43년에 압해도, 43년 10월에 애도, 44월 8월에 신미도, 44년 9월에 창린도 등 41년~44년에 기록이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

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마무리를 짓지 못한 상황이 되니까 섬까지 공격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것은 몽고군도 섬에 대한 공격이 가능하고 나아가 수전도 가능성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러한 전투의 결과는 대체로 몽고군이 실패하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그것은 몽고군도 수전을 할 수 있지만, 몽고군은 騎兵을 중심으로 전략을 짜고 전쟁하는 것을 위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전에 약했다는 것 역시 사실이라는 것을 드러내 주는 것이 아니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다소 양면적인 설명이라든지 보완적인 설명 등에 의해서 문제를 설명해 나가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두번째 질문은 몽고군의 병력 규모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이 자리에 주채혁 선생님과 박원길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도 여쭙보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려사』에 나오는 자료나 기록을 살펴보면, 물론 기록이 대단히 부족하기 때문에 단정할 수 없지만, 몇가지 병력수에 대한 언급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 조금 설명을 드러볼까 합니다. 실제로 몽고군이 침략해 온 시기에 있어서는 기록이 잘 나오지 않고, 다만 분산적인 기록으로 몽고군의 騎兵이 ‘數十騎’라든가 ‘數百騎’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몽고군은 작전수행에 있어서, 물론 사령관이 직접 지휘하는 범주가 있지만, 기병이 활용될 수 있는 장점을 최대한 발휘해서 대단히 분산적이고 활동적으로 작전이 수행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기병의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게끔 소집단으로 분산되어 작전을 수행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체 규모와 관련해서는 대체로 두가지 자료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한가지는 고종 46년 車羅大의 6차 침입 때 기록인데, ‘車羅大가 군사 5,000으로 압록강을 건넜다’라고 보고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서 ‘5,000’이라는 군사 숫자가 차라대의 6차 침입시 전체 군사를 가리킨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점이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전체 규모를 말하는 것이었다기 보다는 차라대가 직접 지휘했던 본대라든가, 제한적인 규모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 몽고 침입 이전의 기록이

되겠습니다만, 몽고 침입 직전에 거란족으로부터의 침입이 있자 고종 5년에 '哈眞'과 '札刺'라는 몽고원수 두사람이 군사 '1만'을 거느리고 고려에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군사 '1만'과 東眞國의 군사 2만이 함께 동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동원된 군사가 모두 3만의 군사이었던 셈이 됩니다. 이것은 몽고군의 침략 때는 아니지만, 몽고군의 전체 동원되는 군사수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몽고군 침입 때도 이러한 군사규모의 기록은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몽고군의 군사 규모는, 물론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었겠지만, 예를 들어 1만이라든가 2만 혹은 많으면 3만 등 적은 만단위(1만, 2만, 3만)로 전체 군사 규모가 이뤄졌다고 보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셨지만 제가 답변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질문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컨대 崔氏政權의 역할을 재평가해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또 지방민들이 많은 공을 세웠다 하는 것이 대몽항쟁에 있어서 중요한 성격으로 간주되고 있는데, 그러면 과연 지방민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게 되었는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즉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는지를 당시 지방사회의 상황과 관련지어 파악해 보아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현재의 연구는 '용감히 싸웠다. 그래서 공을 세웠다'라는 단계까지는 얘기가 되고 있지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는가는 좀더 구조적으로 설명이 되어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몽항쟁사의 연구 방향에 있어서 이런 구조적인 측면에 대한 파악이 이뤄지고, 그것이 단순히 대외관계사나 대몽항쟁사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 당시 고려사회의 내부구조와 연관을 지어서 설명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된다면 연구의 새로운 단계를 가져올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점에서 시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씨정권의 역할 문제도 그런 측면에서 사료를 다시 살펴

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최씨정권은 『고려사』의 기록에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방향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또 지금 연구자들도 대체로 최씨정권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각 때문에 오히려 사료를 그냥 지나쳐 버릴 우려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조금 다른 시각에서 사료를 검토해보면 또 다른 부분을 살펴볼 수 있게 될 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연구에 있어서 좀더 참고를 해나가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사회자 : 감사합니다. 이익주 선생님께서도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되지만, 일단 이것으로 오늘 주제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韓蒙關係史를 연구하시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같은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는 기회는 매우 드뭅니다. 오늘 이 귀중한 자리를 여기서 종결시킨다면 아쉬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하신 주제의 내용을 발표자, 토론자 모두 모여 종합토론을 하면서 나머지 문제를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이제는 발표자, 토론자를 떠나서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 전체가 의견을 서로 교환함으로써 학문의 공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부터 10분 정도 쉬었다가 5시 10분부터 종합토론을 다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고려시대의 용인』 학술대회

‘처인성 승첩’ 종합토론

일 시 : 1998년 6월 26일(금) 17 : 00 ~ 18 : 00

장 소 : 용인문예회관 다목적실

참석자 : 사회자 - 신천식(명지대학교 사학과 교수)

주채혁(강원대학교 사학과 교수)

박원길(국립민속박물관 전문위원)

이상학(용인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상임연구위원)

윤용혁(공주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이익주(서울시립대학교 국사학과 교수)

사회자 : 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늘 용인시의 큰 행사에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은 『고려시대의 용인』이란 공통주제하에 처인성의 문제, 항몽관계에 대한 집중적인 조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종합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법은 발표하신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발표자가 이 자리에 안계신 경우는 여기 계시는 분들이 자신의 개인적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주제발표 제1 「처인성터의 구조와 성격」에 대한 문제인데, 아마 발표자 차용걸 선생님과 토론자 심정보 선생님은 바쁜 일 때문에

먼저 가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계신 여러 선생님들께서도 이 분야에 대해서 지견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되어, 제가 먼저 몇가지 문제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자 차용걸 선생님께서는 용인 처인성의 성격을 우선 邑城의 성격, 倉城의 성격, 入保를 위한 성터, 이 세가지로 규명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익주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이익주 : 죄송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사회자 : 그러면 박원길 선생님. 차용걸 선생님은 처인성의 성격을 세가지로 규정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박원길 : 저도 그쪽 분야는 잘 몰라서 ...

사회자 :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處仁城의 성격은 邑城이라고 한다면, 倉城이라든가, 入保를 위한 성터라고 이렇게 한가지로 성격을 규명하기는 상당히 힘들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처인성의 성터가 파손되어 있는 입장에서, 또 복원되지 못하고 발굴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성터의 성격에 대해 논란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탁상공론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城의 성격을 확실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용인시에서 주관이 되어 정확한 지표조사를 실시하고 또 지표조사를 토대로 발굴을 함으로써 원상을 정확하게 복원한 이후에 성격을 규명하는 것이 좋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적어도 몽고가 쳐들어 왔을 때 이 지역은 處仁部曲이었음을 감안한다면 처인성이 邑城으로서의 성격을 지녔다고 보기는 힘들지 않을까 합니다. 아마 倉城이라든가 入保를 위한 성터였다가 처인성 전투의 승리 이후 부곡이 縣으로 승격되자 이때 비로서 중앙에서 外官을 파견함으로써 治所의 위

치를 확보하게 되고 이로써 이곳이 또한 曷城으로서의 성격으로 발전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앞으로 발굴 등을 통해 원상을 회복한 후에야 파악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사항으로 제2 주제발표 「사르타이와 몽골·고려전쟁-처인부곡 대첩의 의미-」로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박원길 선생님께서 토론자로 몇가지 문제를 제기해 주셨는데,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할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길 : 사실 제 질문은 사르타크(Sartag)와 그 시대에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사르타크, 과연 그 인물이 누구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해 아까 주체혁 선생님께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札刺와 사르타크가 동일 인물이기 때문에 이 전쟁의 성격도 일단 침략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일본학자인 池内宏도 그의 논문에서 많은 증거를 제시하면서 札刺와 사르타크는 도저히 동일인물이라는 볼 수 없다고 단언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반론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반론의 대표적인 인물이 柯劭忞이며 그의 주장은 동경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新元史』에 실려 있습니다. 그러나 『新元史』는 제목과는 달리 正史가 아닌 개인적인 저작에 불과합니다. 이로 인해 일부학자들은 『新元史』를 사료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도 합니다.

어느 면에서 사르타크는 기록이 교의로 말살되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高麗史』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1218년에 哈眞과 札刺가 1만명의 군대를 이끌고 고려에 와 趙沖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의 말씀대로 札刺와 撒禮塔이 동일인이라고 가정한 뒤 1231년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복원해 보기로 합시다. 만약 이들이 동일인이라면 그와 맹을 맺은 趙沖의 아들인 趙叔昌이 그의 개인적인 특징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흔적은 『高麗史』에 관하는한 적어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또 만약 이들이 동일인물이라면 사료상 오히려 처음부터

撒禮塔으로 표기하는 편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비교적 정확함을 자랑하는 『高麗史』가 최초로 들어온 몽골의 장군명을 撒禮塔 대신에 札刺, 扎刺 등으로 표기하고 있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지 않으면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札刺, 扎刺 역시 정확한 표기로 보기 어렵다는 것은 그 이후에 나오는 몇 개의 誤記로 입증이 되기는 합니다. 그에 대해서는 이후 다른 자리에서 정식 논문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또 위의 동일인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아버지가 귀국원수와 맹약을 맺었다(吾父曾與貴國元帥,約爲兄弟)”라는 『高麗史』의 한 구절 즉 “貴國元帥”를 어떻게 해석해야 좋은지 여쭙어 보고 싶습니다. 즉 貴國元帥가 撒禮塔인지 그 이전에 왔던 몽골의 장군들을 가리키는 것이지 알고 싶습니다.

주채혁 : 그것은 아까 해석한 그대로입니다. 현직 원수가 오자 “귀국원수와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兄弟之盟을 맺었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직 원수 사르타이한테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박원길 : 그런데 위와 관련된 문서 중에는 札刺가 나옵니다. 趙叔昌은 撒禮塔이 왔을 때 자신의 아버지가 그 옛날에 몽골의 장군들과 맹약을 맺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趙叔昌이 몽골칸정에 제출한 문서에는 그 장군이 撒禮塔이 아니라 札刺라 명기되어 있습니다. 만약 札刺와 撒禮塔이 동일인이라면 오히려 표기를 撒禮塔이라고 해주는 것이 더 명확하지 않았을까요.

주채혁 : 그때는 元나라측에 보고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죠?

박원길 : 예, 보고를 해야 몽골군이 철수를 할 수 있으니까요.

주채혁 : 그러니까 元나라측에서는 札刺라고 불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

입니다. 잘라이르(Djalair) 씨족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불렀다는 것
입니다.

박원길 : 원래 잘라이르씨족은 칭기스칸의 예속씨족(Dürülükün)입니다.
따라서 니룬(Nirugun)계 몽골씨족들과는 결혼할 수 없습니다. 이를 일본학
자인 那珂通世는 무언가 오해를 해서 이들이 결혼해도 된다고 언급하고 있
지만 사료상에서 그러한 예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동일인물의 여부문제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인물이 權皇帝인 木華黎(Mukhali)장군입니다. 모칼리는
高麗 출신이라고 추정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또 그는 샤만적인 기질도 농
후한 인물입니다. 이 인물의 후예가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있는 나카초(納
舍出, Nakhachu)입니다. 비록 모칼리에서 나카초에 이르는 계보는 구체적으
로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그가 모칼리의 후예이기 때문에 세습적으로 작위
를 이어받았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撒禮塔 역시 權皇帝
라 자칭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거테이칸 초기에 권황제라 자칭할 정도의 인
물이라면 시기적으로 보아 그가 功臣의 후예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즉
몽골제국 초기의 특성으로 미루어 그가 평범한 집안의 출신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아주 이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칭기스칸은 1219년 서
아시아원정을 앞두고 모칼리를 중국을 통치하는 국왕 즉 權皇帝로 임명하고
있습니다. 모칼리는 1224년에 세상을 떠나는데 權皇帝의 지위는 撒禮塔이
아닌 그의 후예들이 계승해야 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요.

주채혁 : 그점은 달리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느 지역에 한해서 權皇帝의
역할을 받았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新元史』 문제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필자에 앞선
문제 제기 사례로 소개한 것에 불과하기는 하지만 박원길 선생님이 말씀하
신대로 물론 『신원사』는 사료로서 조금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池內宏의 논문 역시 이제 하나의 조잡한 낡은 학위논문이 지나지 않는 것이

기도 합니다. 한편 村上正二는 撒禮塔의 원음을 'Sartaq'라고 복원하고 있으나 전거를 밝혀 놓지 않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 쪽(新元史)에도 상당히 날카로운 측면이 더러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모든 견해를 부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1970년대 후반에 제가 논문으로 『史叢』에 발표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읽지도 않았거나 읽었어도 전성으로 읽은 듯하니 구체적 자료를 들어서 우선 그 논문내용부터 조목조목 면밀하게 논문으로 반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박원길 : 이것은 제 머리속에만 있는 것이지 아직 논문으로 작성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선생님의 좋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회자 : 아마 이 분야에 대해서 두분 선생님께서는 한국사학계를 대표하는 가장 훌륭한 학자이실 것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이 두분께 알고 싶으신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혁 : 제가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몽골군의 병력에 대해 『高麗史』의 기록으로는 '수십기', 혹은 '수백기'처럼 분산된 병력 형태로 기록이 자주 나오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실제로 몽골군의 전투에서는 어떤 식으로 병력이 활용되고 있는지 여쭙보고 싶습니다. 또 '이십기', 혹은 '이백기' 하는 식으로 기록에 나오는 것이 몽골군의 전투 방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자료인지에 대해서도 여쭙보고 싶습니다.

주체혁 : 왜 분산되어 기록에 나오느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는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다만 초원의 경우에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을 수가 있지 않은가 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山城, 海島에 入保하고 있는

상황에서 병력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의 기록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추정만 하고 있습니다.

윤용혁 : 그러면 초원지대에서는 병력 분산의 필요가 없다는 것인가요?

주채혁 : 초원지대에서는 그렇게 분산된 형태로 전투가 행해지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윤용혁 : 박원길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원길 : 몽골의 군사관련 부분은 사실상 배일에 가려져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몽골군의 숫자나 전술에 대해서는 파악이 불가능 것들이 많습니다. 다만 그런 가운데서 조금이나마 그 실상을 파악해 볼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 중의 하나가 『黑韃事略』입니다. 『黑韃事略』의 몽골군대 관련 기록은 간접적인 전문을 수집한 것인데 약 10페이지에 걸쳐 그들의 전술, 군량미, 주둔방법 등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몽골의 군대는 ‘10인제, 100인제…’ 등의 10진법체로 이루어져 있으며 기병의 경우 1대대가 50기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기록에서는 전술의 하나로 개를 이용한다는 사실까지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개를 전투에 투입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珍島와 진도개를 생각할 때 매우 주목되는 기록이라고 보여집니다. 몽골군의 전술은 앞으로 세부적으로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익주 : 저도 한 말씀 드릴 것이 있습니다. 兵力 문제와 관련해서, 아마도 이것은 윤용혁 선생님의 발표에 대한 토론 때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지만, 기왕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兵力이라는 것은 전쟁의 규모를 가늠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

지금 우리는 그 자료를, 즉 전거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상식에 의해 재단되는, 그런 바람직하지 못한 상태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듯도 합니다. 아까 윤용혁 선생님께서 예를 들어 주셔서 제가 인용을 합니다만, 車羅大 침공 당시 5천명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車羅大의 침략이 그때까지 몽고의 고려 침략중에서 규모가 가장 컸다고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5천명이 전부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가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 대몽항쟁중 몽고군의 규모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작았을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규모가 ‘몇천기’ 정도라면 전국 각지에 분산되어 활동하면서 또 한편으로 水戰을 준비하는 것이, 그것도 水戰을 배를 가져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배를 만들어서 하는 일이 사실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답변중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사료에 보이는 사례는 대개 ‘몇십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병력을 가지고 지역을 점령해 가는 전투라기 보다는 소규모 기병부대가 일종의 노략질을 해가는 양상의 전쟁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이것은 일단 『高麗史』에 나오는 병력에 대한 사료를 전부 종합해서 분석한 다음에야 비로소 가능한 것이겠지만, 저는 아까 질문드리면서 혹시 그런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 문제를 말씀 드리는 것은, 주채혁 선생님께 한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그 문제와 관련해서 高麗라고 하는 지역에 ‘수천기’ 정도가 투입되었다고 하는 것이, 그 당시 몽고가 다른 지역에서 전개한 전쟁 양상을 감안했을 때 자연스럽게 추론이 되는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 정도 규모이면 대개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하는,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병력 규모가 무리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인데요, 다른 지역의 사례를 들어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주채혁 : 글썄요. 다른 지역의 사례를 특별히 기억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일단 高麗쪽이 主攻擊의 대상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금나라가 주공격

대상이고, 다음에 南宋, 이런 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 고려쪽에 많은 병력이 올 수는 없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高麗를 후방기지로 활용할 수 있는, 즉 경제적 영역으로 이용할 수 있는 데 주력을 두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원길 선생님도 얘기하신대로, 高麗의 경우 칸의 자손이 같이 와서 공격을 하는 주요한 지역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윤용혁 선생님께서서는 몽골의 고려 침입 때 몽골군의 병력이 2~3만명 정도일 것으로 추정하셨습니다만, 늘 그렇지는 않았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중에 南宋이 망하고 日本을 정복할 때는 상당히 많은 병력이 고려에 오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때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병력이 분산된 것은 불가피했던 것 같습니다. 각지의 山城에서 여기저기서 전투하고 있는데, 혹시 江華島라면 집중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는 분산되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런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소모전을 하면서 직접 공격을 하지 않는 방식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사회자 : 제가 의심이 가는 것은, 그 당시 고려사회는 崔氏執權時期로서, 武人政權期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시 정권은 군사적인 기반이 충분했다고 보이는데, 몽고에서 5천명, 혹은 2~3만명의 군사가 왔다고 해서 江華島로 遷都해야 할 정도로 당시 고려의 국방력이 약했는가 의문입니다. 또 몽고군 침입 때 몽고 군사의 규모를 5천명 혹은 2~3만명 정도로 보고 계십니다만, 2~3만명 정도로 군사를 편성한다면 한 조직은 약 5천명 정도로 해서 나뉘어 졌을 가능성이 높는데, 그 정도의 군사력을 가지고 大邱까지 혹은 전국을 유린할 수 있었겠습니까? 또 그러면서도 강화도에 대한 위협적인 전선을 형성할 수 있었겠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고려말 『益齋亂藁』에서 李齊賢이 한 말이 생각합니다. “고종때 俞升트는 몽고군이 쳐들어 오자, ‘우리는 저 많은 군대를 도저히 이길 수 없다. 저 많은 군대와 대항해 싸워서 전국을 피비린내나게 하고, 백성

들을 노비로 만들게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차라리 우리가 禮로써 몽고에 복종한다면 몽고가 우리를 어떻게 하겠는가?고 하여 몽고와의 전쟁을 반대하였으나 崔氏는 고집을 부려서 정부를 강화도로 옮겼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오늘날 우리 식자들은 아직까지도 원통해 한다"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유승단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면, 그 당시 고려에 쳐들어왔던 몽고 군사는 도저히 고려의 현재 병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던 대규모의 군사력이 아니었을까 생각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2~3만명의 몽고 군사 때문에 고려가 강화도로 遷都했다는 것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元이 宋을 칠 때는 몇명의 군사를 동원했는가, 金을 칠 때는 어땠는가를 비교하면서 『宋史』라든가 『金史』, 『新元史』, 『元史』를 검토하여 高麗에 대한 침입을 정리해 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주채혁 : 지금 金나라 침공할 때 몇명이고, 宋나라 침공할 때는 몇명이었는지 구체적인 것은 기억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高麗쪽보다는 金쪽이 많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사회자 : 2~3만명 정도의 군사 때문에 과연 고려가 강화도로 천도를 했을까요?

주채혁 : 그런데 하여튼 金나라의 경우를 보면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사회자 : 高麗,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전통적 戰術은 직접 싸우기 보다는 자극을 준 후 갑자기 포위를 해서 전멸시키는 게릴라 전법이 아니겠습니까? 살수전투가 그러하고, 姜邯贊 장군의 龜州戰鬪가 다 그렇습니다. 고려에 침입해 들어왔던 遼의 군사도 무려 '몇십만'명을 넘어가는데, 그런 대규모의 군사에 대해서도 高麗는 승리해서 江東 六州까지 영토를 확대시켰습

니다. 그런데 몽고가 침입하던 시기는 국가 정치 상태가 崔氏 武人政權이 執權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또 군사력은 국가의 정규군도 있지만, 개인의 私兵도 많이 있습니다. 2~3만명 때문에 강화도로 천도했다고는 잘 납득이 안가는군요.

주채혁 : 하지만 고려-몽골전쟁 때 전면적인 전쟁을 한 적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退路를 끊는다든지, 몽고군에 대해서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까?

사회자 : 몽고군에 대해서, 어찌보면 處仁城의 경우에 있어서도 유인을 해서 이뤄진 승리였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는 顯宗 때 보다 군인들의 실세가 강했고 군사력도 강화되었다고 볼 때 2~3만명 가지고는 대구까지 진출한다든지 강화도까지 진출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 수 있겠는가 의문입니다.

주채혁 : 제가 기억하기로 중국 침공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그보다 더 소수의 군사로도 가능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포로로 잡은 군대를 계속 전투력으로 앞장세워 사용해 가곤 했으니까 몽골군은 싸우면 싸울수록 도리어 군사수가 눈덩이처럼 늘어나기도 했거든요.

사회자 : 그러나 제가 아는 범위에 따른다면, 발표자께서 중국 宋나라를 침공할 때도 1대대 5천명 정도의 군사를 거느린 한 장수가 승리를 해서 진격해 갔다고 하였는데, 그렇다고 해서 전체 출동 군대가 5천명이라고 본다면 잘못이겠지요. 전체 군인은 아마도 몇십만명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고려에 쳐들어왔던 몽고의 군대는 적어도 10만명은 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박원길 : 명케칸이 남송을 침략할 때 대칸 휘하의 中路軍의 숫자는 60만 명이었고 당시 베트남에서 올라오는 몽골군대의 숫자는 약 10만명입니다. 그리고 당시 중앙아시아나 러시아, 이란 및 고려 지역에도 상당수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확한 숫자는 파악할 수 없습니다.

이익주 : 이 문제는 지금 현재로서는 확인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다른 지역의 예를 좀 알아보려고 얘기를 꺼냈던 것입니다. 이것은 『高麗史』에 나오는 사료를 하나하나 모아서 분석한 이후에나 가능한 일이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일은 아닌 듯 싶습니다.

사회자 : 예. 그러면 아까 이익주 선생님께서 발표자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주 : 水戰에 대한 문제를 또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몽고군은 水戰에 약하다’라고 하는 문제, 그리고 ‘遊牧民族은 水戰에 약하다’라고 하는 문제가 좀 더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이를 역사적으로 확인한다면, 이런 것이 될 것입니다. 당시 몽고는 넓은 영역을 동시에 정복하고 있는데, 그리고 거의 10년이란 단시간에 점령하고 있는데, 만약 수전에 대한 약점이 있다면 반드시 다른 지역에서도 그것이 문제가 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高麗만 수전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그러했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 만약 그렇다면 연구자 역시 漢字 사용지역의 연구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의 연구자들도 몽고와의 항쟁을 이야기하면서 水戰을 거론해야 할텐데, 과연 이러한 사례가 ‘몽골학’이라고 하는 전세계적인 규모의 학문분야에 있는지, 최소한 이 정도라도 확인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유독 高麗만이 水戰을 앞세워서 몽고와 전쟁을 벌였을까 의문입니다.

이것은 또 중국과 관계가 되는 문제입니다만, 水戰에 대한 상식적인 설명은 너무 결과론적인 설명이 아닌가 합니다. 고려가 몽고와 3~40년 동안 항쟁을 했던 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를 역으로 추적해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 역으로 역으로 논리가 진행되면서 수전에 약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해답을 얻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또 상식에 즉해서 커다란 무리가 없으니까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것은 어찌보면 과학적이고 논리적으로 입증해 나가는 절차가 상당히 무시된 해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한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崔氏政權의 江華島 방어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너무 최씨 정권이 강화도에 들어가 영리를 추구하고 그래서 문제가 되었다는 쪽으로 얘기가 치우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抗戰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윤용혁 선생님께서도 동의하셨지만, 훈련되지 않고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奮戰한다는 것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간인이 군인에 맞서 싸운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 듯 생각되고, 그래서 고려의 방어능력과 관련되는 최씨 정권의 역할 등이 이야기 되어야, 수전 부분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시기에 대한 설명이 좀더 충분하게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주체혁 : 그 부분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시다만, 고려로의 침공은 칭기스칸제국이 완성된 다음 단계에서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물을 건너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윤용혁 선생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동의하는데, 海島에 입보하고 山城에 입보하는 것이 몽골이 물을 두려워해서라기 보다는 산성에 들어가면 싸우기 힘든 것이 일반적인 것이고, 그것은 해도에 들어가도 마찬가지인 것이 아닌가 합니다.

최씨 정권이 왜 강화도에 들어갔는가? 그 문제는 저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심장부를 장악당하면 해도에 입보하고

산성에 근거해서 싸우는 효과가 전혀 없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강화도에 들어갔다고 봅니다. 최씨 정권은 武人, 즉 군인 출신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전술전략적인 차원에서 들어갔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강화교섭을 위한 논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제 입장은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몽골군에 대해 우리가 모르고 있는 사실이 꽤 있습니다. 몽골군이 산성전투에 약하다고 하는데, 어떤 지역에 가보니까 몽골의 말이 萬年雪이 덮힌 산에 올라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 출신인가에 따라서는 산악전투에도 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보면 어느 지역 출신들은 海戰도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바이칼호 등 물가에서 고기를 잡아먹고 사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측면에서만 보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가를 파악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적어도 전쟁에 관한 한 최씨 무인정권의 역할이 충분히 평가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원길 : 水戰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遊牧軍隊가 강을 건너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한 예로 몽골군이 중앙아시아와 페르시아 지역을 침공할 때 한국과 유사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례로 몽골군이 서아시아 원정시 콰레즈제국의 황제인 술탄-무함마드가 각지를 전전한 끝에 카스피해의 한 孤島로 도피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몽골군은 그를 추격하기 위하여 배를 만들고 있습니다.

또 한 예로 우리나라는 게릴라전에 유리한 산악지형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더 험난한 지형을 지닌 大理國(현 중국의 운남성)도 1년만에 정벌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제 2 차 세계대전 때 일본군도 뚫지 못한 그런 곳입니다. 아프카니스탄이나 이란지역은 근래 최신투기 무장한 소련군도 공격에 실패할 정도로 험난한 산악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험준한 산악지대에는 흔히 암살자의 교단으로 악명높은 회교의 이단 이스마일파의 성체들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몽골은 단 3천명의 군대로 이들을

정토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란 수도인 테헤란의 북쪽에는 당시 몽골군의 공격을 받아 폐허가 된 성채들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몽골군은 평원뿐만이 아니라 산악전투에도 아주 능한 군대들입니다.

주채혁 : 그리고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만, 몽골군은 과학의 발달등에 힘입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한 전법들을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화약 같은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또 독일의 한 박물관에는 큰 연을 띄워서 사람이 그곳에 타서 공습을 하는 그림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습까지 한 것입니다. 육해공군 다 동원하는 그런 전투까지 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워터 리스크(water risk), 즉 물을 무서워한다는 문제와 관련시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몽골군은 일본을 침공했으나 두 번 다 태풍을 만나서 싸워보지도 못하고 실패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몽골제국이 다 완성되어 심지어는 몽골군에는 航海의 원조라고 하는 아랍 사람들까지도 포함되고 南宋 사람도 포함되었을 것인데, 계절풍 정도를 몰라서 그랬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다른 학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송이 일단 멸망했으나 싸워서 군대가 해체된 것이 아니고 조직을 그대로 가지고 몽골군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그냥 돌려 보내자니 조직된 무장력을 방치해야 하는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조직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반란이 일어날 우려가 많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즉 군사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수장시킨 것이라는 논문이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런 면에서는 새로운 시각에서 살펴보는 해석들이 자꾸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강화도를 침공하지 못했다는 소박한 해석은 지양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적어도 칭기스칸제국이 이루어진 이후의 단계에서는 큰 문제일 수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자 : 윤용혁 선생님. 이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윤용혁 : 그 부분은 당시의 어떤 상황에서 그런 것이 가능했든가를 파악해 보는 일이 중요하고, 또 어떤 전거에 입각해서 살펴보는가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논의의 전거라든가 하는 부분에서 표현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이로부터 논의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논의는 여기서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처인성승첩의 경우도 그렇습니다만, 자료의 빈곤이 가장 결정적으로 아쉬운 문제가 되지 않는가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몽골의 침입 이후 왜 이렇게 자료가 남지 않게 되었는가? 처인성승첩이 중요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자료가 남지 않게 되었는가? 임진왜란 같은 경우를 생각하면 7년 동안 전쟁을 한 다음, 국가에서 자료를 정리한 것도 있지만, 선비들이 정리한 자료도 있고, 또 개인 문증을 통해서 여러 가지 비석들도 많이 만들어 졌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왜 이렇게 자료가 남아있지 않게 되었는지 궁금해 집니다. 물론 임진왜란 때보다도 몇백년 더 오래된 시기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자료가 없게 된 이유는 그 이후의 정치적 상황이 결정적으로 자료 자체를 멸절시키는 배경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고 계시듯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고려는 상당기간 동안 원나라 간섭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모으고 현양하는 기회가 사실상 박탈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날 가장 아쉽게 생각합니다. 사실 만약 자료만 있으면, 비록 지금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자료를 통해서 5년후 혹은 10년후 또 다른 사람에 의해 새로운 해석이 가능할 텐데,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로부터 문제가 심각하게 야기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시점에서 자료가 없는 점과 관련하여 한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즉 만약 현재의 시점에서 처인성 관련 자료를 확보한다, 혹은 보존한다고 할 때 과연 우리는 해야될 일이 없

는 것인가? 고려시대와 그 뒤시대는 그랬다 할지라도, 오늘날은 그 부분에 있어서 할 일이 없는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문헌 자료를 새로 확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자료라고 하는 것은 문헌 자료만이 자료인 것은 아닙니다. 현재 남아 있는 것도 자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남아 있는 자료 가운데서 가장 확실한 것으로 성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터를 잘 보존하고 또 성터의 구조라든가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확인하는 등 이런 것들을 자료화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이 아닌가 합니다.

대몽항쟁과 관련된 유적이 여러군데 있습니다. 江華島에도 있고, 유명한 것으로는 珍島나 濟州道의 三別抄 유적이 있는데, 하나 같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 유적들에 대해 학술적인 조사를 어느 곳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명한 유적들은 복원한다든지 보수한다든지 이미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원형상태가 어떤지도 모른 상태에서 토목공사를 해서 원상을 파괴시킨 사례가 그런 중요한 유적에서 일어났던 것이지요. 제가 알기로는 처인성의 경우도 원형상태가 어떤지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복원 혹은 보수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없다고 하지만, 현재에도 그런 자료를 확보할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자료를 파괴하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고려시대 처인성터를 복원하는 것은, 연대로 따지면 당시가 1232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700여년전의 유적을 복원하는 일이 됩니다. 700여년 정도의 기간은 그렇게 오래된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500년 전의 삼국시대 자료도 굉장히 많이 확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국시대 화살촉, 칼 등은 많은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려시대 몽고와의 전쟁이 벌어진 40여년 동안 사용되었던 화살 혹은 칼이 확실하게 하나라도 남아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자료를 보면서 화살 하나, 칼 하나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500년 전에 자료를 정리할 때의 책임이 아니라, 바로 오늘날 우리들이 해야 될 부분에 대한 책임을 이야기해주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또 그런 부분에서 자료를 어떻게 확보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생각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합니다.

주체혁 : 윤용혁 선생님 말씀 하신데 대해 조금 보충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0년 전, 혹은 700년 전, 그때도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최씨 무인 정권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도, 사실은 그 다음에 들어선 정권이 결국 문민쿠데타에 의해서 몽골군대의 세력을 엇고 등장하게 되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무인정권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했을 리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몽골세상이 되어 버렸는데, 그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평가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말 선초에는 주자학적인 사관에 의해 역사서가 편찬되면서 《三國史記》식의 『高麗史』 ‘本紀’가 ‘世家’로 개편되어 버리는 폭거가 있었는데, 이런 주자학적인 측면에서 칼질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그때 사료 혹은 역사기술이 상당히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處仁城, 金允侯 등의 문제도 마찬가지로 생각됩니다. 우선 김윤후는 중입니다. 따라서 불교와 관련해 주자학적인 역사서술의 측면에서 소외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김윤후는 전쟁에서 몽골의 총사령관을 살해한 인물이기 때문에, 전쟁 이후 몽골세상이 된 판이니까 김윤후 유적이라든가, 몽골의 화살촉이라든가, 전쟁 유적이라든가를 보존했을 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몽항쟁과 관련한 비석 하나를 못봤습니다. 윤용혁 선생님께서서는 많이 조사하셨을텐데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네요. 전적비 같은 것이 남아 있는 것이 있습니까?

윤용혁 : 없습니다. 다만 조선시대 어느 한 가문에서 관련 기록을 남긴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이곳튼 금석문, 묘지명 한두군데 남아 있을 따름입니다. 묘지명이야 땅속에 들어가는 것이지만, 비석은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알리는 일을 전혀 할 수 없었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자료를 모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겠죠.

주체혁 : 뭐, 윤용혁 선생님이 없다고 하시면 저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웃음) 그런 역사적 배경도 우리가 충분히 고려하면서 이 문제에 접근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 이상학 선생님. 한 말씀 해주시지요.

이상학 : 예. 저는 학자가 아니지만 조사하는 과정에서 너무 할 말이 많아서, 저는 여기서 그만 끝내야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왜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느냐, 왜 그런 자료를 제시했느냐 하고 질문하면 답변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이상 뭐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회자 :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들 가운데 질문사항이 있으신 분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익(전 용인문화원장) : 우선 『고려시대의 용인』이라는 제목하에 여러 교수님, 그리고 몽골학회 회원님들이 좋은 내용의 얘기와 앞으로의 문제에 대해 논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발표에서 차용길 교수님께서 지정학자 입장에서 처인성 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1991-92년에 용인에 비가 많이 와서 장마졌을 때 현지에 갔다는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의 처인성 위치로 봐서는 정문이 남쪽에 있는데, 그때 북쪽에 기와장, 깨진 그릇 등이 지표면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쪽, 동네 들어가는 입구 부분에 장마가 저서 산에서 나

무가 많이 떠내려 왔습니다. 그때 논쪽에서 보니까 그릇 굽는 점토라든가 그릇조각이 많이 나왔습니다. 아까 차용걸 선생님께서 신라시대의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비슷한 시기의 것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차용걸 선생님이 말씀하신 문터라는 것이 성안의 가운데 농로라고 하셨는데, 그 북쪽 끝을 보게 되면 문터 비슷한 것이 나옵니다. 아직 그것에 대해 연구발표도 안나오고 수수께끼 처럼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한가지 여쭙 보고 싶은 것은, 지정학적인 입장에서 볼 때 처인성터가 있는 남사면은 서울에서 내려와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쪽은 완전히 산골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곳은 지금처럼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곳에 당시에 과연 몇 명이 왔고, 몇 명이 주둔하고 있었을지 의심이 갑니다. 교통로가 좋지 않아요. 요즘처럼 사통팔달의 교통로가 아닙니다. 오산에서 오는 길, 남사에서 안여고개 넘어가는 길, 용인에서 용인대학교 뒷길 넘어가는 길 등 여러가지로 생각해 봐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一說에 의하면 몽고군이 한강을 넘어올 때,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약 3~4만의 군대가 내려와 한강 남쪽에 주둔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3~4만의 몽고 군대가 한강을 도하하여 남쪽으로 와서, 과연 처인성을 향해 몇 명이나 침공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이상학 선생님이 쓰신 글에서도 나옵니다만, 과연 김윤후 장군이 회살을 쏘았을 때 살리타이 장군은 한강을 내려온 3~4만명 군사 중 적어도 5천명의 군사를 이끌고 그곳에 주둔했다고 상상되는데요. 그곳에 軍倉이 있다고 한다면 군창의 군량미를 빼앗기 위해 왔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곳은 5천명의 군대가 칠 수 있는 자리가 못된다고 봅니다. 그것에 대해 자세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사회자 :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토론회에서 처인성에 쳐들어온 몽고의 군사가 5천명이라는 얘기는 그 누구도 발표하신 적이 없습니다. 또 5천명인

지, 그 이상인지, 이하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동원된 병력의 다수를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사료에 입각해서 실증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분이 이 자리에 아무도 안계십니다. 그점 답변을 못드리는데 대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용익 :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인성터의 논가운데에서 기왓장이나 그릇 조각 등이 많이 나왔었는데, 여러 선생님께서 다시 한번 답사하셔서 복원의 길을 열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 : 감사합니다. 그럼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이용희(용인시청 문화공보담당관) : 용인시청 문화공보담당관입니다. 용인시 지역의 주요한 전적지를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좋은 논의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 나름대로 궁금한 것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를 토대로 준비한 질문은 아님니다만, 이 분야를 전공하신 선생님들께서 추론이 가능하시면, 비록 오늘이 아니라도 이후 가능하시면 한번 생각해 주십사하는 생각에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처인성터의 도로 등 주변여건을 살펴볼 때 처인성이 과연 그 당시에 살리타이의 공격 대상이었겠는가? 만약 공격 대상이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이는 지역주민들께서도 상당히 궁금해 하는 점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처인부곡민들이 몽고군대와 전투를 했다면, 처인성 규모를 볼 때 그곳의 전투인력은 상당히 소수였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部曲의 면적 규모나 거주 인력의 규모는 어느 정도였겠는가? 또 부곡민들이 미리 알고 그곳으로 대피해 갔던 것인가, 아니면 전투를 하기 위해 그곳에 들어갔던 것인가? 또 다른 관점에서 볼 경우 몽고군들이 부곡민들을 활용하기 위해 데리고 왔다고 한다면, 부곡민들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는가? 그들의 직업, 그 당시 부곡의 기능은 어떤 것인가

가? 또 전시에 대비해서 그 당시에 민가에서도 군사훈련을 시키는 제도가 있었겠는가? 이런 점들에 대해서 市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궁금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정도 설득력있는 답변이 나와야, 저희가 처인성의 중요성 등에 대해 좀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람되게 여쭙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 선생님 가운데 누가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윤용혁 선생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윤용혁 : 답변을 다 하기는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조금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남아있는 처인성의 규모가 작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살례담을 사살한 것으로 자료에 기록되어 나오는 처인성이 현재 남아있는 처인성인 것은 거의 틀림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까 발표할 때 말씀드린 「答東眞別紙」라는 자료는 대단히 신빙성 높은 자료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자료에는 ‘처인부곡의 작은 성(處仁部曲之小城)’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기록에서도 ‘작은 성’이라고 기록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성이라는 것은 틀림없는 일이 아닌가 합니다. 물론 도로가 잘 연결이 안된다든가, 주도로가 아니었다는 여러 가지 의문이 생기는 하지만, 앞으로 이러한 의문들에 대해서는 더 해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처인성터와 관련해 남아있는 구전자료라든가 기록 등과 잘 맞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이 아닌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왜 살례담의 주력부대가 이곳으로 이동해 왔겠는가 등 여러 가지 의문이 대두됩니다만, 그것을 설명하는 단서의 한가지는, 앞서서도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처인성이 倉城의 기능을 가지지 않았겠는가라는 데서 하나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참고로 사용되기 때문에, 특히 식량이 비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인 것과 관련이 있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때는 음력 12월 16일인데, 음력 12월이면 한겨울입니다. 사실 식량을 마련하는 일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들에 먹을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식량저장 창고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단서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문체는 조선시대 초기 기록에 處仁城에 軍倉이 하나 있다고 기록이 나온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사실 성에는 창고가 원래 다 있는 것이거든요. 꼭 처인성만 창고가 있는 것이 아니고 성에는 다 창고가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軍倉이 있다는 것 자체가 倉城이라는 결정적인 근거가 못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좀더 정확하게 해명하고 또 정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것에 대한 실제적인 조사가 되지 않고서는 결국 제자리에서 맴돌 수 밖에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여러 가지 의문을 해명하는데 있어서 일단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자료는 다 확보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대한 조사, 발굴이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채혁 : 그것과 관련해 조금 더 덧붙여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사령관이 죽었을 경우에 接戰은 이미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사령관이 직접 앞장서서 싸우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서로 전쟁이 이뤄져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회자 : 그럼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신 분은 질문해 주시지요.

송재권(용인문화원장) : 장시간에 걸쳐 토론을 해주신 사회자를 비롯한 발표자와 토론자 등 여러 교수님들께 용인문화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궁금했던 사실들에 대해 조금이나마 잘 알게 된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용인문화원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교과서등에서도

나오는 金允侯 僉將의 戰勝地를 어떻게 기념화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작년에는 현지를 답사할 때 원형에 가까운 기와 한 장을 수습한 적이 있는데, 이것을 지금까지 잘 보관해오고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 권율 장군이 행주산성에서 그 지형적으로 조그만한 한강변에서도 대첩을 이룰 수 있었지 않습니까? 아무쪼록 처인성지가 제대로 복원되어 오늘을 살고 있는 용인시민과 후손들에게 훌륭한 교육의 현장으로 남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해주신 교수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제가 기와장만큼은 전문가에 의한 지표조사가 이뤄질 때 자료로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사회자 : 감사합니다. 지금 참석자 중에서도 질문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발표자와 토론자들께서도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토론을 마무리짓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대체로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자, 토론자 선생님들께서 발표하신 사항들 중 공통된 점은 ‘너무 자료가 부족하다. 그리고 처인성은 역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앞으로 정확한 관점에서 지표조사를 해서 발굴을 함으로써 완전한 원형을 복원시켜야 한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처인성 전투의 역사적 의의는 이로 말미암아 몽고군의 남하를 저지시키는 큰 역할을 했고, 또 이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 고려 인민들이 몽고에 대항해 싸워야겠다는 의기심, 용기를 불어 넣어 주었다는데서도 그 중요성이 있으며, 이 전쟁은 한국사에서 勝戰으로 부각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용인시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정확한 관점에서 이 지역에 대한 지표조사를 다시 해서 그동안 파손되었던 유적을 다시 복원시키고, 그래서 원형을 찾는 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남아 있는 280여m의 규모를 가지고 ‘처인성이 이것이다’ 하면서 勝戰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찌보면 우스운 일이 아닌가 생각

됩니다. 주변 동서남북으로 확대 발굴함으로써 원형을 복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마 倉城도 발견될 수 있을 것이고, 중요한 역사 사적들이 많이 발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문헌적인 입장에서도 지금까지는 『高麗史』, 『高麗史節要』와 또 중국측 자료로 『宋史』, 『金史』, 『元史』, 『新元史』 정도가 연구자료로 활용되어 왔는데 앞으로는 중국측 자료 중에서도 金石文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한국측 자료에서도, 특히 조금전 「李世華墓誌銘」에서 몽고군의 廣州 침입을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 「이세화묘지명」 뿐만아니라 지금 공개되지 않은 묘지명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묘지명이라든가 비명이라든가 기타 금석문을 조사함으로써, 하나라도 좀더 자료를 많이 발굴해서 이 분야에 대한 정확한 실상이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수고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이것으로 종합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고려시대의 용인』 학술대회

‘서리 고려백자요지’, ‘좌항리 고분군’, ‘서봉사 현오국사탑비’
주제발표 및 토론

일 시 : 1998년 6월 27일(토) 10 : 00 ~ 16 : 00

장 소 : 용인문화회관 다목적실

참석자 : 사회자 - 신천식(명지대학교 사학과 교수)

김재열(호암미술관 부관장)

강경숙(충북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김영원(국립공주박물관 관장)

엄익성(명지대학교박물관 학예연구원)

길경택(충주박물관 학예연구실장)

양정석(용인시사편찬 연구원)

이병욱(고려대학교 철학과 감사)

<제2주제 발표 및 토론 : 용인 서리 고려백자요지 발굴조사 내용
및 의의>

사회자 : 우리 용인지방은 많은 역사적 변천과정을 거쳐 오늘날에 이르
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삼한시대에 마한의 전통을 가지고 있었고, 이후
백제 도읍지의 이웃으로, 또 고구려 장수왕 때는 고구려의 땅, 신라 진흥왕
때는 신라의 땅으로 되는 등 많은 역사적 변천과정을 거치고 있는 곳이 우

리 용인지방입니다. 따라서 용인지방의 문화는 한국문화의 집성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고려백자요지에 대해서 살펴해보도록 하겠는데, 지금까지의 이 분야에 대한 연구만으로도 우리 학계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용인지방에서 발견되고 있는 요지에서 고려시대에 백자가 사용되었다는 것이 증명되었고, 이것은 우리나라 도지사에서 획기적인 사실로 받아 들여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지역을 직접 발굴하신 호암미술관 부관장으로 계시는 김재열 선생님께서 주제 발표를 해주시겠고, 충북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교수로 계시는 강경숙 선생님과 국립공주박물관 관장으로 계시는 김영원 선생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김재열 : 호암미술관 부관장으로 있는 김재열입니다. 오늘 제가 지난 84년부터 87년, 88년, 3차례에 걸쳐 발굴한 용인시 이동면 서리에 위치한 고려백자요지에 대해서 발굴결과와 그 의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충분하지 않은 관계로 먼저 대체적인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슬라이드를 보신 후 마지막으로 본 요지의 의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나누어드린 발표요지문을 읽어 내려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문 참조)

사회자 : 감사합니다. 김재열 선생님의 노력으로 용인 서리 고려백자요지가 발굴됨으로써, 한국역사에 있어서 고려시대라고 하면 청자문화권이라고 해왔었는데 이때에도 이미 백자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존 학계의 틀을 뒤엎는 아주 훌륭한 업적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훌륭한 자료가 용인지방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용인사람들은 다 같이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할 것이고, 또 이 훌륭한 유구를 발굴해주신 김재열 선생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발표 내용에 대해서 토론자의 토론이 제시하겠습니다.

강경숙 : 충북대학교 고고미술학과에 있는 강경숙입니다. 간단한 토론요지가 있기 때문에, 토론 요지를 읽는 식으로 해서 토론 내지 질문에 대신하려고 합니다.

사실 저도 오늘 슬라이드를 보면서 새로운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왜 백자 생산이 이렇게 얘기가 되느냐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중국, 일본을 생각해 볼 때, 일본은 백자 생산이 임진왜란이 끝난 다음에 생산이 이뤄졌습니다. 그런 데 비해 우리는 9세기에 이미 백자를 생산했다는 것이 됩니다. 이점은 몹시 자랑스러운데, 그 시작이 용인으로부터 라는 점입니다.

그러면 제 질문은 준비된 토론요지를 읽으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문 참조)

사회자 : 감사합니다. 답변은 토론자의 질문 사항을 모두 다 들으신 다음에 일괄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영원 선생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원 : 국립공주박물관장으로 있는 김영원입니다. 저도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제 나름대로의 견해를 피력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용인 서리가 우리나라 도자사에 있어서 청자나 백자의 발생 연대를 밝혀주는 아주 중요한 가마라는 것은 이미 학계에서 널리 인정하고 있습니다. 고려시대의 도자기는 청자로 대표되지만 서리에서는 청자가 앞시기에 계속 만들어지고 바로 백자를 제작하기 때문에, 청자에 빛이 가려졌던 백자의 발생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변화 발전해 나가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서리는 더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토론문 참조)

사회자 : 감사합니다. 일정이 원래는 오후 3시부터 종합토론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만, 오늘 토론자로 나오신 강경숙 선생님과 김영원 선생님이 오후에 서울에서 학회에 참석해야 하신다고 하기 때문에 부득이 오늘 종합토론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김재열 선생님이 답변해 주시고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답변에 대한 보충 토론이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모임은 앞으로 용인시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좋은 기회이고, 또 오늘 오신 존경하는 토론자 두분 선생님은 다시 모시기도 힘들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토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발표자와 토론자의 토론이 끝난 후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도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앞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 : 두분 선생님께서 앞으로의 보고서 발간과 연구에 좋은 지적과 질문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먼저 충북대학교 강경숙 선생께서 질문하신 내용부터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 서리의 수요층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9세기 통일신라 下代가 되면 경주의 왕권이 약화되어 서남해안 일대는 왕권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게 되면서 豪族의 세력이 많이 커진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국사학계에서 보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청자등의 자기의 발생이 유독 서남해안에서 일어났던 이유가 이러한 호족과 관련이 있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특히 張保臯의 해상세력과 연결을 시키려는 시도가 일찍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용인 서리가마와 관련된 수요층에 대해서는, 제가 그쪽 전공자가 아니어서 확실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역시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이 일대에 웅거했던 호족집단과 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이 부근에는 竹州(竹山)의 箕萱 세력이 있었습니다. 『史記』에 의하면 弓裔는 먼저 기훤의 휘하에 있다가 도망 나와서 北原(原州)에 있던 梁吉의 밑으로 들어가고 다시 이를 탈취해서 秦晙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史書에 등장할 정도의 상당한 세력을 가졌던 기훤과의 연관성을 일단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서리요지의 위치와 관련해 생각해 보

면, 요지 앞을 흐르는 개울물은 南陽灣으로 흘러 들어가는 振威川의 시발점이 되는데, 829년에 서해안의 남양만에 무역 및 해상교통을 위한 唐城鎮이 개설됩니다. 때문에 요지의 위치로 보거나, 서리가마에서 처음에는 매우 질이 좋은 자기가 생산된 점 등으로 보아, 단순히 인근 지방을 위한 생산이 아니라, 당성진등 서해안을 통한 교역을 위해 운영된 가마였을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당시의 사료가 거의 없기 때문에 아직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저는 청자나 백자의 발생시기를 9세기 무렵으로 보기 때문에 신라하대의 호족집단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의할 것은 도자기 제조기술은 당시에 최첨단 기술이었다는 점입니다. 우리도 통일신라시대에 중국에서 자기를 수입하였으며, 특히 일본이 임진왜란 때 우리 사기장들을 붙잡아 간 것도, 이것이 새로운 기술이고 쉽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많은 돈을 주고 수입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호족들에게는 도자기의 생산과 무역이 자신의 세력을 유지하고 양성하는데 필요한 경제력을 얻는데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저는 서리 가마의 운용이 이러한 사실들과 관련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은 서리 퇴적층의 형성시기에 관한 문제입니다. 서리 퇴적층이 250년이라는 것은 너무 길지 않는가라는 질문입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리 퇴적층은 4개의 층으로 나누어지는데, I기층은 현재 극히 일부 지역에서 보이며 파편양도 적습니다. 그리고 II기층은 약간 보편화되지만 파편은 역시 소량입니다. 그리고 해무리굽과 변형해무리굽이 나타나는 III기층이 가장 퇴적의 밀도가 높으며, 여러 측면으로 볼 때 이 층이 중심층이 됩니다. IV기층은 이곳이 지방화되면서 대량생산체제가 되기 때문에 양은 제일 많지만 시간은 퇴적규모에 비해 그렇게 길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퇴적의 내용 중 갑발을 보면, 갑발은 한번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번 쓰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주저앉아서 못 쓸 정도로 되어 무수하게 쌓여져 있는 점이 주목됩니다. 이런 대규모 퇴적이 이루어진 시간은

생산량과도 관계가 있지만, 가마 규모와도 당연히 관계됩니다. 확실한 이야기는 못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제규모 내지 생산규모를 볼 때, 대체로 가마의 규모가 작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옛날의 요업은 기본적으로 국내수요를 위한 것이지 해외 수출용은 아니었으며, 전반적으로 公貿易은 있었지만 私貿易은 미약했습니다. 따라서 자기를 생산했던 가마 역시 그 규모는 크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퇴적기간이 상당히 길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중국 定窯의 경우, 퇴적층이 五代부터 순차적으로 金, 元까지 4~500년이 계속되고 있는 사실도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서리에서는 가마의 구조가 벽돌가마에서 진흙가마로 바뀌었는데, 그 진흙가마도 처음에도 짧게, 짧게 쓰면서 여러번의 이동상황이 보이고 나중에는 전체적으로 길게 이어져 83m로 되는 등, 현재 뭐라고 단정할 수 없지만 복잡한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I기층인 선해무리굽층의 가마는 현재의 가마와는 다른 가마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장 아래층의 퇴적층 바다에서 가마유구로 보이는 흔적이 일부 나타났지만, 퇴적의 규모가 워낙 엄청나서 확장발굴할 여건이 안되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퇴적과 관련된 최초의 가마가 어딘가에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런 상황을 감안하면, 서리가마는 한 곳에서 아주 오랫동안 운영되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어서 선해무리굽 형성시기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상대편년을 가지고 논하는 수준이고, 절대편년에 대해서는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는 실정이지만, 형성시기폭은 그렇게 길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해무리굽 시기에 크히 소량이지만 해무리굽편이 나오고 있어, 해무리굽에 대한 정보는 일찍부터 갖고 있었음을 참고삼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저희 1차 보고서에서 소위 통계분석방법을 시도해 보았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실험적인 방법을 시도해 본 것입니다. 그리고 보고서란 것이 나중에 어떤 관점에서 사용될지 모르기 때문에 발굴을 통해 얻어진 자료를 최대한 계량화하고 수치화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어 이 방법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사실 亞式이란 것이 시기적인 차이일 수 있지만, 같은 시기에도 제작자간의 차이일 수 있고 개인의 컨디션의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원산리가마터에 대한 문제입니다만, 제가 보기에 그쪽의 발굴이 완전히 끝났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특히 窯床의 퇴적층을 절단해 보지 않은 것 같고, 다만 벽돌가마의 배열과 개보수 상황만 보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자세한 보고서도 없고, 일본에서 이곳에 갔다온 사람들이 쓴 글을 봐도 별로 자세하지 않습니다. 단지 일본사람들은 우리 서리에서 나온 것과 비슷하다는 정도의 글을 쓰고 있습니다. 淳化3년명 제기류가 나온 지점은 거의 최종시기이고 지표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해무리굽에 대해서는 순화3년명과 함께 나온다는 말은 아니고 그냥 해무리굽 파편들이 있다는 정도입니다. 해무리굽의 중요성에 대해서 거기서는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벽돌가마를 4차에 걸쳐 개축을 하였는데, 처음에는 길고 넓었다가 점차 짧고 좁아진다는 것은 용인 서리와도 같은 양상입니다. 그런데 벽돌가마라는 것이 아무리 개보수를 한다면 100여년 동안이나 오래 사용할 수 있었는가라는 의문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벽돌가마는 진흙가마보다 훨씬 견고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벽돌가마를 4차에 걸쳐 개축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저는 오히려 가마의 사용기간이 100년 이상 더 길 수 있다고 봅니다.

네번째 질문인 I기층과 관련된 가마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발굴 당시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물론 벽돌가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벽돌가마가 어느 시기까지 사용되다가 끝나고 진흙가마로 바뀌게 되었는지, 그 시점이나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벽돌가마가 더 오래가고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는데, 왜 벽돌가마에서 진흙가마로 돌아섰는가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에는 김영원 선생의 질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祭器

類에 대해 좋은 지적이 계셨습니다. 다양한 제기류들이 4기층에서 나왔는데, 고려 성종때 태조를 모시기 위한 제실을 개성에 만들면서 그때 제기들을 구웠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개성의 太廟에서 올리던 祭禮가 지방으로 점차 확산되면서, 이 과정에서 서리가마에서도 제기류를 만들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들 제기류는 일단 개성에서 10세기말에 나타났고, 지방으로 퍼져나가 지방화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11세기 이후가 될 것으로 생각되어, 서리가마에서 제기를 굽게 되는 데는 개성과는 시간 차이가 조금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측 보고서에 소개된 花形접시에 대한 문제입니다. 화형 접시란 용어는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 구분없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말씀하신 북한 보고서를 보면, 이 형식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고려 3대 정종의 묘에 나온 것을 보면, 花瓣이 동그랗게 되어 5개의 잎모양으로 된 것이고, 20대 신종의 묘에서 나온 것은 구연부에 작은 홈이 있는 형식이어서 모양이 다른 화형접시입니다.

김영원 : 그런데 북한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면, 형식이나 양식이 서로 유사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세기 중엽의 것과, 거의 150년 차이가 나는 후대에 만들어진 청자가 양식에서 차이가 없을 리가 없을 것인데 유사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에서 나온 보고서는 선별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원산리 2호 가마는 1차, 2차, 3차, 4차 가마로 이동해 가는 데, 1차에서 나온 유물들이 용인 서리 II기층에서 유행한 화형접시가 출토한다고 하셨죠? 그런데 발표문 중에 '3차가마는 출토된 청자가 고려 3대 정종의 무덤 것과 같아서 늦어도 10세기 중엽 이전에 개축되었다고 보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약간 의심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전문적인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북한의 보고서는 혼란을 야기시키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엄선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재열 : 예, 그렇습니다. 단적인 예로 북한에서는 원산리의 1호 가마는 고구려때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청자의 발생을 고구려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분명 1호 가마 역시 2호 가마와 마찬가지로 중국과의 관계하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북한에서는 고구려 자체에서 청자를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지요.

두번째로 상감의 발생시기 문제인데, 저도 상감편이 해무리굽과 같이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상감은 미리 黑土를 바닥에 상감하고 다시 그 흑토를 파내어 白象嵌을 한 것으로 기술적으로 상당히 우수한 수준입니다. 한편으로, 초창기 상감청자의 모습이 몇군데 초기청자요지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체로 12세기 중반에 상감청자의 발생과 성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서리요지나 전남 함평군 양재리 등지의 초기청자에서 상감의 흔적이 드물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류를 原象嵌, 즉 proto-象嵌이라 부를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런 요소들은 개인적으로 아마 북방청자의 영향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화도 마찬가지로 초기에 나타나는 이런 상감들은, 중국도자기를 보면 남쪽과 북쪽이 감각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는데, 아무래도 중국의 남쪽 보다는 북쪽의 감각에 가깝다는 느낌이 듭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더 깊이 연구되어야 하겠지만, 우리나라에 상감법의 발생이 생각보다 훨씬 일찍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화백자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 先學들이 유사한 철화문이 중국 磁州窯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곳과의 연관을 고려하는 입장에서 크게 못 벗어났지만, 근래에 오면서 자주요에서 철화문이 나오는 것이 12세기 이후라는 것이 정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분명히 11세기 무렵에 철화청자가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자주요와의 관련성이 부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일본의 학자들은 남쪽의 越州窯나 廣州

西村窯의 영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철화청자의 발생이 중국의 唐代나 五代의 북방 耀州窯의 영향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화문양의 패턴이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철화청자의 발생시기도 10세기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용인 서리가마에서 철화백자류는 IV기층부터 나오기 때문에 일단 철화청자가 먼저 나타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철화청자가 조금 일찍 발생해서 늦게 까지 계속되고 철화백자는 서리가마의 경우, 청자의 영향을 받아 조금 늦게 제작되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흥시 방산동요지는 작년에 발굴한 것을 보니까 서리의 I, II기층과 상황이 매우 유사합니다. 가마구조가 작년에는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올해에는 전면발굴을 하고 있는데, 가마의 구조가 잘 남아 있고, 퇴적층도 3m 이상이나 된다고 합니다. 간혹 명문이 있는 자료도 나오고 있는데, 판독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어쨌든 앞으로 거기에서 많은 신자료들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그러면 용인 서리가마 및 우리나라 청자, 백자의 발생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도 많이 풀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 감사합니다. 제 생각입니다만, 강경숙 선생님과 김영원 선생님, 모두 모시기 힘든 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은 얘기를 듣고 배우고자 했습니다. 원래 계획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만약 두분 선생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토론은 여기서 일단 종결시켜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김영원 : 질문은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한가지 말씀드리면, 시흥시 방산동요지에도 초기에 벽돌가마 두개가 나왔고, 용인 서리에서도 9세기경부터 자기가 만들어 졌다는 증거가 되는 구조가 나온 것으로 미루어 보아서, 경기도 일대에서는 이른 시기부터 이런 요업이 발달했

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경기도 지역을 집중적으로 시굴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사회자 :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참석하신 분들중에서 질문이 있으신 분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룬 문제는 용인시민으로서의 관심이 많은 부분입니다.

송재권(용인문화원장) : 김재열 부관장님께서 발굴하시느라고 수고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도요지 근처에서 양질의 고령토를 발견하신 적은 있는지 여쭙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용인 서리요지는 역사적인 유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오늘날의 도공들이 와서 자기를 구울 수 있겠는지 궁금해서입니다.

김재열 : 사실 저도 용인 서리를 발굴하면서 이 근처에 양질의 고령토가 나오는지 궁금해서 한군데를 파본적이 있었습니다. 요지의 앞인 중덕부락에 찰흙으로 사용하는 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흙을 파서 구워봤는데 철분이 많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흙은 고령토 종류이고 자연상태에서는 노란색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질하면 상당히 좋은 흙이 될 것 같았습니다. 다른 쪽 산에서도 흙이 나온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3주제 발표 및 토론 : 고려시대 고분에 대한 일고찰-좌향리 고분군을 중심으로->

사회자 :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주제로 「고려시대 고분에 대한 일고찰-좌향리 고분군을 중심으로-」에 대한 발표 및 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지대학교 박물관 학예연구원으로 계시는 엄익성 선생님이 발표해 주시고, 토론은 충주박물관 학예연구실장으로 계시는 길경택

선생님이 맡아 주시겠습니다.

엄익성 : 명지대학교 박물관 학예과에 근무하는 엄익성입니다. 아직 공부
가 모자라서 이 자리가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제 발표는 발표요지를 읽는
방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논문 참조)

사회자 : 수고하셨습니다. 좌항리 고분군은 우리 용인지방에서 자랑으로
생각하고 있는 서리 요지에서 발굴된 백자가 실용적으로 활용되고 있었다는
실질적인 자료로서, 중요한 학문적 가치를 갖고 있는 곳입니다. 이에 대해서
길경택 선생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길경택 : 충주박물관에 있는 길경택입니다. 토론은 토론요지문을 읽는 것
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문 참조)

엄익성 : 감사합니다. 역시 제 공부가 모자란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고분'이란 용어 사용의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제가 생각하는
고분이란 용어는 옛무덤을 총칭하는 의미에서의 고분입니다. 길경택 선생님의
지적대로 우리는 고분이라 하면 삼국시대를 떠올리게 되고 높은 봉분으로
상징되는 지배층의 무덤이란 의미로 고분이란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
습니다. 실제로 김기웅 박사님은 『고분』이란 책에서 '고분이란 용어는 단순
히 고대의 분묘의 준말이 아니고, 고대의 분묘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
다. 대체로 한정된 시대의 몇가지 요소를 구비한 지배층의 분묘만을 고분이라
한다'라고 한정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정된 시대'라는 것은
삼국 건국기부터 삼국통일 하반기 고분의 축조가 쇠퇴되는 시기까지를 지칭
하고 '몇가지 요소'란 것은 입지조건, 분급의 예상과 규모, 내부구조, 다량의

부장품 등 여러 가지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이뤄진, 구조형식상 지배층의 분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이 강하였기 때문에 명지대학교에서 발간한 『1994년 좌항리 발굴 보고서』에는 ‘고분’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분묘’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또 1995년 동아대학교에서 발간한 『김해 덕산리 조선시대 석실분과 토광묘』에서는 ‘분묘’라는 용어도 아니고 ‘민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기로 일찍부터 포괄적인 의미로 고분을 넓게 이해하는 분이 있습니다. 즉 김원룡 선생님은 1974년 간행된 『한국의 고분』이란 책에서 ‘고분은 옛무덤의 뜻으로 과거나 현대의 무덤 중에서 역사적 또는 고고학적 자료가 될 수 있는 분묘’를 말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삼국시대의 석곽묘나 고려시대의 석곽묘나 내부적 구조는 형식상 큰 차이는 없습니다. 또 역사적, 고고학적 자료가 되는데도 동일합니다. 동일한 구조형식에 연구가치도 유사한 무덤들이 시대가 다르다고 용어도 달라야 하는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다만 ‘고분’이란 용어가 삼국시대의 분묘라는 인식이 아직도 강하게 남아 있기 때문에 저는 잠정적으로 ‘고려시대 고분’이라 표기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석곽묘와 토광묘 피장자의 문제입니다. 매우 자신이 없는 답변입니다. 발표문 중에서도 밝혔듯이 고려시대 무덤에는 계층적 요소가 있어 석곽묘에는 중류이상, 토광묘에는 일반천민이라고 처음 주장하신 분은 김원룡 선생님입니다. 그런데 근래에 조사된 결과를 보게 되면, 이렇게 계층적으로 구별하기 어려운 점을 매우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가까운 실례로 작년엔 경기도박물관에서 발굴한 용인시 구성면 마북리 고려고분군의 경우 배치 구조상 가족 또는 친족단위의 묘역으로 추정하는데, 묘제상 석곽묘와 토광묘 사이에서 특별한 차이점, 즉 분포성향이나 유물의 조합 등에서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급적, 또는 남녀 성적 차이로 묘제를 선택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피장자는 고려시대 특별한 지위를 지니지 않은 일반민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글에서는

석곽묘와 토광묘의 피장자가 계층적 차이가 있었던 것 처럼 기술했는가 하면, 좌항리 유적에서의 경우에는 미세하나마 작은 구별이 보입니다. 즉 분묘의 규모라든가 출토유물의 기본조합에서는 큰 차이가 보이지 않지만, 석곽묘가 토광묘에 비하여 분명히 숫자상으로 더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토광묘는 대부분 생토층까지 들어가지는 않았습디만, 석곽묘는 생토층까지 파들어간 다음에 보다 대형의 개석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토광묘에 비해서는 석곽묘가 보다 고급스런 자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문을 준비하면서 『고려사』 형법지의 기록에 무덤의 규모를 신분에 따라 계층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시사를 받아 그대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보다 많은 조사가 이뤄져야 심도있는 설명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8호 석곽묘 출토유물의 산지 문제입니다. 당시 좌항리 고분 발굴단에는 요지발굴 경험이 풍부한 도자사 연구전문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녹청자는 인천 경서동이요, 백자는 용인 서리요, 고급청자는 강진이라는 산지 추정은 그분의 가르침에 시사받은 바 매우 큼니다. 당시 발굴조사의 결과가 알려지면서 인천시립박물관의 학예연구사가 방문했을 때도 길선생님과 같은 의문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보고서가 발간될 때까지도 인천보다 여기 용인에서 더 가까운 지역에 녹청자의 요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따라서 추가의 발굴 예가 있기 전에는 비교적 기형이 경서동과 매우 유사하므로 경서동 제작품으로 조심스럽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물론 앞으로 보다 많은 조사가 이뤄진다면 산지 문제가 보다 다양하게 재논되리라 믿습니다. 실제로 여기저기에서 많은 요지가 근래에 추가로 발견되었으나, 녹청자 요지나 고급청자 요지의 발견 예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 교역이란 용어를 사용하는데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교역이란 주고 받는 것이 되어야 할텐데 그 실상을 알지 못합니다. 다만 용인 지역과 상당한 거리에서 제작되었다고 추정되는 자기들이 용인지역의 무덤에 최종적으로 소비되었다면 어떠한 형태로든지 물품의 왕래가 있지 않았나

합니다. 현단계에서 고려시대 고분에 대한 연구는 아직도 자료수집 차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보다 많은 자료가 모아진다면 보다 명쾌한 결론에 도달하리라 봅니다. 명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사회자 : 감사합니다. 고분 문제는 현단계에서 용어, 생산지 등을 확실하게 추정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좌항리 고분은 제가 발굴자로 참여를 하기도 했기 때문에 엄익성 선생님께서 발굴 당시 많은 고생을 하신 것을 잘 알고 있고, 또 김재열 선생님께서도 많은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길경택 선생님,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십니까?

길경택 : 아닙니다. ‘고분’의 용어문제는 일단 ‘고려시대의 고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떨까 하고 제안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회자 : 예, 감사합니다. 용어문제는 학계에서 이미 김원룡 선생님이 얘기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고분’이라 하기보다는 ‘분묘’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지요. ‘분묘’라는 것은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무덤을 총칭하는 것이지, 어떻게 특정 시대를 지칭할 수 있겠는가 해서, 제가 그 용어를 수정하도록 제안해서 ‘분묘’보다는 ‘고분’이라 하고 시대는 ‘고려시대’라고 해서 ‘고려시대 고분’이라 하는 것이 어떨까 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다른 질문이 있으신 분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익(전 용인문화원장) : 오늘 발표에서는 좌항리 고려고분만 얘기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용인시 관내에는 고려시대 이전의 고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건축하거나 도로 조성할 때 환경평가만 할 것이 아니라 문화재 평가도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사회자 : 박용익 선생님의 말씀은 문화제를 아끼는 애호인으로서 또 한국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앞으로 행정하시는 분이 도시계획을 할 때는 반드시 지표조사를 해서 하나라도 유물의 발굴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건의 사항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오전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제4주제 발표 및 토론 : 용인 서봉사지 현오국사탑비에 대한 고찰〉

사회자 : 마지막으로 「용인 서봉사지 현오국사탑비에 대한 고찰」에 대한 발표가 있습니다. 오늘 발표하실 양정석 선생님께서는 고려대학교에서 공부를 하시고 지금 용인시사편찬 연구원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토론을 해주실 이병욱 선생님께서는 고려대학교 철학과 강사로 계십니다.

양정석 : 용인시사편찬 연구원 양정석입니다. 발표요지문을 읽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논문 참조)

사회자 : 감사합니다. 그런데 天台宗이라는 법맥은 教禪兩宗의 화합을 기반으로 해서 개창되었는데, 지금 발표자께서 華嚴宗과 天台宗이 배타적이라는 논지는 비약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양정석 : 배타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선생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오히려 발표문에서는 화엄종과 천태종의 밀접한 관계를 부각시키려 하였습니다.

사회자 : 예. 천태종은 모든 교파를 아우른 통일적인 차원의 종파이니까

요. 비록 그 이름은 天台宗이라고 하였지만 교리 자체는 화엄종이고 모시는 부처도 같으니가요. 그러면 이병욱 선생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욱 : 먼저 토론문의 내용을 요약하겠습니다.

(토론문 참조)

양정석 : 감사합니다. 지금 지적해주신 대로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것은 우선 ‘大覺의 餘風’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대각의 여풍’이란 것이 밝혀진다면, 義天-澄儼-宗璘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맥이, 그것도 왕족출신 화엄종 승려의 맥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막상 찾아보니 ‘대각의 여풍’이란 것이 실질적으로 나오는 사료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증사료를 중심으로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토론자께서도 말씀하신대로 사상사적인 측면에서의 접근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특히 義天이 사상적 측면에서 元曉의 ‘會通’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했고, 澄儼 역시 五敎都僧統을 받아, 물론 고려후기에 가면 오교도승통을 많이들 받습니다만, 당시 종파를 아우르려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그러한 견해에 하나를 더 덧붙여 정치적인 방면에서도 그러한 것을 찾아볼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의견을 제기해 본 것이었습니다. 특히 義天 같은 경우는 잘 알려져 있듯이 숙종 때 鑄錢 논의라든지 새로운 정치적 방법론 등을 들여온 사람으로 학계에 잘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치적 측면에서 ‘대각의 여풍’을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가정에서 유추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상적인 측면은 역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좀더 보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각론으로 들어가서, 먼저 의천 등 8명의 승려가 佛日寺라고 하는 화엄종사찰에서 受戒를 받은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실 기존에는 受戒를 받는 것에 대해 그다지 큰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최근에 受戒寺刹과 관련된 논문도 나오고 있

기는 하지만, 수계를 받는 사찰명만 나열했을 뿐이지 그것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려중기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니 까 수계사찰이 통일신라 이후부터 나오는데 이렇게 많이 겹치는 경우가 없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각기 다른 사찰에서 수계를 받게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문종 후기 의천 이후에는 고정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의종 이후에는 수계사찰의 의미가 작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려후기 불교에 있어서는 수계사찰의 의미보다는 오히려 승첩 등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았습니다. 따라서 수계사찰이 중심이 되었던 문종대부터 인종대까지 지금까지 밝혀진 8명이 똑같이 화엄종사찰에서 계를 받는 것으로 나온다는 것은 어떤 의도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문종대 이후의 왕권을 강화해가는 분위기와 연결하여 이해하였던 것입니다. 토론자께서 구체적인 증거를 좀더 찾아보라고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좀더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대각의 여풍을 잇는 것이 왕권강화와 관련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 뿐인가 라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존의 연구는 주로 義天을 중심으로 이뤄져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천이 죽은 다음 천태종 승려들은 뿔뿔이 흩어졌다고 하고, 이런 얘기가 나온 다음부터 무신란까지는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다. 마치 불교사학계에서는 하나의 공백기처럼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당시에도 불교의 영향력은 상당히 컸다고 생각할 때 이 공백이라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 승려에 주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편 이와 아울러 생각해야 할 것은 당시 의천이 어떤 관념을 가지고 이러한 행동을 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최근에 이와 관련해 많은 연구들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중국의 新法이 들어오는 것과 관련을 시키는 연구자가 많습니다. 즉 의천의 왕권강화 노력이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의천이 중국에 갔다온 다음에 의천의 사상도 상하로 바뀌듯이, 중국에 갔다온 다음에 왕안석

의 신법 계통의 정치방식을 많이 채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귀족정치보다는 왕권강화와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여풍’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왕권강화라는 것과 많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태라는 것도 단순한 천태 교리만이 아니라 왕권강화에 이용하기 위한 천태라고 한다면, 또한 어느정도 얘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로 冲曦와 玄悟國師 宗麟의 대결구도로 본 것은, 충희와 종린이 대결구도를 만들었다기 보다는 상황이 그렇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거죠. 종린이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충희가 등장함으로써 그 이후로는 종린이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라고나 할까요. 충희는 왕의 동생입니다. 왕의 동생이 사촌보다는 훨씬 왕과 더 가까운 것이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료에 이런 것이 나옵니다. 齊安公 僞의 아들 司空 璋과의 관계라든지 그 이후로 많은 뇌물을 받는다는 사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과 연결시켜 보았습니다. 또한 토론자께서는 이 이외에도 3가지 정도를 들어 주셨는데, 첫째로 귀족세력과 정치적 충돌 때문이 아닌가, 둘째로 충희가 권력층에 더 가까웠던 것 때문이 아닌가, 셋째로 현오국사의 성격 때문인가 라고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세가지 중에서 제 생각으로는 두 번째인 충희와 권력층이 더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당시는 귀족세력과 정치적 충돌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이, 의종대가 되면 고려중기에 있어서 소위 ‘당여(黨與)’라고 할 수 있는 세력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李資謙의 경원이씨 가문처럼 이전에 유력했던 가문들의 세력이 약화되는 거지요. 의종 때가 되면 어찌보면 왕권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들이 없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신에 왕에 부회되동하는 세력들, 왕에 투탁하는 세력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러한 사람들의 중심에 아마 충희가 있었지 않았나 합니다. 따라서 왕과 약간 거리가 있었던 종린은 좀더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었지 않았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간단히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 : 오늘 이 문제는 자료가 부족하고 비문 자체도 부실하기 때문에 여기서 현오국사의 실체를 밝힌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당시 화엄종 사상을 비롯한 고려시대 불교사상이 고려가 건국된 이후 선종적 차원에서 전국에 독자적으로 형성되어 있던 것이 광종대 집권화가 이뤄지면서 균여를 기점으로 해서 선종적 차원에서 통합하는 경향이 나오게 되고, 문종대에 와서는 귀족정치가 정착되어 감에 따라 대각국사 의천을 중심으로 교종 입장에서 선종을 통합해 가는 불교운동이 나오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대체로 왕권강화라는 입장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때 불교원리는 화엄종을 주지로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義湘大師의 『華嚴一乘法界圖』를 보더라도 ‘法性圓融無二相이요 諸法不動本來寂이라(법성은 원융하여 두 모습 없고, 제법은 부동하여 본래 고요하네)’ 하고, ‘一中一切 多中一이요 一即一切 多即一이라(하나 안에 일체요 다 안에 하나이며, 하나가 곧 일체요 다가 곧 하나)’ 했거든요. 이것은 교리 자체에 내포되고 있는 사상이 집권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고, 따라서 자연히 화엄종을 중심으로 해서 불교를 통합하지 않을 수 없다는 집권층의 의지와 당시 승려의 입장이 일치하여 당시 불교는 교종의 입장에서 선종을 흡수하는 통합적인 천태종이 나오게 되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대각의 여풍’에 대해 말씀드린다면, 말을 자꾸 만들면 부질없는 말이 되기 쉽지만, 의천 이후에 정치적 혼란이 생겨서 불교계는 다시 분열되게 됩니다. 이에 의종 이후에는 이것을 다시 통합해야겠다는 관점에서 현오국사를 조명하게 된다면 하나의 새로운 연구방법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렇게 발표해주신 발표자와 토론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훌륭한 학술대회를 주관해주신 문화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원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고 학술대회를 폐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권(용인문화원장) : 우리 용인의 많은 고려시대 유적지들을 면밀히 연구해 주셔서 앞으로 우리 후학들이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용인문화원에서는 앞으로 이 학술대회의 자료를 토대로 해서 용인시청 문화공보담당관실 주무담당자, 혹은 사학을 연구하시는 분들, 지방향토연구 사학자들과 함께 좀더 연구하고 노력하여 지방문화 육성발전과 전통문화 계승에 큰 밑거름이 될 것으로 약속드립니다. 오늘 양일간 수고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박수)

고려시대의 용인

© 1998, 용인시

이 책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Copyright © 1998 by Yong - In City

All right reserved. No part of this book may be used or reproduced in manner whatsoever without written permission except in the case of brief quotations embodied in critical articles or reviews.

초판 1쇄 인쇄 : 1998년 12월 10일

초판 1쇄 발행 : 1998년 12월 20일

편 집 : 용인시사편찬위원회

발 행 : 용인시 · 용인문화원

인 쇄 : 도서출판 학연문화사

서울 관악구 신림8동 1651 - 7 301호

865-5072, 858-7891

(非賣品)



최근 지방사 연구가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더불어 일종의 불을 이루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는 아직 미흡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 원인으로서는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겠지만, 강단의 역사학자와 지방사회의 향토사학자들과의 교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일 것이다.

이에 용인시사편찬위원회에서는 이들의 학술적인 교류가 지방사 연구에 있어 선결되어야 할 과제로 여기고, 우선 용인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유적 중 대외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몇몇 유적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를 행하기로 하였다. 이 과정에서 부각된 것이 바로 '고려시대'이다.